

제6차

한인세계선교대회

KWMC2008

2008.7.25(월)-8.1(금)

빌리그래함센터/윗튼대학/시카고

격려사


빌리 그레함 / 명예대회장, 세기적 복음 전도자

한인세계선교대회에 고령의 아버님을 대신하여 축하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가족은 한국과 아름다운 인연이 많습니다. 어머니는 13세부터 3년간 평양에서 여학교를 다녔고, 아버님은 서울에서 세차레나 200만 이상의 열렬한 전도집회를 인도했고, 북한에도 네차레나 방문하였습니다. KWMC 선교운동은 태동기부터 아버님의 협력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대회도 주님의 크신 축복이 계실 줄 믿습니다. - 프랭클린 그레함.


토마스 왕 / 명예대회장, Great Commission Center, 백투예루살렘운동 총재

KWMC의 전세계적 선교사역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넘치시는 축복이 금번 제6차 대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20년간 한인세계선교대회 마다 주강사로 초청받은 나는 한국교회의 복음적 신앙과 선교적 열정에 진실로 감동하였으며, 세계복음화 미완성과업 성취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진군하는 “백투예루살렘”에 함께하는 비전을 봅니다. 금번 선교대회는 이를 위한 재무장의 귀한 기회입니다.


로렌 커닝햄 / 명예대회장, YWAM 총재, 열방대학 총장

제가 섬기는 YWAM에 한인 선교사들과 젊은이들이 많이 동참하여 헌신함에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를 크게 쓰시고 계십니다. 지난 대회에 와서 한인교회들의 선교열정에 큰 감동을 받았으며 금번 차세대 영어권 대회와 특별히 성인이 된 선교사자녀대회를 통해 다문화권에 준비된 젊은이들에게 놀라운 지상명령 성취의 비전이 면면히 이어지는 대회가 될 것입니다.


방지얼 / 명예대회장, 초창기 중국선교사

어언 20년이 되었군요. 금년은 벌써 6차가 되었군요. 이번에는 더 큰 성회로서 선교 한국을 과시하는 대회가 됨으로 우리 국내외 한인 교회 모두에게 기쁨이 되며 이 일을 분부하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감지하게도 됩니다 보내는 교회,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들, 또 헌신하고자 하는 젊은이들께 크나큰 격려가 되어지는 대회가 되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큰사명을 충실이 감당하는 국내외 우리 한인 교회가 되는데 큰 기여를 바랍니다.


임동선 / 명예대회장, 동양선교교회 원로

인류는 급변하는 물질문명과 지식혁명을 경험하고 있으며 믿음, 예배, 윤리의 개념에도 도전이 닦쳐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류의 갈망은 문명의 발전보다는 생명력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축복하셔서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대회는 창의적, 조직적, 진취적이며 성숙한 대회, 지구촌 복음화를 위한 재충전의 축제가 될 줄 믿습니다.



이승계 / 공동대회장, 체리힐한인교회

선교의 대 주재이신 주 예수님의 말씀대로 대 추수기가 바짝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샅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함이니라"(요 4:35-36). 주님의 임재 하심 안에 있기를 힘써 "권능을 받고" 총력을 다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르리" 온 세상 온 민족, 온 나라를 향해 총진군합시다.



차헌회 / 명예대회장, 웨슬리세계선교회 회장

선교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선교동역자님들, 선교사님들과 평신도 사역자, 21세기를 책임질 자랑스러운 젊은 후보생 모두를 정중히 초청합니다. 천태만상으로 얼룩져가는 마지막 때 주님의 지상명령 수행을 위한 새로운 결단과 방법을 모색하여 시대적 사명을 이루도록 결속하는 세계선교올림픽에 최고 대회장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꼭 만나고 싶은 사랑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장영준 / 공동대회장, 퀸즈장로교회

이 선교대회를 성사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첫 선교사로 지구촌에 오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는 주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목숨 바쳐 선교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동역자님들이 오순절 성령감람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거룩한 대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김만우 / 공동대회장, 필라제일장로교회

88 올림픽 때 한국을 방문한 아랍 신문기자는 차기 이슬람화 대상국은 한국이라는 글을 썼다. 2005년 12월 서울서 열린 한국 이슬람 전래 50주년 기념식에서, 2020년까지 한국의 이슬람화를 선언했다. 이슬람의 세계화와 세계의 이슬람화 목표를 한국에 적용하고 있다. 인천에 이슬람 센터가 세워질 예정이다. 금번 선교대회를 통해, 한국교회에 경각심과 선교적 대처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한다.



서삼정 / 공동대회장,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하나님께서 KWMC를 지금까지 사용하시고 5차에 걸친 한인세계선교 대회를 통해서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 6 차 한인세계선교 대회야말로 주님이 속히 오시도록 준비하는 선교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추수를 위해 일터에서 일하던 모든 추수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더욱 영적 무장을 새롭게 하고 더욱 날카로운 말씀과 성령의 감을 가지고 나가서 추수에 박차를 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박희민 / 공동대회장, 재미한인기독교재단

예수님은 선교의 총사령관, 성령님은 선교의 주재이십니다. 지상명령인 세계선교는 모든 교회의 최우선 과업입니다. 불은 탈 때만 불이 되고, 종은 울릴 때만 종이 되듯이 교회는 선교할 때만 참된 교회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 세계복음화를 위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한국교회와 코리안 디아스포라교회가 충성되이 순종하므로 하나님의 인류구원의 위대한 계획이 실현되는 대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여러분을 초대하고 환영합니다.



이상남 / 공동대회장, 세계등대교회

우리는 다가올 7년 대 환란을 눈앞에 두고 있는 긴박한 마지막 추수 수확의 종말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땅끝선교는 불가불 맞물려 있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6차 한인세계선교대회야말로 중차대한 땅끝선교의 최종적 선교전략을 종합 재점검하는 동시에 임박한 환란대비와 예수님 재림을 준비시키는 영적무장의 최상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알고 깨어 준비합시다!"(벧전4:7)



정인찬 / 공동대회장, 백석대학교 목회대학원

과거 어느 때보다도 종말론적 징조가 강도 높게 나타나 이교도들의 포교활동으로 인하여 영계가 혼탁하고 지구촌이 이교도화되며 세계민족들의 심령이 어두워지고 도덕심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이때에, 이번 제6차 한인세계선교대회를 통하여 마가 다락방의 성령감람이 재현되며 각자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며 새 시대를 향한 선교의 새 장이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류현명 / 공동대회장, 디트로이트연합장로교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감싸 안으며,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그들을 변화시켜 온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킵시다. 선교현장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흩어졌던 한인디아스포라들, 목회자, 우리의 2세대들, 모두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함께 나누고, 도전받고, 협력할 뿐 아니라, 새 시대에 맞는, 새 선교전략을 수립하게 될, 뜨겁고 아름답고 성스럽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제의 시간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나광삼 / 공동대회장, 큰무리교회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쓰시고 또 지극히 사랑하시는 증거로서 확신을 가지도록 하는 행사가 KWMC에서 4년마다 주최하는 한인세계선교대회인줄 믿습니다. 가히 한인세계선교올림픽이라 불려도 손색함 없는 큰 역사입니다. 이번 선교대회는 선교사 자녀 500여명을 동시에 초청하여 함께하므로 더욱 보람되고 비전있는 시도임을 믿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여 이번 선교대회에 열매를 받으시고 더 큰 비전 주시옵소서."



박종순 / KWMA 대표회장, 총신교회 담임

선교의 빛을 안고 살아온 지 어언 120년, 이제 해묵은 빛을 갹아야 할 때입니다. 방법은 선교의 빛은 선교로 갹는 것입니다. 바울은 빛 갹기 삶으로 평생을 보냈습니다. 2008 시카고 한인선교대회는 세계선교의 진원지이자 촉발점이 될 것입니다. 선교 일등국가에로의 도약대가 될 것입니다. 모이고 기도하고 힘을 합하면 활화산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폭발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상진 / 공동대회장

1988년, 1차 대회 때 전체 한인선교사는 불과 300여명, 세계 53번째 파송국이었습니다. 당시 선교사 130명이 참석, 선교지 의상을 입고 국기를 들고 등단했을 때 함께 한 참석자 모두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2000년까지 1만명을 파송하게 해 달라고 우리의 비전을 주님앞에 간절히 올려 드렸습니다. 20년이 지난 오늘, 1만 6천이 넘는 선교사들이 178개국에 나가서 복음의 추수꾼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강승삼 / KWMA 사무총장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운데 한인선임선교사들과 한국과 미주 교회 선교지도자들, 그리고 차세대 역군들이 여섯 번째로 모이는 제6차 2008한인세계선교대회 및 세계한인선교사대회를 미국 휘튼대학교에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세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축복을 받은 한국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는 그만큼의 기대와 책임을 다시금 다짐해야 할 기회입니다.



김봉희 / 공동준비위원장, KWMC 여성선교운동본부장

교회는 선교할 때만 존재가치가 있습니다. 한민족이 전 세계에 이렇게 한재한 것은 세계선교의 주역을 맡기려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눈으로 영원한 세계를 보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선교열정으로 개교회주의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금번 선교대회에 우리 여성들이 총동원하여 적극 동참하고 헌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돌리고 역사 앞에 여성의 힘을 보여드립니다.



강준원 / 공동준비위원 단장, NC사뫼한인장로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KWMC가 세계선교대회를 시작한지 20년 세월이 헛되지 않아 그동안 엄청난 사역들을 이루었습니다. 금번 대회는 선교사대회, 본대회, 선교사자녀대회, 어린이대회, 그리고 특별히 위성-TV를 통한 전세계 원주민사역자 신학재교육방송은 세계선교전략에 획기적인 열매를 가져올 것입니다. 북미주 4,000여 교회와 함께 이 선교운동을 이끌어 오신 전/현직 의장단들과 실무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김영진 / 공동준비위원장, 예전위원장, 나성한인교회

1차 대회가 열리던 해, 서울올림픽이 있었고 이번 6차 대회 뒤에는 북경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그와 함께 중국은 그 영향력을 확대해 갈 것입니다. 올림픽은 나라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지만 선교대회는 나라와 종족을 살리는 생명운동입니다. 올림픽 후 한민족은 173개국에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이번 6차 대회는 한민족 선교용사들과 북미주 한인교회와 선교동역자들이 모여 한민족의 세계선교역량을 크게 증가시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선헌춘 / 공동준비위원장, 진행위원장, 주 예수교회

북미주 한인 디아스포라 이민교회의 선교사명은 독특합니다. 7천만 한민족의 10%인 7백만 해외동포가 150여국에 세계 제 2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한민족 디아스포라 교회는 모국의 한국교회와 더불어 세계선교의 동반자로서 서로 함께 협력해야만 합니다. 금번 대회가 북미주 한인 이민교회의 세계선교 역할에 역사적 발전의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박은우 / 본부사역단장, 브라운스빌열린문교회

한국선교역사상 가장 큰 장벽에 부딪혔던 2007년 한 해 동안 2,801명이 선교현장을 향해 나갔다는 보고를 우리는 듣고 있다. 교회마다 선교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었다. 그러나 이제 함께 한 자리에 모여 다시 한번 세계선교를 위한 한인교회들의 제각성과 새로운 목표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시고 다시 충만케 세우시며 능력을 부어 주시는 오순절 성령강림사건과 같은 역사가들이 제6차 선교대회를 통해 일어날 것이다.



석창권 / 시카고KWMC 회장, 시카고 한인교회

KWMC 한인세계선교대회는 한국교회의 자랑이요, 한국선교의 축제 한마당으로서 미주한인교계의 선교운동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사람들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금년 6차대회는 규모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 역대 최고의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카고 교계는 전세계 선교지에서 대회참석을 위해 시카고를 방문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정성을 다하여 섬기겠습니다.



장순호 / WKMF 대표회장

제6차 세계한인선교대회와 제13차 세계한인선교사 대회를 축복하셔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 선교를 재정비하고 회복시키는 뜻 깊은 성회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경처럼 사도같이" 순수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지상명령 수행과 남은 과업 완수를 위한 10만 한인선교사, 100만 선교동역자 시대를 여는 힘찬 출발을 기대합니다.



안경희 / 공동총무단, KWMC 미전도종족선교운동본부장

세계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낸 한인세계선교대회! 지역교회 중심의 미전도종족 개척선교의 시대를 열어 세계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왔습니다. 2008년 대회도 한인교회가 마지막 남아 있는 과업인 3천 4백 미개척 미전도 종족들을 개척하는 일에 역사적인 진보를 가져 오게 할 것입니다. 전 세계 교회들을 총동원하여 모든 미전도 종족들을 복음화 하는 마지막 대추수기의 역사적인 세계선교대회에 동참합시다.



강대호 / WKMF 사무총장, GMS 선교총무

제6차 선교대회와 제13차 선교사대회는 건강한 선교현장을 세우려는 세계한인선교사회(WKMF)의 방향에 맞춰 실제적인 22개의 이슈로 포럼이 진행될 것입니다. 『성경처럼! 사도같이!』를 주제로 전세계에서 오시는 1,000여명의 선교사님들과의 협력의 장이 될 것이며, 차세대 MK들과의 연대적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도전하고 마지막 주자로서 한국교회가 쓰임 받도록 여러분을 이번 선교대회에 초대합니다.



백은영 / KWMC 북미주선교단체포럼 총무 GP USA 대표

KWMC의 한인세계선교대회는 잠자던 북미의 한인교회를 깨우는 선교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북미의 한인 선교단체만도 50개가 넘어섰습니다. 북미의 선교단체들이 세계선교를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하나가 되어 협력해야 하는 긴박성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북미주선교단체전략포럼을 통해 세계선교의 새로운 돌파구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승한 / 영어권 차세대선교대회 코디네이터

한인세계선교 대회는 나에게 참 특별합니다. 3,500여 미주한인교회들이 동참하는 규모, 200명의 세계적인 강사들, 그리고 5,000명의 선교동반자들이 함께 모인다는 것도 물론 깊은 인상을 주었지만, 전세계에서 애쓰고 힘쓰는 선교사님들을 한자리에 불러모아 용기를 북돋으며, 위로하며, 새롭게 영감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뚜렷하신 임재함이었습니다. 금번에 영어권 차세대선교대회의 일익을 담당하는 책임을 맡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강은혜 / 선교사자녀선교대회 총무

이번 제1회 선교사자녀대회는 선교사대회와 연계하여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축복하셔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많은 선교사자녀들도 세계 각지에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MK 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이 대회를 통해 MK들이 서로 만나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일들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초청의 글

제6차 한인세계선교대회 초청의 글

사무총장 **고석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며, 지구촌복음화의 미완성과업(Unfinished Task of Global Evangelization)에 대한 긴박성을 절감하는 범세계 교회들과 선교운동들이 강권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금세기를 『천국추수의 최종년대』(The Final Era of the Harvest for the Kingdom of God)로 상정하고 도처에서 총력매진하는 현시점에 열리는 제6차 한인세계선교대회(KWMC2008)는 지구촌 완전복음화를 위한 위대한 비전과 열망, 그리고 선교적 대각성과 총동원을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에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성명』(The Vision Statement of God)이라고 확신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마 28:19)는 세계선교의 대사명(Great Commission)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마 22:39)는 인류애의 대계명(Great Commandment)을 분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좇아 현재 한국교회가 오대양 육대주에 파송한 해외선교사는 무려 168개국에 18,625명으로 추산되며(이중소속을 고려하면 17,697명으로 추정) 이를 직분별로 보면 교역자 6,679명(35.9%), 그 배우자 5,644명(30.3%), 평신도 6,302명(33.8%)으로 나뉘며 기간별로 보면 3년 이상 장기선교사는 17,352명(93%) 그 이하 단기선교사는 1,273명(7%)으로 나뉘고, 성별로 보면 남선교사 8,764명(47%), 여선교사 9,861명(53%)이며, 결혼별로 보면 부부선교사는 7,913가정에 15,826명(85%), 독신선교사는 2,799명(15%) 그리고 권역별로 보면 아시아에는 33개국에 10,594명(57%), 유럽에는 41개국에 1,861명, 아프리카에는 60개국에 1,732명, 아메리카에는 23개국에 2,959명, 오세아니아에는 남태평양 11개국에 665명의 선교사가 달려나가 생명과 생애를 그 땅에 관유처럼 쏟아부었고 있으며, 선교사 자녀들도 무려 15,000여명이 그 척박한 땅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장엄한 행렬입니까!
오대양 육대주, 열풍이 몰아치는 사하라사막에서 북풍한설이 몰아치는 시베리아설원까지, 산악과 평야, 도시와 촌락, 오지와 섬들 그리고 감옥과 유형지에서, 혹은 백척간두의 두만강변에서 험악한 세월을 가슴으로 헤치며 구렁의 열정으로 그 심장을 불태우며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며 생명을 포기하며 고난을 찬미하며 『매를 맞으며 차지 못하고 주리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으며』(고후 11:23-27)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권세와 영광의 확장을 위해 승리의 십자가를 높이 들고 성령과 더불어 달려가는 저 위대한 복음의 전령들! 저 고독한 믿음의 영웅들! 오늘도 불멸의 선교행진을 하나님의 책에 그리고 박동하는 자기 심장에 기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곧 지구촌완전복음화의 찬연한 비전 그 위대한 역사창조의 새벽을 응시하는 저 불타는 여명의 눈동자들이여! 오 그대들은 어찌 이다지도 멋지게 휘몰아치며 소용돌이치며 도도히 흘러갈 수 있단 말인가! 천고(千古)의 강물처럼, 천년을 굽이쳐 흘러가는 저 유장한 강물처럼 그렇게! 그렇게!

제6차 한인세계선교대회(KWMC2008)는 정녕 이렇게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1,200명의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위시하여 500명의 선교사 자녀들, 그리고 목회자, 신학자, 평신도, 차세대 대학생, 청소년 등 5,000명의 선교동반자들이 한마당에 모여 만남의 감격, 사랑의 교제, 비전의 융합, 기도의 연합, 사명의 재무장, 전인치유와 영적회복, 성령의 재충만, 정보와 전략의 상호교류 그리고 한국교회 선교역량의 촉진(Catalyzing), 동원(Mobilizing), 번식(Multiplying)을 도모하는 역사적인 동반자협력선교의 대광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고백과 또한 상실된 영혼들을 향한 구렁의 열정이 불길처럼 타오를 오 순절적 성령폭발의 현장, 그 위대한 선교축제의 대광장에서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저 높은 하늘 보좌를 우리르며 삼가 귀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하신 이름으로 초청하는 바입니다.

제6차 한인세계선교대회 조직

명예대회장 빌리 그래함 토마스 왕 랄프 윈터 로렌 커닝햄 로버트 콜맨 론 엘리스 방지일 계화삼 임동선 차현희 박재훈 조동진 이승만 최찬영

증경대회장 고인호 김득렬 김상모 김의환 김택규 김택용 나운태 림택권 서준택 송용걸 안병국 안성기 이원상 정남식 조천일 한진관

공동대회장 이승제 김만우 장영춘 박희민 서삼정 이상남 정인찬 나광삼 류효명 이상진

대회자문 계동춘 김명도 김선배 김용주 김찬희 김창제 김화일 문대연 박이섭 박희소 송천호 이상현 이정근 진종락 홍춘만 황보연준

사무총장 고석희
서기 배현찬 **부서기** 안영철 **회계** 이상진 **부회계** 최용식 **감사** 박은우 **부감사** 안영섭

공동준비위원단장 강준원
공동총무단장 이승중
예전위원장 김영진
본부사역단장 박은우
진행위원장 배현찬

공동준비위원장 김경진 김남수 김세웅 김영진 김정부 림형천 박사무엘 박은우 박헌성 배현찬 이영섭 이용걸 임현수 강준원/단장 장동찬 전덕영 전희근 제석호 최광언 최낙신 한기홍 황은영 황의춘 김봉희 이익화
평신도선교운동본부장 류효명
여성선교운동본부장 김봉희 이익화

공동총무단 김동선 김승욱 김용립 김유신 김재성 김정우 김진환 김풍운 김현인 김혜택 남재신 노정각 문석호 이승중/단장 박집밥 박대우 서창권 송영일 안강희 안영섭 안영철 여병현 오재호 윤덕곤 윤상돈 이문연 이재호 이정수 이형석 장춘원 조일구 주 활 지용주 최은종 홍중수

공동부대회장 강세대 강재구 강준민 강준원 김경진 김남수 김동선 김만풍 김봉희 김상돈 김상하 김세웅 김수태 김승욱 김영길 김영진 김영훈 김용립 김유신 김원기 김재성 김재열 김정부 김정부 김정호 김진환 김춘근 김풍운 김현인 김혜택 김희원 남궁전 남재신 노승환 노정각 림형천 명돈의 명치호 문석호 문대주 문형준 박광자 박대우 박사무엘 박상진 박은우 박집밥 박철순 박헌성 배현찬 백송학 백형권 변인복 서인구 서창권 송민호 송성엽 송성자 송영일 송영재 안강희 안민성 안창의 양국주 안영섭 안영철 양희철 여병현 오재호 유재송 윤대식 윤덕곤 윤사무엘 윤상돈 윤철환 이광훈 이동수 이문연 이순근 이순옥 이승중 이안식 이영섭 이영식 이용걸 이익화 이재호 이정수 이종민 이종형 이형석 이훈경 임현수 장남용 장동찬 장석진 장진용 장춘원 장현식 전덕영 전익삼 전희근 정인수 제석호 조일구 주 활 지용주 최계순 최광언 최낙신 최 민 최병수 최영기 최용걸 최유찬 최일식 최은종 한기홍 한중수 허상희 호성기 홍원기 홍중수 황성주 황은영 황의춘

공동중앙위원 강부웅 강성수 강일용 강재구 강진석 고승희 고인호 고영민 고재동 고형식 곽경동 구경모 구성모 구자경 권순원 김경환 김광석 김기석 김기형 김기호 김길홍 김다니엘 김대호 김대환 김동권 김득렬 김명남 김범무 김병모 김상우 김상하 김선만 김사무엘 김 영 김영도 김용준 김원중 김익곤 김재준 김정부 김정한 김정호 김종기 김종길 김중성 김철용 김치길 김태권 김태현 김평덕 김 혁 김현완 김현일 김현환 김현희 김홍덕 김희복 김희연 김효남 나구용 나균용 남궁전 남수진 노기송 노인환 노진걸 노하덕 도육환 류동수 명돈의 명치호 문명길 박규완 박대일 박덕은 박만호 박상일 박성근 박성호 박수복 박영국 박영덕 박오성 박원철 박지원 박찬수 박현승 방봉균 배동환 배상호 배수향 백 순 서기원 서병도 석진철 성기태 손영구 송광률 송규식 송금섭 송병기 송성자 송우진 송인규 송주방 송호철 신성국 신인훈 신현모 심영석 안근성 안성기 안요한 안정남 양부환 양정용 양진영 양춘길 양춘호 양태철 여병현 염정은 염정효 염종석 오벤자민 오주영 옥승웅 우성원 우수명 우종인 원세종 원종수 유근희 유성준 유영기 유제원 유재호 윤치현 유찬희 유천형 유충식 윤기용 윤대식 윤봉상 윤승곤 윤여희 윤영복 윤용주 윤은철 윤치현 이경화 이광수 이길표 이대섭 이데빛 이데이빗 이도한 이명규 이봉춘 이상길 이상천 이성수 이성철 이숙자 이순영 이순정 이승제 이승준 이승태 이승호 이승희 이영승 이요한 이용로 이우섭 이장우 이재선 이정순 이종배 이종복 이지용 이진중 이창범 이철원 이항모 이혁중 이홍수 이희문 임명숙 임승환 임용탁 임용수 임형태 임홍섭 장새균 장순애 장인석 장재필 장준호 장창호 장춘원 전성철 전성호 전 용 정관일 정관희 전광희 정남식 정상균 정승호 정운교 정운길 정혜경 제임록 조광철 조기철 조덕진 조성지 조문휘 조봉환 조영철 조영팔 조계언 조현배 조호중 지영환 지용호 진성인 진영길 진요한 진종호 진중용 차경태 차주성 최승환 최영은 최우인 최윤옥 최일인 최진호 최형관 하영진 한기웅 한석현 한창희 허용구 홍명철 홍인석 홍중수 홍황식 황경일 황규만 황석형 황선규 황준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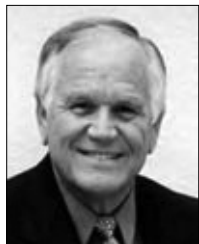
시카고 KWMC 고문 강인덕 김영길 안성기 회장 서창권 부회장 김광태 유남수 안정국 총무 곽호경 서기 김광섭 회계 한준일 영어권선교대회 준비위원장 장춘원

주강사



라인하르트 본케 / 세기적 복음전도자, Christ for All Nations 선교회 총재

위대한 구령의 열정과 불길같은 성령의 권능으로 지난 30년간 지구촌의 방황하는 영혼들 1억명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했고, 특히 100만 내지 150만명의 대인파가 움직이는, 매년 12번씩 열리는 아프리카 대륙 횡단 순회전도집회를 통해 4,4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이 <하나님의 사람>은 1940년 독일의 목사가정에서 출생, 영국 웨일즈에서 신학교육훈련을 받았고 독일에서 7년간 목회하던 중 선교사의 소명을 받고 남아프리카 산간지역의 작은 나라 레소토를 찾아가, 그 척박한 불모지에서 원주민들의 고통하는 영혼을 끌어안고 울며 기도하던 중 주 성령께서 그 젊은 종의 마음속에, 아프리카 전대륙 끝 케이프타운부터 카이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뒤덮혀진 위대한 환상을 보여 주셔서 <열방을 위한 그리스도> (Christ for all Nations, CfaN) 선교회를 설립하고, 1984년 800명으로 시작된 전도집회가 곧 34,000명의 초대형 텐트집회로, 그리고 수년 내에 15만명이 모이는 노천복음전도집회로, 그리고 수년전 부터는 100만명 이상이 모이는 초대형 집회로 확장되었고 말씀과 치유의 강한 능력이 나타났으며, 『minus to plus』 등 전도책자는 1억 9천만부가 143개국어로 54개국에서 출간되었고, 이른바 『불집회』(Fire Conference)와 인터넷전도학교인 『라인하르트 본케 불의 학교』(R. Bonnke School of Fire)를 통해 제3세계 교회지도자들과 차세대 복음전도지도자훈련은 오늘도 세계 도처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그 찬란한 날이 이르기까지 그의 헌신과 전도사역은 이렇게 계속될 것이다. 주요 저서로 『불의 전도』,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는 믿음』, 『11시 59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부흥, 성령의 축제』, 『성령의 은사와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등이 있다.



로렌 커닝햄 / YWAM 총재, 열방대학 총장

우리 세대를 대표하는 탁월한 영적 지도자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인 로렌 커닝햄은 1960부터 지난 반세기 동안 예수의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정예부대로 훈련시켜 선교단체로는 가장 많은 4,000명 이상의 장단기 선교사를 세계복음화 최전방에 배치시킨 막강한 YWAM (Youth With A Mission)을 창립했으며, 또한 하와이 코나와 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두고 110개국의 250개 캠퍼스에 700명 이상의 전임교수를 보유한 『열방대학』(University of the Nations)을 세워 전세계의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본인성교육과 기독교 사역, SBS성경연구, 정보통신, 카운셀링, 의료봉사, 예술, 과학기술 등의 고등교육 과정을 가르치는 국제적인 대학수준으로 성장시켰다. 저서로 『하나님 정말 당신입니까?』, 『예수를 주로 삼아라』, 『벼랑 끝의 삶』 등이 있다.



랄프 윈터 / US Center For World Mission 총재

미국세계선교운동의 대부(代父) 랄프 윈터 박사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함락한 여호수아처럼 LA 파사데나에 2천만불 상당의 선교센터건물을 기도의 빈 손으로 구입하는 기적을 창조한 믿음의 거장으로 유명하며 1956년 장로교 목사로 안수, 곧장 과테말라 산지의 마야종족을 위한 선교사로 나가 10년간 사역하였고, 그 후 10년간은 폴리신학교 세계선교대학원에 초빙되어 도널드 맥가브란과 함께 1,000여명의 후진 선교사를 양성하였으며 1976년부터는 독자적인 선교행보를 시작, 『퍼스펙티브 훈련 프로그램』(Perspective Study Program)을 창안하고 『개척자 선교회』(Frontier Mission Fellowship)를 설립했는데 이 선교회는 후에 미국세계선교센터(US Center for World Mission)와 윌리엄케리국제대학의 모체가 되었다. 그는 지난 30년간 막강한 영향력으로 최전방개척선교운동을 펼치며 『미전도종족선교운동시대』를 열었고, 지금도 수많은 천국추수꾼들의 심장에 불을 질러대는 위대한 방화범으로 여전히 쓰임받고 있다.



토마스 왕 / Great Commission Center, 백투예루살렘운동 총재

제3 세계선교운동의 가장 존경받는 영도자 토마스 왕 (王永信) 박사는 중국 북경 3대째 기독교가정에서 출생, 11세때 전도자 존 성을 통해 회심, 왕명도 목사에게 양육받고, 1961년 『중국기독교선교회』를, 1976년 『중국세계선교협의회』를 창설, 1987년 로잔 사무총장에 피택, 1989년 『제2차 마닐라 로잔세계선교대회』를 총괄하였고 그때 『기독교 21세기 운동』을 일으켜 미전도종족복음화에 총력을 기울였고 1989년 대사명신학교/선교센터를 세워 중국어권 선교사역자양성에 주력하였으며 현재는 중국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선교대장정을 위한 『백투예루살렘운동』을 총괄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년간 바울과 디모데처럼 본대회 사무총장 고석희 목사와 부자의 연을 맺고 초창기부터 빌리 그래함과 함께 각별한 애정과 열정으로 KWMC선교운동을 배후에서 크게 도와 주셨다.



폴 에슐러만 / CCC 부총재 / 『예수영화』(Jesus Film) 창안자

1,000 개의 언어로 번역, 236개국에서 6억번 이상 상영된 『예수영화』를 창안하고 지난 25년간 디렉터로 섬겨온 폴 에셀먼 박사는 1966년 CCC에 헌신하여 현재 부총재로 전도와 선교전략 자문을 총괄하고 있다. 또한 『Finishing the Task Movement』를 통해 전세계 639개 미전도종족을 향한 최전방 개척선교를 펼치며 『국제오랄네트워크』를 통해 성경이 없는 3천개 언어를 위한 성경녹음사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로잔운동 전략그룹』 의장직을 맡고 있다. 저서로 『I Just Saw Jesus』 등이 있다.



스티브 세인트 / 에콰도르 순교선교사의 아들, 『창의 끝』 저자

에콰도르 오지 식인종 와오다니 인디언들의 대창에 찢려 죽임을 당한 헛튼대학 출신 5명의 미국 선교사 중 하나인 네이트 세인트의 네살난 아들로 에콰도르에서 성장, 13세 때 아버지를 죽인 인디언 가운데 목사가 된 원수의 손에 아버지가 순교당한 콰라레이 강가에서 침례를 받았다. 당시 5명 선교사의 순교는 『선교사 대학살 사건』으로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현재 그는 원수였던 인디언들에게 화해와 용서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신앙훈련, 직업훈련, 기술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아버지의 순교와 자신의 선교 이야기를 담고 있는 『창의 끝(End of the Spear)』 저자이며 이것은 영화화되기도 하였다.



글래디스 스테인스 / 인도 순교선교사의 아내

호주출신 20세의 젊은 의료선교사, 그래함 스테인스는 1965년부터 인도 오리샤의 나환자촌에서 35년간 헌신하던 중 1999년 1월 두 아들과 한두축체에 참석했다가 차에서 잠을 자던 중 반기독교정당 RSS측 50명의 괴한들이 습격, 불지른 짚차에 갇혀 산 채로 타 죽게 된다. 그 후 재판과정에서 아내와 딸은 정부에 무죄석방을 탄원, 11억의 인도를 예수의 사랑으로 울렸다. 아내는 그후에도 25개 나환자선교관, 나환자재활농장 등을 섬겼고 그래함스테인스기념병원이 세워졌다. 약사인 딸의 꿈은 아버지의 뒤를 잇는 것이다.



조동진 / 조동진 선교학연구소 소장

한국교회 세계선교운동의 위대한 선도자이다. 1963년 『국제선교신학원』(ISM)을 설립, 1973년 『동서선교연구개발원』(EWC)으로 확장, 동년에 『아시아선교협의회』(AMA)창립을 주도, 1974년 제1회 로잔대회 강사로 선교구조 쇄신을 역설, 1980년 『바울의집』을 세워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였고 1989년 이래 20회 이상 북한을 방문, 김일성 주석과 세차레 단독회담 후 김일성종합대학과 평양신학교의 교수로 위촉되고 빌리 그래함과 지미 카터의 평양방문을 주선하였다. 80세가 된 2004년 후학동문들의 후원으로 『조동진 선교학연구소』를 설립하고 『세계선교박물관』 설립을 추진중이다.



이동휘 / 바울선교회 회장, 전주 안디옥교회 원로

1983년 미군 창고구조물로 전주안디옥교회(일명 강동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위해 불편하게 살자"라며 일평생 선교와 구제를 위해 온 몸을 다 바친 충성된 종은 교회재정의 70% 이상을 세계선교에 사용하며 그 흔한 자가용 하나 없이 검소와 절제의 삶을 살아왔다. 또한 단독교회의 틀을 벗어나 초교파적 선교단체인 『바울선교회』를 만들어 현재 80여개국 320여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세계선교의 큰 획을 긋기도 했다. 23년 사역후 원로목사로 추대된 이목사의 자녀 4명도 선교사로 바쳤다. 현재 『바울선교회』를 총괄 지휘하며 선교집회 등을 통해 지역교회 선교활성화에 주력한다.



변상훈 / KWMA 대표회장, 총신교회 담임

한국교회의 세계선교운동을 초교파적으로 총괄하고 선도하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대표회장이며 1976년 이래 30여년의 모범적인 목회사역을 통해 총신교회를 놀랍게 성장시킨 그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을 역임했고 활발한 대사회봉사활동을 펼쳤으며 『남북나눔이사회』를 통해 분단된 조국통일 문제에도, 그리고 『형목제도추진위원회』 공동의장으로 인권운동에도 앞장서 왔다. 또한 영감어린 문장력으로 총 25권의 저서를 펴냈고 각종 신문잡지 칼럼등을 통해 끊임없이 한국교회갱신과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큰 몫을 담당해 왔다.



강승삼 /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사무총장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사무총장으로, 한국의 모든 교단과 선교단체들이 초교파적으로 연대한 막강한 세계선교네트워크의 한복판에 낙락장송처럼 우뚝 서서 한국선교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그는 젊은 날엔 나이저리아 선교사로 헌신, 12년간 교회개혁, 신학교 설립, 현지지도자 양성 등 아름다운 헌신을 했다. 총신대신대원(M.Div.), 컬럼비아국제대학(M.A. in Mission), 트리니티신학대학에서 선교학 박사를 하고 세계복음주의협의회 선교분과위원, 아세아복음주의협의회 선교위원장, 10만선교사파송을 위한 Target2030 본부장 등을 역임한다.



장영신 / 퀸즈 장로교회 담임

1973년 뉴욕에 교회를 개척, 35년간 복음주의적 열정의 목회를 통해 미동부 최대의 교회중 하나로 성장시킨 능력의 목회자이며 『미주크리스찬신문』을 발행, 문서선교운동에도 앞장서며 『동부개혁장로신학교』를 설립, 후진양성에도 진력하고 있다. 총신대 대학원, 샌주얼신학교, 페이스신학교를 거쳐 캘리포니아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했다. 대뉴욕지구 교협 회장, 미주한인예장 총회장, 미주기독교복방선교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였고 주요 저서로는 『살아있는 나침반』, 『아가페와 필레오의 대화』, 『예수님의 눈물』, 『평화의 이상』, 『테오빌로여』 등이 있다.



이승계 / 체리힐 한인교회 담임

『선교사는 왕이요, 목사는 종이다!』 파송교회는 파송선교사를 왕처럼 섬기라고 외치며 일선선교사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품고 선교현장을 찾아 다니며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을 뿐 아니라 KWMC선교사역 후원운동본부장으로서 북미주 교회들로 하여금 영적, 인적, 재정적으로 선교사를 도와야 한다고 독려하는 그는 1983년부터 지난 25년간 이민목회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KIM-USA 부이사장, GMF-USA 이사장, 등 선교활동을 통해 수많은 선교사를 배출, 후원했으며 또한 북한식량후원운동본부장으로 그간 상당한 분량의 쌀과 의약품을 복송하는 일을 주도했다.



김만우 / 필라 제일장로교회 담임

중동선교사의 아버지라는 애칭을 받을만큼 중동지역과 위험한 창의적 접근지역에서 사역하는 한인선교사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소유하고 중동선교사협의회(MEMA) 고문으로서 지난 20여년간 본교회의 목회역량을 중동에 쏟아부은 특이한 목회자이며 재미 한인예수교장로회(고신측) 총회장으로 교단의 선교활동을 주도할 뿐 아니라 재미학생신앙운동(SFC) 지도위원장으로 대학생 청년 신앙운동에도 크게 헌신하고 있다. 연세대학교와 동대학원,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고 밀알선교단 고문, 중동선교대학원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방희민 / 재미 한인 기독교재단 KCMUSA 이사장

남가주 교계를 대표하는 교역자인 그는 나성영락교회를 미주이민교계의 대표적 교회로 성장시켰고 은퇴한 후에도 『재미한인기독교재단』(KCMUSA) 이사장 미주장로회신학대학 이사장, 새생명선교회 대표, 빌리그래함 전도대회의 한인 대표대회장, 조국사랑 이사장, 남가주성서화운동본부 대표 등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장로회 신학대학(M.Div.), 토론토신학대학원(D.Min.)을 했고 특히 젊은 시절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다년간 청춘을 바쳐 빛나는 생애의 한부분을 주님께 드렸다



서삼정 / 아틀란타 제일장로교회 담임

『예수믿는 맛』 시리즈로 펴낸 『영성이 살아야 예수믿는 맛이 난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예수믿는 맛이 난다』, 『예배가 살아야 예수믿는 맛이 난다』는 그의 저서에서 보듯 그는 성령의 사람으로 깊은 영성목회를 통해 지난 32년간 미동남부지역 최대의 한인교회를 만들어냈고 능력있는 설교가로 전국적인 부흥집회사역을 펼쳤고, 또한 삶의 여울목에 흐르는 고난의 노래들을 신앙고백으로 승화시켜 영감넘치는 시편으로 엮은 시집 『조약돌』을 세상에 선보인 아름다운 감성의 사역자이다. 미주기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 세계복음화협의회 미국총재 등을 역임했다.



정인찬 / 백석대 목회대학원장

방대한 『성서대백과사전』(15권)을 저술한 해박한 성서신학자요, 성령의 은혜가 깊은 영성의 목회자요, 덕망과 포용력을 갖춘 겸허한 인격자라는 인정을 받으며 휴스턴한인교회를 미남부 최대의 한인교회로 성장시켰고 전국적 부흥집회를 통해 이민교회를 든든히 세웠던 충성된 종은 현재는 한국에서 기독교 명문인 백석대 목회대학원 원장으로 그동안 쌓아온 목회학과 영성신학을 강의하며 목회자양육과 선교사훈련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숭전대, 호서대 교수, 휴스턴신학대학 학장, 미주통일선교대학 학장,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상남 / 세계 등대교회 담임

45년의 성역을 통해 목회자로, 부흥사로, 주와 동행하는 예수제자양성을 위한 『왕의복음선교훈련원』(KCI) 사역으로 70여개국에서 선교사영성집회를 수없이 인도하며 늦은 비의 성령폭발을 목도해 온 종으로 목회도중 자아가 깨어지는 영적대변혁을 경험한 후, 종말론적 성화의 복음메시지를 외치고 있다. 남가주 굴지의 세계등대교회를 섬기며 KWMC 급년도 대표의장이다. 성결신학대학, 숭전대학교, 서울신학대학원을 나와 캘리포니아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를 했다. 『왕의 복음』, 『주와 동행하는 생활』, 『재림과 휴거』, 『인생의 본질과 급선무』 등 저서가 있다.



나광삼 / 큰무리교회 담임

이민목회 30년의 광야길에서 큰무리교회의 위대한 성장을 일궈낸 그는 능력있는 말씀의 종으로 한국과 북미주를 집철하는 연중 25회 이상의 부흥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웠다. 또한 『21세기 요셉운동』을 창설, 청소년 신앙부흥운동을 10년째 전개하며 옛날 애굽의 이질문명 속에서 여호와 신앙으로 세상과 자신을 극복했던 요셉을 본받아 주 안에서 강한 자아각성과 신앙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아름다운 사역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와싱턴개혁장로회 신학교 이사장으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총회신대원(M.Div.), 웨이스신학대학원(D.Min.)을 했다.



이승중 / 샌디에고 예수마음교회 담임

이민교회를 한국교회의 연장이 아닌 선교적 시각으로 볼 때 5천년 민족사에 세계선교의 여울목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분복이라 믿는 그는 사역보다 먼저 사람이라는 고백을 품고 이민교회 차세대 인물양성을 위한 사역기구인 『어깨동무사역원』을 설립, 내일의 씨앗을 심어가고 있다. 장신대, 리버티대학, 샌추럴 침례신학교(M.Div), 샌프란시스코신학교(D.Min)를 수료하였고 몽골국제대학교 대표이사, NorthField Foundation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1세, 1.5세, 2세의 동반사역을 통한 이민모델교회상 정립에 힘쓰고 있다. 저서는 『목양심서』, 『선비기독인』 등이 있다.



임한수 / 토론토 큰빛교회 담임

큰빛교회를 캐나다 최대규모의 한인교회로 성장시킨 그는 대성한 목회를 기반으로 모든 역량을 지구촌 복음화에 투입하는 가운데 특히 북한처럼 위험도가 높은 창의적 접근지역이나 미전도종족입양운동 등 최전방 개척선교에 대한 각별한 비전과 열정을 불태우는 종으로 북한지역만 해도 양로원, 어린이집, 학교사역, 주유소, 빵공장 등 다양한 선교사역을 펼치고 있다. 젊은날에는 10년 이상을 CCC 및 GCTC 훈련간사로 봉사했고 현재는 GAP(세계협력선교회) 총재, 중국가나안농학교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캐나다 전역의 미전도종족선교운동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한기홍 / 남가주 은혜한인교회 담임

전세계 48개국에 209명의 선교사를 파송, 백만여명의 원주민 교인을 품은 8천여개의 현지교회를 개척해 낸 막강한 G.M.I. 선교운동은 종이 섬기는 은혜한인교회를 모체로 하며 이는 초창기부터 세계선교를 최우선 목회과제로 정하고 교회 재정의 50%를 선교에 투자한 아름다운 열매이다. 그는 정치가의 꿈을 안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으나 주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고 성직의 길에 생애를 던졌다. Alliance Seminary (M.Div.), CA Union 신학대학원(D.Min.)을 수학, 남가주오렌지카운티교협 회장, KIMNET 회장, 미주 OM 부이사장, G.M.I. 선교대학 이사장 등을 역임한다.

일시	7/28(월)	7/29(화)	7/30(수)	7/31(목)	8/1(금)
07:00 AM		새벽기도회 Early Morning Worship			
		나광삼 나를 보내신 증거	김영진 로버트 모리슨처럼 미래를 바라보는 선교를!	한기홍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자	이성철 성령의 권능으로
		강은혜 /MK Korea	한도수 /바울선교회	이인숙 /일본	이병구 /인도
08:00 AM	아침식사/전시장 Breakfast				
09:00 AM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아틀란타 제일장로교회			토론토큰빛교회 찬양팀	
09:20 AM	성경강해 Bible Exposition				
	서삼정 사도행전을 통해 배우는 "성령과 선교"	박종순 바울서신과 선교비전	이상남 말라기에 나타난 추수 종말시대의 긴박성	정인찬 아시아의 빛에서 본 선교비전	
10:00 AM	주제강연 I Plenary Session I				
	랄프 윈터 지구촌의 선교동향	폴 에실맨 남아 있는 미전도종족들 을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	조동진 21세기 한국교회의 세계선교 지도력개발과 선교신학의 정립	토마스 왕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삶	
10:40 AM	주제강연 II Plenary Session II				
	박희민 북미주 한인선교의 현황과 전략	임현수 북한선교, 교회의 총체적 접근	이동휘 세계로 출발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승중 차세대세계선교 아젠다	
11:20 AM	주제강연 III Plenary Session III				폐회예배
	강승삼 한국교회 세계선교운동의 평가와 미래..	김만우 중동 이슬람 이해	김남수 세계선교의 전략과 전술		강준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12:00 PM	점심식사/전시장 Lunch/Exhibition				
01:40 PM	Exhibition Opens				
	선교도전	교제와 전시 Fellowship & Exhibition	선교도전		2012년에 만남시다!
	글래디스 스테인스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		스티브 세인트 하나님이 쓰신 이야기		
	선교도전		선교도전		
02:20 PM	3:30-5:30 저녁식사 Dinner	KWMF 선교사와 선교사의 인정	KWMF 단기선교! 이대로그가 좋은가?		
	6:00-7:30 선교사 입장 개회예배				
03:00 PM	Opening Ceremony				
03:30 PM	선택강좌 I Seminars I				
04:30 PM	휴식/전시장 Break/Exhibition				
05:00 PM	선택강좌 II Seminars II				
06:00 PM	저녁식사/전시장 Dinner/Exhibition				
07:20 PM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아틀란타 제일장로교회			토론토큰빛교회 찬양팀	
08:00 PM	저녁선교대회 영적회복, 전인치유, 재현신의 성령대축제!				
	로렌 커닝햄 운명의 사람들	라인하르트본케 불의 설교	라인하르트본케 하나님의 시간 11시 59분	장영춘 미완성과업의 마지막주자로 열방은 부른다 한민족교회를!	
	정여호수아 /카작스탄 이종실 /체코공화국 안창호 /말리	양춘석 /인도네시아 김정림 /탄자니아 김성제 /볼리비아	민흥기 /스리랑카 이상덕 /케냐 박선자 /러시아	홍성애 /브라질 류수혜 /앙골라/테시 권경숙 /모리타니아	



개회예배

개회선언/ 이상남 목사 세계등대교회
선교사환영사/ 차현희 목사 벨리한인연합교회
선교사답례사/ 장순호 선교사 방글라데시
개회설교/ 이승제 목사 체리힐한인교회
축사/ 방지일 선교사 초창기중국선교사
축사/ 박종순 목사 KWMA대표회장
축사/ 이춘묵 목사 GMS이사장
축사/ 감경철 장로 CTS기독교TV사장
축사/ 에이브리 윌리스 남침례교선교총재

저녁선교대회

사회/ 고석희 목사 KWMC사무총장
기도/ 박형서 선교사 러시아
선교보고/ 정연택 선교사 카자흐스탄
선교보고/ 이종실 선교사 체코공화국
선교보고/ 안창호 선교사 말리
설교/ 로렌 커닝햄 YWAM총재

개회선언

[개회예배]

KWMC 대표회장, 세계등대교회 담임 **이상남**



45년의 성역을 통해 목회자로, 부흥사로, 주와 동행하는 예수제자양성을 위한 『왕의복음선교훈련원』(KCI) 사역으로 70여 개국에서 선교사 양성집회를 수없이 인도하며 늦은 비의 성령폭발을 목도해 온 종으로 목회 도중 자아가 깨어지는 영적대변혁을 경험한 후, 종말론적 성화의 복음메시지를 외치고 있다. 남가주 굴지의 세계등대교회를 섬기며 KWMC 금년도 대표의 장이다. 성결신학대학교, 송전대학교, 서울신학대학원을 나와 캘리포니아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박사를 했다. 『왕의 복음』, 『주와 동행하는 생활』, 『재림과 휴거』, 『인생의 본질과 급선무』 등 저서가 있다.

추수종말시대 사명자들과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세 중 지말에 살면서 다가올 7년 대 환란을 눈앞에 두고 있는 긴박한 마지막 추수 수확의 종말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거의 매일 같이 발생하고 있는 전쟁과 지진과 테러와 폭동과 온갖 천재지변과 괴질과 재앙과 오염공해와 자원고갈의 현상은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의 징조를 강력히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땅끝선교는 불가불 맞물려 있는 사건입니다.(마24:14)

따라서 금번 KWMC가 주관하는 제6차 한인세계선교대회야말로 중차대한 땅끝선교의 최종적인 선교전략을 종합 재점검하는 동시에 임박한 환란대비와 예수님 재림을 준비시키는 영적무장의 최상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를 알고 깨어 준비합시다!"(벧전4:7)

아무쪼록 이번 대회가 진정으로 주님의 뜻 아래서, 강하신 성령의조명 아래, 새로운 선교역사의 장에 커다란 한 획을 긋는 창조적인발걸음을 내딛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제 교회의 머리되시며, 선교대열의 총사령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6차 한인세계선교대회가 개회됨을 선언합니다.

아멘

선교사 환영사

[개회예배]

KWMC 명예의장, 웨슬레세계선교회 회장 **차현회**



한인세계선교의 요람으로 굳건히 자리 잡은 이 대회의 태동을 이끈 사람이 바로 차현회 원로목사(벨리한인연합감리교회)다. 감신대를 졸업하고 국내에서 목회사역을 하다가 69년 도미, 시카고 휘튼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며 이민목회를 병행하던 그는 1983년에 이민 80주년을 기념하는 세계선교대회를 구상, 추진하였다. 현재 웨슬레선교회 회장으로 끊임없는 지상명령의 수행에 전념하고 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주촌 각처에서 충성하시다 여기 제6차 세계선교대회에 참석하신 반갑고 자랑스러운 동역자 여러분들을 선교의 주체이신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격의 눈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 동안 세계 도처에서 악조건들을 믿음과 인내와 소망으로 전승하신 사랑하는 사역자 모두를 다시 한번 환영 또 환영합니다. 지칠 대로 지쳤고 외로웠던 동역자들이여 여기치유의 능력을 비롯해 위로와 격려가 넘치오니 마음껏 받으소서, 누리소서, 충전 받으소서. 세상의 모든 운동들은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지만 "선교운동" 만은 선교의 주체이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계속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세계선교"는 온갖 역사적 변천에도 불구하고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24:14)

선교사를 쫓아낸다고 우리 주님께서 쫓아 내실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시며, 부활과 승천을 통해 이 세상의 구주와 주권자이십니다.(딤후 6:15) 세상을 품은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들이여, 선교 Program을 통해 목적을 이루어 나감을 믿고,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선교의 Vision은 우리를 주님과 하나 되게 하며, 인생들을 끝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이 큰 사랑이 계속 뜨겁기를 간청합니다.

이곳 대회장소인 Wheaton College는 1860년대 여성운동과 노예폐지운동의 본거지였습니다. 1940년부터는 복음주의 전초 기지로도 사역하였습니다. 세속화에 맞서 철저한 기독교 가치관을 실천한 유명한 대학입니다. 본 대회장소의 역사적인 전통과 분위기 속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춤추며 고백과 결단이 넘치기를 앙청합니다. (삼상 18:6) 끝으로 지난 4년 사이에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신 순교하신 선교 동역자들의 영혼까지 진심으로 환영하며, 눈물의 기도로 많은 추수를 다시금 거두고 또 거두는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들을 KWMC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08년 7월 28일

선교사 답례사

[개회예배]

한인세계선교사회(KWMF) 대표회장 **장순호**

전세계 168개국 1만8천여명의 한인 선교사들을 끌어안은 한인세계선교사회(KWMF)의 대표회장인 장순호 선교사는 1984년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파송받아 방글라데시에서 지금껏 사역해 오고 있다.



존경하는 제6차 한인세계선교대회 대회장님, 사랑하는 선교동역자 여러분

지난 2007년은 한국선교역사상 가장 큰 장벽에 부딪혔던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방해와 장애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지난 한 해 동안 2,801명의 한인선교사들이 더 파송되도록 하시어 2007년 말에는 전 세계168개국에 1만7,697명의 한인 선교사들이 파송되게 하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계선교를 위하여 한 민족에게 4개의 든든한 기둥을 세워 주셨습니다. 오늘 제 6차 한인세계선교대회를 개최하는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는 세계선교를 위해 세워주신 한인선교의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기둥입니다. 지난 20년간 기독교한인선교협의회(KWMC)가 북미주 한인교회들을 세계선교에 동원하여 많은 선교 헌신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KWMC2008 한인세계선교대회는 한국선교의 미래를 감당하게 될 15,000여 선교사 자녀들이 또 하나의 한인 선교 세력으로 우뚝 설수 있도록 제 1회 KWMC 대회를 열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척박한 선교지에서 수많은 날들을 눈물로 지내며 성장한 15,000명의 한인 선교사 자녀들은 더 이상 어린이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새 어엿한 성인으로 성장하여 맞 형은 40대의 중년이 되어 일선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세계선교는 MK들이 감당할 것입니다. 선교지의 척박한 땅에서 고군분투하는 동생들을 안내하고 돌보는 일도, 부모들이 시작한 선교 사역을 이어가는 일도, 부모님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드리는 드리는 일도 우리가 담당하겠노라고 일어난 MK들은 세계선교를 위하여 세워 주신 한국 선교의 제4의 기둥입니다.

한인 세계선교의 또 하나의 든든한 기둥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한국 교회들과 선교단체 전체를 아우르며 한국 선교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2030년까지 10만 선교사 파송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타깃 2030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선교동역자 여러분, 1970년대 5가정으로 시작된 한인세계선교사회(KWMF)가 13차 세계한인선교사대회를 거쳐 오며 그 수가 18,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열정을 가지고 달려왔으나 우리 선교의 내용과 방향에 잘못이 없었는가를 점검하고 반성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리 열정적이지 못했습니다. 한국선교의 미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선교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선교사와 선교구조가 건강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인선교사들은 한국 교회와 세계선교의 중요한 전환점의 중앙에서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120 성도들은 진정한 변화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그리스도에게 절대 순종하는 무리였습니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도 않는 진정한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세계선교와 성령 운동의 핵심은 회개와 회복입니다. 저희 선교사로부터의 회개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은 금식할 때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눈물을 뿌리며 부르짖어야 할 시간입니다. 제 13차 세계선교사 대회와 6차 한인선교대회는 회개와 갱신의 한 마당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와 갱신이 없는 껍데기는 물러가야 합니다. 인간이 만든 성전을 헐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를 회복할 때입니다. 사랑은 관념적인 명사가 아니라, 행동과 실천이 수반되는 동사입니다. 현지인들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하디선교사의 본을 따라 한인 선교사 모두가 제2의 하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18,000여 한인 선교사 모두가 제2의, 제3의 하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희 선교사들을 뜨겁게 환영하여 주신 것을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6차 한인선교대회를 크게 축복하시고 한인 세계선교의 4 기둥으로 세워주신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와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18,000여 한인선교사(KWMF)들과, 15,000여 한인 선교사 자녀(KWMC) 더욱 든든하고 건강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개회예배 설교

[개회예배]

공동대회장, 체리할한인교회 **이승제**

"선교사는 왕이요, 목사는 종이다!" 파송교회는 파송선교사를 왕처럼 섬기라고 외치며 일선선교사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품고 선교현장을 찾아 다니며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을 뿐 아니라 KWMC선교사역 후원운동본부장으로서 북미주 교회들로 하여금 영적, 인적, 재정적으로 선교사를 도와야 한다고 독려하는 그는 1983년부터 지난 25년간 이민목회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KIM-USA 부이사장, GMF-USA 이사장, 등 선교활동을 통해 수많은 선교사를 배출, 후원했으며 또한 북한 식량후원운동본부장으로 그간 상당한 분량의 쌀과 의약품을 복송하는 일을 주도했다.



[요한복음 4:35-38]

너희는 녀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1. 눈을 들어 밭을 보라
2. 거두러 보냄 받은 참여자
3. "천국의 아들들"의 요건
4. 거두는 자의 함께하는 즐거움

대회 축사

[개회예배] 축사

명예대회장, 초창기 중국선교사 **방지일**

1937년 한국 세계선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을 향한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방지일 목사는 38년간의 선교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영등포교회에서 20여년 목회활동을 하였으며, 그 후 유럽,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등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도우며 한국 세계선교의 선봉장으로 낙락장송처럼 우뚝 서 있다.



어언 20년이 되었군요. 금년은 벌써 6차가 되었군요. 이번에는 더 큰 성회로서 선교 한국을 과시하는 대회가 됨으로 우리 국내외 한인 교회 모두에게 기쁨이 되며 이 일을 분부하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감지하게도 됩니다 보내는 교회,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들, 또 헌신하고자 하는 젊은이들께 크나큰 격려가 되는 대회가 되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큰사명을 충실이 감당하는 국내외 우리 한인교회가 되는데 큰 기여를 바랍니다.

[개회예배] 축사

KWMA 대표회장, 총신교회 담임 **박종순**

한국교회의 세계선교운동을 초교파적으로 총괄하고 선도하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대표회장이며 1976년 이래 30여년의 모범적인 목회사역을 통해 총신교회를 놀라게 성장시킨 그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을 역임했고 활발한 대사회봉사활동을 펼쳤으며 『남북나눔이사회』를 통해 분단된 조국통일 문제에도, 그리고 『형목제도추진위원회』 공동의장으로 인권운동에도 앞장서 왔다. 또한 영감어린 문장력으로 총 25권의 저서를 펼쳤고 각종 신문잡지 칼럼등을 통해 끊임 없이 한국교회갱신과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큰 몫을 담당해 왔다.



선교의 빛을 안고 살아온 지 어언 120년, 이제 해묵은 빛을 갠야 할 때입니다. 방법은 선교의 빛은 선교로 갠 것입니다. 바울은 빛 갠기 삶으로 평생을 보냈습니다. 2008 시카고 한인선교대회는 세계선교의 진원지이자 촉발점이 될 것입니다. 선교 일등국가에로의 도약대가 될 것입니다. 모이고 기도하고 힘을 합하면 활화산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폭발이 일어날 것입니다.

[개회예배] 축사

남침례교 선교총재 **에이브리 윌리스**

중경남침례교 선교총재로 International Orality Network의 실행총무이며 오클라호마 침례대학내에 있는 Avery T. Willis Center for Global Outreach의 대사로 사역하고 있는 윌리스 박사는 인도네시아에서 14년간 선교사로 섬겼으며 헨리 블랙 카비와 공저한 On Mission with God 등을 비롯하여 다수의 책을 저술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침례신학교에서 총장으로 시무할 때 MasterLife 라는 탁월한 제자훈련교재를 제작하였다.



[개회예배] 축사

GMS 이사장 **이춘목**

GMS 이사장인 이춘목 목사는 예정 합동,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나와 1973년 1월 1일 재송제일교회 개척 후 36년 시무 중이며 - 부산신학교 학장을 역임하고 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선교현장에서 충성하시다가 제6회 한인세계선교사대 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축사를 보내기 보다 함께 자축하는 마음으로 벅찬 가슴을 안정시키려 합니다.

저는 지난 5월 10일자 한국 최대 일간지 가운데 하나인 모 신문에 실린 거의 전면을 차지한 기사와 함께 증조할아버지의 흉상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두 여인의 사진을 보면서 쉽게 다른 대로 눈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인 제중원(광해원)의 설립자 호러스 알렌 선교사의 증손녀들 미국 오하이오주 출신의 리디아 알렌(63세), 마사알렌(48세) 자매였습니다. 알렌 탄생 150주년 기념 행사에 초청을 받은 이들은 한국땅을 밟는 것이 처음이었고 행사 당일 오전 내내 학교의 구석 구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조할아버지의 뿌린 씨앗이 맺은 열매를 생각하고 "Amazing"을 연발하며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합니다.

120여년전 영적으로 암흑하고 육신적으로 배고프던 시절에 한국땅에 보냄 받은 선교사들은 우리 민족의 전사들이었고 지금 우리는 이에 부응하여 세계 170여 개국에 20,000명에 육박하는 선교사를 보내어 교회와 학교와 병원과 각종 문화 시설을 세우며 생명구원 사역을 땀과 눈물과 피흘림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확신합니다. 우리의 아들과 딸들, 손자와 손녀들, 아니 증손자와 증손녀들 역시 후에 세계 도처를 방문할 적마다 "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오 놀라운 할아버지 할머니의 선교의 열매"를 노래하며 활짝 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어느날 우리 모두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준 자들과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믿게 될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의 선교현장은 영적으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실로 다 말하기 어려운 각종 도전에 부딪히고 있으며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 가운데 하나인 한국 교회 역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데에 있어 많은 어려움과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미완성 과업의 마지막 주자로 열방은 부른다"는 주제로 시작되는 제6회 한인선교대회는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일선에서 악령의 세력과 싸우다가 다소는 지친 상태에서 이 자리에 모인 선교사들에게는 영적 재충전과 새로운 선교전략을 만드는 시간이 될 수 있고, 미주 한인교회와 한국 교회는 더욱 더 세계 선교에 매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회가 훌륭한 강사들의 선교 강의와 진지한 토의, 그리고 간절한 기도 중에 진행되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성공적으로 마쳐 질 것과 그 결과가 우리의 선교 현장에 새로운 능력으로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녁선교대회 선교보고

[저녁선교대회 선교보고]

카자흐스탄선교사 **정연택**

선교사 중앙아시아 침례교 전략조정가 (SC)와 중앙아시아의 미전도 무슬림종족을 위해 사역중인 정연택수아 카자흐스탄 선교사는 1991년 침례교 해외선교회 소속으로 중앙아 카자흐스탄으로 파송되었다. 대표적인 사역은 카자흐스탄의 남부에서 다민족 공동체 개척, 침례교 해외선교회 중앙아시아 지회장과 침례교 중앙아시아 행정디렉터를 역임하고,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방교회 개척과 중앙아시아 침례교 신학교를 창립하였다. 가족으로는 장사라선교사와 성민과 경민이 있다.

[저녁선교대회 선교보고]

체코공화국선교사 **이종실**

체코공화국에서 사역하는 이종실 선교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부 간사를 역임하였고 찰스대학 복음주의 신학부 박사 과정을 나와 체코 프라하 Selly Oak Colleges (Birmingham.U.K)와 장로회신학대학원(신대원)을 졸업하였다.



[저녁선교대회 선교보고]

말리선교사 **안창호**

1994년 서부 아프리카 말리 주재 GMS 선교사로 파송되어 한국장로교 명의로 36,172m2의 대지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받고 이슬람 국가에서 장로교 이름으로 NGO 등록. 광명기독교등학교 문교로부터 승인을 받아 개교하였고, 제마분교 개교, 보조족 분교, 까발라 분교 개교, 광명기독교등학교를 문교부로부터 승인, 개교하는 등 활발한 사역을 펼쳐오고 있다. 총신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운명의 사람들

[저녁선교대회 설교]

YWAM 총재, 열방대학 총장 **로렌 커닝햄**

YWAM(Youth With A Mission)선교회를 1960년에 창설, 현재 130개국 650여 지역에서 15,000명의 자원선교사들이 활약하는 세계최대의 초교파 선교단체로 성장시킨 그는 YWAM의 현 총재이며 열방대학(University of the Nations) 총장이다. 3개의 학사학위와 교육학 석사, 그리고 2개의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291개국에서 선교사로, 복음전도자로, 기독교 지도자로, 강력한 강연자로, 선교서적의 집필가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우리 동시대에 남긴 선교운동의 발자취는 가히 전설적이라 평가된다. 저서로「하나님, 정말 당신입니까?」,「예수를 주로 삼아라」,「벼랑끝 삶으로의 도전」등이 있다. 본 대회 명예대회장이며 한어권과 영어권 주강사로 섬긴다.



새벽기도회

선교도전/ **강은혜 MK 케냐**
설교/ **나광삼 목사** 큰무리교회

성경강해

강사/ **서삼정 목사**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주제강연

주제강연 I 강사/ **랄프 윈터** US Center For World Mission
주제강연 II 강사/ **박희민 목사** KCMUSA이사장
주제강연 III 강사/ **강승삼 목사** KWMA사무총장
선교도전 강사/ **글래디스 스테인스** 인도순교선교사아내
선교전략 사회/ **조용중 선교사**
패널리스트/ **박기호 선교사**
김정웅 선교사
김영관 선교사
황태연 선교사
강성일 선교사

저녁선교대회

사회/ **김혜택 목사** 공동총무단
기도/ **박형서 선교사** 러시아
선교보고/ **양춘석 선교사** 인도네시아
선교보고/ **김정림 선교사** 탄자니아
선교보고/ **김성제 선교사** 볼리비아
설교/ **라인하르트 본케** Christ for All Nations선교회 총재

나를 보내신 증거

[새벽기도회 설교]

큰무리교회 담임 **나광삼**

이민목회 30년의 광야길에서 큰무리교회의 위대한 성장을 일궈낸 그는 능력있는 말씀의 종으로 한국과 북미주를 점철하는 연중 25회 이상의 부흥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웠다. 또한 『21세기 요셉운동』을 창설, 청소년 신앙부흥운동을 10년째 전개하며 옛날 애굽의 이질문명 속에서 여호와 신앙으로 세상과 자신을 극복했던 요셉을 본받아 주 안에서 강한 자아각성과 신앙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아름다운 사역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와싱턴개혁장로회 신학교 이사장으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총회신대원(M.Div.), 웨이스신학대학원(D.Min.)을 했다



[새벽기도회 선교도전]

MK Korea **강은혜**

아프리카로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의 자녀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4년간 케냐에서 성장한 강은혜는 Liberty University를 나와 국제변호사가 되어 어린이들을 인권을 지켜주려는 꿈을 품었으나 현재 하나님의 다른 인도하심을 받고 22세부터 Liberty University에서 3개의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시작하였으며 NYU와 Baruch College에서도 Public Speaking에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다. 현재 서울 연세대학의 언더우드 국제대학과 국제학대학원에서 정치와 다문화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강의를 하고 있다.



사도행전을 통해 배우는 성령과 선교

[성경강해]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담임 **서삼정**

『예수믿는 맛』시리즈로 펴낸 『영성이 살아야 예수믿는 맛이 난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예수믿는 맛이 난다』, 『예배가 살아야 예수믿는 맛이 난다』는 그의 저서에서 보듯 그는 성령의 사람으로 깊은 영성묵회를 통해 지난 32년간 미동남부지역 최대의 한인교회를 만들어냈고 능력있는 설교가로 전국적인 부흥집회사역을 펼쳤고, 또한 삶의 여울목에 흐르는 고난의 노래들을 신앙고백으로 승화시켜 영감넘치는 시편으로 엮은 시집 『조약돌』을 세상에 선보인 아름다운 감성의 사역자이다. 미주기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 세계복음화협의회 미국총재 등을 역임했다.



서론 성령이 선교의 계획자요 실천자이심

- 본론
1. 시작케 하심 진행케 하심
 2. 언어의 장벽을 넘게 하심
 3. 문화의 장벽을 넘게 하심
 4. 국경의 장벽을 넘게 하심
 5. 세우시고 사용하심

적용 지금 성령님은 당신 선교사역에 주역이신가?

지구촌의 선교동향 - The Biggest Trend in Global Mission

[주제강연 I]

US Center For World Mission 총재 **랄프 윈터**

미국세계선교운동의 대부(代父) 랄프 윈터 박사는 LA 파사데나에 2천만불 상당의 선교센터건물을 기도의 빈 손으로 구입하는 기적을 창조한 믿음의 거장으로 유명하며 1956년 장로교 목사로 안수, 곧장 과테말라 산지의 마야족을 위한 선교사로 나가 10년간 사역하였고, 그 후 10년간 풀러신학교 세계선교대학원에 초빙, 도널드 맥가브란과 함께 1,000여명의 후진 선교사를 양성하였으며 1976년부터는 『퍼스펙티브 혼련 프로그램』(Perspective Study Program)을 창안하고 『개척자 선교회』(Frontier Mission Fellowship)를 설립했는데 이 선교회는 후에 미국세계선교센터(US Center for World Mission)와 윌리엄캐리국제대학의 모체가 되었다. 그는 지난 30년간 막강한 영향력으로 최전방개척선교운동을 펼치며 『미전도종족선교운동시대』를 열었고, 지금도 수많은 천국추수꾼들의 심장에 불을 질러대는 위대한 방화범으로 여전히 쓰임받고 있다.



1. Confusion in the Reformation

- a. Works alone won't get you to heaven
- b. Faith (believing in statements) will not get you to heaven
- c. The Bible plainly says, "Faith without works is dead." (James 2;20 and 2:26)
- d. It was more a cultural breakaway movement than a theological difference

2. Confusion in missions today

- a. Some missions only plant churches
- b. Some missions only do relief and development work
- c. Some do both, who is right?

3. Confusion in recent(20th century) history

- a. Some Evangelicals focused on prophecy and eschatology
- b. Earlier Evangelicals did both, who was right?
- c. The USA inherited a huge, serious polarization from the 20th century

4. Resulting loss of glory for God, and disrespect for Evangelicals

- a. Some people are wondering why all the evil in the world and wonder about God
- b. Some people wonder why Evangelicals are not effective in fighting this world's problems and wonder about the Christian faith

5. Are we on the eve of a new era in Christianity and Missions?

- a. There has never been a time when Evangelicals had greater ability and responsibility!
- b. What businesses can do. What businesses cannot do
- c. Why new features in old missions and new features in new missions are necessary
- d. Otherwise, do we continue the 20th century polarization?

6. God must be glorified and Evangelicals respected!

- a. Both words and deeds are necessary
- b. Both micro deeds and macro deeds are necessary
- c. We are saved as individuals, we must serve in teams.

북미주 선교운동의 역사적 고찰과 현황, 그리고 미래전망

1. 종교개혁의 혼란

- 행위만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
- 믿음(신조를 믿는 것)만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
- 성경은 단순히 "행위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한다.(야고보서 2:20, 26)
- 신학적 차이보다는 문화적 분리운동의 성격이 짙다.

2. 오늘날 선교에서의 혼란

- 어떤 선교는 교회개혁만을 한다.
- 어떤 선교는 구조와 개발지역만을 한다.
- 어떤 경우에는 양쪽 모두를 한다. 누가 옳은가?

3. 20세기 역사에서의 혼란

- 어떤 전도자는 예언과 종말론에만 초점을 맞춘다.
- 초기의 전도자들은 양쪽 모두를 하였다. 누가 옳은가?
- 미국은 거대한 양극화를 20세기로부터 물려받았다.

4. 하나님의 영광의 상실이 가져오는 결과

- 어떤 이들은 세상에 가득한 악을 허용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혼란스러워 한다.
- 어떤 이들은 전도자들이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더 효과적이지 못한가에 대해,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

5. 우리는 지금 기독교와 선교의 새 시대를 여는 기로에 서 있는가?

- 오늘날과 같이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능력과 책임감을 가졌던 시대가 없었다.
- 어떤 사업은 할 수 있고 어떤 사업은 할 수 없는가
- 기존선교와 새로운 선교에 새로운 내용이 왜 필수적인가?
- 그렇지 않다면 20세기의 양극화를 계속 가져갈 것인가?

6.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존경을 받아야 한다!

- 말과 행동이 모두 필요하다.
- 작고 큰 행동이 모두 필요하다.
- 우리는 구원받은 개인들이다, 우리는 섬김의 책임이 있다.

[주제강연 II]

채미한인기독교선교재단 (KCMUSA) 이사장 박희민



남가주 교계를 대표하는 교역자인 그는 나성영락교회를 미주이민교계의 대표적 교회로 성장시켰고 은퇴한 후에도 『재미한인기독교선교재단』(KCMUSA) 이사장 미주장로회신학대학 이사장, 새생명선교회 대표, 빌리그래함 전도대회와 한인 대표 대회장, 조국사랑 이사장, 남가주 성서화운동본부 대표 등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장로회 신학대학(M.Div.), 토론토신학대학원(D.Min.)을 했고 특히 젊은 시절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다년간 청춘을 바쳐 빛나는 생애의 한부분을 주님께 드렸다.

하나님의 선교전략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세계로 흩어 놓으시는 '디아스포라'의 선교전략이다. 하나님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민족을 세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온 세계로 흩어 놓으셨다. 현재 180여나라에 750만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놀랍고도 엄청난 사건이다. 이런 맥락에서 북미에 거주하는 300만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한 섭리와 뜻속에서 이주되었으며, 이땅에서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소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로스엔젤스에서 발간되는 크리스천 투데이에 의하면 현재 해외한인교회가 4,982개며, 북미에만 4,148 로 집계되고 있다. 그리고 북미에 등록된 선교단체가 200여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 현재 북미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얼마나 되는가?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대략 1,000여명이 된다고 보고 있다. 특별히 최근에 은퇴하고 선교지에 가서 사역하는 교역자들과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1.5세, 2세출신들은 200-300여명이 되지 않나 보며, 작은 교회들은 단독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 보다는 한국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을 협력선교사로 돕는 경우가 많다. 단기 선교로는 매해 북미에서 5,000-7,000여명이 세계 각처로 나가 섬기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동안 북미에서 일어난 가장 획기적인 선교운동은 KWMC(한인세계선교협의회)조직과 활동이다. 그리고 2002년에서 시작된 KIMNET을 들수 있다. 현재 북미에는 200여개의 선교단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미국과 한국의 선교단체들의 Branch들도 있고 미주에서 독자적으로 조직된 선교단체들도 있다. 대표적인 선교단체로서 210여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GMI, 140여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SEED International을 들수 있다. 그리고 20여명에서 60여명씩을 파송한 선교단체들이 Wyclif, OCI, CCC, OMF, GP, OM, WEC,

GEDA International, Com,인터콤등을 들수 있다. 뿐만아니라 미국교단들, 즉 남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그리고 한인교단들을 통해 파송된 선교사들도 상당한 수가 있으며, 전문인 자비량선교사들도 세계각곳에서 활발하게 선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외에도 UBF, PGM등 전문인선교를 하는 선교회, 미전도종족선교를 힘쓰는 GAP선교회, 단기선교팀을 훈련하여 파송하는 SON Ministry, 1.5세들의 선교단체인 Band Barnabas등을 들수 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선교하느냐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고 본다.

나는 2020년까지 북미교회가 5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꿈꾸고 기도한다. 그러기 위해

- 1) 선교하는 교회(Mission oriented Church)가 되어야 한다.
- 2) 영적으로 각성하고 부흥해야 한다.
- 3)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 4) 단기선교팀의 효율적인 운영과 평신도 전문인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해야 한다.
- 5) 선교 동원과 훈련과 파송을 위해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NetWork을 통해 협력동역해야 한다.
- 6) 선교리더십을 양성하는 것이다.
- 7) 다양한 선교지역의 문화상황에 맞는 창의적 선교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교회 세계선교운동의 평가와 미래 25년의 전망

[주제강연 III]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사무총장 **강승삼**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사무총장으로, 한국의 모든 교단과 선교단체들이 초교파적으로 연대한 막강한 세계선교네트워크의 한복판에 낙락장송처럼 우뚝 서서 한국선교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그는 젊은 날엔 나이지리아 선교사로 헌신, 12년간 교회개혁, 신학교 설립, 현지지도자 양성 등 아름다운 헌신을 했다. 총신대신대원(M.Div.), 컬럼비아국제대학(M.A. in Mission), 트리니티신학대학에서 선교학 박사를 하고 세계복음주의협의회 선교분과위원, 아세아복음주의협의회 선교위원장, 10만선교사파송을 위한 Target2030 본부장 등을 역임한다.

1. 서론

1907년부터 시작된 한국교회세계선교 운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100년 만에 18,625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세계선교사 파송 제2대국이 되는 축복을 받았다. 필자는 한국교회세계선교 운동을 편의상 4시기로 정한다. 한국교회세계선교 운동 개척기(1907년~1937년), 침체기(1938년~1963년), 확장기(1964년~1990년), 그리고 한국교회세계선교 운동의 정책개발과 전방개척선교시대(1991년~현재)로 구분한다.

그러나 본 논문은 1980년부터 2005년까지의 한국교회세계선교 운동을 평가하고 Target2030운동을 중심으로 2026년~2030년까지 미래 25년간의 선교운동의 전략적 측면에서 방향을 정하는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2. 한국교회 세계선교 운동의 과거 25년(1980~2005) 평가와 새로운 과제

1) 한국교회세계선교 운동의 과거 25년(1980~2005)에 대한 평가

첫째는 전략적 선교의 개발과제이다.

둘째는 선교사의 전략적 배치이다.

셋째는 선교시스템 구축의 과제이다.

2) 미래 한국교회세계선교 운동의 5대 과제

3) 최근 한국선교의 다양한 선교포럼, 네트워크 및 새로운 단체등장의 동향

3. 한국교회 세계선교운동 미래전략을 위한 전략적 제안

1) 한국교회 세계선교운동 미래전략을 위한 4가지 문제가 있다.

2) 과거 한국교회선교 평가에 대한 제안이다.

3) 미래 25년 한국선교의 정책과 전략을 위한 제안내용은 무엇인가?

4) 결어

4. 전방개척선교(Frontier Missions)를 위한 한국 선교의 도전

1)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배경을 살펴보자.

2) 전방개척선교의 정의와 그 영역을 생각해 보자.

3) 전방개척선교로의 도전이 무엇인가?

5. Target 2030 마스터플랜 — 한국교회세계선교 운동 미래 25년 시스템과 콘텐츠

1) 미래(2006~2030) 한국선교 시스템의 큰 방향성

2) 한국선교 5차 5개년 개발 계획의 개요

3) Target2030 프로젝트를 위한 선교사 수요 예측기준이다.

4) 선교 시스템 구축 및 전략적 선교 과제 해결을 위한 모색

5) 1차 5개년 개발 계획 - 한국선교 미래 25년 시스템과 콘텐츠 구축을 위한 전략

6. 결론과 전망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 Forgiveness and the Grace of God

[선교도전]

인도 순교선교사의 아내 **글래디스 스테인스**



호주출신 20세의 젊은 의료선교사, 그레함 스테인스는 1965년부터 인도 오리샤의 나환자촌에서 35년간 헌신하던 중 1999년 1월 두 아들과 힌두축제에 참석했다가 차에서 잠을 자던 중 반기독교정당 RSS측 50명의 괴한들이 습격, 불지른 짐차에 갇혀 산 채로 타 죽게 된다. 그 후 재판과정에서 아내와 딸은 정부에 무죄석방을 탄원, 11억의 인도를 예수의 사랑으로 올렸다. 아내는 그후에도 25개 나환자선교관, 나환자재활농장 등을 섬겼고 그레함스테인스기념병원이 세워졌다. 약사인 딸의 꿈은 아버지의 뒤를 잇는 것이다.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인도네시아선교사 양춘석

GMS 소속으로 1944년 파송받은 양춘석 선교사는 2억5천만의 인구가 세계에서 네번째로 인구가 많으며 그중 87%가 이슬람 교도들이인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다. 단일국가로는 가장 많은 무슬림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다. 이런 여건 속에서 교육을 통한 선교전략으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양선교사는 교육법인 가나안 누산다라를 설립하여 정부로부터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설립가능한 법인을 인가받았으며 양재학과 공예학과 및 장애아들을 돌보는 것을 통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삶으로 예수를 전하고 있다.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탄자니아선교사 김정림



탄자니아에서 19년간 봉사활동을 해온 감리교 목회자인 김정림 선교사는 1989년 탄자니아의 열악한 상황을 알면서도 현지로 떠난 뒤 현재까지 20년 가까이 모슬렘지역 교회·교육·지역개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계속해오고 있다. 현재 그는 감리교 선교부와 티나이 마을 정부 지도자들이 제공해 준 36만4천4백㎡ 토지 위에 '농업학교'라는 이름으로 개종자들의 피난처인 공동체 마을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해만 모슬렘 지역에 5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컴퓨터 학교를 개강했다. 지난해 언더우드 봉사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언더우드 선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볼리비아선교사 김성제

1994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GMS 선교사로 볼리비아에 파송되어, 혼자서 여성의 몸으로 어렵게 사역해 오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량 선교사로 온 이견화 선교사를 만나 볼리비아에서 결혼하여 지금까지 라파즈의 치마네스 종족을 섬기며 사역하고 있다.

불의 선교

[저녁선교대회 설교]

Christ for All Nations 선교회 총재 라인하르트 본케



지난 30년간 지구촌의 방황하는 영혼들 1억명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했고, 특히 100만 내지 150만명의 대인파가 운집하는, 매년 12번씩 열리는 아프리카 대륙횡단 순회전도집회를 통해 4,4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본케목사는 1940년 독일의 목사가정에서 출생, 영국 웨일즈에서 신학교육훈련을 받았고 독일에서 7년간 목회하던 중 선교사의 소명을 받고 남아프리카 산간지역의 작은 나라 레소토를 찾아가, 그 척박한 불모지에서 원주민들의 고통하는 영혼을 끌어안고 울며 기도하던 중 주 성령께서 그 젊은 종의 마음속에, 아프리카 전대륙 곧 케이프 타운부터 카이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뒤덮혀진 위대한 환상을 보여 주셔서 (열방을 위한 그리스도)(Christ for all Nations, CfaN) 선교회를 설립하고, 1984년 800명으로 시작된 전도집회가 곧 34,000명의 초대형 텐트집회로, 그리고 수년 내에 15만명이 모이는 노천복음전도집회로, 그리고 수년전 부터는 100만명 이상이 모이는 초대형 집회로 확장되었고 말씀과 치유의 강한 능력이 나타났으며, 『minus to plus』 등 전도책자는 1억 9천만부가 143개국어로 54개국에서 출간되었고, 이른바『불집회』(Fire Conference)와 인터넷전도학교인『라인하르트 본케 불의 학교』(R.Bonnke School of Fire)를 통해 제3세계 교회지도자들과 차세대 복음전도 지도자훈련은 오늘도 세계 도처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그 찬란한 날이 이르기까지 그의 헌신과 전도사역은 이렇게 계속될 것이다. 주요 저서로는『불의 전도』,『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는 믿음』,『11시 59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부흥, 성령의 축제』,『성령의 은사와 능력』,『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등이 있다.



새벽기도회

선교도전/ 한도수 선교사 바울선교회
설교/ 김영진 목사 나성한인교회

성경강해

장사/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주제강연

주제강연 I 강사/ 폴 에셀맨 CCC 부총재
주제강연 II 강사/ 임현수 목사 토론토론티교회
주제강연 III 강사/ 김만우 목사 필라제일장로교회

저녁선교대회

사회/ 김정호 목사 공동부대회장
기도/ 김경일 선교사 KWMF
선교보고/ 민흥기 선교사 스리랑카
선교보고/ 이태현 선교사 가나
선교보고/ 박선자 선교사 러시아
설교/ 라인하르트 본케 Christ for All Nations 선교회 총재

로버트 모리슨처럼 미래를 바라보는 선교를!

[새벽기도회 설교]

나성한인교회 담임 **김영진**



한남대, 총신대, 리폼드신학교, 콘코디아신학교(Th.M, Th.D) (현) 나성한인교회 담임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 모든 과정이 구원의 역사다.

창세기는 구원역사의 시작을, 요한계시록은 완성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구원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다윗과 선지자들을 거쳐서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된다.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역사는 선교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을 통하여 지금 전 세계에서 실현되고 있다.

본 강의는 성경전체의 관점에서 세계선교의 시작부터 완성까지의 모든 과정을 살펴본다.

세계선교를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선교사역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약점들과 유혹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새벽기도회 선교도전]

바울선교회 **한도수**



한국신학대학교와 아세아신학대학원, 풀러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1986년 9월에 선교사로 파송받아 필리핀, 브라질에서 다년간 사역하였다. 현 바울선교회 국제본부장이며 선교사 훈련사역을 하고 있다.

바울서신과 선교비전

[성경강해]

KWMA 대표회장, 총신교회 담임 **박종순**



한국교회의 세계선교운동을 초교파적으로 총괄하고 선도하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대표회장이며 1976년 이래 30여년의 모범적인 목회사역을 통해 총신교회를 놀랍게 성장시킨 그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을 역임했고 활발한 대사회봉사활동을 펼쳤으며 『남북나눔이사회』를 통해 분단된 조국통일 문제에도, 그리고 『형목제도추진위원회』 공동의장으로 인권운동에도 앞장서 왔다. 또한 영감어린 문장력으로 총 25권의 저서를 펼쳤고 각종 신문잡지 칼럼등을 통해 끊임없이 한국교회갱신과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큰 몫을 담당해 왔다.

I. 들어가는 말

바울의 선교 활동과 그 특징을 연구하려면 누가 기록한 사도행전의 바울선교 행적과 바울 자신이 쓴 서신들 안에 언급된 활동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사도행전에 기술된 바울의 선교 보고는 누가 바라본 바울의 선교사역으로 2차적 자료(secondary source)이고, 바울서신에 언급된 바울의 선교 활동은 1차적 자료(primary source)가 된다. 본 연구는 바울서신을 중심으로 바울의 선교활동과 행적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바울은 누구인가

1. 바울은 누구인가?

- ① 유대인으로 출생(갈 2:15)
- ② 히브리인(고후 11:22, 빌 3:5)
- ③ 율법학자(행 22:3)
- ④ 아브라함의 씨(고후 11:22)
- ⑤ 베냐민 지파(빌 3:5)
- ⑥ 박해자(행 22:4, 20)
- ⑦ 개종자(행 22:17)
- ⑧ 고난의 사람(고후 11:23-27)
- ⑨ 예수 그리스도의 종(롬 1:1, 고전 15:8-9)

2. 바울의 사역

- ① 신학자 ② 선교사 ③ 목회자 ④ 저술가

3. 바울의 비전

- ① 예수 닮기(고전 11:1)
- ② 세계 선교(행 19:21, 26 / 롬 15:19, 23, 28)
- ③ 교회 세우기(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 ④ 이방 구원(행 13:46, 48, 51)
- ⑤ 하나님 영광(행 14:15)

III. 바울의 선교행진

1. 회심 후 아라비아로(갈 1:17)
2.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갈 1:17)

3. 다메섹 탈출(고후 11:32-33)
4. 예루살렘으로_ 개마 만남(갈 1:18-20)
5. 수리아와 길리기아로(갈 1:21-24)
6. 다시 예루살렘으로(갈 2:1-10)
 - 디도와 바나바 동행
 - 2차 예루살렘 방문_ 이방인 선교 협의
7. 수리아 안디옥(갈 2:11-14)
8. 그의 선교여정은 화려하다 :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텐, 고린도, 에베소, 마게도냐, 일루리곤(유고 지역) 그리고 로마까지

IV. 바울의 선교전략

1. 예수 제일주의(빌 3:8)
2. 자비량(고전 4:12, 9:15, 살전 2:9)
3. 협력선교(현지 교회 지도자들, 동행선교, 팀선교)
 - ex: 고린도에서_아굴라(행 18:2)
 - 에베소 회당에서(행 19:8)
 - 아시아에서(행 20:4)
4. 도시중심(metropolis-centered mission)
 - ex: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텐, 고린도, 에베소, 로마 등
5. 은사활동
 - ① 축사(행 16:18) ② 신유(행 28:6, 8, 9)
6. 일사각오(행 21:13)
7. 땅 끝 선교
 - ① 아시아(행 19:26) ② 일루리곤(롬 15:19) ③ 서바나(롬 15:28)
8. 동역윤리(롬 15:20)

V. 나가는 말

우리는 바울을 따르거나 닮기에 역부족이다. 그러나 그의 삶을 캐고 살피노라면 바울의 체온을 느끼고 닮아야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바울! 우리 모두 것처럼 됐으면 좋겠다.

바울! 그는 예수 닮은 사람이었다(고전 11:1).

남아있는 미전도종족들을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

[주제강연 I]

CCC 부총재, 『예수영화』 (Jesus Film) 창안자 폴 에셜맨

Paul Eshelman: 1,000개의 언어로 번역, 236개국에서 6억번 이상 상영된 『예수영화』를 창안하고 지난 25년간 디렉터로 섬겨온 폴 에셜맨 박사는 1966년 CCC에 헌신하여 현재 부총재로 전도와 선교전략 자문을 총괄하고 있다. 또한 『Finishing the Task Movement』를 통해 전세계 639개 미전도종족을 향한 최전방 개척선교를 펼치며 『국제오랄네트워크』를 통해 성경이 없는 3천개 언어를 위한 성경녹음사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로잔운동 전략그룹』의장직을 맡고 있다. 저서로 『I Just Saw Jesus』 등이 있다.



I. 서론

1. "만일 내가 인류 역사 속에 살고 싶은 어느 때를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바로 지금을 선택할 것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24:14) 우리는 어쩌면 이 본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세대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2.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찌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찌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박국 1:5)

II. 미완성 과업 성취 운동의 역사

1. 암스테르담 2000
 - ① 100개 국가에서 온 600명의 전략가들
 - ② 부르스 윌킨슨은 참가한 사람들에게 남아 있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헌신하도록 도전했습니다.(우리는 미전도 종족이 249개라고 생각했었습니다)
 - ③ 참가자들은 1나나 둘, 혹은 세 종족들에 헌신을 했습니다.
 - ④ 헌신의 흐름이 149종족에서 멈췄습니다.
 - ⑤ 8명씩 앉아 있는 75개의 탁자가 있었습니다. 71번째 탁자에는 CCC와 예수 전도단, 성경속을 걸어라, 위클리프 성경번역회, 남침례교 선교본부, 교회 개척 운동의 대표들이 있었습니다.
 - ⑥ 그들의 해외 선교사 숫자를 다 합치면 5만명이상이나 된다는 사실을 논의했습니다.
 - ⑦ 그들은 함께 모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미전도 종족들을 다 책임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⑧ 2000 이후로 일년에 3번씩 모이고 있습니다.
2. 2005년에 코브에서 미완성 과업 완수 (Finishing the Task) 대회가 열려 78개 교회가 참석했고 85개 미전도 종족들을 입양했습니다.
3. 미국과 한국과 인도에서 목사들을 모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III. 세계 복음화 현재 상황

4.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로잔 위원회에서 세계 복음화의 우선 순위를 논의했습니다.
5. 8개의 주요 우선 순위에 대해 동의했습니다.
 - ① 3,200 미개척 미전도 종족들(unengaged, unreached people groups)
 - a. 1974년 랄프 윈터에 의해 1974년 소개된 미전도 종족들
 - b. 최소한 12,000 인종-언어 종족들 6,000 종족은 이미 복음화 되었음. 6,000 종족들은 아직 복음화되지 않았음. 그들 중 3,200종족들은 아직 개척 되지 않았음. 3,200 미개척 종족들중, 639 종족은 인구가 100,000 이상이 됨. 전체 인구는 5억 4천 9백만명임.
 - ② 3,000 종족들은 성경이 없음
 - ③ 60% 의 세계 인구는 구전으로 학습을 함 90%의 미전도 종족들과, 95%의 회교도 여성들도 이야기를 통해 배움.
 - ④ 회교도, 힌두교도, 불교도는 100년 전과 같은 비율인데 30억명이나 됨.
 - ⑤ 교회의 부흥
 - ⑥ 모든 언어 종족들의 목회자와 평신도들을 훈련함
 - ⑦ 세계 중보 기도 운동과 세계 복음화 운동을 합병함.
 - ⑧ 인터넷과 다른 대중 매체를 통해 모든 종족과 그리고 종족 마다 복음화 한다는 것을 강조함.

IV. 미개척, 미전도 종족에 대한 관점

1. 서론: 우리는 선교 전략가들로서 미전도 종족들은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가를 토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함.
 - 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언어, 인종)
 - ② 그들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지리)
2.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 없이는 다음의 목록을 쳐다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① 어부와 튀김판(frying pan)
 - ② 이 대회에서 토의하는 것의 대부분은 믿음을 요구함
 - a. 우리는 믿기 위해서는 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음. 히 11:1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

거니라." 다른 말로하면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족들을 복음화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미전도 종족들을 선교할 지 알려 주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 b. 예화: 누군가 말하기를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만 했다면, 모세는 결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고 했습니다.
- ③ 하나님께서 일을 여실 것입니다.
 - a. 예수 영화를 가지고 중국의 세관을 통과한 경험
 - b. 이란에서 성경을 가지고 오는 두사람에 관한 꿈을 꾸사람 이야기.
 - c. 우리는 원수들로 부터 방해받을 것입니다. 즉, 41 명의 사역자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실행을 신고받았음.

V. 종족 목록을 보는 관점

1. 종족 목록을 보는 두가지 방법 - 1. CD를 통해. 2. 인쇄물
2. 목록 - 1. 639개 종족 목록, 2. CD
3. 조사 - 어떤 조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마 오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종이에 적어서 제게 주시기 바랍니다.

VI. 왜 이들을 미개척, 미전도 종족들이라고 부릅니까?

1. 미개척 종족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종족들 가운데 교회 개척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혹 누군가 전도를 하거나 작은 신자들 모임이 있지만 배가하는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2. 현재 거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라디오나 대중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 ① 452 종족들은 교회가 없습니다.
 - ② 193 종족들은 라디오 방송으로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 ③ 158 종족들은 그들의 말로 된 성경이 없습니다.
 - ④ 153 종족들은 예수 영화가 없습니다.
 - ⑤ 93 종족들은 녹음된 성경이 없습니다.
3. 왜냐 하면 복음적 신자들이 전체 인구의 2% 미만입니다. - 사회학자들이 최근에 조사를 통해 인구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위해서는 전체인구의 얼마나 영향을 미쳐야 하는가를 밝혔습니다. 적어도 전체 인구의 2%에 영향을 미치면 전체 인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을 정의할 때도 같은 기준을 사용합니다.

4. 어떤 종족들이 2% 미만의 복음적 신자들을 가지고 있다면 종족 자체적으로는 거의 새로운 교회들이 개척되지 않고 그 종족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채로 남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VII. 미개척 미전도 종족들은 누구이며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1. 종족들의 숫자
 - ① 복음화 통계에 의하면 인구 10만 이상의 미개척 미전도 종족들은 639개가 있습니다. 전체 인구는 4억 5천 8백만 명입니다.
 - ② 다른 편으로는 인구 10만 이하의 미개척 종족들은 2873 개의 종족들이 있습니다. 종족 숫자는 많지만 인구는 다 합쳐야 4천 7백 만명밖에 안 됩니다.
2. 거주 지역
 - ① 77 개 국가에 미개척 종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 ② 639 종족들 중에 449 종족들은 10개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70%)
 - a. 인도 - 310, b. 수단 - 35, c. 중국 - 18, d. 이디오피아 - 17
 - e. 사우디아라비아 - 13, f. 파키스탄 - 13, g. 인도네시아 - 12
 - h. 프랑스 - 11, i. 터키 - 10, j. 네팔 - 10
 - ③ 74 종족들은 이민자들입니다. 그들 모국에는 교회가 있지만 현재 살고있는 곳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 ④ 44 개 종족들은 여러 나라에 걸쳐서 살고 있습니다. 같은 종족이 한 나라에는 교회가 있지만 다른 나라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 ⑤ 이 종족들을 다른 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종족의 종교적 배경입니다. 요약해 보면: 회교 245, 힌두교 176, 정령숭배 105, 카톨릭 28, 소수 종교들(무속 신앙, 시크) 20, 전통적 종교들 19, 수단과 리비아 개신교 15, 불교(부탄) 11, 정교회 10, 조상 숭배(라오스) 10

VIII. 미전도 종족 교회 개척 선교의 기초 단계들

1. 첫단계: 하나 내지 다섯개의 미개척, 미전도 종족들을 개척 대상으로 선택하십시오.
2. 두번째 단계: 교회 내에 미전도 종족 개척 담당자를 선정하십시오.
3. 세번째 단계: 자료 조사 여행을 떠나십시오.
4. 네번째 단계: 교회 개척 사역자들을 모집하여 훈련할 현지 사역자와 합의문을 만드십시오.
5. 다섯번째 단계: 전도와 교회 개척 전략 및 사역 자료들과 훈련을 확정하십시오.

북한선교, 교회의 총체적 접근

[주제강연 II]

토론토큰빛교회 담임 **임현수**



큰빛교회를 캐나다 최대규모의 한인교회로 성장시킨 그는 대성한 목회를 기반으로 모든 역량을 지구촌복음화에 투입하는 가운데 특히 북한처럼 위험도가 높은 창의적 접근지역이나 미전도종족입양운동 등 최전방 개척선교에 대한 각별한 비전과 열정을 불태우는 종으로 북한 지역만 해도 양로원, 어린이집, 학교사역, 주유소, 빵공장 등 다양한 선교사역을 펼치고 있다. 젊은날에는 10년 이상을 CCC 및 GCTC훈련 간사로 봉사했고 현재는 GAP(세계협력선교회) 총재, 중국가나안농군학교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캐나다전역의 미전도종족선교운동의 중심점이 되고 있다.

서론: 교회와 선교

1. 북한 선교의 시급성 10가지

이번에 북한 땅을 다니며 새삼 깨달은 것은 북한의 선교와 구제는 마냥 안일한 자세로 느장을 부려서는 절대 안된다는 절박성과 시급성입니다.

- 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행1:8 요13:35) - 성경의 대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사랑하라! 선교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시급한 대명령입니다.
- ② 우리의 골육이기 때문입니다. (롬9:3) - 잠언에도 형제는 위기의 때를 위하여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지금 북한의 형제들은 심각한 아사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되는 이유는 만 가지입니다. 매우 시급합니다.
- ③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 입니다. (겔37장) -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 ④ 우리들의 의무이기 때문 입니다. (겔37장) - 또 다시 주님은 네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민족 통일의 문제처럼 중차대한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 ⑤ 평화의 중재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겔37) - 특별히 우리처럼 해외에 사는 동포들의 사명은 평화의 중재자 역할입니다. 남과 북을 함께 섬겨야 합니다.
- ⑥ 인도적 차원에서 행 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해 봐도 가장 시급합니다. 생명 경외 사상 때문입니다.
- ⑦ 강자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창45:8) -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에스더 그리고 느헤미야나 다니엘은 강자였을 때 그것을 가지고 민족을 섬겼습니다.
- ⑧ 복음의 빛을 झा야 하기 때문입니다. - 평양이 뿌리입니다. 동양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북한의 2,800교회가 남한 5만5천 교회의 모체이기 때문입니다.
- ⑨ 탈북자들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 현재 수 만 명의 언어와 문화가 준비된 탈북 동포들이 있고, 그들이 대량입국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⑩ 종말적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 입으로는 북한 선교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정작 현실을 보면 극소수의 탈북자도 품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은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북한에 대한 태도가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입니다. 말로만 평안하라 더욱게 하라 배 부르게하라 합니다. (약2:15-17) 그러나 주님은 강도만난 사람을 도왔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하시며 우물가의 잃어버린 여인을 찾아 가셨습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위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문제는 믿음과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 선교의 절호의 기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2. 북한 선교와 지원 사업(구제)

- ① 식량지원사업(예:옥수수, 쌀, 밀가루...라면, 빵, 영양 과자 등)
- ② 비료 지원사업(예:유기농 비료 지원 및 개발)
- ③ 시설 지원사업(예:학교 보수, 집짓기 등)
- ④ 교육 지원사업(예:전국 교원 영어 컴퓨터 강습소 운영 등)
- ⑤ 작물 지원사업(예:불루베리, 비타민 나무 심기 운동)
- ⑥ 합작 투자사업(예:함흥 주유소, 비누공장,
- ⑦ 기술 투자사업(예:평양 김일성 대학, 회령 도서관 인트라)
- ⑧ 의료 지원사업(예:병원 건물, 의사, 약 지원)
- ⑨ 농사 지원사업(예:경운기 200대, 옥수수 종자 보내기 등)
- ⑩ 기타지원사업(안경 80만개, 빵계, 국수기계, 콩국수 시설 등)

3. 교회의 총체적 북한선교 접근

- ① 북한 교회의 역사 ② 복음의 빛진 남한교회 ③ 북한 땅에 교회 세우기 ④ 입체적 북한 복음화를 위한 전략 ⑤ 복음화된 통일 조국의 비전을 잉태하라 ⑥ 중국 교회와 북한 선교 ⑦ 북한 선교를 통한 세계 선교

중동 이슬람 이해

[주제강연 III]

필라제일장로교회 담임 **김만우**



중동선교사의 아버지라는 애칭을 받을만큼 중동지역과위험한 창의적 접근지역에서 사역하는 한인선교사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소유하고 중동선교사협의회(MEMA) 고문으로서 지난 20여년간 본교회의 목회역량을 중동에 쏟아부은 특이한 목회자이며 재미 한인예수교장로회(고신측) 총회장으로 교단의 선교활동을 주도할 뿐 아니라 재미학생신앙운동(SFC) 지도 위원장으로 대학생 청년 신앙운동에도 크게 헌신하고 있다. 연세대학교와 동대학원,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고 밀알선교단 고문, 중동선교대학원장 등을 역임하고있다.

1. 들어가는 말

중동, 아랍, 이슬람이라는 개념은 공통된 점도 있고, 서로 구분되는 점도 있다. 이 세 용어가 뜻하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 함이, 중동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다. 이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위해 성경의 기록에 근거하여 시도하고자 한다.

2. 중동이 어디냐?

- ① 지역적 특성
- ② 종교적 특성
- ③ 성경적 근거

3. 이슬람이 무엇인가?

- ① 일반적 특성
- ② 5가지 의무
- ③ 6가지 믿음

4. 중동 아랍 이슬람 세계의 선교전략

5. 이슬람의 도전

6. 맺는 말

중동 아랍세계 선교는 전시효과를 노리거나, 단기투자 회수의 마음을 가지거나 영웅심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적어도 30년을 내다보고 추진해야 한다. 그것은 한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일생을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중동 이외지역에 강력한 이슬람 국가들이 있으며 세계 도처에, 심지어 과거 기독교국가 안에서까지 맹렬히 일어나고 있는 이슬람화 운동은 상호 관련성이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때에 이슬람의 뿌리와 선교의 정당성을 성경 안에서 찾아 이해하고, 저들 가운데 있는 택한 백성들을, 불러 구원하는 일을, 모색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 11시 59분

[저녁선교대회 설교]

Christ for All Nations 선교회 총재 **라인하르트 본케**



지난 30년간 지구촌의 방황하는 영혼들 1억명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했고, 특히 100만 내지 150만명의 대인파가 움직이는, 매년 12번씩 열리는 아프리카 대륙횡단 순회전도집회를 통해 4,4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본케목사는 1940년 독일의 목사가정에서 출생, 영국 웨일즈에서 신학교육훈련을 받았고 독일에서 7년간 목회하던 중 선교사의 소명을 받고 남아프리카 산간지역의 작은 나라 레소토를 찾아가, 그 척박한 불모지에서 원주민들의 고통하는 영혼을 끌어안고 울며 기도하던 중 주 성령께서 그 젊은 종의 마음속에, 아프리카 전대륙 곧 케이프타운부터 카이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뒤덮혀진 위대한 환상을 보여 주셔서 <열방을 위한 그리스도> (Christ for all Nations, CfaN) 선교회를 설립하고, 1984년 800명으로 시작된 전도집회가 곧 34,000명의 초대형 텐트집회로, 그리고 수년 내에 15만명이 모이는 노천복음전도집회로, 그리고 수년전 부터는 100만명 이상이 모이는 초대형 집회로 확장되었고 말씀과 치유의 강한 능력이 나타났으며, 『minus to plus』 등 전도책자는 1억 9천만부가 143개국어로 54개국에서 출간되었고, 이른바 『불집회』 (Fire Conference)와 인터넷전도학교인 『라인하르트 본케 불의 학교』 (R. Bonnke School of Fire)를 통해 제3세계 교회지도자들과 차세대 복음전도 지도자훈련은 오늘도 세계 도처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그 찬란한 날이 이르기까지 그의 헌신과 전도사역은 이렇게 계속될 것이다. 주요 저서로는 『불의 전도』,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는 믿음』, 『11시 59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부흥, 성령의 축제』, 『성령의 은사와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등이 있다.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스리랑카 선교사 **민흥기**

고신교단에 속한 목사로 1999년 스리랑카로 파송받은 민흥기 선교사는 중소도시 영천에서 재미있는 목회를 하는 중 선교를 보다 확실히 이해하고 돕기 위해 선교훈련을 받고 스리랑카와 인도 단기선교여행을 통해 스리랑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다. 현지신학교 교수사역과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현지인들을 품고 교회개척과 어린이 사역을 펼쳐가고 있으며 사모인 심혜진 선교사는 현지어로 어린이 찬양테이프와 CD를 제작하여 어린이 예배가 거의 전무한 스리랑카에 어린이 예배를 정착시키는데 힘쓰고 있다. 쓰나미 이후 어려운 가운데 S.F.C. Ministry라는 교단을 정부에 등록하였고 이를 통해 열다섯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가나 선교사 **이태현**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러시아 선교사 **박선자**



총회세계선교회 소속으로 1992년 러시아로 파송되어 현재까지 사역중인 박선자 선교사는 독신으로 오대양 육대주를 다니며 부흥회를 인도하는 꿈만을 꾸어오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1984년 강승규 선교사와 결혼하였고 8년간을 버티며 남편을 따라 선교지로 가지 않겠다고 발버둥치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현재 남편과 함께 러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다. 한민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구노회 전도사 고시를 합격하였다.



새벽기도회

선교도전/ **김영관 선교사** 베트남 설교/ **한기홍 목사** 남가주은혜한인교회

성경강해

강사/ **이상남 목사** 세계동대교회

주제강연

주제강연 I 강사/ **조동진 목사** 조동진선교학연구소
 주제강연 II 강사/ **이동휘 목사** 전주안디옥교회
 주제강연 III 강사/ **김남수 목사** 순복음뉴욕교회
 선교도전 강사/ **스티브 세인트** 에콰도르순교선교사아들
 선교전략 사회/ **강대홍 선교사**
 패널리스트/ **장순호 선교사**
최광규 선교사
백신종 선교사
안종렬 선교사
김선옥 선교사

저녁선교대회

사회/ **박은우 목사** 공동준비위원장
 기도/ **최재영 선교사** KWMC
 선교보고/ **홍성애 선교사** 브라질
 선교보고/ **류수혜 선교사** 방글라데시
 선교보고/ **권경숙 선교사** 모리타니아
 설교/ **장영춘 목사** 쿤즈장로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자가 됩시다!

[새벽기도회 설교]

남가주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흥**



전세계 48개국에 209명의 선교사를 파송, 백만여명의 원주민 교인을 품은 8천여개의 현지교회를 개척해낸 막강한 G.M.I. 선교운동은 종이 섬기는 은혜한인교회를 모체로 하며 이는 초창기부터 세계선교를 최우선 목회과제로 정하고 교회 재정의 50%를 선교에 투자한 아름다운 열매이다. 그는 정치가의 꿈을 안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으나 주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고 성직의 길에 생애를 던졌다. Alliance Seminary (M.Div.), CA Union 신학대학원 (D.Min.)을 수학, 남가주오렌지카운티교협 회장, KIMNET 회장, 미주OM 부이사장, G.M.I. 선교대학 이사장 등을 역임한다.

예수 믿으면 분명히 변화 받는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 (마태복음 5:13)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 (마태복음 5:14)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17)

분명한 변화는

1. 영적인 변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엡2:1)
2. 신체적 변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출15:26)
3. 삶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베드로, 요한은 앓은뱅이를 고치며, 오천명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켰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1. 변화 받은 사람이 변화 시킬 수 있다.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 요한은 성령 받고 변화되어 사도가 되었다.

2.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 시킬 수 있다.

"제 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행 3:1)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히 기도에 힘쓰니라" (행 1:14)

예수님의 기도생활

- ① 새벽: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막 1:35)
- ② 철야: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눅 6:12)

- ③ 금식: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마 4:2)
- ④ 간절한 기도: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더라" (눅 22:44)
기도의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하다.

3.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사도행전 3:6)

- ① 예수의 이름에는 엄청난 권세가 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밟으며 무손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마가복음 16:17-18)
- ② 예수 이름을 믿고 활용하라.

4. 협력하는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사도행전 3:4)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1)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19-20)

하나님의 구원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다윗과 선지자들을 거쳐서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된다.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역사는 선교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을 통하여 지금 전 세계에서 실현되고 있다.

본 강의는 성경전체의 관점에서 세계선교의 시작부터 완성까지의 모든 과정을 살펴본다.

세계선교를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선교사역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약점들과 유혹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새벽기도회 선교도전]

베트남 선교사 **김영관**



1990년도 베트남 선교사로 파송받고 18년을 사역해 오고 있는 김영관 선교사는 감리교 목사(안양교회소속)로 성균관대학 법과, 서울신대 신학과를 졸업 하고 감신대 선교대학원, 필리핀 크리스찬 대학, 유니언 신학대학원(목회학 박사)을 수료했다. NGO 프로젝트 허가를 받고 베트남복지선교회와 국제기아대책기구 사회사업가로 활동하고 있다. 호지민에 있는 휴먼직업기술학교를 설립하여 이사장으로, 세계감리교선교사협의회 회장, 세계한인선교사회 공동부회장(인도차이나 지역회장)으로, 호지민에 위치한 베트남한인연합감리교회 설립하여 초대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말라기에 나타난 추수 종말시대의 긴박성

[성경강해]

세계등대교회 담임 **이상남**



45년의 성역을 통해 목회자로, 부흥사로, 주와 동행하는 예수제자양성을 위한 『왕의복음선교훈련원』(KCI) 사역으로 70여 개국에서 선교사 양성집회를 수없이 인도하며 늦은 비의 성령폭발을 목도해 온 종으로 목회 도중 자아가 깨어지는 영적대변혁을 경험한 후, 종말론적 성화의 복음메시지를 외치고 있다. 남가주 골지의 세계등대교회를 섬기며 KWMC 금년도 대표의 장이다. 성결신학대학교, 송전대학교, 서울신학대학원을 나와 캘리포니아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를 했다. 『왕의 복음』, 『주와 동행하는 생활』, 『재림과 휴거』, 『인생의 본질과 금선무』 등 저서가 있다.

[말라기 4:4~6절]

서론: 말라기서는 구약성경에 나타난 12권의 소선지서 중 마지막 책으로 주전5세기 중엽에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기록된 말씀이다. 본서에는 예수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종말예언이 구약의 어떤 선지서보다 더욱 깊이 있게 나타나 있다.

성경에 보면 초림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는 세례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미리 앞서 와서 역사하게 될 것을 예고해 주고 있다. (마11:13~14, 막9:13, 눅1:17절 참조)

아울러 재림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는 모세와 엘리야적인 심령과 능력을 받은 종말추수꾼(주의 종)들이 일어나서 모세와 엘리야적인 역할과 사명을 그대로 재현하게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다. (말4:5, 계11:5~6절 참조)

그렇다면 말라기서에 나타난 추수 종말시대 땅끝 세계선교의 역사적인 사명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가장 중대하고도 긴박한 사명은 무엇인가?

1.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목숨 걸고 부르짖는 모세적인 중보기도 역사의 사명이 있다. (말4:6절 상반절, 겔 18:23, 은4:10~11, 창19:29, 출32:31~32, 렘9:1, 겔22:30~31절 참조)

2. 두 번째 사명은 자녀(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말씀을 통한 엘리야적인 회개역사의 사명이 있다. (말4:6절 하반절, 삼상7:5~6, 욥2:12~14, 마3:8~10, 행2:36~39절 참조)

결론: 마지막 종말시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추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 여러분!

- 우리 모두
- ① 모세와 같은 목숨 건 중보기도의 역사와
 - ②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통한 회개의 역사에함께 동참하고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세계선교 지도력 개발과 21세기 선교신학 정립

[주제강연 I]

조동진선교학연구소 소장 **조동진**



한국교회 세계선교운동의 위대한 선도자이다. 1963년 『국제선교신학원』(ISM)을 설립, 1973년 『동서선교연구개발원』(EWC)으로 확장, 동년에 『아시아선교협의회』(AMA)창립을 주도, 1974년 제1회 로잔대회 강사로 선교구조 쇄신을 역설, 1980년 『바울의집』을 세워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였고 1989년 이래 20회 이상 북한을 방문, 김일성 주석과 세차례 단독회담 후 김일성종합대학과 평양신학교의 교수로 위촉되고 빌리 그레함과 지미 카터의 평양방문을 주선하였다. 80세가 된 2004년 후학동문들의 후원으로 『조동진선교학연구소』를 설립하고 『세계선교박물관』 설립을 추진중이다.

올바른 선교는 올바른 세계관과 올바른 역사관, 그리고 올바른 성서적 시관(時觀) 위에 한국 교회의 선교의 기초가 확립되도록 하는 지도력이 더 우선적인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1. 원시 선교로서의 신약시대의 사도적 선교의 원형은 프리 크리스텐덤(pre-Christendom)의 역사 위에서 시작되었다. 콘스탄틴 이후 크리스텐덤(Christendom) 위에서 지속된 그레코 로마 시대와 그 뒤를 이은 교황 시대의 로마 케톨릭 선교, 그리고 18세기 이후의 프로테스탄트 선교는 크리스텐덤으로부터 비기독교 세계(heathen world)를 향한 것이었다.

2. 그러나 이제 21세기 비기독교 세계(non-Christian world)로부터의 선교의 주도세력인 한국을 비롯한 제 3세계 선교 세력은 서구 크리스텐덤들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탈식민지 신생 독립국가들(decolonized newly independent nations)로부터의 선교의 시대이다. 이러한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의 역사적 전환기에 들어선 것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21세기의 새로운 글로벌 리더로서의 정체성(identity)을 가질 수 없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서구 기독교 국가의 식민지가 아닌 비기독교 세계 속의 대표적 이방종교 국가인 일본 제국의 식민지 정권 지배 아래서 억압과 굴욕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특수한 민족으로서 기독교를 민족의 종교로 수용하여 민족 해방의 주체세력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특수한 역사적 환경 속에서 선택받아 비기독교 세계의 선교의 선도세력이 된 한국의 21세기 선교는 새로운 글로벌 리더로서의 특수성(uniqueness)을 가진 각별한 역할(distinctive role)이 주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3. 21세기 비기독교 국가로부터의 새로운 선교세력의 지도력은 전통적 서구 기독교 국가인 크리스텐덤으로부터의 비기독교 세계를 향한 전통적선교의 계승 세력이 아닌 시도시대의 선교와 같은 약한 자와 놀라운자와 빼앗긴 자들로부터 강하고 적대하는 반기독교 세력들을 향한 선교의 세계관 위에서의 21세기 새로운 세계선교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기초로 출발해야 한다.

4. 21세기 세계선교는 콘스탄틴 이후 2000년간 계속되던 서구 크리스텐덤의 제도적 교회시대의 황혼으로 사도적 선교원리로 회귀(回歸)라는 새벽을 열기 시작했다.

① 21세기의 이러한 새로운 트렌드는 먼저 거대한 성당과 교회 건물없는 믿는 자들의 신앙공동체로서의 Churchless Christianity의 폭발적 증가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가정교회와 아프리카의 비제도적 신앙공동체, 그리고 인도의 힌두교도 속에서의 그리스도인 신앙공동체 같은 새로운 교회운동들로 입증되고 있다.

② 성직자 중심 선교사 파송제도가 쇠퇴하면서 평신도 전문인선교운동이 확산되고, 선교학에서도 <Business as Mission>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고 <세속사업(Secular Business)>를 통하여 민중과 민족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Transformation>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③ '단기선교사(Short Term Missionary)' 또는 '비거주선교(Non-Residential Missionary)' 운동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④ 선교대학원들이 그 명칭에서 '선교(Mission)'라는 이름 대신 <Inter-Cultural Studies>로 바꾼지 오래다. 한국 교회는 이러한 21세기 세계선교 트렌드의 급격한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다.

5. 코페르니쿠스 이전의 천동설과 그 이후의 지동설에 따라 그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 이후 지구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한 것처럼; 또한 아이작 뉴턴의 만유인력설 이후 과학의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처럼; 20세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 이후 과학의 혁명적 패러다임으로 전환된 것과 소련 우주인의 우주 왕복과 미국 아폴로 호가 달에 착륙한 이후 우주시대의 새 패러다임이 열린 것처럼; 신생 탈식민지 독립국가들이 세계선교의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한 비기독교 국가로부터의 21세기 새로운 선교세력은 우주시대의 새로운 공간개념 같은 새로운 역사관과 시관(時觀)을 필요로 한다.

이 같은 시관은 "현재와 과거가 단숨에 비약하여 미래의 창조 속에 용해되는 <폭발적 시간>을 의미한다. 이미 우리는 지난 20세기 후반 <교체적 시간>인 과거와 미래가 끊임없이 경쟁하는 시간을 지나 미래가 현재가 되는 <추진적 시간>을 통과했다.

6. 지금 한국 선교운동의 가장 큰 문제는 오늘의 이러한 선교의 새 역사창조의 <폭발적 시간>이라는 위기의 시간에 그 위기감이 없는 한국 교회 선교지도자들의 불감증의 문제이다. 우리는 미시오 메트릭스의 숫자적 마력에 매혹되어 있을 시간이 없다.

인간 발전과 인간 개발을 향한 무한 도전은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파괴한 지 오래다. 진화론(theory of evolution)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교란시킨 인간은 마침내 생명의 질서를 파괴하기 시작했다. 교회가 동성 결혼(homosexual marriage)을 용납하고 성 전환 수술(sex reversal operation)이 보편화 되더니 결국은 생명 복제(生命複製)의 문턱에까지 이르고 말았다.

7. 한국 선교지도자들은 21세기가 이러한 지구 종말론적 시대로 변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 교회 선교사들은 21세기 종말론적 시대에 적응하는 선교정책과 전략을 펼쳐나가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세계로 출발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주제강연 II]

바울선교회 회장, 전주안디옥교회 원로 **이동휘**



1983년 미군 참고구조물로 전주안디옥교회(일명 강동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위해 불편하게 살자"라며 일평생 선교와 구제를 위해 온 몸을 다 바친 충성된 종은 교회재정의 70% 이상을 세계선교에 사용하며 그 흔한 자가용 하나 없이 검소와 절제의 삶을 살아왔다. 또한 단독교회의 틀을 벗어나 초교파적 선교단체인 『바울선교회』를 만들어 현재 80여개국 320여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세계선교의 큰 획을 그기도 했다. 23년 사역후 원로목사로 추대된 이목사의 자녀 4명도 선교사로 바쳤다. 현재 『바울선교회』를 총괄 지휘하며 선교집회 등을 통해 지역교회 선교활성화에 주력한다.

[마28:18-20]

I. 선교사 자격증 (행1:8)

선교사 자격증 "성령-권능-증인" 성령 받는 순간 선교사 자격증 받는다. 베드로, 바울에게 있는 성령과 동질의 성령이 내안에 계신다. 타문화권 혹은 초 문화권에서 복음 전할 때 전문적인 용어로 선교사라 부른다. 사도나 선교사란 의미는 보냄을 받았다는 뜻.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20:21) 우리 모두 보냄 받은 자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모두 선교사이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II. 주님의 마지막 명령, 유언, 유훈, 대위임이 행1:8이다

승천 전 마지막 말씀, 어명이다. 순서적 명령 아니고 동시적 명령으로 지금 네 지역 선교를 감당해야 한다. 선택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이다.

III. 네 구역을 책임진다.

1. 예루살렘-중심도시. 내가 사는 도시나 주 - 청주에 살면 청주와 충청북도가 예루살렘 선교지다.
2. 온 유대-나라개념. 한국인은 한국복음화에, 미국에 살면 미국이 선교지로 나라의 복음화에 전력해야
3. 사마리아-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주전 721년에 앗수르에 북 이스라엘이 패망 한후 수도인 사마리아에 앗수르 사람과 여러 종족을 이주 시킨 후 혼혈이 되고 이방인처럼 되어 남 유대에 멸시와 천대 받음. 소외된 사람들(북한과 특수지역 장애인 선교)
4. 땅 끝--세계선교 해외선교.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 전하고, 선교사보내고 돕고 가야 한다.

IV. 선교 지향적 교회와 크리스찬으로 전환

사도적 교회로. 반문화적 교회로. 전투적 교회로 체제 변화해야

V. 선교사로 출발 (마28:18-20)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뚜벅뚜벅 걸어오신 후 모든 민족에게로 나가라고 명령하신다. 세상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는 보장을 주시면서 그리스도인 모두를 선교사로 보내시는 명령을 하달하셨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권능의 성령님께서 같이 계시기에 담대히 선교사로 출발하여야 한다. 8가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란다.

1. 해외선교사

- ① 복음 전하는 장기선교사로 일생을 선교지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한다.
- ② 단기(1-3년, 매년일정기간, 기회 있을 때 마다) 단기로 선교사역에 헌신할 수 있다.
- ③ 전문인 선교사로 자기의 특기와 전문분야로 선교사로 일할 수 있다.(의사, 간호사, 교사, 교수, 인터넷, 태권도, 기타기능인)
- ④ 해외근무(지사장, 공관원) 기간 동안 선교적 사명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 ⑤ 무역이나 해외활동 중 선교사적 위치에서 복음의 영역을 맡아 감당한다.
- ⑥ 국제 협력 단을 통한 군복무(남자)로 그 나라의 선교사와 협력 선교사로 활동한다.
- ⑦ 안식년 및 교환교수 기간을 선교기회로 삼아 복음의 후진지역을 택한다.
- ⑧ 은퇴 후 선교사역자로(silver missionary) 남은 일생을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일한다. 자비량 선교를 할 수 있다.
- ⑨ 단기선교여행을 자주 가서 선교사를 돕고 선교현장을 자주 경험한다.
- ⑩ 해외에 기념교회를 설립한다.(결혼기념, 회갑, 출생, 장례, 졸업, 은퇴기념)
- ⑪ 유학생 및 해외노동자를 위한 예배와 전도로 교회와 성도는 그들에게 복음 전한다.
- ⑫ 선교사를 지원하므로 기도와 물질을 공급하고 선교정보를 듣고 기도한다.

2. 부모선교사

- ①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주께 바침으로 귀한 일생을 살게 했다.
- ② 부모는 자녀를 주님께 선교사나 성직자로 바쳐 세계복음을 추진한다.
- ③ 주일학교 교사나 학교 교사는 학생을 선교사로 헌신케 하여 인생의 안내자가 된다.
- ④ 교인을 모두 선교사로 헌신하도록 하여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 ⑤ 하나님도 예수님을 선교사로 보낸 선교사 아버지이다.

3. 기도 선교사

- ① 선교사를 위한기도(선교사는 기도 먹고 살아)를 쉬지 않고 한다.
- ② 고통 받는 세계 그리스도인과 순교자 가족을 위해 기도를 한다.
- ③ 선교사가 운영하는 모든 사역을 위해 기도한다.
- ④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체제변화가 있도록 한다.
- ⑤ 북한이 빨리 복음화 되고 자유를 얻도록 기도한다.
- ⑥ 악의 세력이 꺾여 지고 사탄의 진지가 무너지도록 기도한다.
- ⑦ 교회가 부흥되고 은혜 증만하여 사도행전의 교회가 되도록 기도한다.
- ⑧ 선교비가 모자람 없이 채워지고 더 많이 선교가 확대되도록 기도한다.

4. 물질선교사

- ① "소유주" 하나님과 "사용자"인 나와 의 관계를 구분하여 주인의 뜻대로 물질 사용하도록 한다.
- ② 청지기의 사명을 인식하고 내가 물질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바꾸도록 한다.
- ③ 십일조는 주님의 것이므로 반드시 온전한 십일조를 드린다.
- ④ 재정의 50% 이상을 선교와 구제로 사용하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 ⑤ 헌금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한다.
- ⑥ "불편하게 삽시다"의 신념을 가지고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 불편을 감내하자.
- ⑦ 가계부를 선교장부로 전환하고 선교에 큰 비중을 두도록 하자.

5. 직장 선교사

- ① 직장마다 직장선교회를 조직하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직장동료를 구원하자
- ② 직장의 선교사로 출근하여 그 직장에 선교사가 되어 영적인 사장이 된다.
- ③ 출근인사를 "선교사님 잘 다녀오세요"로 하여 아침마다 직장선교로 다짐케 한다.
- ④ 직장동료, 직장인 가족 그리고 고객구원 계획을 세워 전도 활동을 열심히 한다.
- ⑤ 직장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바꾸도록 한다.(술, 무당, 뇌물, 허위문서, 음란문화)
- ⑥ 직장의 모범사원으로 일하므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낸다.
- ⑦ 직장번영을 위해 기도하므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직장이 되도록 한다.

⑧ 부부같이 직장 선교회에 가담하여 신앙적인 뜨거움을 가진 직장선교회가 되게 한다.

6. 가족선교사

- ① 가족구원은 하나님의 약속(행16:31)이므로 특권이요 축복이다
- ② 불신가족 명단을 작성하여 매일 지도하고 전도계획을 세운다.
- ③ 가족에게 사랑나누기를 하므로 가족의 칭찬을 받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
- ④ 불신가족을 자기도시와 가정에 초청하여 교회에 첫발을 내딛도록 한다.
- ⑤ 생명구원의 큰 수확을 위해 자기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한다.(유산상속 등)
- ⑥ 가문에서 선교사가 배출되도록 기도한다.

7. 문화선교사

- ① 기독교정신으로 문학과 예술을 하여 기독교적인 문화를 형성하도록
- ② 신앙과 학문을 연계(교사)하여 (경제학 교사는 성서적 입장에서 보는 경제학을 가르치고 정치학교수는 성서적 입장에서 보는 정치학을) 신앙적 학문을 하도록
- ③ 인터넷을 통해 복음 전달하여 모든 사이트에 신앙간증과 복음을 올리도록 한다.
- ④ 인터넷 퇴폐 사이트에 협력 안하도록 하여 적은 돈도 결계하지 않도록
- ⑤ 한국의 폐습 고치기에 동참한다 (예단 안받기, 무당과 기복적비 신앙적 행위배격)
- ⑥ 제사는 중국 수입품임을 역사적으로 깨달아(우리고유의 미풍양속 아니다) 참 효도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정성 다 하는 것임을 인식하도록 한다.

8. 길거리 선교사

- ① 물건을 살 때나 팔 때에 선교사라는 신분과 태도로 아름다움을 보여주도록
- ② 택시요금 잔돈 받지 않고 예수님 전하기
- ③ 길거리노점상에게 일부러 물건 구입하고 사랑배필기(서비스 제공)
- ④ 자가용에 성구티켓 부치기를 하여 모든 차량이 주행하면서 예수님을 소개받도록
- ⑤ 음식점에서 기독교인들이 말을 삼가므로 오염을 끼치지 않도록
- ⑥ 버스과 기차 여행 중에 교회의 부정적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주의 할 것.
- ⑦ 땅 밟기 기도 하면서 그 도시를 기도의 띠로 묶도록

세계선교의 전략과 전술

[주제강연 III]

순복음뉴욕교회 담임 김남수



서독 베를린에서 목회하다 1977년 순복음뉴욕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하여 말씀과 성령운동의 건전한 조화를 추구하며 숨 가쁘게 달려온 김남수 목사는 대형 교회이면서도 가족같은 따뜻함이 흐르는 교회, 훈련된 평신도가 목회와 선교의 중심이 되는 교회, 오순절 성령운동을 구심점으로 하여 원심력적인 국내전도와 세계선교에 힘쓰는 교회, 어릴적 부터 체계적인 신앙교육을 통해 이민교회와 사회의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 군함의 영성을 지닌 잘 훈련된 교회를 꿈꾸며 성공적인 목회를 해 오고 있다. 순복음뉴욕교회는 지나친 경쟁으로 피로 물든 레드오션을 떠나 새로운 블루오션을 개척하자는 필요성을 느끼고 2000년부터 에콰도르, 도미니카, 온두라스, 볼리비아 등 중남미 등지에 크리스천 초등학교 10개를 건립 1만여의 어린이가 재학하고 있으며 어린이 뿐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주민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전초기지가 되는 등 좋은 반응이 곳곳에서 나타나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어 이러한 크리스천 학교 건립은 다른 교회에도 영향을 끼쳐 뉴욕지역 한인교회에 기독교 설립 붐을 일으키고 있다.

세계 3대 종교의 기본 전략 분석

- 북한 공산주의의 전략
- 모슬렘의 전략
- 카톨릭의 전략

- 교회의 애국심 교육
- 교회의 구제사역
- 교회의 본질 상실

교회 연합(Networking)과 세계 선교의 전술적 검토

- Global Education Network(GEN) 설립
- 어린이 교육 선교

기독교 선교의 전략적 문제:

- 한국, 이민 교회의 책임을 중심으로 교회의 책임
- 교회성장과 성인중심의 목회
- 교회의 정치참여

결론

하나님이 쓰신 이야기

[선교도전]

에콰도르 순교선교사의 아들, 『창의 끝』 저자 스티브 세인트



Steve Saint : 에콰도르 오지 식민종 와오다니 인디언들의 대창에 찢려 죽임을 당한 힛튼대학 출신 5명의 미국 선교사 중 하나인 네이트 세인트의 네살난아들로 에콰도르에서 성장, 13세 때 아버지를 죽인 인디언 가운데 목사가 된 원수의 손에 아버지가 순교당한 파라레이 강가에서 침례를 받았다. 당시 5명 선교사의 순교는 『선교사 대학살 사건』으로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현재 그는 원수였던 인디언들에게 화해와 용서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신앙훈련, 직업훈련, 기술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아버지의 순교와 자신의 선교 이야기를 담고 있는 『창의 끝(End of the Spear)』 저자이며 이것은 영화화되기도 하였다.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브라질 선교사 **홍성애**

남미의 제일 큰 나라인 브라질의 아마존 인디오 사역을 하고있는 홍성애 선교사는 현재 4종족의 인디오들을 섬기고 있다.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방글라데시 선교사 **류수혜**



미시간 디트로이트연합감리교회에서 파송받아 방글라데시 나환자 재활사역을 하고 있는 류수혜 선교사는 미국에 이민와 살다가 남편이 가게에서 일하던 중 흑인의 총에 맞아 피살되는 극심한 아픔을 겪고 어려움중에 “이 모든 일에 욕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 하더라”는 말씀을 붙잡고 아무 특기도 없고 전공도 없는 평신도지만 단기선교팀 일원으로 1993년 방글라데시에서 소외되고 병든 나환자들을 만나면서 지금까지 6년간 그들을 사랑하고 친구 되어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주리라는 영의 외침에 순종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모리타니아 선교사 **권경숙**



권경숙 선교사는 아프리카 북서부에 위치한 모리타니아라는, 1960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인구 3백만의 작은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다. 현재 모리타니아에서 법적으로 선교는 허용되지 않는다. 권경숙선교사는 지역관청의 위임을 받아 정신장애인 보호와 여성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많은 지역 교회들이 문을 닫았지만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권선교사가 시무하고 있는 ‘아프리카 우리들교회’에는 9개국 사람들로 구성된 1백60여 교인이 출석하고 있다. 공식적 통계로는 국민의 1백%가 모슬렘으로 알려져 있는 모리타니아에도 최근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선교를 위해 컴퓨터, 태권도, 음악 등 다양한 기술과 재능을 가진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한다.

미완성과업의 마지막 주자로 열방은 부른다 한민족 교회를!

[저녁선교대회 설교]

퀸즈장로교회 담임 **장영춘**



1973년 뉴욕에 교회를 개척, 35년간 복음주의적 열정의 목회를 통해 미동부 최대의 교회중 하나로 성장시킨 능력의 목회자이며 『미주크리스찬신문』을 발행, 문서선교운동에도 앞장서며 『동부개혁장로신학교』를 설립, 후진양성에도 진력하고 있다. 총신대 대학원, 센추럴신학교, 페이스신학교를 거쳐 캘리포니아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했다. 대뉴욕지구 교협 회장, 미주한인예장 총회장, 미주기독교복방선교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였고 주요 저서로는 『살아있는 나침판』, 『아가페와 필레오의 대화』, 『예수님의 눈물』, 『평화의 이상』, 『데오빌로여』이 있다.

[마태복음 28:18-20, 요한복음 1:14]

1. 섭리 : 한민족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과거)

개화기: 선교사들의 피로 얼룩진 조국에 복음의 씨앗이 묻혔다.

- 1) 대원군의 배교 정책
- 2) 일제 신사참배 강요
- 3) 공산주의의 침입과 핍박

2. 은총 : 한민족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총(현재)

- 1) 6.25 전란으로 인한 교회의 수난과 부흥
- 2) 경제성장과 교회 부흥 및 신학 교육의 활성화
- 3) 한국 교회를 향한 선교의 사명

3. 비전 : 한민족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미래)

- 1) 인류 구원을 위하여 선교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자
- 2) 성육신의 선교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자
- 3) 성령 충만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자(행 1:8)

4. 결론

말씀, 기도, 성령, 사랑 충만으로 선교의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탁하신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수가 되자!



새벽기도회

선교도전/ 이병구 선교사 인도
설교/ 이성철 목사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

성경강해

강사/ 정인찬 목사 백석대목회대학원장

주제강연

주제강연 I 강사/ 토마스 왕 목사 백투예루살렘운동
주제강연 II 강사/ 이승중 목사 샌디에고예수마을교회

제녁선교대회

사회/ 안영섭 목사 공동총무단
기도/ 이상진 장로 공동대회장
설교/ 강준원 목사 공동준비위원장

성령의 권능으로!

[새벽기도회 설교]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 담임 **이성철**

성령님이 주도하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교회,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라는 목회철학을 가지고 1990년부터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성철 목사는 광주일고, 연세대학교를 거쳐 The United Graduate School of Theology(Th.M, 1984)와 Perkins School of Theology(M.Div, 1991)을 졸업하였다.



[새벽기도회 선교도전]

인도 선교사 **이병구**

총신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2002년 GMS MTI 훈련받고 12월 15일 성남세광교회 주후원으로 GMS 선교사로 인도 벵갈로에 파송받았다. 현재 라디방시 미전도종족 개척과 벵갈로 웰컴교회 개척, 목회자 영성훈련, 장래 인도 인재를 위해 어린이 기드온 300 용사를 후원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아내 김수정 선교사와 예일, 예은, 그리고 장인 김종업 장로와 장모 김혜정 권사와 함께 인도에서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다.



이사야서의 빛에서 본 선교비전

[성경강해]

백석대 목회대학원장 **정인찬**

방대한『성서대백과사전』(15권)을 저술한 해박한 성서신학자요, 성령의 은혜가 깊은 영성의 목회자요, 덕망과 포용력을 갖춘 겸허한 인격자라는 인정을 받으며 휴스턴한인교회를 미남부 최대의 한인교회로 성장시켰고 전국적 부흥집회를 통해 이민교회를 든든히 세웠던 충성된 종은 현재는 한국에서 기독교 명문인 백석대학 목회대학원 원장으로 그동안 쌓아온 목회학과 영성신학을 강의하며 목회자양육과 선교사훈련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송전대, 호서대 교수, 휴스턴신학대학 학장, 미주통일선교대학 학장,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사야 65:1]

우리는 현대 Postmodernism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후기주의시대는 3가지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가 가치관의 변화요 두 번째가 세속화요 세 번째가 극단적인 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Information은 있어도 Formation이 없으며 Survive는 하려고 해도 Revival이 없으며 Postor와 Missionary는 많으나 참 Mentor가 없는 시대라고 정의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경시현상이 일어나 Program은 있으나 예수는 없으며 참된 말씀중심의 사역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사역은 확장되는 것이나 사람의 변화가 없어 세상은 변화되지 않으며 변화된 사람을 통한 선교 역사 또한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는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되고 임자되는 하나님을 떠났다고 예언하고(1장) 이 일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며 누가 갈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6장)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던 나라와 백성이 듣고 다 주께로 돌아오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사 60-65장). 이제 이사야서를 통하여 말씀 중심의 선교 Vision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케리그마 중심의 선교 토대

선교를 통해 사람의 삶에 유익을 주는 구제보다 구원이 우선되며 프로그램 중심보다 말씀중심으로 그 사역이 Shift되어 그리스도 없는 프로그램 중심의 선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선교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2.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 선교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3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① 사건 중심의 성경 해석(Event-Centric Interpretation)
 ② 사람중심의 성경 해석(Human-Centric Interpretation)
 ③ 그리스도 중심 성경 해석(Christo-Centric Interpretation)
 이 그것입니다.

3. 효과적인 선교사의 역할:

이제 이 말씀 중심의 선교사역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말씀이 임하고(Coming), 거하고(Dwelling), 역사(Work)하고 나타나는(Epiphany)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사역을 통해 세계를 복음화 했던 그 역사가 오늘날에도 나타나 Postmodernism 시대의 모든 선교도전들을 극복하고 새 선교 전략의 Vision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계를 품은 기독교인의 삶

[주제강연 I]

Great Commission Center, 백투예루살렘운동 총재 **토마스 왕**



Thomas Wang: 제3세계선교운동의 가장 존경받는 영도자 토마스 왕 (王永信) 박사는 중국 북경 3대째 기독교가정에서 출생, 11세대 전도자 존 성을 통해 회심, 왕명도 목사에게 양육받고, 1961년 『중국기독교선교회』를, 1976년 『중국세계선교협의회』를 창설, 1987년 로잔 사무총장에 피택, 1989년 『제2차 마닐라 로잔세계선교대회』를 총괄하였고 그 때 『기독교 21세기 운동』을 일으켜 미전도종족복음화에 총력을 기울였고 1989년 대사명신학교/선교센터를 세워 중국어권 선교사역자양성에 주력하였으며 현재는 중국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선교대장정을 위한 『백투예루살렘운동』을 총괄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년간 바울과 디모데처럼 본대회 사무총장 고석희 목사와 부자의 연을 맺고 초창기부터 빌리 그레함과 함께 각별한 애정과 열정으로 KWMC선교운동을 배후에서 크게 도와 주셨다.

하나님께서 중국에서 크게 쓰셨던 허드슨 테일러와 Xi Sheng-Mo(席勝魔)의 삶과 인격, 영성과 리더십을 통해 오늘날 세계를 품은 기독교인의 삶의 모델로 삼고자 한다.

차세대 세계선교 아젠다

[주제강연 II]

샌디에고예수마음교회 담임 **이승종**



이민교회를 한국교회의 연장이 아닌 선교적 시각으로 볼 때 5천년 민족사에 세계선교의 여울목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분복이라 믿는 그는 사역보다 먼저 사람이라는 고백을 품고 이민교회 차세대 인물양성을 위한 사역기구인 『어깨동무사역원』을 설립, 내일의 씨앗을 심어가고 있다. 장신대, 리버티대학, 샌추얼침례신학교(M.Div), 샌프란시스코신학교(D.Min)를 수료하였고 몽골국제대학교 대표이사, NorthField Foundation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1세, 1.5세, 2세의 동반사역을 통한 이민모델교회상 정립에 힘쓰고 있다. 저서는 『목양심서』, 『선비기독인』 등이 있다.

1. 한국 교회 세계 선교의 회고
2. KWMC의 정체성 확인과 세계선교 진단
3. 차세대 선교 운동의 Agenda

맺는말 :

- 1) 건강한 지도력 계승으로 연속적인 선교 에너지 활성화.
- 2) 세계선교와 흩어진 디아스포라 한민족을 향한 선교사 재배치.
- 3) 북미주 차세대 선교자원 개발과 효율적인 동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폐회예배 설교]

공동준비위원장 단장 **강준원**



강준원 목사는 단국대 법대, 장로회 신학교, 총회신학대학원, 와싱톤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사뮈엘인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멕시코 내륙선교회(MIM) 이사장,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부의장이며 본 선교대회의 공동준비위원 단장이다.

[요한복음 6: 35-40]

1. 주님에게만 진정한 떡과 진정한 생수가 있다
2. 주님께 가는 자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신다.
3. 주님 품에 안기면 영원한 축복을 누린다.
4. 주님께로 간 자는 최후에 승리로 영광에 참여한다.

우리 모두 나만 주께로 행해 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뛰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우리의 사명이다. 40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투자하여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원해 내는 일에 열심히 뛰고 헌신하자.



당면한 선교현안들과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을 위해 150여개의 다양한 주제들과 한인/외국인/선교사 강사들의 선택강좌가 대회를 화/수/목 오후 3:30과 5:00에 1시간씩 진행됩니다.

1. 선교일반/역사/동향

①-01	19세기의 강력한 부흥과 선교의 물결	랄프 윈터	화 3:30 / 5:00	Blanchard 222
①-02	기독교, 세계 종교의 다양성을 따라	랄프 윈터	수 3:30 / 5:00	Blanchard 222
①-03	21세기의 놀라운 가능성	랄프 윈터	목 3:30 / 5:00	Blanchard 222
①-04	역사는 우리를 증인으로 부른다	토마스 왕	화 5:00	Armerding 18
①-05	지구횡단의 선교 대장정	토마스 왕	수 3:30	Armerding 18
①-06	새로운 세계에 있어서의 지리정치학적 지역과 선교적 전략지역으로서의 중앙아시아 연구	조동진	목 3:30 / 5:00	Blanchard 435
①-07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선교의 네 구역	이동휘	화 3:30	Armerding 18
①-08	영적 Leadership과 선교	정인찬	목 3:30 / 5:00	BGC 132
①-09	현대선교의 동향	강대흥	화 5:00	Armerding 226
①-10	새로운 전환기의 선교	채수일	화 3:30 / 5:00	BGC 130
①-11	Missio Dei 이후의 선교	채수일	수 3:30 / 5:00	BGC 130
①-12	평화, 대화, 섬김으로서의 선교	채수일	목 3:30 / 5:00	BGC 130
①-13	지구촌과 지구윤리	강성영	수 3:30 / 5:00	SRC 9
①-14	소비사회의 인간이해 - 광고와 선교	강성영	목 3:30 / 5:00	SRC 9
①-15	부흥의 대각성 운동을 통한 세계선교의 역사	김종필	화 3:30	BGC 432C
①-16	영혼 대추수를 위한 세계 선교 운동과 부흥운동	김종필	화 5:00	BGC 432C
①-17	장기적인 부흥을 위한 선교전략	김종필	수 3:30	BGC 432C
①-18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부흥의 방편들	김종필	수 5:00	BGC 432C
①-19	21세기 세계 선교의 전망과 변화의 특징	김종필	목 3:30	BGC 432C
①-20	선교의 완성을 위한 대각성 운동	김종필	목 5:00	BGC 432C
①-21	현대선교의 경향과 대책	조용중	목 5:00	Armerding 126
①-22	현지교회 및 북미의 타문화권 교회의 동원 및 참여	백운영	수/목 3:30	Evans Lounge
①-23	세계 선교에 대한 성경적 기초	김영진	목 5:00	BGC 138

①-24	코란분석과 성경대비 요약정리	이강산	화/수 3:30	BGC 253
①-25	C&MA - 120년 역사의 종말론적 선교운동	문형준	화 5:00	Blanchard 323
①-26	깊은 영성에서 나오는 강력한 선교	고영민	화 5:00	Wilston Hall
①-27	1920년대 발생한 중국 비기독교 운동 내용 요약	김수경	화 5:00	SRC 225
①-28	말하기 어려운 선교 이야기	송민호	화 5:00	Armerding 123
①-29	차세대의 선교 주역	신영선	수 3:30	Breyer 207
①-30	세계선교현황과 GMI 선교현황	양태철	수 3:30	Blanchard 324
①-31	선교현장의 문화이해	오세관	목 5:00	Breyer 111
①-32	선교신학의 미래	신홍식	화 5:00	Armerding 126
①-33	학문의 구조에 있어서 선교학의 위치와 역할	이광길	수 5:00	BGC 255
①-34	선교지 신학교육의 공동목표	이진희	목 3:30	BGC B11
①-35	복음적 교회, 대학, 그리고 선교	제임스 네스빗	목 5:00	MSC 304
①-36	사도행전과 서신에 나타난 바울선교 원리의 현대적 적용	이상석	화 5:00	BGC B11
①-37	선교와 정신건강	이승호	화 5:00	Evans 346
①-38	생명의 성령의 법과 선교	정광희	수 3:30	McManis Lounge
①-39	BTJ(백투예루살렘)인가? 땅끝인가?	정형남	화 5:00	Amerding 125
①-40	이슬람 국제운동과 글로벌 지하드	최바울	화 5:00	BSC Chicago
①-41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선교	조종화	수 3:30	McManis 118
①-42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선교다	조혜선	목 3:30	McManis 118

2. 세계를 품은 기독교인의 생활

②-01	여호수아의 신앙과 비전 그리고 선교	박종순	화 3:30 / 5:00	BGC B10
②-02	소그룹 성경인도법과 선교	정인찬	화 3:30 / 5:00	BGC 132
②-03	성령이 말씀하시는 아홉 가지 방법	서삼정	화 3:30	MSC 103
②-04	성령의 음성 듣는 다섯 가지 방법	서삼정	수 3:30	MSC 103
②-05	성령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 분별법	서삼정	목 3:30	MSC 103
②-06	주와 동행하는 생활 <왕의 복음>	이상남	화 3:30 / 5:00	MSC 302
②-07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의 영성훈련	이상남	수 3:30 / 5:00	MSC 302
②-08	성도 욕이 받은 갑절의 복	이상남	목 3:30 / 5:00	MSC 302
②-09	Mission, Marriage and More!	바바라 윈터	화/수 3:30	SRC 223
②-10	The Mission Dilemma 선교의 딜레마	스티브 세인트	목 3:30	SRC 223

②-11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 행하기	스티브 세인트	목 5:00	SRC 223
②-12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는가	글래디스 스테인스	화 5:00	BGC 140
②-13	인내와 헌신, 그 실제적 의미	글래디스 스테인스	수 3:30 / 5:00	BGC 140
②-14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글래디스 스테인스	목 3:30 / 5:00	BGC 140
②-15	성서적 예언 영성	다니엘김	화/수/목 3:30	Armerding 126
②-16	하나님의 음성 듣기	제니퍼 톨리도	화 3:30	MSC 202
②-17	사회적 변화를 위한 외침	제니퍼 / 호나탄 톨리도	화 5:00	MSC 202
②-18	능력전도	제니퍼 / 호나탄 톨리도	수 3:30	MSC 202
②-19	차세대를 풀어놓음	제니퍼 / 호나탄 톨리도	수 5:00	MSC 202
②-20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제니퍼 톨리도	수 5:00	MSC 202
②-21	사랑의 여정	제니퍼 톨리도	목 3:30	MSC 202
②-22	그리스도인의 재정관리	론 스미스	수 3:30	BGC 250
②-23	사도적 인물 이해하기	론 스미스	화 5:00	BGC 250
②-24	말씀에 대한 갈망	론과 주디 스미스	목 3:30 / 5:00	BGC 250
②-25	귀납적 성경공부	론과 주디 스미스	화 3:30 / 5:00	BSC Parmalee
②-26	섬김의 도	주디 스미스	수 3:30 / 5:00	BSC Parmalee
②-27	목자적 목사의 교역	김득렬	화 3:30 / 5:00	Evans Lounge
②-28	말씀의 인격화를 위한 성경통독 특수훈련	안성기	화 3:30 / 5:00	BGC B12
②-29	최고인생으로 삽시다	나광삼	수 3:30	Armerding 20
②-30	날마다 좋은날 보며 삽시다	나광삼	수 5:00	Armerding 20
②-31	하나님의 가족과 깨어진 관계회복	장동찬	수 3:30	BGC B12
②-32	나의 왕국과 예수님의 비전	김재성	수 5:00	BGC B12
②-33	영성훈련과 제자화 운동의 대안모색	김재성	목 5:00	BGC B12
②-34	만인제사장의 역할	김수태	수 5:00	McAlister 224
②-35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 사역행전	박광재	화/수 3:30	Armerding 226
②-36	성경적 기도와 큐티세미나	김정복	화/수 3:30	McAlister 224
②-37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안요한	화 3:30	Armerding 125
②-38	내적치유의 깊은 뿌리	김크리스티	화 3:30 / 5:00	Armerding 20
②-39	가정의 갈등해소	강세대/이희녕	화 5:00	Armerding 122
②-40	쏟뿌리 치유	이희녕	수 3:30 / 5:00	Armerding 122
②-41	The Unique You	로버트 놀드스트롬	수 3:30	MSC 304
②-42	예수제자의 미션	신현	수 5:00	BGC B11
②-43	자존심을 죽이면 교회가 보인다	송금섭	수 5:00	BGC 252

3. 한인세계선교 - Korean World Mission

③-01	한국교회 선교패러다임의 변천사와 미래 전망	조동진	화 3:30 / 5:00	Blanchard 455
③-02	이슬람의 세계화에 대한 한국교회와와 선교사의 대처방안	강승삼	목 3:30	BGC 138
③-03	한국선교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최찬영	화 3:30 / 5:00	Breyer 9
③-04	한국교회 선교훈련의 이슈들	황태연	수 5:00	Armerding 226
③-05	선교사 배치, 재배치, 철수론	박기호	수 3:30 / 5:00	MSC 204
③-06	21세기 미국 선교를 통한 세계선교	고인호	화 3:30	Breyer 207
③-07	김치와 겨울연가 그리고 선교한국: 새로운 선교패러다임을 찾아서	한정국	수/목 5:00	Breyer 9
③-08	개신교 선교 기적, 한국을 오늘 선교지에 재현하자	이종형	목 3:30	BGC B10
③-09	한국교회 선교이론과 선교전략의 갱신과 정립	조일구	수 5:00	Breyer 207
③-10	21세기 선교의 상황화된 선교사 훈련	박시경	화 3:30	McManis 118
③-11	21세기의 새로운 선교 리더십 코칭	박요셉	화 3:30	Evans L139
③-12	글로벌시대의 여성선교사 훈련과 보살핌의 시급성	최옥희	수 5:00	Wilston Hall
③-13	아리랑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이다	박형서	목 3:30 / 5:00	Blachard 322
③-14	한국교회의 개혁과 아프리카의 회복	김형규	목 3:30	Wilston Hall
③-15	한인선교 위기관리 시스템과 실제	이영철	목 3:30	Biamchard 24
③-16	멕시코 한인 디아스포라 100년사를 통한 선교전략	정홍주	수 5:00	McManis Lounge

4. 교회와 선교 - Church and Missions

④-01	보내는 교회의 교회구조	이동휘	수 5:00	Armerding 16
④-02	보내는 교회의 재정정책	이동휘	목 5:00	Armerding 16
④-03	목회와 선교	한기홍	화 5:00	SRC 223
④-04	선교 Vision을 이루는 전략	한기홍	수 5:00	SRC 223
④-05	교회성장을 위한 쉬프트	이춘목	화 3:30	BGC 140
④-06	어떻게 선교하는 교회로 전환할 것인가?	김혜택	목 3:30	BGC B12
④-07	교회의 선교주체성	신홍식	수 5:00	Armerding 126
④-08	교회의 본질과 선교	육호기	목 3:30	McManis
④-09	이민교회의 내일과 탐사역의 적용	이승중	화 3:30	Armerding 123
④-10	이민교회와 선교	강성철	화 3:30	Armerding 122
④-11	이민교회와 선교 : 과테말라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김상돈	목 3:30 / 5:00	Armerding 20

④-12	미주 이민 교회와 중남미 선교	도육환	수 3:30	Armerding 125
④-13	생명력있는 교회만들기 10단계	송영일	목 3:30	Breyer 207
④-14	이민교회의 재정관리: 이래도 좋은가?	홍순백 강현식	화 3:30	MSC 304
④-15	건강한 평신도와 사역자 관계	주용성	화 5:00	McManis 218
④-16	지역교회와 선교정책 - 해외선교를 통한 교회부흥전략	최바울	화 3:30	BSC Chicago
④-17	교회와 선교사와 선교단체가 함께 연합하는 선교시스템	강하수	수/목 5:00	Blanchard 323

5. 타종교/타문화선교

⑤-01	오늘날 중국의 우선순위 - 도시선교	토마스 왕	목 3:30	Armerding 18
⑤-02	타문화권 교회개척 - 건강하고 재생산하는 토착교회 설립을 위하여	박기호	화 3:30 / 5:00	MSC 204
⑤-03	북한 고구마와 통일조국의 전망	김영철	목 3:30	BSC Parmalee
⑤-04	북한선교의 여러가지 방편들	한덕수	수 5:00	Breyer 103
⑤-05	중국의 조선족 학교사역	박양성	화/수 3:30	McManis 218
⑤-06	공산권 (중국, 북한) 선교 공동체	최화목	수 5:00	BGC 254
⑤-07	북한선교정책	김진환	수 5:00	Blanchard 322
⑤-08	디아스포라를 통한 중국선교	최이사	수 5:00	Evans L139
⑤-09	중국선교의 이해와 전방개척선교	이필립	수 3:30	BGC 252
⑤-10	중국변경지역의 교회당 건축 의미와 축복	최민	화 3:30	Wilston Hall
⑤-11	중국선교의 과제와 한국교회의 역할	김학관	화 5:00	Evans L139
⑤-12	북방선교와 민족선교	이예스터	화 3:30	McManis Lounge
⑤-13	미전도 공산권 지역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고주몽	목 5:00	McManis Study
⑤-14	무슬림 지역에서의 교회개척 전략	이준교	목 5:00	Evans Lounge
⑤-15	모슬렘 선교의 과거 모델과 앞으로의 모슬렘 선교	김덕래	화 5:00	BGC 253
⑤-16	최근 이슬람 선교 동향	유해석	화 5:00	Evans L38
⑤-17	하나님의 선교와 현장선교사 - 이슬람의 억압적 상황에서의 복음전파	정여호수아	화 5:00	Breyer 111
⑤-18	이슬람교와 기독교 선교전략	윤사무엘	화 5:00	MSC 304
⑤-19	Sharing your faith with a Muslim	로버트 놀드스툼	목 3:30	BGC 255
⑤-20	아랍어 찬양사역	이바나바	화 5:00	BGC 252
⑤-21	소망의 땅 아프리카	이희성	목 3:30	BGC 252
⑤-22	보츠와나 선교의 개괄	김해영	목 5:00	SRC 225
⑤-23	실크로드 선교전략	조용성	목 3:30	Evans L38

5-24	서북서남실크로드 (sinox-road)	김부식	수 3:30	Evans L38
5-25	일본선교현황과 과제	백종윤	목 3:30	Armerding 122
5-26	일본선교진단과 그 두가지 처방	이철우	수 5:00	NcNabus Study
5-27	일본 복음화의 중요한 선교전략지인 영국	황순자	목 5:00	Evans L38
5-28	힌두교와 선교의 장애들 그리고 인도선교의 전망	조은호	목 5:00	Breyer 207
5-29	Mission in India and Challenges to the Missionaries	데바푸트라	수 5:00	Breyer 103
5-30	Vision Vietnam	정원	수 5:00	Wilston Hall
5-31	필리핀 문화와 문화의 근간인 가족	최용희	수 5:00	McManis 118
5-32	남방불교권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최재영	화 5:00	Bryer 103
5-33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 속에서의 서남아시아 선교	이성상	수 3:30	Wilston Hall
5-34	중앙아시아 다민족교회 개척사역과 비즈니스선교의 중요성	김경일	화 3:30	Evans 246
5-35	신마케도니아 '영광' (성시화, 성국화운동) 프로젝트	김경일	수 5:00	Evans 246
5-36	야생화 기르기 (짚시선교)	김수길	화 5:00	BGC 254
5-37	러시아 개신교 선교세력의 발전과정과 그 전망	안순철	목 3:30	McManis 218
5-38	21세기 러시아 선교	전호중	목 3:30	McAlister 224
5-39	러시아 선교의 현황과 전망 및 전략	장영호	수 3:30 / 목 5:00	Evans 246
5-40	개신교선교에 도전하는 카톨릭 세계관	윤춘식	목 5:00	BGC 254
5-41	라스 까사스를 통해 조명하는 남미선교	최남용	수/목 3:30	BSC Chicago
5-42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을 때	김동승	수 5:00	Breyer 111

6. 선교사/선교헌신자

6-01	바른 선교사를 만들기 위한 선교사 훈련에 관한 연구	조동진	수 3:30 / 5:00	Blanchard 455
6-02	선교사역 28년 (1980~2008) 이 하는 말!	정윤진	수 5:00	BSC Chicago
6-03	선교사역 28을 (1980~2008) 을 말한다!	정윤진	목 5:00	BSC Chicago
6-04	전인적 제자훈련	박기호	목 3:30 / 5:00	MSC 204
6-05	The Reentry Team: 안식년 선교사 돌봄 사역	장세균	수 5:00	McManis Lounge
6-06	한인선교사 토탈 케어 시스템과 실제	서정호	수 5:00	Blanchard 324
6-07	선교지에서 과정 보내기 (중국 CONTEXT)	양아평	수 3:30	Breyer 111
6-08	홈스쿨링(자녀교육문제) 실제 해결방안 제시	이강산	목 3:30	BGC 253
6-09	아버지학교와 선교사, 가정, 그리고 선교지	현덕인	수 3:30	Wilston Hal
6-10	Home Ministry Needs of Missionaries	필 포글	목 5:00	BSC Parmalee

6-11	뉴욕선교사의 집	최문섭	화 5:00	BGC 252
6-12	한국 선교사자녀 학교교육 현실 및 대안	차훈	수 3:30	BGC 254
6-13	한인 1.5세 2,3세들의 국제선교선교단체와의 동역	임한곤	목 3:30	McManis Lounge
6-14	부르심 분별 회복	이진중	목 5:00	BGC 252
6-15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과 도전	임승환	목 3:30	BGC B11
6-16	선교사의 Leadership 이란 Followership 이다	장인석	목 3:30	McManis Lounge
6-17	선교사의 영성	황요한	목 5:00	McManis 218
6-18	선교사의 Burn Out	이에스더	수 3:30	McManis Lounge

7. 선교사역/전략

7-01	선교지의 학교설립	김남수	수 3:30	BGC B10
7-02	선교지의 학교설립과 재원	김남수	수 5:00	BGC B10
7-03	선교지의 학교설립과 운영	김남수	목 5:00	BGC B10
7-04	구전성경이야기	에이브리 윌리스	화/수 3:30	BGC 250
7-05	현지인선교사 파송전략	한도수	화 5:00 / 수 3:30	Evans 246
7-06	물과 함께 복음을 - 미전도종족선교와 물사역	권종승	화 5:00	McManis Lounge
7-07	미전도종족선교를 위한 오후나 영어교육자료 활용법	배상호	화/수 3:30	Breyer 103
7-08	미디어선교의 이해와 미전도종족을 향한 전략적인 방안	조바나바스	목 5:00	Evans Lounge
7-09	How Do We Reach Our Oral Learners?	더그 암스트롱	화 5:00	MSC 304
7-10	Reaching the Unreached People through Native Missionaries	타운 코르타도	수 5:00	MSC 304
7-11	분쟁국가에서의 사역	양국주	화 5:00	McAlister 224
7-12	후원금 모금도 사역입니다.	장세균	목 5:00	McManis Lounge
7-13	내 이웃에 온 열방을 재자삼으라	지용주	화 5:00	Breyer 207
7-14	선교 패러다임의 변화 -Coming Mission에 대한 새로운 과업	김호성	화 5:00	Blanchard 324
7-15	도시빈민선교	김명희	화 3:30	BGC 252
7-16	HIV, AIDS 예방과 치료	최광남	수 3:30	Breyer 9
7-17	교육선교를 통한 세계선교	송제임스	화 3:30	Breyer 111
7-18	현지 교회들과의 선교협력	정태봉	목 5:00	McAlister 224
7-19	자국민선교사와 함께 하는 Powerful Missionary Training	김석수	화 3:30	BGC 254
7-20	두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현지교회를 세우는 선교	김석수	목 5:00	Blanchard 323
7-21	어린이 선교교육을 통한 미래선교사 세우기	강신오	화 3:30	Blanchard 323

7-22	차세대 지도자 훈련을 통한 미래 지도자 세우기	강신오	수 3:30	Blanchard 323
7-23	어린이 신앙성장의 이론과 실제	여병현	목 3:30	BGC 255
7-24	효과적인 어린이전도는 이렇게	여병현	목 5:00	BGC 255
7-25	50 Creative Teaching Visuals for Missions & Sunday School	이옥희	목 5:00	Blanchard 324
7-26	정보화시대의 IT선교전략 모델	김기석	수 3:30	SRC 225
7-27	Ministry as an Army Chaplain	데이빗 쉬퍼드	목 5:00	Breyer 103
7-28	구전문화 사회에서 효과적 복음전달 및 교회 지도자훈련	이금주	화 3:30	McManis Study
7-29	항공선교의 비전	김영욱	화 3:30	Wilston Hall
7-30	방송선교를 통한 세계선교의 전략	최은종	목 3:30	Armerding 125
7-31	효과적인 선교지 지도자 훈련과정	정태희	화 3:30	Blanchard 324
7-32	젊은이 사역과 선교지 교회자립	김문수	수 3:30	McManis Study
7-33	성경학산의 역사와 실제적인 대책	김판규	화 5:00	McManis Study
7-34	21세기 선교현장에 적합한 선교사훈련과 선교전략 고찰	남양규	화 3:30	Evans L38
7-35	현지교단과의 협력	맹갑균	화 5:00	McManis 118
7-36	선교 현지목회자에 대한 (정규신학교외) 훈련에 관한 경험과 방안	최승암	화 3:30	Blanchard 322
7-37	제3지역에서의 효과적인 팀사역	박사론	목 5:00	McManis 118
7-38	아시아 신학교육	장완익	화 5:00	Wilston Hall

8. 단기/평신도/전문인선교

8-01	평신도 역할과 선교	정인찬	수 3:30 / 5:00	BGC132
8-02	평신도도 성직자다	류효명	화 3:30 / 5:00	SRC 9
8-03	고효율 단기선교를 위한 현장 선교사들의 12년간의 의식구조의 변화와 분석	김정한	수/목 5:00	BGC 253
8-04	단기선교를 통한 선교현장 부흥 전략	양창근	목 3:30	Wilston Hall
8-05	단기선교를 통한 영성개발 리더십 훈련	이은경	수/목 5:00	Armerding 125
8-06	공산권 선교와 단기선교	정인서	목 5:00	Evans L139
8-07	미주기독교의료선교협의회를 통한 의료협력선교	전희근	목 3:30	Armerding 226
8-08	의료선교의 효율성	이상천	수 3:30	Evans L139
8-09	21C 효과적인 의료선교전략	손영규	화 3:30	McManis Lounge
8-10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 - 나를 통한 총체적 선교	최순자	화 5:00	Blanchard 322
8-11	새생명을 구하는 곳에 영혼도 구할 수 있다	이인숙	수 3:30	Evans 346

8-12	북미주 몬트리올 외향선원 의료선교 전략	김광오	목 3:30	Blanchard 323
8-13	이민교회와 실버선교	김재열	화 3:30	SRC 225
8-14	실버선교사와의 협력방안	정운길	수 3:30	BGC B11
8-15	전문인선교훈련	이현정	목 3:30	Evans L139
8-16	전문인 선교준비	양승봉	목 5:00	Wilston Hall
8-17	선교의 제4물결	황규만	목 5:00	Armerding 122
8-18	NGO 사역과 선교	이모세	화 3:30	Evans 346
8-19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영양프로그램	권순영	화 3:30	BGC 255
8-20	전문인선교로서의 IT선교	캔 안	수 5:00	Evans 346
8-21	전쟁의 폐허 속에 피어난 무지개 시각장애학교	조성덕	목 3:30	Breyer 111
8-22	제3세계 장애선교를 통해 본 장애선교의 본질과 비밀	김홍덕	수 5:00	Evans L38
8-23	한국 기독교 스포츠선교	이광훈	수 3:30	Blanchard 322
8-24	중앙아시아 이슬람권에서의 비즈니스 선교	방대식	수 5:00	McManis 218
8-25	첨단기술을 통한 선교전략	박영희	화 3:30	BGC B11
8-26	자비사업을 통해 선교확장	김정택	목 5:00	Wilston Hall
8-27	자립선교의 방향모색	손철	목 5:00	Armerding 226
8-28	전문인선교 (미용선교를 중심으로)	이정순	목 3:30	BGC 254
8-29	한공학교	정인숙	목 5:00	McManis Lounge
8-30	Mission to US Army	고홍석	수 5:00	SRC 225
8-31	Spiritual Warfare in US Army Mission in the midst of WAR	고홍석	목 3:30	SRC 225
8-32	영양공급을 통한 섬김	권순영	수 3:30	BGC 255

1. 선교일반사

①-1 The Power of the 19th Century

랄프 윈터 / US Center for World Mission 소장



Ralph Winter, 미국세계선교운동의 대부(代父) 랄프 윈터 박사는 LA 파사데나에 2천만불 상당의 선교센터건물을 기도의 빈 손으로 구입하는 기적을 창조한 믿음의 거장으로 유명하며 1956년 장로교 목사로 안수, 곧장 과테말라 산지의 마야 종족을 위한 선교사로 나가 10년간 사역하였고, 그 후 10년간 풀러신학교 세계선교대학원에 초빙, 도널드 맥가브란과 함께 1,000여명의 후진 선교사를 양성하였으며 1976년 부터는 『퍼스펙티브 훈련 프로그램』(Perspective Study Program)을 창안하고 『개척자 선교회』(Frontier Mission Fellowship)를 설립했는데 이 선교회는 후에 미국세계선교센터(US Center for World Mission)와 윌리엄캐리국제대학의 모체가 되었다. 그는 지난 30년간 막강한 영향력으로 최전방 개척선교운동을 펼치며 『미전도종족선교운동시대』를 열었고, 지금도 수많은 천국추수꾼들의 심장에 불을 질러대는 위대한 방화범으로 여전히 쓰임받고 있다.

The Transforming power of wide-spectrum missions in the 19th century. The enormous impact of Evangelical faith on the forma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character of 19th Century mission agencies
거대한 선교의 물결이 19세기를 휩쓸었다. 복음주의적 신앙이 미국과 19세기 선교단체들의 성격을 형성하였다.

①-2 The paralysis of the 20th Century

랄프 윈터 / US Center for World Mission 소장

The loss of social influence and the corresponding narrowing mission to personal salvation. The many years of polarization between Bible institutes and Bible colleges. The dire effect on missions.
복음이 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하고 개인구원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스펙트럼이 좁아지고 수십년간에 걸쳐 성경적 단체들과 신학교 간극이 벌어지면서 선교에 비참한 영향을 끼쳤다.

①-3 The incredible hopes of the 21st Century

랄프 윈터 / US Center for World Mission 소장

The amazing transformation: economic and educational "lift" during the 20th Century and the new hopes of the 21st.
놀라운 변모 : 20세기동안 경제와 교육에 있어서의 놀라운 성장, 그리고 21세기의 새로운 희망

①-4 Histoty Calling 역사는 우리를 증인으로 부른다

토마스 왕 / 백투예루살렘운동 총재



Thomas Wang, Great Commission Center, 중국 북경 3대 기독교 가정에서 출생, 11세때 전도자 존성을 통해 회심, 왕명도목사에게 양육받고 대만장로교신학교와 미조리 센츨렐신학교를 수료하고 윌리엄캐리대학에서 문학박사, 고든컨웰신학교에서 신학박사를 수여하였다. 1961년 중국기독교교회를 1976년 중국세계선교협의회를 창설, 사무총장 역임, 1987년 로잔세계선교운동 국제총무로 선임되어 1989년 제2차 마닐라 로잔세계선교대회를 총괄하였다. 1989년 기독교21세기운동을 창설하여 미전도종족복음화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1989년 창립한 대서명신학교/선교센타를 통해 타문화권과 중국어권 선교를 위해 선교사역자를 훈련하며 수많은 선교대회 주강사로 활약하는 세계적 선교지도자다. 본 대회의 명예대회장으로 한어권 대회에서는 주제강연을, 영어권 대회에서는 성경강해를 통해 강력한 말씀을 선포할 것이다.

From a review of the history of God's creation, man's fall, and Christ's redemption, up to the mission and commission of the church, history(God's mighty acts) is calling us to witness, to evangelize and to fulfill God's calling before the return of our Lord Jesus Christ!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로부터 선교와 대서명을 달성해 가는 교회의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고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고 있다.

①-5 Mission Around The Globe

토마스 왕 / 백투예루살렘운동 총재

- ① World Mission began from Jerusalem (Acts1:8) and Antioch (Acts28:16-31)
- ② The Apostle Paul brought the gospel to Europe (Masadonia, Grace, Rome) in the first century. (Acts 16:1-12)
- ③ The European churches brought the gospel to America, Asia and other parts of the world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 ④ The Asian churches, together with churches of other countries, should now undertake two major tasks:
 - a) Back to Jerusalem Movement: Evangelism and church planting from Asia, to the Middle East, Near, until Jerusalem.
 - b) Re-evangelization of the West: The Western World today, regrettably, is gradually becoming post-Christian, non-Christian, and sometimes anti-Christian. Third World churches have the obligation to bring the gospel back to them.

- ① 세계선교는 예루살렘과 (행1:8) 안디옥에서 (행 28:16-31) 시작되었다.
- ② 사도바울은 1세기에 복음을 유럽으로 전하였다. (마케도니아, 그리스, 로마) (행 16:1-12)
- ③ 18-19세기에 유럽교회는 복음을 아메리카, 아시아 및 타지역에 전하였다.
- ④ 아시아 교회는 다른 지역의 교회들과 함께 지금 다음 두가지 주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 a) 백투예루살렘운동(Back to Jerusalem Movement) 아시아로부부 교회개척과 전도, 선교가 중동지역에 예루살렘에 닿기까지 전개되어야 한다.
 - b) 서구권의 재복음화(Re-evangelization of the West) 오늘날 서구세계는 안타깝게도 기독교-후기시대, 비기독교, 그리고 때로는 반기독교로 변모해 가고 있다. 제3세계 교회들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책임이 있다.

①-6 새로운 세계에 있어서의 지리정치학적 지역과 선교적 전략지역으로서의 중앙아시아 연구

조동진 / 조동진선교학연구소 소장



한국교회 세계선교운동의 위대한 선도자이다. 1963년 『국제선교신학원』(ISM)을 설립, 1973년 『동서선교연구개발원』(EWC)으로 확장, 동년에 『아시아선교협의회』(AMA)창립을 주도, 1974년 제1회 로잔대회 강사로 선교구조쇄신을 역설, 1980년 『바울의집』을 세워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였고 1989년 이래 20회 이상 북한을 방문, 김일성 주석과 세차례 단독 회담 후 김일성종합대학과 평양신학교의 교수로 위촉되고 빌리 그레함과 지미 카터의 평양방문을 주선하였다. 80세가 된 2004년 후학동문들의 후원으로 『조동진선교학연구소』를 설립하고 『세계선교박물관』 설립을 추진중이다.

1980년대 말 서구 선교세력은 아프리카의 사하라 남쪽과 아시아 대륙의 동북과 동남아 지역, 곧 북위 40도부터 10도까지를 <10/40 Window>라는 이름으로 지리정치학적 선교전략을 설정하고, 소위 미전도종족입양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동유럽과 소련의 공산세력이 붕괴된 1990년대 초부터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지대인 중앙아시아를 지정학적 선교전략으로 설정하고, <35/40 Turkic Window>와 <40/70 Quin's Dominion Window>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AD 1000년대까지 동로마제국의 콘스탄티노플에서 당나라의 장안에 이르는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대로였던 실크로드의 핵이었던 중앙아시아는 또 다시 21세기 세계 지배 전력의 지리정치학적 핵으로 등장하였다.

오늘의 지식인들은 중앙아시아를 부정적인 관념에서 논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다시 말하면 현대의 문명 세계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문명권 바깥에 위치한 고립 지대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이다. 지난 10년 중앙아시아를 여행하는 사람이 많아졌지만 아직도 이 지대는 문명도 문화도 없고 현대적 도시도 없고 고유한 역사도 없는 고대 유목민의 후손이 전근대적 생활을 하는 민족들이 문명권밖에 갇혀있는 곳 정도로 생각한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찾아가는 한국 선교사들 역시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중앙아시아에 뛰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2000년 서구 선교는 항상 자국의 영광과 이익과 얽힌 정교(政敎) 유착적 선교를 일삼아왔다. 그 결과 피선교 국가 민족들은 선교 국가의 정치적, 경제권 노예로 전락하여 인간 쓰레기처럼 취급되면서 노예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20세기 후반 전후 독립 국가에서 일어난 새로운 선교 세력은 쓰레기 더미에서 피어난 장미꽃과도 같이 절대 불가능의 불모지에서 태어난 21세기의 새 선교 세력이다. 1960년대 이후 서구 식민지 정책으로 지구의 변두리 버려진 인간 쓰레기들이 사는 곳을 향하여 삶의 소망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던 새로운 선교 세력을 이제는 남으로 가던 우리를 뒤로 돌아 북으로 가게 하시는 마케도니아의 부름을 따라 새 길을 찾는데, 우리가 가기 시작한 이 북방 땅에 또 다시 추악한 강대국들의 국제 패권 전략에 선교가 악용된다면, 이것은 21세기 선교의 역사를 더럽히는 엄청난 무서운 과오가 될 것이 틀림없다.

탐욕이 선교의 도구가 되던 20세기까지의 오욕된 서구 선교와의 단절, 정복과 지배가 선교의 방법이 되던 피비린내 나는 정교(政敎) 유착 정책과의 단절이 없이는 내일의 북방 선교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낼 수 없다.

문화 우월주의나 민족 차별주의, 경제 제일주의가 판치는 이 세계에서 우리는 언어와 문화와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을 나누어주는 맑고 순수한 선교의 새 물줄기를 만들어 가야만 한다.

①-7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선교의 네 구역

이동휘 / 전주안디옥교회 원로



1983년 미군 창고구조물로 전주안디옥교회(일명 강동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위해 불편하게 살자”라며 일평생 선교와 구제를 위해 온 몸을 다 바친 충성된 증은 교회재정의 70% 이상을 세계선교에 사용하며 그 흔한 자가용 하나 없이 검소와 절제의 삶을 살아왔다. 또한 단독교회의 틀을 벗어나 초교파적 선교단체인 『바울선교회』를 만들어 현재 80여개국 320여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세계선교의 큰 획을 그이기도 했다. 23년 사역후 원로목사로 추대된 이목사의 자녀 4명도 선교사로 바쳤다. 현재 『바울선교회』를 총괄 지휘하며 선교집회 등을 통해 지역교회 선교활성화에 주력한다.

1. 승천 하시기전 마지막명령, 유희, 유언, 대위임이 행1장 8절 말씀이다. -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데서 올리워 가시니(행1:9)

2. 순서적 명령이 아니고 동시적 명령이다.

- 예루살렘이 복음화 되면 다음으로 온 유다로 이어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가라가 아니다.
- 과~과~로 되었다. 헬라어로 카이..카이다
- 네 지역을 동시에 하라는 현재적 명령이다

3. 선교지역으로 네 지역을 지정하시었다.

- 예루살렘..중심도시. 자기가 사는 도시. 시드니 사는 사람은 시드니가 예루살렘선교사다.
- 멜본에 사는 사람은 멜본이 예루살렘 선교지다.
- 온 유대.. 나라개념. 호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호주가 유대 선교지다.
- 사마리아..북이스라엘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앗수르에 멸망당한 후(BC721) 앗수르 사람과 세계 많은 나라사람이 와서 살므로 피가 섞였다. 순수한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는 차원에서 남 유대인들에게 심한 차별과 멸시 당한 땅.
- 소외된 사람에 대한 사랑과 특수지역 선교를 의미한다.
- 땅끝.. 해외 선교, 세계선교를 뜻함. 이만 사천 종족 가운데 아직도 사천종족은 미전도종족으로 남아 있다. 시급히 가야만 한다.

4. 선교사 자격은 성령이 임하여 권능 받으면 된다.

- 권능은 권세와 능력을 의미한다. 영접 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므로 이미 우리는 권세이다. 능력은 실력인데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약속대로 성령을 주시므로 성령이 계시고 따라서 권능을 받은 것이다. 선교사 자격증을 받은 것이다.

5. 증인이 되리라 하셨다.

- 증인은 예수님을 증거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해외에서 즉 초문화권이나 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전문적인 용어로 선교사라 말한다. 선교사란 말이나 사도란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20:21) 하셨다. 우리 모두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은 모두 선교사란 말이다. 그래서 되리라고 수동적인 언어를 쓰셨다.
- 외치자.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6.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고 성령님께 의지하면 네 군데 선교구역을 감당 할 수 있다

- 돈이나 조직이나 유능한 사람이 선교 조건 아니다. 또 나 자신도 매우 나약한 존재다. 선교의 필수 조건인 성령님께 의지하면 감당할 수가 있다.
- 이 네 지역을 선교의 구역으로 정하고 선교사의 일생을 살자.

7. 본인이 전주안디옥교회에서 23년간 목회를 사도행전1장 8절을 표어로 삼고 목회했다.

- 예루살렘선교 - 전주시 60만을 위해 온 교인이 땅 밟기기도단을 조직하여 전주시를 기도의 떡로 묶어 기도. 전주와 전라북도를 위한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 매주 월요일 밤마다 모여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을 했다.
- 유대선교-국내에 해마다 하나씩 교회설립을 했다.
- 사마리아선교-장애인예배, 독거노인 지원 등 많은 종류의 특수 선교사업 전개
- 땅 끝 선교 - 초교파적으로 바울선교회를 조직하고 87개국에 370명의 선교사 파송

①-8 영적 Leadership과 선교

정인찬 / 백석목회대학원장



방대한『성서대백과사전』(15권)을 저술한 해박한 성서신학자요, 성령의 은혜가 깊은 영성의 목회자요, 덕망과 포용력을 갖춘 겸허한 인격자라는 인정을 받으며 휴스턴한인교회를 미남부 최대의 한인교회로 성장시켰고 전국적 부흥집회를 통해 이 민교회를 든든히 세웠던 충성된 증은 현재는 한국에서 기독교 명문인 백석대학 목회대학원 원장으로 그동안 쌓아온 목회학과 영성신학을 강의하며 목회자양육과 선교사훈련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송전대, 호서대 교수, 휴스턴신학대학 학장, 미주 통일선교대학 학장,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등을 역임했다

①-9 현대선교의 동향

강대홍 / GMS 선교총무, KWMF 사무총장



1987년에 태국 파송선교사로 현재 최대 파송기관 중 하나인 GMS의 선교총무로, 그리고 168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인선교사들의 연합체인 한인세계선교사회(KWMF - Korean World Missionary Fellowship)의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강대홍 선교사는 태국에 KGAM선교회를 설립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GMS 태국지부장, 태국 목회자훈련원 원장 등을 역임하고 충신대, 충신 신학대학원(M.Div), 영국 에딘버러대학(M.Th)을 나와 미국 개혁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수여하였다.

선교사 파송 1위 국가는 미국, 2위는 한국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보내는 선교사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 들고 있는 반면 한국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교 한국이 매 2년마다 집회를 하는데 6천 5백 명의 젊은 청년들이 모입니다. 그때마다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은 2천 5백 명이 넘습니다. 즉, 우리 주위에 엄청난 선교 헌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헌신자들을 올바르게 교육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선교 현장으로 보내질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복음이 필요한 미전도 종족에게 보내는 방안이 필요 합니다. 교회는 선교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 앞으로의 선교는 미전도 족속과 종교권과의 영적인 인카운터가 일어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선교지가 필요로 하는 선교가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선교를 위해 교회와 선교사는 선교사 배치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21세기 선교의 새로운 주자로서 역할이 주어지리라 생각합니다.

①-10 새로운 전환기의 선교

채수일 /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채수일 교수는 한국신학대학교,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신학박사학위(선교학 전공)를 취득하였다. 기장총회 파송선교사, 독일 함부르크 대학 선교아카데미 연구실장으로 사역하다가, 귀국 후 한국신학 연구소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신학연구위원회, 교회일치위원회, 통일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 소장, 세계교회협의회(WCC) 정의, 평화, 창조 위원회(JPC) 위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장, 신학전문대학원장을 역임하였다. 지금은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교회일치와 종교대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기획위원장, 세계교회협의회(WCC) 국제위원회(CCIA)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고, <역사의 양심, 양심의 역사>, <21세기의 도전과 선교>, <에큐메니칼 선교신학>, <누구인가, 나는 - 본회퍼 목상집> 등의 저서가 있다

엘 고어 전 미부통령의 '불편한 진실'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가까워진 지구의 종말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식량위기, 원유가급등, 구조적 빈곤과 질병, 경제세계화와 양극화 등은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급격한 전환기에 그리스도교 선교는 무엇을 지향해야 한단 말인가?

①-11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이후의 선교

채수일 /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채수일 교수는 한국신학대학교,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신학박사학위(선교학 전공)를 취득하였다. 기장총회 파송선교사, 독일 함부르크 대학 선교아카데미 연구실장으로 사역하다가, 귀국 후 한국신학 연구소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신학연구위원회, 교회일치위원회, 통일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 소장, 세계교회협의회(WCC) 정의, 평화, 창조 위원회(JPC) 위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장, 신학전문대학원장을 역임하였다. 지금은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교회일치와 종교대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기획위원장, 세계교회협의회(WCC) 국제위원회(CCIA)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고, <역사의 양심, 양심의 역사>, <21세기의 도전과 선교>, <에큐메니칼 선교신학>, <누구인가, 나는 - 본회퍼 목상집> 등의 저서가 있다

오늘날 종교에 대한 관심은 개인적, 내면적 영성에 대한 추구로 환원되었다. 역사에 대한 기억보다 소비가 더 가치 있는 일로 여겨진다. 모든 것이 존재가치에서가 아니라 사용가치에서 판단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교회도 시장이 되었다. 미국 대형 교회들의 예배, 전도방법이 지수입되고, 재생산된다. 교회만 성장시키면 제일이다. 신학도 교회성장을 위한 사용가치가 없는 것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형교회 목사들을 통해 공공연히 주장된다. 그렇다면 'Missio Dei'는 용도 폐기되어야 하는가? 우리 시대의 '경제적 지구화', '생태계 위기'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이런 도전에 응전하기 위해 우리는 'Missio Dei'가 새로운 차원에서 복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복원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이 발제의 목적이 있다.

①-12 평화, 대화, 섬김으로서의 선교

채수일 /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아프카니스탄 한국인 단기선교팀 피랍과 살해사건은 한국교회의 해외선교를 근본에서부터 다시 성찰하도록 도전했다. 이웃 종교와 타문화를 적대시하는 편견과 정복주의적 선교는 극복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 대안은 무엇일까? 평화, 대화, 섬김은 선교의 '오래된 새길'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옛길'이다.

①-13 지구촌과 지구윤리(Global Community and Ethics)

강성영 /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장

지구호의 위기가 새로운 세기를 맞이한 세계에서 환경문제, 정치적, 경제적인 문제와 문화 종교적 관점에서 중요한 담론이 되었다. 분명 새 천년의 지구호의 위기는 생태계의 파괴와 종교, 종교 문화의 충돌과 무한생산 무한소비의 탐욕적 경제체제로부터 온 것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교회는 녹색신앙을 통해 구원의 방주로서 생명선교의 과제를 감당해야 한다.

①-14 소비사회의 인간이해-광고와 선교

강성영 /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장



광고는 소비주의의 전달자이고 소비사회의 신화를 생산한다. 따라서 이데올로기비판의 관점에서 볼 때 광고는 대중의 허위의식을 체계적으로 조장함으로써 대중을 상품과 문화의 진정한 향유로부터 소외시킨다. 따라서 광고비평은 문화읽기이며 동시에 이데올로기비판이다. 인간의 삶에 작용하는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인 광고를 비판적으로 대화하는 것은 현대신학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반물질적 신학과 타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윤리를 모색할 수 있다. 또한 광고와의 비판적 대화는 교회의 선교적 과제이기도 하다. 설득커뮤니케이션으로서 광고와 교회의 선교적 커뮤니케이션은 경쟁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교회는 대중에게 친밀하고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영성 마케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①-15 부흥의 대각성 운동을 통한 세계선교의 역사

김종필 / 엘리야학교 Elijah Kim Ministries



필리핀 선교사로 헌신하였던 김종필 목사는 현재 엘리야학교(www.ruahmission.com)를 통해 목회자와 사역자들의 영적각성을 통해 부흥의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있다. 현 보스턴 소재 Emmanuel Gospel Center 의 Vitality Project의 소장이며 City Impact Roundtable을 통해 미국 New England 교회들의 부흥운동과 미국 도시 연합사역을 해오고 있으며 Global Urban Ministries Network 의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필리핀 40여 도시 연합사역 및 40여 나라에서 전도 집회, 부흥회, 목회자 세미나 인도 등 뜨겁게 사역해 오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기도의 집을 보스턴 근교에 추진 중이다. (www.elijahkim.org)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의 CUME 외래교수로 부흥운동사 강의를 하였으며 한세대,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선교학석사), 버밍엄기독교대학(신학석사), 버밍엄대학교(철학박사)를 나왔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아리안 교회, 왈도파, 모라비안 모델, 웨슬레, 윗필드의 순회 목회, 제이빗 브레이너드의 인디언 선교(David Brainerd, 1718-47), 제임스 맥그리디의 서부 개척 선교, 서부 선교, 최초의 해외 선교(Haystack Prayer Movement), 남부 흑인 선교, 하와이 선교, 노예 해방을 선교와 부흥, 남북전쟁이후의 성결 운동(The Post-War Holiness; 1867-1877)을 통한 해외 선교, National Camp Meeting Association, 1867 (선교의 강조), 복음동맹(Evangelical Alliance), 1873, 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 (개신교 선교의 황금기), Keswick 사경회, 1875 (제 2차적 은총으로서의 성화를 강조함): 유럽의 독일이나 스위스와 같은 여러 나라에 "내적 선교(Inner Missions)"로 발전하여 각 국가 내에서 선교 사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침

①-16 영혼 대추수를 위한 세계 선교 운동과 부

김종필 / 엘리야학교 Elijah Kim Ministries

초대교회의 오순절은 예루살렘과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한 부흥운동이자 국내의 선교운동의 역사였다. 부흥을 통한 새로운 선교 자원 운동은 부패한 중세 교회를 정화시키고 새로운 선교를 가능케 한 진도운동이었다. 청교도 운동은 미국 건국의 토대를 제공하였고, 아메리칸 인디언 선교를 가능케 하였다. 모라비안 형제들의 부흥은 24시간 중보 기도를 통한 유럽의 부흥을 가져왔고, 유럽 교회를 깨우는 평신도 해외 선교운동으로 이어진다. 1차 대각성 운동은 국내 선교의 활성화와 환대서양 선교를 가능케 하였다. 2차 대각성 운동은 미국의 해외 선교를 가능케 하였고 선교 단체 조직을 태동케 하였다. 뉴욕의 기도부흥(1857-1859)은 미국의 전도시 뿐 아니라 유럽의 각지역에 새로운 복음주의 선교 운동을 자원케 하는 촉진제가 되었다. D L Moody를 통한 SVM(Student Volunteer Movement)은 단기간에 수만명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였고, 제삼세계 교회 부흥의 씨앗을 뿌리게 하였다. 1906년 아주사 거리 부흥은 6억에 달하는 오순절/은사주의 운동의 불씨를 제공케 하였고, 세계 교회의 지형을 바꾸게 하였다.

①-17 장기적인 부흥을 선교 전략

김종필 / 엘리야학교 Elijah Kim Ministries

지속적인 죄의 고백과 회개가 일어나는 선교, 회심 이후에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헌신과 변화가 일어나는 선교 (죄를 멀리함, 우상 숭배를 버림, 음란을 배제함, 회개에 대한 구체적 화해와 보상이 따름),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 능력있는 말씀의 증거, 하늘의 능력으로 성도를 감동시키는 예배, 부주의한 심령들을 거룩하게 영향을 끼침, 그럼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함,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는 예배, 개인적 경건 (Personal Godliness), 매일 매일 표적과 기사가 따르는 선교,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게 사용되는 선교, 진정한 참회의 기쁨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①-18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부흥의 방편들 김종필 / 엘리야학교 Elijah Kim Ministrie



필리핀 선교사로 헌신하였던 김종필 목사는 현재 엘리야학교(www.ruahmission.com)를 통해 목회자와 사역자들의 영적각성을 통해 부흥의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있다. 현 보스턴 소재 Emmanuel Gospel Center 의 Vitality Project의 소장이며 City Impact Roundtable을 통해 미국 New England 교회들의 부흥운동과 미국 도시 연합사역을 해오고 있으며 Global Urban Ministries Network 의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필리핀 40여 도시 연합사역 및 40여 나라에서 전도 집회, 부흥회, 목회자 세미나 인도 등 뜨겁게 사역해 오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기도의 집을 보스턴 근교에 추진 중이다. (www.elijahkim.org)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의 CUME 외래교수로 부흥운동사 강의를 하였으며 한세대,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선교학석사), 버밍엄기독교대학(신학석사), 버밍엄대학교(철학박사)를 나왔다.

①-19 21세기 세계 선교의 전망과 변화의 특징 김종필 / 엘리야학교 Elijah Kim Ministries

서구 중심의 기독교 (20세기 초) → 제삼 세계 중심의 기독교로 이동 (21세기) → 서구 기독교의 몰락과 제삼세계 기독교의 발흥

1. 서유럽 교회들의 쇠퇴
2. 아프리카 기독교의 부흥과 성장
3. 라틴아메리카 교회의 성장
4. 아시아 복음주의 교단의 성장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5. 동유럽 기독교의 갱신 운동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루마니아)
6. 새로운 형태의 인구이동(아프리카, 중동 이민자→서유럽국가들아시아, 라틴아메리카→북미, 동유럽→오세아니아, 서유럽, 북미주)
7. 이민을 통한 종교 지형의 변화들 (유럽, 북남미, 오세아니아)
8. 주류교단들의 정체와 쇠퇴 (자유주의 신학, 부흥운동의 쇠퇴, 사회 복음운동)
9. 오순절 교단들의 발흥과 괄목할 만한 성장 (Classical Pentecostals, Charismatics, Third Wave and Independent Churches)
10. 서구 교회 중심의 해외선교 → 비서구 교회 주도의 세계선교 (한국, 인도, 브라질, 아프리카 등)
11. 유럽Megachurches (구 식민지 이민자 중심의 교회들: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이탈리아,우크라이나 등등)

①-20 선교의 완성을 위한 대각성 운동 김종필 / 엘리야학교 Elijah Kim Ministries

- 오순절 - 최초의 세계 선교 운동
- 왈도파 (Waldensian) - 유럽의 신앙 부흥운동, 농민 선교 운동
- 청교도 - 북미 선교
- 모라비안 - 평신도 세계 선교 운동
- 영국의 감리교 부흥운동 - 도시 선교, 국내 선교 및 해외 선교
- 제1차 대각성운동 - 인디언 선교
- 제2차 대각성운동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 운동, 대학 선교 운동, 캠프 부흥운동
- 제3차 대각성운동 - 도시 선교
- 무디와 성결 부흥운동 - 학생자원운동 (Student Volunter Movement), 세계 선교 운동, 성경 사경회
- 오순절 부흥운동 - 제삼세계 선교 자원운동
- 은사주의 운동 - 제삼 세계 교회 성장과 부흥

①-21 현대선교의 경향과 대책 조용중 / GP선교회 국제대표



조용중선교사는 현재 25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215명의 선교사를 섬기는 지피선교회의 대표로 사역하고 있다. 미주한 인교회 출신 목사-선교사로서 첫 번째로 알려져 있다. 파송전 시카고 지역에서 많은 젊은 사역자들을 배출한 OIL(One In Love)라는 단체를 만들어 미주 중부와 동부 지역 청소년사역을 시작하였으며, 1988년 필리핀으로 부임, 소외된 사마르섬 와라이 종족사역을 시작하였고 자국내 단기선교사들을 파송하게 하고 장기사역자를 길러내는 S.O.S.를 통해 새로운 자립성 단기선교사역 모델을 제시하였다. 후에 GP선교회 미주대표로 있으며 미얀마, 인도 등에 신학교를 설립하였고 전세계에 나가있는 한인선교사들을 묶는 세계한인선교사회(WKMF)의 사무총장, 공동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대표회장을 맡아 섬기고 있다. 고려대에서 토목공학을 수학하였고, 미국으로 이민, 시카고 트리니티 대학에서 B.A., 학위를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M.Div. Th.M. 그리고 Ph.D. 학위를 취득하였다.

①-22 현지교회 및 북미의 타문화권 교회의 동원 및 참여 백운영 / GP선교회 미주대표



GP 선교회 미주 대표로 사역중인 백운영선교사는 15년 간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 현지인 지도력 개발 사역을 하였다. 15세에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Urbana Missionary Conference 79에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고, Westminster 신학교, Fuller 신학교에서 선교학학위를 받았으며 1990년 GP 미주 출신으로 선교지로 파송되었다.

강사는 지난 15년간 동남아에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교회를 선교로 동원하고 현지 선교사들을 훈련하여 타문화권에 파송하는 일을 해 왔다. 인도네시아 선교사들이 키르키스탄, 필리핀, 말레이시아, 네팔 등으로 나갔으며 필리핀 선교사들이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으로 나가 사역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 이 강의는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현지에서 현지인 교회를 선교로 동원하는 일과 헌신자들을 훈련하는 일을 나누고 사역지 선정과 재정모금 또한 현지교회에 지원을 요청하며 선교적 교회로 탈바꿈 하게 하는 일들을 나누게 된다. 둘째로 강사는 현재 미국으로 되돌아와 선교본부에서 동원사역을 하면서 캘리포니아에 흩어져 있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베트남 교회들에게 선교 클래스를 만들어 가르치고 있다. 미국의 다문화권 교회들은 자신들의 본국을 선교하기를 원하며 선교 조직과 행정을 한국 선교기관에게서 배우기를 원하고 있다. 서구 기관보다 정서적으로 가깝고 영성과 기도가 뛰어난 한국 선교를 배우고 벤치마킹하기를 원하면서 북미에서 큰 조직으로 성장한 GP선교회에 선교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북미의 한인 선교에게 주신 귀한 기회요 책임이다. 이 일을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일할 동역자를 바라고 있다.

①-23 세계 선교에 대한 성경적 기초 김영진 / 나성한인교회 담임



한남대, 총신대, 리폼드신학교, 콘코디아신학교(Th.M, Th.D) (현) 나성한인교회 담임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 모든 과정이 구원의 역사다. 창세기는 구원역사의 시작을, 요한계시록은 완성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구원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다윗과 선지자들을 거쳐서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된다.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역사는 선교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을 통하여 지금 전 세계에서 실현되고 있다.

본 강의는 성경전체의 관점에서 세계선교의 시작부터 완성까지의 모든 과정을 살펴본다. 세계선교를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선교사역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약점들과 유혹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①-24 코란분석과 성경대비 요약정리

이강산

2080년까지 세계 이슬람화, 2025년까지 한국 이슬람화(한국에 유치원-대학설립, 사원설립, 최고인재 스카우트 전액 장학금 지급등), 세계 최대 제1위의 종교로 급부상 되었음. 저희들은 성경을 분석,코란과 대비 질문하며,선교를 효과있게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최전선에 계신 귀한 선교사님들께 코란 분석과 성경을 대비 요약 정리하여, 선교의 현장에서 수십년의 각고와 사랑과 헌신의 결과로, 니고데모처럼 조용히 혼자 찾아와 질문할때, 저분들의 신앙의 근거인 코란을 설명해주며, 성경의 구원의 당위성을 설명해 줄수 있는 실제 사용가능한 핵심근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한된 참석자에 한하여 자료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4개국어-아,영,중,한)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며 요약함축된 실용적 근본근거 제시입니다

①-25 C&MA - 120년 역사의 종말론적 선교운동

문형준 / C&MA 한인감독



문형준감독은 경북고등학교와 서울공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약 2년간 엔지니어링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982년 도미, 미국 뉴저지공과대학에서 건축공학 석사학위 (M.S.) 를 받았다. 유학 중에 성령 체험과 소명을 받고, 얼라이언스신학원(Alliance Theological Seminary)에서 입학하여 목회학석사(M.Div)를, 프린스턴신학원(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학석사(Th.M)를 수여 받았다. 1990년에 뉴욕선교교회를 개척하여 14년간 목회하였고, 목회 중에 나이악대학(Nyack College)과 얼라이언스신학원에서 12년간 조직신학을 강의하였으며, 현재 C&MA 한인총회감독으로 5년째 섬기고 있다.

19세기 말 시작된 미국 선교운동 중 가장 강력하면서도 조직적인 선교운동 가운데 하나가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이다. 캐나다 장로교 목사인 Albert Benjamin Simpson 목사는 건강이 좋지 않아 켄터키로 목회지를 옮겨 그곳에서 강력한 성령체험과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이어 메인주에서 열린 신유은사집회에서 심장과 폐가 완전히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임을 전파하게 된다. 그리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후에 끝이 오겠다"는 (마 24:14) 말씀을 받으면서 세계선교운동을 시작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 성결의 주, 신유의 주, 재림의 왕"이라는 4중 복음을 외치며 시작한 초교파적 선교운동은 1900년대 초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연합하면서 전세계로 퍼져갔다. 이 4중 복음은 후에 동양선교회를 창설한 Gilbourn 과 Cowman 선교사에 의해서 한국에 성결교회로 정착하게 된다. 그 후 120년, 가장 조직적이며, 체계적이고, 우수한 선교체제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 25,000 교회, 300만 성도의 대형교단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한국교회는 선교에 눈 뜨지 30년도 안되어 거의 20,000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 2 선교파송국이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급성장과 영웅적 선교 실적의 뒷면에는 여러 부문에서 부족함과 미숙함을 드러낸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면에서 A.B. Simpson 목사의 선교정신과 C&MA 의 선교체제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벤치마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교 모델이 아닐 수 없다.

①-26 깊은 영성에서 나오는 강력한 선교

고영민 / 해밀턴한인장로교회 담임



중앙아시아와 위그로 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해밀턴 한인 장로교회 담임목사로서, 한국에서 고려대와 장신대를 졸업하고, 북미에 유학을 와서 토론토 대학과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에서 영성신학을 공부했으며, '국제 영성 지도자 협회' (Spiritual Directors International) 회원으로 영성지도를 하고 있다.

한국교회 안에서 선교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시끄럽고 요란하게 기도하고, 전투적인 영성을 가져야 한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의 당위성에 공감하면서도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거리를 두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영성을 공부하고 선교에 뛰어든 나로서는 '잠잠히 기도하고, 안식하는 영성을 가지고도 강력한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늘 보여주고 싶었다. 때로는 영적 전투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영적 안식도 필요하다. 때로는 원수미귀를 대적하는 대적기도나 뜨겁게 외치는 통성기도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잠잠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관상기도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성찰의 기도도 필요하다. 200년동안 잠자던 개신교의 선교를 깨우고 선교의 불을 당긴 18세기 독일의 모라비안 운동에서 깊은 영성에서 나오는 강력한 선교의 모델을 찾아보고자 한다.

①-27 1920년대 발생한 중국 비기독교 운동 내용 요약

김수경 / 중국선교사

중국선교사로서 예장통합 중국선교사 모임 대표를 역임했고, 현재 재중한인선교사회의 대표총무를 맡고 있다. 북경의 모 대학에서 1920년대 발생한 비기독교운동 연구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장사역과 선교지 연구를 동시에 해 나가고 있다.

중국기독교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 중에 하나인 1920년대의 비기독교운동(非基督教運動)의 발생 원인과 이 사건에 대한 중국 기독교인들의 대응 및 성찰에 대한 글이다.

본 글에서 1922년부터 1927년까지 발생한 중국 비기독교운동을 과거 발생한 다른 반기독교운동과는 다르게 우선 명칭부터 반기독교운동으로 정의하고, 이 비기독교운동 기간 중에 기독교인들에게 던져진 질문은 1920년대의 기독교가 "중국의 위기 속에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또한 "기독교는 제국주의와 여전히 한 통속인가 아닌가?" 그리고 "과연 기독교인은 애국하는가?"라는 질문들이었고 기독교인들은 이런 질문 앞에 답을 해야만 했다.

당시의 비기독교운동에 대하여 감정적인 거부감을 갖는 기독교인들도 있었지만, 주로 반성적인 입장을 갖는 분위기였고, 누구든 간에 교회 자신에게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득불 인정할 수 밖에 없었으며 기독교인들 스스로 그들에게 던져진 질문과 비평 앞에서 성찰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성찰을 교의적 방면의 성찰과 실천 방면의 성찰 그리고 교회자신을 개혁하는 삼자의 방법 등으로 분석하였다.

①-28 말하기 어려운 선교 이야기

송민호 / 토론토영락교회 담임



전 필리핀 ATS 신학교 선교학 교수 역임 및, 현지인 교회 사역을 하였다. 현재 토론토영락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있다.

필리핀에서 잠시 사역을 했던 선교사 출신의 입장에서, 선교학을 전공하고 가르치는 교수의 입장에서, 그리고 현재 선교 동원, 선교사 파송 및 후원 등의 일을 하는 지역교회 목회자의 입장에서, 한인/한국인에 의한 장단기 선교에 대한 여러가지 생각을 진솔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지만, 용기를 내어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몇 가지 질문을 적어봅니다.

1. 돈을 최대한 적게 사용하면서 선교하는 방법은 없을까?
2.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자녀 학업을 희생할 수 있을까?
3. 어떻게 하면 선교지에서 '목회'를 하기보다는 진정한 선교를 할 수 있을까?

①-29 차세대의 선교 주역

신영선 / 태국선교사

미국 PCA목사, SEED선교사, WMP태국주재 선교사, BIT신학원 교수

①-30 세계선교현황과 GMI 선교현황

양태철 / 은혜한인교회 선교목사, KIMNET 총무



미국 은혜한인교회 선교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양태철 목사는 서대문 순복음 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육군 제 3 사관학교를 졸업하여 15기로 임관하였다. 이후, 미국 캘리포니아 유니온 신학대학원, 호주 WEC 선교사대학, 호주 빅토리아 신학대학원 선교학을 졸업하였으며 현재 미국 Midwest 신학대학원 선교목회학 박사 과정 중에 있다.

세계 선교현황은, 전체적인 커다란 그림을 보는 관점에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컬음을 받는 윌리엄 케리(William Carey; 1761-1834)의 시대로부터 오늘날 21세기의 선교의 내용을 power point를 통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하며, GMI 세계 선교현황은 지난 26년간의 세계 선교를 통하여, 단일 교회로서는 가장 많은 선교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는, Peter Wagner박사의 평가에 준한 전체 내용을, 역시 power point를 통하여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GMI 전체 세계선교의 내용은, 나누어 드리는 DVD를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저희 GMI 세계 선교현황은, www.gracemi.com으로 들어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①-31 선교현장의 문화이해

오세관 / 태국선교사



태국에서 18년간 사역해 오고 있는 오세관 선교사는 태국감리교신학교 교장으로 청주사범대학(B.A.), 협성대학교 신학과(B.Th), 협성신학대학원(M.M.), 아시아연합신학대학 선교대학원(M.A. Th.M.), 미드웨스트목회학(선교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타일러는 문화란 복합적인 전체로서 지식, 믿음, 예술, 도덕, 법, 관습, 사회구성원인 남성에 의해 획득되어진 습관과 다른 능력을 포괄하고 있다고 한다. 폴히버트는 문화란 한 집단 공동체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을 조정하고 사회를 특징짓는 행동, 사상, 생산물의 배운 패턴의 통합된 제도라고 하였다. 윌리우뱅크는 문화란 믿음, 가치, 관습과 이런 믿음과 가치와 관습을 표현하는 기구들의 통합된 제도로서, 사회를 결속시키고 사회에 정체성, 존엄성, 안정성, 계속성을 부여한다. 인간은 문화적인 존재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무화적인 명령을 부여하였다.(창1: 26-28) 인간은 그 능력을 사용하여 문화를 창조하고 그러한 창조적인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지음 받은 존재인것이다. 선교란 한 특정한 문화권의 산물인 선교사가 타문화권으로 들어가는 사건이다. 선교사는 문화적차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에 민감해야한다.

①-32 선교신학의 미래

신흥식 / 태국선교사



예장(합동)목사로 30여년을 사역해온 원로 선교사인 신흥식 선교사는 WMP태국주재 선교사, 현 태국 세계선교 진흥원장, WMP기구대표다.

①-33 학문의 구조에 있어서 선교학의 위치와 역할

이광길 / 풀러신학교



이광길 목사는 서울신학교(diploma),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B.Th.),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M.Div. equiv.), 풀러신학교대학원(Th.M. & Ph.D. in Leadership)을 졸업했으며, 호산교회(서울)에서 10년, 산타바바라한인장로교회(California)에서 1년 반을 담임목회자로 사역했으며, 2000년부터 현재까지 풀러신학교대학원 한국어학부 부원장으로 있으면서 한국어 학부 운영과 행정을 담당하고, 리더십 과목을 강의하고, 선교사와 목회자들을 멘토링하고 있습니다.

선교학은 무엇인가? 그 본래의 임무와 역할은 무엇인가 또는 무엇이여야 하는가? 선교학의 임무와 역할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선교학은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선교학이 실제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선교학이 하나의 학문으로서 자신의 독특한 학문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고 본래의 독특한 임무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학문 전체의 구조에서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신학이라는 학문의 분야와 관련해서, 신학과 선교신학, 그리고 선교학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인가? 서로간의 협력 관계를 이룰 방법은 없는가? 선교 현장 사역과 관련해서,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의 선교 사역이 선교학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실천되고 있는가?

①-34 선교지 신학교육의 공동목표

이진희/대만선교사



총회세계선교회 진주교회 파송 대만선교사, GMS 총회세계선교사회 회장, 대만 현지인 영문교회 담임목사, 중국개혁종신학원 교수, 국제팀네트선교회(TNMI)대표

서언 -

1. 강좌의 동기 2. 강좌의 의의 3. 강좌의 목표
교육의 근거에서 본 공동목표 -

1. 일반적 교육근거에서 본 공동목표 2. 신학적 교육근거에서 본 공동목표
교육의 요소에서 본 공동목표 -

1. 교육의 주체: 교사에서 본 공동목표 2. 교육의 객체: 학생에서 본 공동목표 3. 교육의 재료: 교재에서 본 공동목표
교육의 제도에서 본 공동목표 -

1. 학제에서 본 공동목표 2. 학과에서 본 공동목표 3. 교재에서 본 공동목표 4. 교무에서 본 공동목표
교육의 효력에서 본 공동목표 -

1. 절대가치에서 본 공동목표 2. 우선가치에서 본 공동목표 3. 기본가치에서 본 공동목표
결어 - 1. 문제파악 2. 목표확인 3. 이상실현

①-35 복음적 교회, 대학, 그리고 선교

제임스 네스빗/Grace Theological Semin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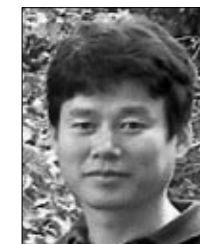


James H. Nesbitt: [Education] Princeton University AB, Middlebury College MA, DML, U. of Paris three diplomas, Dallas Seminary ThM, Grace Seminary BD, ThD. Fulbright Scholarship and French Government scholarship. [Work] Bridge & Building Chicago, Burlington & Quincy RR. Grace College, Professor of Languages and Missions and children's language and camps in German and French, UFM International missionary church planter & General Director 1991-2000 (France, Germany, Italy and 20 other countries) Tour group leaders Israel. [Writing] Editor of Lifeline magazine ; Creation et Evolution 2 ed. [Board Experience] Optimist International, IFMA, UFM [Church Planting] Amberieu-en-Bugey 1964-69, Valence 1970-72, Annecy. Conference speaker and Bible teacher USA, Canada, Haiti, Guyana, Romania, Finland, France (Convention de Palaiseau October 2002) Staley Lecturer The Road to Elysium..

[Wisdom and the Gospel-church, University and Missions] How God selects men and women, with the best advanced training the world's system may provide, and then enables them, with spiritual gifts and the Holy Spirit's power to announce His truth and program for the ages with mighty testimonies and intellectual power backed by Biblical truth. True science and historical studies based on the truth of Scripture need not fear the wrath and condemnation of the world's system. Examples from Enoch, Moses, Solomon, Daniel, Pascal, Newton, Priestly, Pasteur, Whitcomb & Morris.

①-36 성경적 선교연구

이상석/케냐 선교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남서울노회 대성교회 주 후원교회로 하고 1995년에 GMS 선교부 소속으로 케냐에 파송되어 Taitha-Saghalala 부족 선교 중인 이상석 선교사는 계명대학교,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영어외에 스와힐리어와 부족어에 능하며 다년간의 선교훈련 수료하였으며 GMS Kenya지부장과 케냐한인선교사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대표적 인 사역으로는 AIC 교회개척, 제자훈련, 유치원 사역 등이 있다.

1. 서론 -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필요성 3) 연구의 목표 4) 연구의 방법 5) [원리란 말의 뜻

2. 본론: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들에서 나타난 바울 선교 원리의 현대적 적용 - 1)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우선 2) 사역의 궁극적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둠 3) 성령의 인도에 이끌림 4) 복음의 진리를

고수하되 문화적인 것은 융통성을 추구 5) 독특한 사역지역 선택 6) 그리스도 사랑으로 선교 7) 동력의 바울 선교 원리 8) 자립, 자치, 자전의 생산적(복음전파 성향의) 교회를 개척하는 바울 선교원리 9) 복음전도자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고 자비량하고 서로를 나누고 도와주며 축복 10) 고난가운데 즐거워함 11) 교회당 건축보다는 교회를 우선 12) 스승보다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원리로 선교 13)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경건의 삶 14) 인편 서신을 통한 인격적이고 섬세한 교제

3. 사도 바울의 선교원리를 선교사의 선교현장의 문제점에 적용하는 실제적인 실천 방안:

1) 바울의 선교 원리 이해 2)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는 모든 선교일반이 과연 성경적이고 바른가를 성경적 선교 원리로 진단 3) 선교사 개인의 점검표를 점검하여 자기 점수를 매긴 후 선교사 개인 스스로의 비판과 회개 4) 구체적인 선교 방향 조율 방안 작성 5) 선교 현장에서 매일 실천에 옮김

4. 결론: 맺는 말

①-37 선교와 정신건강

이승호/에바다클리닉 원장



하나님의 백성인 믿음의 사람들과 선교현장에서 뛰는 선교사들에게 오는 정신과 질환의 관계를 믿음과 전문적인 시각으로 대처방안을 내 놓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인 이승호 목사는 에바다 정신건강 클리닉 원장이며 에바다 선교회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뉴저지 주립의과대학 정신과 수료, 뉴저지 주립의과대학 소아, 청소년 정신과 Fellowship 을 거쳐 Newark Beth Israel Medical Center (STCF) Medical Director 이다. 미국 정신과 협회 Minority Fellowship상 수상 (종교와 정신의학 전공)을 수상하였다.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질병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정신과 질환도 마찬가지이다. 사역을 감당하는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삶에 깊숙히 자리잡아 사역을 방해하는 질환에 대한 이해와 대비책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조금씩 그징후가 있는데 이중 심한 형태를 주요 우울증이라 한다. 사람이 일평생 주요 우울증에 걸릴 확률은 10-20%로 열명중 한 두명은 이 질병에 시달리며 이는 고질적인 경향이 있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시달림을 받을수 있다. 우울증은 고달픈(?)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선교사)들에게도 나타나는데 그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때 좀더 복잡하고 치료하기 힘든 증상으로 나타 난다. 이를 목회자(선교사) 탈진 증후군(Burn out)이라 한다. 사역자들은, 본인 가족, 선교 지역주민, 선교 본부, 후원교회, 선교지 다른 사역자들과의 관계, 언어 및 문화적인 차이, 한국에 있는 가족, 친지등 복잡한 인간관계로 얽혀져 있는 이들로부터 오는 다양한 형태의 trauma 혹은 stress 들로부터 오는 휴우증, 남에게 말하기 힘든 갈등이나 마음의 상처, 자신의 한계, 실수, 죄책감 등으로 괴로워 한다 더욱 힘든 것은 각자의 성격장애로 인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대처 방안을 모르기 때문에 오는 stress로 힘들어 한다.

①-38 생명의 성령의 법과 선교

정광희 / 큐가든성신교회 담임



뉴욕 큐가든 성신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정광희 목사는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건국대학교 대학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Liberty University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Th.M 와 Liberty University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박사 수료하였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라고 말씀한다.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은 바로 율법이다.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자로 만들어 간다.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킨 후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가르치는 자도 못 살면서 말이다. 만일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라고 가르친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다면 기독교는 세상의 많은 종교 중에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하여 십자가가 걸린 건물에서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로마서 8:1-2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한다.

①-39 BTJ(백투예루살렘)인가? 땅끝인가?

정형남 / 아랍권선교사

요르단 주재 이라크인 교회 사역중이며 1989년부터 아랍권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형남 선교사는 총회세계선교회와 중동선교회의 소속 파송 선교사로서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중동연구 교수로도 섬기고 있다.

"마누라가 예쁘면 처가집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한다." 그런데 이시간 처가집을 붙들고 절을 하는 분들이 있다. 이른바 '예사모'(예루살렘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에 속한 자들이다. 예사모의 키워드는 시편 122:6절이다. "예루살렘 위하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로다"(시122:6). 예사모의 슬로건은 "예루살렘 평화 행진!", "복음의 종착점/땅끝 예루살렘 까지!" "복음의 서진!" 백투예루살렘(BTJ)! 등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이스라엘 회복!", "1948 이스라엘 건국!", "1967 예루살렘 탈환!", "유대인귀환운동!" "고도회복!", "이스라엘 사랑/축복!" "성전 터의 이슬람 사원 무너지고, 유대인 성전 세워져라!" 등의 친 이스라엘적 구호를 과감하게 외치는 분들도 있다. 기독교 시온주의자들이다. 아랍권/ 이슬람권을 크게 자극하여 테러를 유발시키고 있다. 왜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했는가(시122:6)?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시122:1)과 다윗의 집(시122:5) 때문이었다. 때가 되매, 두 집의 주인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밝혀졌다. 그분은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 계신다! 새 예루살렘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 받은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가 성경 예언성취의 주인공들이요, 그 성취의 장은 온 세계 땅 끝까지다. '예사모'가 아니라 '새예사모'(새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이어야 한다. "복음의 (서진만이 아니라) 동서남북진!", "복음의 (백투예루살렘만이 아니라) 땅끝까지!"이어야 한다.

①-40 이슬람 국제운동과 글로벌 지하드

최바울 / 전문국제협력단(InterCP)



IVF 활동, 소아시아 선교사, 소아시아 갈라디아 교회 개척, 영국 ICHTHUS Network Intensive Program 수료, 아세아연 합신학교 (ACTS) 강사, 고려대, 서울대 강사, 호서대, 한동대 교수, 전문인선교협의회(KAT) 회장 역임, 미전도종족입양운동본부(AAP) 실행위원,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실행위원, 인터콥(INTERCP) 대표.

9.11사태이후 세계는 종교갈등으로 곤두박질하고 있다. 4천년 전 예루살렘 믿음이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시작한 이삭과 이스마엘의 형제갈등이 역사적으로 증폭되고 또 증폭되어 급기야 지구적 갈등으로 팽창한 것이다. 따라서 9.11사태는 1948년 이스라엘 민족의 고토로의 복귀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계속되는 갈등이 서구 기독교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갈등을 심화시킴으로 나타난 결과로써 오랜 역사적 맥락에서 발달한 종말론적 지구 영적전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본 강의에서는 이슬람국제운동의 사상과 전략을 살펴보고 글로벌지하드의 이슬람 역사적 배경과 현상 그리고 우리의 대응에 대해 나누고자 한다.

①-41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선교

조종화 / WEC 선교사



조종화 선교사는 1913년에 창설된 WEC(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 국제 선교회 미국 본부에서 2003년부터 Graphic Art Ministry로 세계에 선교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선교를 하고 있다. Faith Mission 을 하는 웹 국제 단체는 세계 55개국 출신들이 모인 2000여명의 장기 선교사들이 세계 85개국에서 교회개척을 중심으로 섬기고 있다. 세계 17나라에 파송본부 중에 미국 본부는 필라 부근 Fort Washington 에 소재하고 있으며 60여명의 본부 선교사님들과 20여명의 훈련생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 Chong153@gmail.com / 215-646-2322 ext 236

· 우리가 처한 오늘의 세상 · 하나님의 계시 · 두 세력 빛과 어둠 · 일반계시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신성 · 일반계시의 왜곡들 · 일반계시로 보는 View · 특별계시인 성경과 타종교 · 자기종교에 대한 회의들 · 역사 안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 상대주의와 종교다원주의 · 성경속에서 만나는 다원주의 · Postmodernism 의 배후 ·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 사람을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 · 선택의 자유와, 결과의 책임 · 수용적접근 · 선포적접근

①-42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선교다

조혜선 / WEC 선교사



조혜선 선교사는 1913년에 창설된 WEC(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 국제 선교회 미국 본부에서 2003년부터 아시아 동원국을 담당하고 있다. Faith Mission 을 하는 워 국제 단체는 세계 55개국 출신들이 모인 2000여명의 장기 선교사들이 세계 85개국에서 교회개척을 중심으로 섬기고 있다. 세계 17나라에 파송본부 중에 미국 본부는 필라 부근 Fort Washington 에 소재하고 있으며 60여명의 본부 선교사님들과 20여명의 훈련생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 hyesun-cho@wec-usa.org / 215-715-71716

선교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창조주를 아는 것이기에 신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알게 될 때,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따르게 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연구해 본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며 반드시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선교는 어떠한 특성의 성직자나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적용되며 수행해야 할 과업이다. 진정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을 아는 것이며 성경을 아는 것은 선교를 아는 것이다. 선교의 시작은 성경이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웅장한 그분의 계획이 담겨있는 그것이 선교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에 대한 책임을 가진 자들이며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뿐 아니라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기독교의 신앙을 두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믿음과 순종일 것이다. 철저한 믿음과 전적인 순종으로 그분을 위해 우리가 손과 발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그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 C.T. Studd(WEC International 창시자)

2. 세계를 품은 기독교인의 생활

②-1 여호수아의 신앙과 비전 그리고 선교

박종순 / KWMA 대표회장



한국교회의 세계선교운동을 초교파적으로 총괄하고 선도하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대표회장이며 1976년 이래 30여년의 모범적인 목회사역을 통해 총신교회를 놀랍게 성장시킨 그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을 역임했고 활발한 대사회봉사활동을 펼쳤으며 『남북 나눔이사회』를 통해 분단된 조국통일 문제에도, 그리고 『형목제도추진위원회』 공동의장으로 인권운동에도 앞장서 왔다. 또한 영감어린 문장력으로 총 25권의 저서를 펴냈고 각종 신문잡지 칼럼 등을 통해 끊임없이 한국교회갱신과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큰 몫을 담당해 왔다.

1. 여호수아의 신앙
2. 여호수아의 삶
3. 가나안 선교 비전
4. 지금 가나안은 어디인가?

②-2 소그룹 성경인도법과 선교

정인찬 / 백석목회대학원장, KWMC 공동의장



방대한 『성서대백과사전』(15권)을 저술한 해박한 성서신학자요, 성령의 은혜가 깊은 영성의 목회자요, 덕망과 포용력을 갖춘 겸허한 인격자라는 인정을 받으며 휴스턴한인교회를 미남부 최대의 한인교회로 성장시켰고 전국적 부흥집회를 통해 이 민교회를 든든히 세웠던 충성된 종은 현재는 한국에서 기독교 명문인 백석대학 목회대학원 원장으로 그동안 쌓아온 목회학과 영성신학을 강의하며 목회자양육과 선교사훈련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송전대, 호서대 교수, 휴스턴신학대학 학장, 미주 통일선교대학 학장,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등을 역임했다.

강좌요약선교를 잘 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가 성장, 둘째가 성숙, 셋째가 확장입니다. 첫째는 많은 사람은 주제로 돌아오게 하는 growth요 두번째는 훌륭한 제자를 기르는 maturity요 세번째가 선교의 program. 즉 신학교cell church 운영, 지역 선교지 개발 그리고 선교지 확장입니다. 이 모든 선교는 잘 할려면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토대는 역시 말씀 중심의 선교입니다. 더욱이 소그룹 성경 인도법의 효과적 방법을 알고 선교한다면 더 성과가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성경을 구조상으로 구분하면 케리그마, 디다케 그리고 파라클레시스입니다. 케리그마는 복음의 핵심이요, 디다케는 교훈이요 파라클레시스는 교리입니다. 케리그마 없는 교훈은 율법주의에 빠지고 케리그마 없는 교리는 이론에 빠지기 쉽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말씀은 목음의 핵심, 예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말씀이 경시되는 시대에 소그룹의 효과적 성경 강해를 통해 선교에 새 장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②-3 성령이 말씀하시는 아홉 가지 방법

서삼정 / 이틀란타제일장로교회 담임



『예수님은 맛』 시리즈로 펴낸 『영성이 살아야 예수님은 맛이 난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예수님은 맛이 난다』, 『예배가 살아야 예수님은 맛이 난다』는 그의 저서에서 보듯 그는 성령의 사람으로 깊은 영성목회를 통해 지난 32년간 미동남부지역 최대의 한인교회를 만들어냈고 능력있는 설교가로 전국적인 부흥집회사역을 펼쳤고, 또한 삶의 여울목에 흐르는 고난의 노래들을 신앙고백으로 승화시켜 영감넘치는 시편으로 엮은 시집 『조약돌』을 세상에 선보인 아름다운 감성의 사역자이다. 미주 기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 세계복음화협의회 미국총재 등을 역임했다.

②-4 성령의 음성 듣는 다섯 가지 방법

서삼정 /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담임



『예수믿는 맛』시리즈로 펴낸 『영성이 살아야 예수믿는 맛이 난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예수믿는 맛이 난다』, 『예배가 살아야 예수믿는 맛이 난다』는 그의 저서에서 보듯 그는 성령의 사람으로 깊은 영성목회를 통해 지난 32년간 미동남부지역 최대의 한인교회를 만들어냈고 능력있는 설교가로 전국적인 부흥집회사역을 펼쳤고, 또한 삶의 여울목에 흐르는 고난의 노래들을 신앙고백으로 승화시켜 영감넘치는 시편으로 엮은 시집 『조약돌』을 세상에 선보인 아름다운 감성의 사역자이다. 미주 기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 세계복음화협의회 미국총재 등을 역임했다.

②-5 성령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 분별법

서삼정 /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담임

②-6 주와 동행하는 생활 <왕의 복음>

이상남 / 세계등대교회 담임



45년의 성역을 통해 목회자로, 부흥사로, 주와 동행하는 예수제자양성을 위한 『왕의복음선교훈련원』(KCI) 사역으로 70여 개국에서 선교사영성집회를 수없이 인도하며 늦은 비의 성령폭발을 목도해 온 종으로 목회 도중 자아가 깨어지는 영적대변혁을 경험한 후, 종말론적 성화의 복음메시지를 외치고 있다. 남가주 굴지의 세계등대교회를 섬기며 KWMC 금년도 대표의 장이다. 성결신학대학교, 송전대학교, 서울신학대학원을 나와 캘리포니아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박사를 했다. 『왕의 복음』, 『주와 동행하는 생활』, 『재림과 휴거』, 『인생의 본질과 급선무』 등 저서가 있다.

[살전5:23절]

서론: 하나님께서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주와 동행하는 성령충만한 생활"을 원하신다. 그렇다면 과연 주와 동행하는 생활의 비결은 무엇인가?

1. 주와 동행하는 생활을 하려면, 먼저 내 속사람 영이 거듭날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들어가 내 자아인 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지고 변화되어야 한다. (요3:5~6, 요1:12, 히4:12, 엡6:17, 창5:21~24, 잠27:1절 참조)
2. 주와 동행하는 생활을 하려면, 매일 매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을 쳐 복종시키며 살아가야 한다. (창17:1, 시139:1~6, 고전9:27, 고전15:31절 참조)
3. 주와 동행하는 생활을 하려면, 매일매일의 일상생활 가운데 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천국생활을 미리 연습하고 훈련하며 살아가야 한다. (갈2:20, 눅17:21, 히11:6절 참조)

결론: 우리 모두의 남은 생애만은 주와 동행하는 성령충만한 생활에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②-7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의 영성훈련

이상남 / 세계등대교회 담임



45년의 성역을 통해 목회자로, 부흥사로, 주와 동행하는 예수제자양성을 위한 『왕의복음선교훈련원』(KCI) 사역으로 70여 개국에서 선교사영성집회를 수없이 인도하며 늦은 비의 성령폭발을 목도해 온 종으로 목회 도중 자아가 깨어지는 영적대변혁을 경험한 후, 종말론적 성화의 복음메시지를 외치고 있다. 남가주 굴지의 세계등대교회를 섬기며 KWMC 금년도 대표의 장이다. 성결신학대학교, 송전대학교, 서울신학대학원을 나와 캘리포니아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박사를 했다. 『왕의 복음』, 『주와 동행하는 생활』, 『재림과 휴거』, 『인생의 본질과 급선무』 등 저서가 있다.

[본문] 왕상 17:1~7절

서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신앙적인 영성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 (욥23:10, 고후1:8~9절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영성훈련은 종말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훈련이다. 본문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주전 800년경 인물로서 북 왕국 이스라엘의 최대 선지자였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에게 어떤 영성훈련을 받게 하셨는가?

1.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받은 세 가지 영성훈련. (왕상17:1~7절 참조)
 - 1)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도우시되 단 사람이 아닌 짐승인 까마귀들을 통해 도우셨다. (시146:3~5, 사2:22절 참조)
 - 2)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도우시되 단 땅의 들짐승이 아닌 공중의 날짐승을 보내셔서 도우셨다. (잠23:4~5, 요한1서2:15~17절 참조)
 - 3)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도우시되 단 몇 일간 먹을 풍족한 양식을 한꺼번에 공급해 주시지 않으시고 오직 하루 아침 저녁 두끼먹을 일용할 양식만 공급해 주셨다. (출16:13~21, 마6:19~21, 마6:11, 잠30:7~9, 딤후6:7~12절 참조)
2.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양식공급의 심부름꾼으로 쓰여졌던 까마귀들을 통해 배워야 할 영적교훈. (왕상17:2~7절 참조)
 - 1) 하나님께서는 까마귀 같은 죄인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창8:6~7, 창8:10~11, 레11:13~15, 딤후1:12~15절 참조)
 - 2)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항상 까마귀들처럼 팀 사역을 통해 힘을 합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시133:1, 빌2:2~4절 참조)
 - 3)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들과 같은 순종성과 정직성을 가진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왕상3:6, 행13:22, 시112:1~4절 참조)

결론: 종말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명자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받았던 영성훈련에 함께 동참해서 협력하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②-8 성도 욕이 받은 갑절의 복

이상남 / 세계등대교회 담임



45년의 성역을 통해 목회자로, 부흥사로, 주와 동행하는 예수제자양성을 위한 『왕의복음선교훈련원』(KCI) 사역으로 70여 개국에서 선교사영성집회를 수없이 인도하며 늦은 비의 성령폭발을 목도해 온 종으로 목회 도중 자아가 깨어지는 영적대변혁을 경험한 후, 종말론적 성화의 복음메시지를 외치고 있다. 남가주 굴지의 세계등대교회를 섬기며 KWMC 금년도 대표의 장이다. 성결신학대학교, 송전대학교, 서울신학대학원을 나와 캘리포니아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박사를 했다. 『왕의 복음』, 『주와 동행하는 생활』, 『재림과 휴거』, 『인생의 본질과 급선무』 등 저서가 있다.

서론: 본문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성도 욕은 주전 2000년 경 북아라비아 지방 우스 땅에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이었다. 성도욕은 극심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의 믿음으로 참고 극복하고 승리함으로서 말년에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 할만한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았던 가장 모범적이고 대표적인 성도였다. (약 5:10~11절 참조) 그러므로 우리 종말시대 성도들은 성도 욕의 파란만장한 생애와 그가 말년에 받아 누리던 갑절의 복에 대해서 깊이 파헤쳐보면서 거기에서 복음적인 진리와 영적교훈을 배워야 하겠다. (욥 42:5~10)

1. 성도 욕이 받은 환난과 시련의 배경 (욥 1:1~22절 참조)
2. 성도 욕이 환난과 시련을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 (욥 27:1~6, 욥32:1~2절 참조)
3. 성도 욕이 말년에 갑절의 복을 회복할 수 있었던 비결 (욥 42:5~10절 참조)

결론: 사랑하는 종말시대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온갖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성도 욕의 인내의 믿음을 본받고 배우시다! 아울러 우리의 남은 생애에 성도 욕이 받았던 것과 같은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②-9 Mission, Marriage and More!

바바라 윈터 / 랄프 윈터 박사의 아내



Barbara Winter : 미국 선교 학회를 공동 설립했고, 교회 선교 헌신 촉진을 설립하는 일을 도왔으며 퍼스펙티브를 시작한 20세기 선교의 거장으로 미전도종족 선교운동을 주창한 랄프 윈터 박사의 뒤에서 헌신한 바바라 윈터 사모는 랄프 윈터 사 이에 네 딸을 두었으며 모두 자기 가족들과 함께 전임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Seminar for women-Issues women face in ministry
선교와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 여성들에게 있을 수 있는 이슈들을 수십년간의 경험을 통해 다루게 된다.

②-10 선교의 딜레마 The Mission Dilemma

스티브 세인트 / 에콰도르 순교자의 아들, <창의 끝> 저자



에콰도르 오지 식인종 와오다니 인디언들의 대항에 찢려 죽임을 당한 헛튼대학 출신 5명의 미국 선교사 중 하나인 네이트 세인트의 네살난 아들로 에콰도르에서 성장, 13세 때 아버지를 죽인 인디언 가운데 목사가 된 원수의 손에 아버지가 순교당한 과라레이 강가에서 침례를 받았다. 당시 5명 선교사의 순교는 『선교사 대학살 사건』으로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현재 그는 원수였던 인디언들에게 화해와 용서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신앙훈련, 직업훈련, 기술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아버지의 순교와 자신의 선교 이야기를 담고 있는 『창의 끝(End of the Spear)』 저자이며 이것은 영화화되기도 하였다.

지난 20세기에 우리가 해온 선교는 반생산적이었다. 이제는 선교에 있어서 "가족"을 생각해야 할 때이다.

②-11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 행하기

스티브 세인트 / 에콰도르 순교자의 아들, <창의 끝> 저자



에콰도르 오지 식인종 와오다니 인디언들의 대항에 찢려 죽임을 당한 헛튼대학 출신 5명의 미국 선교사 중 하나인 네이트 세인트의 네살난 아들로 에콰도르에서 성장, 13세 때 아버지를 죽인 인디언 가운데 목사가 된 원수의 손에 아버지가 순교당한 과라레이 강가에서 침례를 받았다. 당시 5명 선교사의 순교는 『선교사 대학살 사건』으로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현재 그는 원수였던 인디언들에게 화해와 용서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신앙훈련, 직업훈련, 기술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아버지의 순교와 자신의 선교 이야기를 담고 있는 『창의 끝(End of the Spear)』 저자이며 이것은 영화화되기도 하였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이 세상에서 하는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신다.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분께 해드리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고린도전서 4:1)라고 하고 있다.

②-12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는가

글래디스 스테인스 / 인도 순교선교사의 아내



Gladys Staines: 호주출신 20세의 젊은 의료선교사, 그레함 스테인스는 1965년부터 인도 오릿사의 나환자촌에서 35년간 헌신하던 중 1999년 1월 두 아들과 힌두축제에 참석했다가 차에서 잠을 자던 중 반기독교정당 RSS측 50명의 괴한들이 습격, 불지른 짐차에 갇혀 산 채로 타 죽게 된다. 그 후 재판과정에서 아내와 딸은 정부에 무죄석방을 탄원, 11억의 인도를 예수의 사랑으로 울렸다. 아내는 그후에도 25개 나환자선교관, 나환자재활농장 등을 섬겼고 그레함스테인스기념병원이 세워졌다. 약사인 딸의 꿈은 아버지의 뒤를 잇는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분께 신실하도록 부름받았다. 하지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어떻게 하나님께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②-13 인내와 헌신, 그 실제적 의미

글래디스 스테인스 / 인도 순교선교사의 아내

우리가 인내와 헌신을 말할때, 우리는 그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는 것일까?
인내와 헌신이 과연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살펴보자.

②-14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글래디스 스테인스 / 인도 순교선교사의 아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중 아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
나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것이 다른 이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 수 있는지 나누고자 한다.

②-15 성서적 Prophetic 영성

다니엘김 / Destiny Training International 디렉터



Daniel Kim: Destiny Training International를 캘리포니아에 창설하고 디렉터로 사역하고 있는 다니엘김 목사는 목회자로, 교사로, 부흥사로, 교회개혁자로, 자문으로, 영적 지도자로 여러가지 사역을 해오고 있다. 풀러신학교(M.Div., Th.M., Ph.D.)를 나왔으며 박사과정을 통해 구약 예언자들과 신약 사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적 예언의 권위와 영성에 대해 깊이 연구하였고 계속해서 올바른 신학과 깊은 영성의 결합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섬기는 지도자들을 가장 역동적이고 전략적이며 변화받는 훈련과 동원을 통해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도록 돕는 비전을 갖고 있다.

[Introduction to Biblical Prophetic Spirituality] 진정한 기독교 영성은 성서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여러 종류의 성서적인 영성 가운데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성서적 영성이 있다. 이것이 곧 Prophetic 영성인데 그 주된 강조점은 각 개인이 주님에 대한 이해와 주님과 관계를 더 깊게 성장 시키는 것이다. 이 workshop은 Prophetic 영성에 관한 여러 주제들을 배우는 기회이다: (Prophetic 패러다임, Prophetic계열, Prophetic의 정의, Prophetic 정신, Prophetic 본질 -하나님과의 친밀함, 계시와 진리, 초자연적인 능력, 주체성과 목표, 거룩한 인격, 권위와 순종, 성서적인 고난)

②-16 Hearing The Voice of God 하나님의 음성 듣기

제니퍼 톨리도 / GCM 창설자 및 디렉터



Jennifer Toledo : 제니퍼 톨리도는 현재 Global Children's Movement.의 창설자겸 Director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니퍼의 열정은 차세대들이 영적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함으로 몰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니퍼는 여러 열방국가들 가운데 널리 사역하면서 여러 공동체들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세대적 연합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변화되는 것을 목격 하였습니다. 제니퍼가 갈망하는것은 한세대 전체가 예수님과 진정으로 사랑의 관계에 빠져서 찬양과 협력하는 사람들로 변화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제니퍼는 교회가 희석되지 않은 단순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함을 외쳐왔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바라 왔습니다. 제니퍼는 현재 Los Angeles에 남편 호나탄과 두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힘이 든다고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갈망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사활이 걸린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갈망 하시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확실하게 듣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며, 그분이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아는 것 입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습득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도 아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미나 시간 중에 또한 임파테이션(Impartation: 능력 전이)의 시간도 가질 것이며 세미나 시간에 여러분이 배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일부를 실제적으로 실습하게 됩니다. 참석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듣고 새로워지는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②-17 The Cry for Social Transformation

제니퍼 톨리도 & 호나탄 톨리도 / GCM 창설자 및 디렉터



Jennifer Toledo and Jonatan Toledo are the Founder and Director of Global Children's Movement. Jennifer's passion is to see the next generation equipped and released into the fullness of the Kingdom. She has ministered extensively throughout many different nations, seeing transformation come to communities as they embrace kingdom principles and generational unity. Her desire is to see a whole generation truly fall in love with Jesus and be released to partner with heaven. For years, Jennifer has been a strong voice calling the church back to the simple undiluted gospel, and for the kingdom of heaven to manifest on behalf.

In an age where poverty, violence, sickness, and despair are plaguing the earth God is raising up radical sons and daughters who share His heart of Mercy and Justice and are partnering with heaven to bring Social Transformation. In this seminar Jennifer will share a powerful encounter called 'The Weeping Room' that will awaken and compel you to a lifestyle of Mercy and Justice. Strategy is available for those who are willing to carry God's heart for the poor and broken of the earth. God is bringing the church back to True Religion a gospel that is more than just words. Come and hear amazing stories of how God is taking simple people and turning them into world changers!

②-18 Power Evangelism 능력전도

제니퍼 톨리도 & 호나탄 톨리도 / GCM 창설자 및 디렉터

Come hear amazing stories of how simple it is to take the prophetic and healing to the streets! You will be challenged and encouraged at how God is moving in such powerful ways to bring in the lost to Him. This seminar will compel you to take the Gospel of Power to your school, workplace, and city! We will have a time of impartation as well as a time of praying for anyone who needs healing.

예언과 치유를 사용한 노방 전도가 얼마나 간단한지 놀라운 예언과 치유전도 간증을 이 세미나에 참석 하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어 버린 자들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지에 대하여 알게 될 때 도전을 받으시고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세미나는 여러분이 능력의 복음을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과 도시로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여러분을 자극하게 될 것입니다. 참석하신 분들에게 임파테이션(Impartation: 능력전이)의 시간을 갖고 여러분 가운데 치유가 필요로 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②-19 Releasing the Next Generation 차세대를 풀어놓음

제니퍼 톨리도 / GCM 창설자 및 디렉터

This seminar is for pastors, leaders, missionaries, and anyone who is working with children and youth. God is moving in amazing ways amongst youth and children all over the world. Come, hear stories of how God is using young people to bring revival and transformation to their communities. It's time for Fathers and Mothers to rise up and start releasing the next generation into the fullness of their destiny!

이 세미나는 목사님들과, 지도자 분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어린이들과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분들께 해당 됩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청소년들과 어린이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하시고 계십니다. 참석 하셔서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을 사용하셔서 부흥과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시고 계신 간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이 일어나 차세대들을 그들의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의 충만함으로 몰입 하도록 풀어놓아야 될 때입니다.

②-20 From Servants to Sons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제니퍼 툴리도/GCM 창설자 및 디렉터



This seminar will look at the difference of being a servant and being a son or daughter of the King. It is the desire of God that we begin to understand our role as royalty and take our position of authority. Many believers walk defeated and lack power because they don't embrace who they are as a son and daughter who has full access to everything in the kingdom. When you begin to understand who you are, you begin to manifest the kingdom all around you. The whole earth is groaning for the sons of God, and Christ in YOU is the hope of glory! Come and receive revelation as you're empowered to walk in your God-given authority as a son or daughter.

이 세미나에서는 왕 되신 주님의 종이 되는 것과 아들이나 딸이 되는 차이점을 상고 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갈망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왕 되신 주님의 왕족으로 이해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의 직분을 취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천국의 상속자들로서의 신분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패배의식에 빠져 있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이해하실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나타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참석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이미 주신 권세를 취할 수 있도록 능력을 전이 받을 수 있는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②-21 The Journey of Love 사랑의 여정 제니퍼 툴리도/GCM 창설자 및 디렉터

There is absolutely nothing higher or more valuable in this life—than Love. We were all created for intimate fellowship with a God who is love. God longs to commune with us and is looking for a people who seek His face, not just His hand. Every miracle that Jesus did came out of a love-connection with the Father. It is time for a Love Revolution to hit the church. The world has seen enough of "religion" and is longing to be awakened by the power of Love. When we step into a place of love and communion with God—there is no stopping what God can do in and through you!!!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높고 더 귀한 것은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창조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적 교제를 갖기를 갈망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의 형상을 담기를 구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사와 이적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로 부터 나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랑혁명이 교회를 휩쓸 때 입니다. 우리는 세속세계 속에서 "종교"를 지루하리만큼 충분히 보고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세속세계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의해서 깨어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와 영적교제의 현실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②-22 Money 그리스도인의 재정관리 론 스미스/YWAM SBS 성경학교 창시자



세계적인 선교단체 YWAM(Youth With A Mission)에서 제자훈련학교(DTS - Discipleship Training School)의 창설을 도왔으며 DTS 이후 9개월간 성경 66권을 심도있게 공부하는 성공적인 성경공부 코스인 SBS(School of Biblical Studies)의 기초를 놓았다. 아내 주디 스미스와 함께 18년간 45개국에서 이 코스를 운영하였다.

The Bible speaks often about money. Money powers world evangelism. Regrettably we manage our money just like the world. This is a seminar on how to change money management in our lives, our churches and our families.

성경은 돈에 관하여 많은 말씀을 하고 있다. 돈은 물론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관리하는 방식은 세상의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 강좌는 우리의 삶과 교회와 가정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재정관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나눌 것이다.

②-23 Pastoring Apostolic People 사도적 인물 이해하기 론 스미스/YWAM SBS 성경학교 창시자

Apostolic people are different. They do new things, start new ministries and at times are difficult to work with and misunderstood. 사도적인 사람들은 남들과 다르다. 그들은 새로운 일들을 행하며, 새로운 사역을 일으켜 낸다. 하지만 종종 동역하기 힘들며 오해도 많이 받는다.

②-24 Hungering for the Word 말씀에 대한 갈망 론과 주디 스미스/YWAM SBS 성경학교 창시자

The Holy Spirit encourages hunger and delight for God's word. Less than 20% of Christians have read the entire Bible. How do we change that? This seminar gives some answers.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주리게 하시며 또 이를 통해 기쁨을 주신다. 성경 전체를 읽어본 적이 있는 기독교인은 20% 미만이다. 어떻게 이 수치를 변화시킬 것인가? 이 강좌는 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였다.

②-25 Inductive Bible Study 귀납적 성경공부 론과 주디 스미스/YWAM SBS 성경학교 창시자

People want to study the Bible. But how? This seminar will look at inductive Bible Study as a tool for getting into God's Word.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른다. 귀납적 성경공부라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②-26 Servanthood 섬김의 도 Judy Smith 주디 스미스/YWAM SBS 성경학교 창시자

This seminar will explore true greatness through serving.

이 강좌에서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김을 통해서 진정한 위대함에 이를 수 있음에 대해 나눌 것이다

㉔-27 목자적 목사의 교역

김득렬 / 디트로이트한인연합장로교회 원로목사



디트로이트 한인 연합장로교회 원로목사이며 제 1회 KWMC 준비위원장으로 활약했던 김득렬 목사는 총회신학교, 경북대 학교를 졸업하였으며 Biblical Seminary in New York 에서 종교교육학 석사, Hartford Seminary에서 박사를, 그리고 Alma College, Alma 에서 명예신학박사를 수여 받았다. 대한청소년 성경구락부 본부 총무를 시작으로 계명대학교와 연세 대학교에서 교목을 지냈으며 21년간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를 담임하였다. 저서로는 결혼과 가족관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은총의 교역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복음과 기독교교육, 인간의 욕구와 하나님의 역사, 회중들이 있다. 2007년에 권세열 선교사 전기(씨를 뿌리러 나왔더니) (편저)를 내었다.

"그는 목자 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젓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 40:11)

1. 牧師: 牧者와 教師 (에베소 4:11)
2. 목자적 목사의 교역의 현상

㉔-28 말씀의 인격화를 위한 성경통독 특수훈련

안성기 / 시카고 남서부교회 담임



안성기목사는 본 KWMC 공동의장과 시카고한인기독교방송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요한선교단 미주대표로서 지난 10여년 동안 말씀의 인격화 운동을 위하여 성경통독과 암송 특수훈련 강사로 활약하고 있다. 시카고 남서부교회를 담임하며 KWMC 중경의장이다.

우리는 흔히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하며 목회자를 "말씀의 종"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성도의 유일한 textbook이다. 따라서 성도의 신앙생활은 이 성경에 근거해야 하고, 의존해야 하며,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성도는 성경을 사랑해야 하고, 성경에 박식해야 하며, 성경적 사고와 성품과 언행이 몸에 배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인격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일을 위하여 "성경통독과 암송 특수훈련"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확신한다. 특별히 선교현지 지도자의 말씀훈련을 위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믿는다.

특히 선교현지 지도자의 말씀훈련을 위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믿는다.

1. 성경통독: (1) 성경통독의 정의 (2) 성경통독의 유익 (3) 성경통독의 방법 (4) 성경통독의 적용 (5) 성경통독의 일정
2. 성경암송: (1) 성경암송의 원리 (2) 성경암송의 유익 (3) 성경암송의 비결 (4) 성경암송의 훈련 (5) 성경암송의 일정

㉔-29 최고인생으로 삽시다

나광삼 / 큰무리교회 담임



이민목회 30년의 광야길에서 큰무리교회의 위대한 성장을 일궈낸 그는 능력있는 말씀의 종으로 한국과 북미주를 점철하는 연중 25회 이상의 부흥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웠다. 또한『21세기 요셉운동』을 창설, 청소년 신앙부흥운동을 10년째 전개하며 옛날 애굽의 이질문명 속에서 여호와 신앙으로 세상과 자신을 극복했던 요셉을 본받아 주 안에서 강한 자아각성과 신앙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아름다운 사역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와싱턴개혁장로회 신학교 이사장으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총회신대원(M.Div.), 웨이스신학대학원(D.Min.)을 했다.

[메드로전서 2: 9-10]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허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허를 얻은 자니라."

㉔-30 날마다 좋은날 보며 삽시다

나광삼 / 나광삼 큰무리교회 담임



이민목회 30년의 광야길에서 큰무리교회의 위대한 성장을 일궈낸 그는 능력있는 말씀의 종으로 한국과 북미주를 점철하는 연중 25회 이상의 부흥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웠다. 또한『21세기 요셉운동』을 창설, 청소년 신앙부흥운동을 10년째 전개하며 옛날 애굽의 이질문명 속에서 여호와 신앙으로 세상과 자신을 극복했던 요셉을 본받아 주 안에서 강한 자아각성과 신앙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아름다운 사역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와싱턴개혁장로회 신학교 이사장으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총회신대원(M.Div.), 웨이스신학대학원(D.Min.)을 했다.

[메드로전서 3: 8-12]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㉔-31 하나님의 가족과 깨어진 관계회복

장동찬 / 뉴저지베다니교회 담임



뉴저지에 있는 뉴저지 베다니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장동찬 목사는 감신대, 예일대, 두류대를 졸업 하였으며 감신대 교수를 역임하였다.

㉔-32 나의 왕국과 예수님의 비전

김재성 / 필라델피아한인연합교회 담임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이며 개혁장로회 신학교등에 출강하고 있는 김재성 목사는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철학박사), 미국 칼빈신학대학원 (신학석사), 합동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총신대 (문학사) 과정을 마쳤다. 전 합동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 (12년)로서 일하기도 하였으며, 저서로는 <개혁신학의 광맥>, <개혁신학의 정수>, <개혁신학의 전망>, <칼빈의 삶과 종교개혁>, <칼빈과 개혁신학의 기초> 등 다수가 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우리가 중요시하는 말씀은 마 24:14이다. 어서 땅끝까지 가야하고, 미전도 종족에게 다가가야 하는 명령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예수님의 재림과 왕권의 시행이 완전히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가야만 한다는 사명감을 배운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선교사와 복음전도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해가 분명해야 한다. 우리가 전할 복음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최근에 마태복음 5장 3절의 중요성에 사로잡혔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이며,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이란 바로 '천국의 소' 유라는 사실이다. 모든 선교사의 비전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전도하고, 세례주고, 가르치고, 세우는 것이다. 물론 이보다 절박한 사명은 없다. 여기에 예수님의 비전이 빠르게 설정되어야 하며, 예수님의 비전에 맞추지 않으면 안된다. 이번 강좌에서 천국의 의미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자 한다. 특히 요한 칼빈의 경건한 성경해석들 속에서 발견되는 구절들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있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였으며, 이를 간파한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자들에게서 배우고자 하기 때문이다.

㉔-33 영성훈련과 제자화 운동의 대안모색

김재성 / 필라델피아한인연합교회 담임



이민목회 30년의 광야길에서 큰무리교회의 위대한 성장을 일궈낸 그는 능력있는 말씀의 종으로 한국과 북미주를 점철하는 연중 25회 이상의 부흥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웠다. 또한 『21세기 요셉운동』을 창설, 청소년 신앙부흥운동을 10년째 전개하며 옛날 애굽의 이질문명 속에서 여호와 신앙으로 세상과 자신을 극복했던 요셉을 본받아 주 안에서 강한 자아각성과 신앙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아름다운 사역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와싱턴개혁장로회 신학교 이사장으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총회신대원(M.Div.), 웨이스신학대학원(D.Min.)을 했다

최근유행하고 있는 소위 영성운동이라는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인가? 영성신학에 대해서 1993년부터 지속적으로 신학적인 문제점을 지적해오고 있는 필자는 다시한번 최근 미국과 한국교회의 영성운동에 대해서 점검할 내용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구나 제자훈련과 같이 기초적이며 중요한 교회와 선교사의 사역에서 잊혀지고 있는 중요한 관점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제자훈련에서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제자훈련으로 터득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왜곡되어지기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의 세계관과 인생관 (A Christian's world and Life View) 을 확고히 체계화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온갖 신비주의, 기복주의, 세속주의로부터 지켜낼 수 없다. 현대 영성신학이나 제자화 운동이 결가지를 잡고 있다고 한다면, 성경의 핵심으로 제시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다시금..

㉔-34 만인제사장의 역할

김수태 / 뉴욕어린양교회 담임



주님 재림 직전에 주님의 몸 된 교회에 강한 기름부음의 영적 부흥이 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된 신부인 교회를 마지막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쓰시려고 부어주시는 강한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교회는 평신도들을 복음을 들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교회로 준비하면서 새로운 기름부음을 사모하여 기다릴 때 초대교회 때 보다 더 강한 성령의 부흥의 기름부음이 준비하는 교회마다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1. 모든 성도님들은 다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벧전 2:4-5)
2. 제사장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동참해야 합니다. (요 5:17)
3. 제사장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벧전 2:9) 2)
4. 제사장은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져야 합니다. (민25: 11)

㉔-35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 사역행진

박광재 /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 연구소장



박광재목사는 대한신학교, 총신대학신학대학원, 미주총신대학대학원(D.D)을 졸업하고 40 여년 전 성경속에서 재발견한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 사역과 제도를 목회사역과 교단 정치와 선교사역과 개인 삶의 현장에 적용하므로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왕권이 직접 행사되는 신본, 신주, 신정정치를 회복하고 세속화된 교회와 총회와 국가를 거룩한 교회와 총회와 국가로 개혁하는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 사역'을 전개하고 있다.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 사역원장.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 연구소장.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 사역과 제도 실천운동 본부장. 교회와 국가의 선거제도 개혁운동 본부장. 총회세계선교회(GMS) 이사. 미합중국 연방정부 및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등록된 The Holy Lot Mission, U.S.A (HLM)이사장 등을 역임하고 있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영광교회를 30년 간 담임목회 하고 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16:33)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하느니라. (잠언18:18) 왜?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 사역인가?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를 친히 제정하신 분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거룩한 제비를 뽑는 사역의 현장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왕권이 행사된다. 거룩한 제비를 뽑는 사역의 현장마다 분쟁과 분열이 그치고 화해와 일치와 연합된다. 거룩한 제비를 뽑는 사역의 현장마다 성교회 성노회 성총회로 갱신과 개혁 이룩된다.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 사역과 제도는 "왕같은 제사장 사역"이며 "평화의 사역"이다.

㉔-36 성경적 기도와 큐티세미나

김정복 / WMC기도학교 원장



김정복 목사는 연세대학교 상경대학과 대학원 및 장로교개혁신학교(M.Div), 국제신학대학원(ITS) (Th.M, D.Min), 풀러신학교에서 (D.Min)를 졸업하고 1985년부터 WMC기도학교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20년간 운영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강사 및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World Mission Crusade for Christ 대표이며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에서 기도학 교수이다. 저서로 '주제별 기도연구', '성경적 기도' 등이 있으며 기도전문지인 월간기도를 발행하고 있다.

성경적 기도와 QT 세미나는 사복음서를 중심으로한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중의 기도생활과 예수님의 기도명령과 기도 방법 및 기도에 관한 가르침 그리고 사도행전을 중심으로한 제자들의 기도생활과 친구 약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기도, 제자들의 기도의 성경적 기도를 강의합니다.

㉔-37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안요한 / 새빛맹인선교회 회장



사회복지법인 새빛복지재단의 이사장이며 『낮은데로 임하소서』의 책과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안요한 목사는 목회자 가정에서 출생하였다. 대전고, 외국어대를 졸업하고 37세 때 실명하게 되었다. 이후 한신대와 중앙대학원을 졸업하고 새빛맹인선교회 회장이자. 2003년부터 코스타의 주강사이며 약 7,000여회의 국내외 집회인도를 하였다. 세계성신클럽 성령봉사상 수상(92년), 국민훈장 목련장(2001년)을 수상하였다.

장애는 크게 신체적 장애에 따라 지체장애 · 뇌병변 장애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언어장애로, 정신적 장애에 따라 정신지체장애 · 정신장애 · 발달장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인 약 사백만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들 중에는 선천성 장애인보다 과학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후천적 장애인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을 정도로 장애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역들 또한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 1). 제2의 인생 (I lost my sight, but not my vision) - 요한복음 9장 3절
- 2) 장애인과의 접근 방법 - 누가복음 10장 30~37절
- 3) 보여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눅10:37)

②-38 내적치유의 깊은 뿌리

김크리스티/YWAM 하와이코나 열방대학 내적치유교수



세계적선교단체 YWAM(Youth With A Mission)이 운영하는 열방대학(University of the Nations)에서 김크리스티는 기독교 상담과 내적치유를 가르치고 있다. 7개 단과대학으로 구성된 열방대학은 YWAM 하와이 코나(Kona)와 우리나라 제주도 등지에 세운 국제적 기독교 교육기관으로서, 110개국 280개 지역에서 DTS(예수제자훈련학교)와 같은 선교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크리스티 김 선교사는 전세계에 위치한 열방대학 일부를 순회 강의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영적 치유의 놀라운 은혜와 비밀을 나누고 있다. 영어와 한국어가 동시에 가능한 이중언어자이기에 해외 교포와 서구의 크리스천 사이에 더욱 널리 알려졌으며, <승리하는 영적전쟁>과 <용서해야 산다>는 주제로 명강의를 펼치기도 한다. 14세에 유학길에 올라 미국 남가주대학(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을 졸업(심리학 전공)하고, 국제신학대학교(International School of Theology: I.S.O.T.)와 탈봇신학대학교(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바이올라대학교)에서 상담학과 신학을 공부했다. 하와이 코나에 있는 열방대학을 수료했으며 1996년부터 동 대학에서 내적치유 교수로 섬기고 있다. 저서로 <응어리를 풀라!>가 있다.

많은 사역자들이 선교나 사역이 어려운 이유중에 하나는 재정이나 현지인과의 갈등보다는 본인의 내면이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내적 치유가 감정적으로 마무리되고 장기적인 치유나 열매가 없을 때가 많다. 왜 그럴까? 이 세미나를 통하여 내적 치유의 깊은 뿌리를 다루고자 한다.

②-39 가정의 갈등해소

강세대, 이희녕 / 복음장로교회 담임



강세대 목사와 이희녕 사모는 뉴저지 복음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본 대회 공동 부회장이다. 또한 PCA 한인교협 증경회장, 뉴저지 교협 증경회장, 필라 목사회 증경회장등을 역임하고 있다. 이희녕 사모는 강세대목사 사모로서 30여년간 청소년E.M, 제자훈련, 인물 목상세미나강사, 사모상담, 미주 크리스찬신문 상담 칼럼문서사역을 해 오고 있다. 또한, 맑은 영성의 삶, 인터넷 사명자 훈련사역운영 및 순회 세미나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사모님 축복합니다>, <곤고한 심령이 살아나는 만져주심>등이 있다.

1. 갈등의 현주소

2. 갈등을 축복의 기회로 일궈내는 영원한 신혼 청사진

- * 공동의 목표(신앙관) : 하나님께만 같이 영광 돌리는 삶을 삽시다. - "여보! 우리 영원한 신혼을 누리도록 해요."
- * 공동의 힘의 원천 : 오직 예수님 - 끊임없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아가페 사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 18:1
- * 공동의 가치관 : 이기적, 물질적, 현세적인 것보다 좀더 의미 있고, 영원한 것에 우선권을 둔 성서적삶의 생활 기준으로 살자.
- * 공동의 물질관 : 물질에 지배되지 말고 다스리며 살자.
- * 공동의 성관 : "나의 몸은 당신의 것이고, 당신의 몸은 나의 것이므로 서로의 기쁨을 위해 최대로 드립시다." (고전 7:3-4)
- * 공동의 가정관 :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에 오게 합시다."

3. 갈등해소의 다림줄

3 C - Christ, Communication, Commitment

②-40 쓴뿌리 치유

이희녕 / 복음장로교회



뉴저지 복음 장로교회 이희녕사모, 30여년, 청소년E.M, 제자훈련, 큐티강사, 사모상담, 미주 크리스찬신문 상담, 칼럼문서사역 <맑은 영성의 삶> 인터넷 사명자 훈련사역을 운영하며 순회 사명자 훈련강사로 목회자 부부 세미나 및 인물 목상세미나 등 한국 및 전세계에 흩어진 탈진 사역자들을 세워주고 곤고한 교인들을 복덩이로 전환하는 행복전도자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 이대 영문과, 미국 비블리칼신학대학원 기독교 상담석사, 저서로는 <사모님 축복합니다>, <곤고한 심령이 살아나는 만져주심>

1. 내면치유 개요 -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마 18:18)
2. 쓴 뿌리의 시작 (나의 선악과) : 수치감, 두려움, -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일어나서 괴롭게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히 12:15)
3. 쓴 뿌리의 열매 (나의 무화과잎 옷): 분노 -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약 1:20)
4. 쓴 뿌리의 치유 : (나의 생명과) : 용납, 용서 - " ... 네가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 18:18)

②-42 Mission of Jesus Disciple 예수제자의 미션

신현 / 미국 예수제자 선교회 디렉트 선교사



미국 예수제자 선교회 디렉트 선교사 및 (주)베네브의 경영과 그룹 전체 회사 경영 관리 (일본, 한국, 중국(홍콩포함), 베트남, 미국)을 하고 있는 신현국제부 총무는 오산대학을 졸업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머 과정을 이수하고 일본에 근무 하는 등 실무를 쌓다가 1991년에 MJD(예수제자 선교회)에 헌신하고 일본 (주)Jako and World, (주)자코 시스템영업 본부장을 역임하였다. 2000년에 MJD 국제부 총무로 임명되었고 한국 디렉트선교사 및 (주)서포메디를 경영하였다. 올해 PSU(Pacific State University)대학 최고경영자 과정 이수예정이다.

- MJD Community Model · MJD Mission Slogan · MJD Network & Staff Distribution · Meet our team · MJD Business Mission Model · JAKO Group History · Case Study: MJD China · Community of Mission · MJD ANNUal Staff Missions Conference · TMI (Tentmaker Mission Institute) · Sunday School · Revival in China through MJD · MJD International Community School · MJD Philharmonic Orchestra · Company · Addiction Recovery Center · Community of Faith · Sunday Worship Service in Shenzhen · Community of Livelihood

②-43 자존심을 죽이면 교회가 보인다

송금섭 / 시카고평안교회 담임



시카고 평안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송금섭목사는 총회신학대학, 맥코믹 신학대학 M-Div, 맥코믹 신학대학 D-Min 에서 수학하였다.

자존심이 없어지고, 자기 중심이 없어지니까 대인관계가 좋아지고 교회는 성장되고, 내 주위에 사람들이 모인다. 꼭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내 지식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

㉔-41 The Unique You : Connecting Your Gift and Passions with the Needs of God's World **로버트 놀드스트롬 / OMF**



Robert Nordstrom: OMF International: Reaching East Asia's Peoples since 1865

Each of us is created and gifted uniquely. Oftentimes we think God can only use certain types of gifts for ministry... gifts we might not possess. But the truth is that your particular gifts can make a major impact on the expansion of God's Kingdom here on earth.

Through this session, you should

- Become more aware of your unique gifts and how God uses our uniqueness
- Understand how to develop your gifts
- Understand the interplay between the call of God and our giftedness
- Learn how our giftedness relates to God's purposes for the world

3. 한인세계선교

㉔-1 한국교회 선교패러다임의 변천사와 미래 전망

조동진 / 조동진선교학연구소 소장



한국교회 세계선교운동의 위대한 선도자이다. 1963년 『국제선교신학원』(ISM)을 설립, 1973년 『동서선교연구개발원』(EWC)으로 확장, 동년에 『아시아선교협의회』(AMA)창립을 주도, 1974년 제1회 로잔대회 강사로 선교구조 쇄신을 역설, 1980년 『바울의집』을 세워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였고 1989년 이래 20회 이상 북한을 방문, 김일성 주석과 세차레 단독회담 후 김일성종합대학과 평양신학교의 교수로 위촉되고 빌리 그래함과 지미 카터의 평양방문을 주선하였다. 80세가 된 2004년 후학동문들의 후원으로 『조동진선교학연구소』를 설립하고 『세계선교박물관』 설립을 추진중이다.

㉔-2 이슬람의 세계화에 대한 한국교회와의 선교사의 대처방안

강승삼 / KWMA 사무총장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사무총장으로, 한국의 모든 교단과 선교단체들이 초교파적으로 연대한 막강한 세계선교네트워크의 한복판에 낙락장송처럼 우뚝 서서 한국선교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그는 젊은 날엔 나이이지리아 선교사로 헌신, 12년간 교회개혁, 신학교 설립, 현지지도자 양성 등 아름다운 헌신을 했다. 총신대신대원(M.Div.), 컬럼비아국제대학(M.A. in Mission), 트리니티신학대학에서 선교학 박사를 하고 세계복음주의협의회 선교분과위원, 아세아복음주의협의회 선교위원장, 10만선교사파송을 위한 Target2030 본부장 등을 역임한다.

㉔-3 한국선교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최찬영 / 해방후 최초 한인선교사



인도차이나 최초의 선교사인 최찬영 선교사는 1956년 당시 천국으로 여겨지던 미국유학의 꿈을 접고 방콕에 들어가 방콕기독병원 원목으로, 의사였던 사모 김광명 선교사는 의사로 봉사하였다. 해방 후 한국의 첫 해외선교사로 파송된 최선교사는 태국을 비롯 필리핀, 중국 등에서 40여년 동안 선교사역을 하였고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필리핀, 홍콩 등에서 국제성서공회 총무를 역임했다. 1992년 은퇴 후에는 미국 풀러 선교대학원에서 한국선교학부를 설립하고 선교학 교수로 후진양성에 힘쓰기도 했다. 중국 남경에 애덕기금회를 통한 성경인쇄공장을 세워 중국어와 중국내에 있는 소수민족의 언어로 성경을 발행한 것, 누구나 불가능하리라 여겼던 중국내에서의 성경인쇄를 가능케 한 사건은 세계문서선교 역사에 남을 일로 평가받고 있다.

들어 가는 말: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교회다. 선교사다. (벧전 2:9, 사 49:6) - 로버트 스피어(Robert E. Speer)의 예언

한국 선교의 어제 영적요소: 1. 신비로운 성경번역의 역사, 말씀중심 2. 능력의 기도, 기도중심, 김준곤 목사의 기도 3. 성령운동, 부흥운동, 선교운동 / 국가 제도적 요소(교회성장학 용어, national institutional factors) 4. 토착교회, 네비우스 3자 원리 5. 독노회 조직, 제주도 선교(이기풍), 조직 후 초기부터 선교하는 한국교회 / 국가 제도적 요소 6. 비서구 국가(일본)의 식민지가 된 한국의 상황 7. 고난과 박해의 역사, 조선말기의 혼란, 일본의 침략, 2차대전, 6.25동란, 분단과 긴장 8. 민족주의를 극복한 기독교, (Nationalism), 민족 복음화, 다른 나라와 다름

오늘: 1. 부흥요소, 길선주, 김익두, 이성봉, 김준곤 2. 선교사 파송요소 3. 국가 건설에 공헌한 기독교의 역할요소

내일: (벧 2:5-11) 선교사의 태도: 1. 무슬림의 도전 2. 새로운 선교지의 도전(유럽) 3. IT 선교 4. 문화선교의 도전

나가는 말: 선교사의 성품이 실패를 결정한다. - 앤드류 머레이, Key to Missionary problem, Servant, humility, 선교사의 영성관리

㉔-4 한국교회 선교훈련의 이슈들

황태연 / GMS선교훈련원장



GMS 선교훈련원장인 황태연 선교사는 1981년 파송받아 사역하였다. 총신대학교 신대원, 아시아신학대학을 나와 필리핀 국립 대학에서 동남아시아학(M.A.)과 필리핀학(Ph.D)을 공부했다.

㉔-5 선교사 배치, 재배치, 철수론

박기호 /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원장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원장이자 아시아 선교학부 교수인 박기호 목사는 총신대학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아세아 연합신학연구원(ACTS),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을 나왔으며 아시아 선교 연구소 소장, 아시아 선교학회 회장으로 있다.

선교사 배치, 재배치, 그리고 철수 문제는 성공적인 선교사역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성공적인 선교사 배치를 위하여서는 선교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선교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적재 적소에 선교사들을 배치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한국 선교단체들과 교단들이 선교지에 대한 바른 이해와 파송받은 선교사들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기대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선교지 선정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은 첫째, 수용적인 곳, 둘째,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 셋째, 복음화가 덜된 곳, 넷째, 언어와 문화적 간격이 비교적 좁은 곳, 다섯째, 선교사의 은사를 필요로 하는 곳,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 하심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선교사가 자신의 은사를 따라 적재 적소에 파송되어 사역을 하다가도 자신의 역할이 끝나게 되면 사역을 현지인들에게 이양하고 자신의 은사를 더 필요로 하는 곳에 재배치를 받아야 한다. 주님과 제자들은 선교지 교회를 목회하려 하지 않고 일꾼들을 세워 그들에게 맡기고 떠나 갔다. 역할이 끝난 선교사가 너무 오래 선교지에 머무르는 것은 자신에도 현지교회에게도 유익하지 않다. 가족을 데리고 새로운 선교지에 가서 새롭게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익히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선교사는 자기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선교지 교회 발전을 위하여 자신의 역할을 달리하든지 자신을 더 필요로 하는 곳으로 옮겨 가서 사역을 해야 한다. 이것이 사도들이 취한 방법이다. 선교 현장에서 자신의 역할과 변화된 역할도 했다면 그 선교사는 선교지를 철수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철수하지 않으면 배척을 당하거나 쫓겨날 수도 있다.

㉔-6 21세기 미국 선교를 통한 세계선교

고인호 / 미국장로교단(PCA)



현재 미국장로교단(PCA)에서 사역하며 특별히 교단내 MNA(Mission to North America)에서 한국교회를 향한 MNA Korean Ministries를 이끌고 있는 고인호 목사는 프린스턴신학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고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와 임마누엘 교회를 성공적으로 목회하고 현재 은퇴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의 총경의장이며 본 대회 총경대회장이다.

21세기 하나님은 미국을 선교하고 미국을 통하여 세계를 선교하기 위하여 한국 백성을 무려 200 만이나 보내주시고 지난 35년간 무려 4000 교회나 세우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 까요? 미국은 21세기 세계선교의 전략상 가장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는 180 언어 종족이 와서 살고 있고 무려 백만의 외국학생들이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세계 중심적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바울은 로마를 선교할 꿈이 없었

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려고 하였으나 성령이 허하나님께서 미국에 2 백만 한인들을 보내주시고 4000 교회를 세우게 하신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미국을 통하여 세계를 복음화 하라고 우리를 미국땅에 보내주시고 미국에서 2세들을 키우게 하신 것입니다. 1세기 당시 헬라 언어가 세계 통상언어였던 것과 같이 오늘날 영어가 세계 통상어입니다. 1세는 영어가 부족하여 미국에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우나 2세들은 영어가 자기 나라 말입니다.

㉔-7 김치와 겨울연가 그리고 선교한국: 새로운 선교패러다임을 찾아서

한정국 / KWMA 총무



서울대 경영대학원/M.A. 합동신학대학원 / M.Div., 총신대 선교대학원 박사과정수로, OMF 선교사 13년(인도네시아외), 싱가포르 ACTI(타문화권 선교훈련원) 실행원장, OMF 한국 대표, 합신 세계선교회(PMS) 총무, 현 한국미전도종족선교연대(UPMA, 구AAP) 대표, 현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총무

본 발제자는 21세기에 가장 적합한 선교 모델로 한국인 선교사가 한류(한국)문화를 통한 자연스런 선교(Natural Mission)를 제안한다. 모든 선교사들은 교단 또는 선교단체로 파송을 받는다. 모든 문화 선교사는 한국문화전달 및 교류자로 한국문화해외진흥원에서 또 다른 파송을 받는다. 즉 이중 파송 멤버십 선교사가 된다. 따라서 선교회에 모금된 선교비는 한국문화해외진흥원으로 송금되어 전액 현지문화 선교사에게 전달되고, 선교비로서의 명목이 문화사역비라는 새로운 옷을 입게 되어 현지 공안 시스템에 의해서도 의심받지 않게 된다. 현지 선교사가 문화 사역자로서 자연스런 활동을 보장받고 인정받게 된다면, 그 선교사가 가는 곳마다 자연스럽게 선교의 문이 열릴 것이다. 끝으로 한국문화를 부정하거나 깨뜨리는 패러다임이 아니라, 이 시대 한류문화를 통한 자연스런 선교가 성경에서 말하는 문화적 사명과 함께 한 선교적 사명의 과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㉔-8 개신교 선교 기적, 한국을 오늘 선교지에 재현하자

이종형 /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



미국 이민 목회 32년에 3개 교회 개척 조직을 하였으며, 시카고 한미장로교회 은퇴 후 현재 디트로이트 한인 연합 장로교회 임시목사로 시무하고 있는 이종형목사는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원 졸업, 예일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STM), 유니언 신학교 (Th M, Ph D)을 졸업하였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한인해외 선교회 조직 회장, 선교사 파송, 선교지역 방문 및 세미나 인도, 미국 장로교 한인 교회 협의회 선교 협력위원장 역임하였으며 장로회신학대학원 교수, 뉴욕 주립대학교, 뉴욕신학교, 매코믹 신학교 등 다수 신학교 강사를 역임하였다.

1884년에 시작된 개신교 한국 선교는 장로교 감리교 할 것 없이 세계 선교 역사에 소위 기적을 낳았다. 구령운동과 교회 설립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룩하여 선교 30년이 못되어 선교지 최대 신학교에 주중 기도회 세계 최대 집회의 교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런 기적의 비결 가운데 특히 한국 장로교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마포삼열 선교사의 선교활동을 살펴보고 그 선교 기적을 오늘 미전도 종족을 포함한 세계 각 곳 선교 현장에 재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한다.

㉓-9 한국교회 선교이론과 선교전략의 갱신과 정립

조일구 / 호놀룰루한인교회 담임



한신대(한국신학대학) 신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Th.M.)하고, 미국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ST)에서 목회학박사(D.Min.)를, 클레어몬트 대학원(CGU) 종교학과에서 철학박사(Ph.D.)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의 공동부장이며, 미주 교계신문들의 논설위원 및 주요 일간신문 칼럼니스트로, 또한 하와이 국제신학대학원(ICGS) 겸임교수와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올바른 신학적 이론의 정립과 목적의식이 결여된 선교 활동은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들은 물론 선교사들이나 선교단체들조차도 정작 중요한 선교의 이론에 대한 개념적 정리가 부족하다는 안타까움이 있다. 다만 그저 자신들이 파송한 선교사의 수나 재정지원 등의 외형적인 면에만 관심하고 자랑할 따름이다. 근본주의적 입장이든 진보주의적 입장이든 간에, 선교 신학에 대한 냉철한 정립도 없이 "그냥 일단 하고 보자"는 식으로 무작정 뛰어 드는 모습은 단순히 "너도 죽고 나도 죽자"는 물귀신 행위나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일 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더구나 한국인들의 선교 사역활동은 자신들의 신학사상과 신앙만을 근거로 우격다짐 격인 경우가 많다고도 회자된다. 그러나 선교란 자신의 것만으로 피선교인들에게 무엇을 주입하거나 일시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개선하고 올바른 믿음의 세계로 인도해서 현실 생활에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원히 막마르지 않는 삶의 방법"이 있는가를 "나누고 섬기는 일"이다. 선교신학자들의 이론들을 고찰하면서 올바른 선교이론의 정립과 효율적인 선교전략을 함께 모색해 보자

㉓-10 21세기 선교의 상황화된 선교사 훈련

박시경 / Vision Partners 21 대표



Vision Partners 21 대표이며 GMS/USA 실행총무인 박시경 선교사는 경북대학교, 홍신대 신대원을 졸업하였으며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 M(Missiology)와 Grace Theological Seminary (cand.)을 밟고 있다. 대표적인 사역으로는 러시아 모스크바 선교, 헝가리 부다페스트 한인교회 개척 사역하였으며 예장 합동 선교부 (GMS) 선교훈련원장을 역임하였다.

GMTC 훈련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현재의 커리큘럼은 1993년 아시아 복음주의협의회(EFA) 선교위원회에서 합의된 선교사 훈련의 아홉 가지 핵심 영역을 한국적 상황에 맞도록 보완하고 다듬은 것이다.

그 내용은 1) 영적 성숙 2) 인격적 성숙 3) 감정 및 신체적 건강 4) 가정생활(부부 및 싱글) 5) 사회성, 인간관계 기술 6) 성서 및 신학적 이해 7) 타문화 사역기술 8) 선교학 및 타문화 이해 9) 실제적인 기술 분야로 구분된다. 이러한 아홉 가지 핵심 훈련 교과 과정은 크게 인격적인 분야 혹은 기본분야(1-6)와 전문분야(7-9)의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㉓-11 21세기의 새로운 선교 리더십 코칭

박요셉 / 침례교해외선교회

1996년 침례교해외선교회 소속으로 X국으로 파송받아 13년간 캠퍼스 사역을 해온 박요셉 선교사는 현재 WMTC(침례교해외선교회훈련원) 훈련강사와 B.T.(침례교청년 대학생 수련회)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침례교해외선교회 신학대학교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코칭은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람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그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성장시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다.

㉓-12 글로벌시대의 여성선교사 훈련과 보살핌의 시급성

최옥희 / GMS



총회세계선교부 소속이며 본부선교사 교수인 최옥희 선교사는 나약대학, 뉴욕대학원, 트리니티 신학교 와 한국 성서대학 성서과를 졸업하였다. 뉴욕대학 TESOL을 수료하였으며 태국주재 선교사역을 거쳐 1994년부터 GMS본부에서 사역하고 있다.

'선교사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결코 미래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니다. 그것은 21세기에 진입한 현재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급한 명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훈련을 받고 있는 선교사후보생(Missionary Candidates)들은 10년 후에는 세계선교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10년에서 20년이 더 지난 후에는 그들이 가르칠 학생들은 현지교회의 지도자나 선교사들이 될 것이다. 폴 히버트 교수의 말대로 선교사의 한 세대가 13년이라고 가정한다면, 현재 선교교육자들이 어떻게 훈련시키는가에 따라 향후 삼 세대에 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Paul G. Hiebert, 2000). 본 소논문의 목적은 우선, 현재 진행되는 선교사 훈련방법을 점검해 보고 둘째, 여성 선교사후보생들과 관련하여 해결되어야 할 케어시스템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것이며 셋째, 여성 선교사후보생을 돕기 위해 선교사 훈련방식에 대한 실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있다.

㉓-13 아리랑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이다

박형서 / 러시아선교사



알이랑 민족회복운동 러시아대표이며 1992년에 러시아에 선교사로 파송 되어 현재 러시아 모스크바 류베르찌 산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형서 선교사는 러시아 모스크바 선교사회 창립 총무 시작으로 러시아 성결신학교를 창립 하고, 세계한인선교사회 러시아지역 원년회장, 부서기를 지내는 등 활발한 대외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독교 5대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서울 신학 대학교 졸업, 캐나다 토론토 이와트 신학교 수학, 알라바마 베다니 신학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대표적인 사역으로는 <알아랏 산에서 내려온 한반도 배달민족의 이동 경로연구>를 17년 째 고찰해 오고 있으며, 교회개척사역과 러시아 모스크바제15병원 원목으로도 사역하고 있다.

오랫동안 감추었던 비밀을 시대에 따라 개봉하시어 각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긍휼하심에 찬양을 드립니다. 겨레의 노래 '아리랑'을 화두(話頭)로 삼아 성경을 중심으로 한민족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選民)임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소신껏 외치는 유석근 목사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겨레는 선민으로서 노아 홍수심판 이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 '알이랑'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불러온 유일한 민족이며, 앞으로도 인류 최고(最古)의 찬송가 '알이랑'을 세상 끝 날까지 계속 부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의 유례없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친히 세우신 개천국(開天國)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보우하사 만세'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인은 아라랏 산에서부터 수많은 산 고개를 '하나님과 함께'(알이랑) 넘으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끈질기게 살아온 천손민족(天孫民族)입니다. 이는 마지막 주자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㉓-14 한국교회의 개혁과 아프리카의 회복

김형규 / 남아공화국 선교사



개인 사역의 절대화나 후원을 위한 과장된 선교 보고는 선교사에게는 금기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선교사와 후원교회를 사로잡는 것이 옳은 일일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 곳에서 함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오해를 받는 한이 있어도 진지하게 사역을 계속해야 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선교사의 진가가 드러나는 일을 할 때 그 선교는 오래 동안 계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㉓-15 한인선교 위기관리 시스템과 실제

이영철 /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총무



총회본부선교사(통합) 소속 (전) 동북아 지역 선교사역을 감당한 이영철 선교사는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마쳤으며 한국세계선교협의회총무로 활동하고 있다.

1. 반복되는 위기들
 - 1) 무섭다 - 절대 일어나서는 안된다.
 - 2) 저 사람은 어떻게 하다가 저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까? (눅13:1-5), 3) 하나님이 보호해주심에 감사
2. 선교사들에게 위기에 대한 생각들
 - 1) 믿음 2) 소명 3) 선교지에서 뼈를 묻어야 한다 4) 고난의 미덕 5) 현지인들과 함께 해야한다
3. 한국 후원교회의 선교사에 대한 생각들
 - 1) 생각보다 귀한 존재 2) 고생하는 사람이란 개념 3) 안전관리는 어울리지 않을것 같은 생각
4. 성경에 나타난 위기관리
 - 1) 핏박이 있을 경우 (마 10:23) 2) 숨어 나가시다 (요8:59) 3) 발의 티끌을 털고.... 가니라 (행 13:51-52) 4) 형제들이 내 보내어(행 17: 12-15)
5. 위기의 종류들
 - 1) 인질 2) 내란 3) 폭동 4) 우발적 사고 5) 유괴 6) 강-절도 7) 교통사고 8) 물놀이 사고 9) 성폭력 10) 자연재해
6. 위기 관리
 - 1) 위기는 누구나 만날 수 있다 2) 예방과 조심이 중요 3) 위기관리는 훈련을 받아야 알 수 있다
 - 4) 위기상황 전에 전조 현상이 있다 5) 위기를 감지했을 때 대처법 6) 연락망 유지의 중요성

㉓-16 멕시코 한인 디아스포라 100년사를 통한 선교전략

정흥주 / 멕시코 선교사



대한예수교장로교구미상모교회(김승동목사) 100주년 기념 파송선교사이며 총회세계선교회 파송 멕시코 선교 지부장을 맡고 있는 정흥주 선교사는 경북대학교, 총신신대원, 미국 칼빈신학교 교회사 Th.M 졸업하였다. 영국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대학교 교회사 박사과정 수료하고 필리핀 장로회 신학교 교회사 교수역임(1998-2003)하기도 하였다.

1900년대 멕시코를 묵국 혹은 묵서가라 불리었으며 멕시코 시티를 묵경이라 세계에 소개되었다, 또, 멕시코는 20세기 초 이데올로기 투쟁을 겪으면서 노동운동과 함께 경제 격변기를 통과하게 되었으며 멕시코 특히, 유카탄지역의 에네켄 농장에서 대형선박의 밧줄을 만드는데 재료로 쓰이는 선인장을 생산하게 되었다. 멕시코 선인장농장의 주인들은 세계의 로프시장의 많은 수요로 인해 수작업으로 그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 선인장의 껍질을 제공하게 되었다. 그 노동인구의 수요에 따라 해외에서 오는 이민인구를 투입하려는 의도로 조선민족에게 일본을 앞세워 이민광고를 하게 된다. 영국인과 일본인의 이민사기의 결과물이었다. 멕시코 이민운동은 하와이 이민운동과 함께 시작되는데 실제로는 하와이의 그것과는 실제로 많은 차이가 있다. 한인 디아스포라역사가운데 가장 뼈아프고 쓰라린 역사가 시작되었다. 멕시코 한인 디아스포라 역사를 통해 21세기 선교전략과 한국에게 주신 축복된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하나님의 경영적 시각에서 세계 경영이라는 차원에서 조명해보고 한인 디아스포라운동이 새로운 선교적 전략과 바울 선교적 모델로 제시하고자 한다.

4. 교회와 선교

4-1 보내는 교회의 교회구조

이동휘 / 전주안디옥교회 원로



1983년 미군 창고구조물로 전주안디옥교회(일명 광동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위해 불편하게 살자"라며 일평생 선교와 구제를 위해 온 몸을 다 바친 충성된 종은 교회재정의 70% 이상을 세계선교에 사용하며 그 흔한 자가용 하나 없이 검소와 절제의 삶을 살아왔다. 또한 단독교회의 틀을 벗어나 초교파적 선교단체인 『바울선교회』를 만들어 현재 80여개국 320여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세계선교의 큰 획을 긋기도 했다. 23년 사역후 원로목사로 추대된 이목사의 자녀 4명도 선교사로 바쳤다. 현재 『바울선교회』를 총괄 지휘하며 선교집회 등을 통해 지역교회 선교활성화에 주력한다.

- 1.교회는 선교의 묘판(苗板) : 1) 선교를 시작한곳...수리아 안디옥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시작 2) 선교사 배출지...안디옥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사도가 배출돼 출발 3) 선교후원자...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보
- 장함
2. 선교의 삼각관계 : 1) 선교사(Missionary)...타문화 혹은 초문화권에서 복음사역 2) 선교회(Mission society)...선교전략을 세우고 총체적관리 3) 모교회(Mother church)...선교사와 선교회 후원자로 어머니 역할
 3. 동원사역으로서 교회역할 : 1) 선교 헌신 자 예비교육(안디옥교회 경우) 2) 의료선교...의술인들의 정규 혹은 비정규로방문 현지인 진료통해 복음을 극대화 3) 스포츠 및 문화선교...태권도시범, 예술공연, 한국문화소개등으로 복음접근을 도움 4) 땅 밟기기도...단기선교팀을 통해 그리스도의 왕국선포와중보기도. 사탄의진지 무력화 5) 교회가 선교지에 교회개척(국내외) 6) 사업을 통한선교 7) 외국노동자 및 유학생을 위한 선교

4-2 보내는 교회의 재정정책

이동휘 / 전주안디옥교회 원로

- 1.재정의 70%를 선교비로 2.교회자체를 위한 30% 운영의 묘미 3.교회 내 모든 기관은 자립 하므로
- 4.크리스마스에 선물과 상을 없애고 5.교회재정과 교회성장과의 관계 6.선교하는 교회 성도의 자부심

4-3 목회와 선교

한기홍 / 남가주 은혜한인교회 담임



전세계 48개국에 209명의 선교사를 파송, 백만여명의 원주민 교인을 품은 8천여개의 현지교회를 개척해낸 막강한 G.M.I.선교운동은 종이 섬기는 은혜한인교회를 모체로 하며 이는 초창기부터 세계선교를 최우선 목회과제로 정하고 교회 재정의 50%를 선교에 투자한 아름다운 열매이다. 그는 정치가의 꿈을 안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으나 주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고 성직의 길에 생애를 던졌다. Alliance Seminary (M.Div.), CA Union 신학대학원(D.Min.)을 수학, 남가주오렌지카운티교협 회장, KIMNET 회장,미주OM 부이사장, G.M.I. 선교대학 이사장 등을 역임한다.

4-4 선교 Vision을 이루는 전략

한기홍 / 남가주 은혜한인교회 담임

④-5 교회성장을 위한 쉬프트

이춘목 / GMS 이사장



GMS 이사장인 이춘목 목사는 예장 합동,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나와 1973년 1월 1일 재송제일교회 개척 후 36년 시무 중이며 부산신학교 학장을 역임하고 있다.

④-6 어떻게 선교하는 교회로 전환할 것인가

김혜택 / 뉴욕총신교회 담임



뉴욕총신교회 담임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선교협의회 회장인 김혜택목사는 Providence Theological Seminary 졸업하였으며 헤밀턴 한인장로교회 (12년 담임)와 캐나다 동노회 노회장 (미주한인장로교회)을 역임하였다.

1.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교회(The church)의 4가지 요소
2. 하나님의 선교 (Missio Dei)
3. 선교적 교회관의 회복
4. 교회의 총체적 동원
5. 전략적 협력 선교

6. 단기선교의 효과적 활용
7. 지역교회의 선교 훈련 및 발전
8. 단기선교의 장단점
9. 선교하는 교회가 누리는 축복

④-7 교회의 선교주체성

신흥식 / 태국 선교사



예장(합동)목사로 30여년을 사역해온 원로 선교사인 신흥식 선교사는 WMP태국주재 선교사, 현 태국 세계선교 진흥원장, WMP기구대표다.

④-8 교회의 본질과 선교

육호기 / 독일 선교사



디아스포라 선교회 대표이며 총회 세계선교회 파송 육호기 독일 선교사는 총신신대원을 졸업했다. 미 칼빈성서 신대원 선교학 교수로도 섬기고 있다.

오늘의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고 교회에 대한 큰 오해를 가짐으로, 중심적인 일과 주변적인 일, 본질적이요, 근본적인 일과 파생적인 일을 혼돈하고 있는 데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교회가 무엇인지 분명해질 때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해 질 것이다. 따라서 교회로 교회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을 찾게 되는 지름길이다.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던 일을 계속하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임무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일을 내가 뒤를 따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교회를 고용해서 계속 이루신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교훈과 본을 따라서 교회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가 살아계셔서 교회와 또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사역자들을 고용(Employee) 하셔서 당신의 일을 계속하신다는 것이다.

칼 브래트(Carl E. Braaten) 박사는 선교와 교회를 분리 시켜서는 안되며, 선교 없는 교회나 교회 없는 선교, 둘다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선교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며 인간 공동체뿐이며, 선교 없는 신학도 최신 유행하는 학문에 불과 한 것이다.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선교하는 것이며, 교회는 선교를 최우선해야 한다.

④-9 이민교회의 내일과 팀사역의 적용

이승중 / 샌디에고 예수마음교회 담임, 어깨동무사역원장



이민교회를 한국교회의 연장이 아닌 선교적 시각으로 볼 때 5천년 민족사에 세계선교의 여울목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분복이라 믿는 그는 사역보다 먼저 사람이라는 고백을 품고 이민교회 차세대 인물양성을 위한 사역기구인 『어깨동무사역원』을 설립, 내일의 씨앗을 심어가고 있다. 장신대, 리버티대학, 샌추얼침례신학교(M.Div), 샌프란시스코신학교(D.Min)를 수료하였고 몽골국 제대학교 대표이사, NorthField Foundation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1세, 1.5세, 2세의 동반사역을 통한 이민모델교회상 정립에 힘쓰고 있다. 저서는 『목양심서』, 『선비가독인』 등이 있다.

팀사역은 기능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의식의 문제이다. 한국교회는 지도력개발과 차세대지도자 양성에 관심을 쏟아야 하며 멘토링의 사역개발이 필요하다. 성경적 교회는 한마디로 팀사역의 일꾼들로 시작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격적 동반자의 관계였다. 현대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각기 헌신과 사역의 동참자들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단 분열의 문제, 교역자와 평신도, 원로와 후임자 간에 발생하는 개체교회내의 문제, 시기와 다름, 불평과 파당 등 성도간의 갈등문제 등 한국교회와 관계성 회복에 대해 나누고자 한다.

④-10 이민교회와 선교

강성철 / 브라질 선교사

1. 교회와 선교와의 관계
2. 교회없는 선교
3. 선교없는 교회
4. 그 역동성과 갱신을 계인

④-11 이민교회와 선교 : 과테말라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김상돈 / 과테말라 한인교회 담임

④-12 미주 이민 교회와 중남미 선교

도육환 / 미주두란노해외선교회 본부장



서울 온누리교회와 두란노해외선교회(TIM)를 섬긴 후 스리랑카 선교사로 파송되어 7년을 섬겼다. 안식년으로 미국에 건너와 교회의 부름을 따라 Los Angeles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였고, 2006년 미주에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설립하여 중남미와 북한을 위한 Missionary & Pastor로 사역하고 있다.

들어가는 말: 세계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디아스포라

1. 중남미 선교 현황과 선교과제 - 가) 선교지로서의 중남미 이해 나) 중남미 현지 교회의 필요와 도전
2. 판 아메리카 이민교회의 현주소와 선교적 위치 - 가) 북미주 한인교회의 현황과 선교 역량 나) 중남미 한인교회 선교적 가치와 도전

3. 온누리교회와 두란노해외선교회(TIM)의 선교 모델 - 가) 비전교회 및 협력교회들의 선교동원 (평신도선교훈련학교 'Why Missions', 선교동원 가훈련 'MAP'(Mobilizing All People)). 나) 매트릭스 선교 (문서사역과 제자훈련: 두란노 멕시코, 두란노 라티노, 두란노 브라질 / 위성신학교 및 방송선교: CGN TV / 가정회복사역: 아버지학교 및 어머니학교, 부부학교) 다) 미주두란노해외선교회(TIM) (선교사 후원 및 지원 사역, 중남미 선교동원과 협력 네트워크, 제자훈련 세미나 및 청소년 Passion 캠프, 북한선교의 요청과 미주교회의 역할)

④-13 생명력있는 교회만들기 10단계

송영일 / 휴스턴한인장로교회 담임



휴스턴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인 송영일목사는 생명력있는 교회만들기 10단계를 외치며 교회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역을 하고 있으며 보스턴대학교 신학대학 졸업, 콜럼비아 신학대학원 신학석사 졸업, 콜럼비아 신학대학원 목회학박사 졸업, 브라이언우드장로교회 한국목회 담당목사 역임, 버밍햄신학교 한국목회학박사과정 담당교수등을 역임하였다.

REMEMBER 기억하라

1. Connect to the Past 과거와 연계하라 REPENT 회개하라
2. Call to Repentance 회개를 촉구하라 RECOVER 회복하라
3. Gospel-Driven and Christ-Centered 복음중심,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회와 신앙

4. Spiritual Formation The Discipline of Grace 영적 형성- 은혜의 훈련을 통하여
5. The Ministry of Prayer 기도의 시역의 중요성과 실천
6. The Ministry of the Word 말씀의 사역 중심적인 목회
7. Mission, Vision, and Values 교회의 사명, 비전, 그리고 가치를 정하라
8. Leadership Development and Deployment 교회지도자의 리더십 개발과 활용
9. Small Groups 교회성장과 소그룹의 중요성과 전략
10. Great Commission Discipleship 지상대명령을 수행하는 제자도

④-14 이민교회의 재정관리: 이레도 좋은가? 홍순백 / KWMC평신도선교운동본부 장현식 / 신우세계선교회 부회장

미시간 제일사랑침례교회의 홍순백 장로는 Michigan주 Wayne State Univ.를 나와 예산국 근무, 한국산업은행, 회계경영논문 및 시사논문 다수를 썼으며 저서 (미국 세금보고 33년사 연구)가 있다. Project BEGAN 이사인 장현식 장로는 신우세계선교회 부회장이며 디트로이트 한인 장로교회 장로로 시무하고 있으며 KWMC 2008 공동 부대회장이다.

1. 미국의 세금제도와 교회재정관리
2. 교회재정과 선교헌금의 관리?
3. IRS에서 이민교회를 감사한다면?

④-15 건강한 평신도와 사역자 관계

주용성 / 한미장로교회 담임



주용성 목사는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고 호놀룰루 하와이의 한인기독교교회와 Grace Community Church에서 2세교회를 담임하였고 현재는 시카고의 한미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사역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건강치 못하여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다. 그 이유는 많겠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 많은 교회에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른 관계에 대하여 배우지 못했거나, 그것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평신도들과 사역자들이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사역자들도 목회의 열정을 되찾을 수 있고, 평신도들도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④-16 지역교회와 선교정책 - 해외선교를 통한 교회부흥

최비율 / 전문인국제협력단(InterCP)



IVF 활동, 소아시아 선교사, 소아시아 갈라디아 교회 개척, 영국 ICHTHUS Network Intensive Program 수료, 아세아연합신학교(ACTS) 강사, 고려대, 서울대 강사, 호서대, 한동대 교수, 전문인선교협의회(KAT) 회장 역임, 미전도종족입양운동본부(AAP) 실행위원,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실행위원, 인터콥(INTERCP) 대표

선교는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구호, 의료, 교육, 지역 및 사회개발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교회의 궁극적 목적이 될 수 없다. 문화명령(창1:26-28)과 선교명령(마28:18-20)은 병행 사역이 아니라 종속개념이 되어야 한다. 문화명령 이후 총체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선교명령의 적용 없이는 절망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교회개척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다. 교회가 교회를 낳는 것이다. 그래서 선교는 교회에게 주어진 지상명령이다. 12사도에 의해 세워진 예루살렘교회는 선교사 한 명 파송하지 않고 붕괴되고 말았다. 그러나 안디옥교회는 설립되자마자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서 위대한 신약교회 시대가 시작되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모든 족속의 언어와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하셨다. 오순절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교회의 선교는 성령께서 시작하신 것이다. 선교는 교회를 통한 성령의 사역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 수세기 동안 위대한 선교사들은 분명히 증거하였다: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망한다!"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한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지역교회들이 해외선교를 헌신으로만 생각하지 부흥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힘들게 선교재정을 집행하면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조차 있다. 그것은 <전략적 선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역교회선교에는 순수한 열정과 헌신도 필요하지만 고도의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선교를 통한 지역교회 부흥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 교회 부흥을 위해 지역교회는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④-17 교회와 선교사와 선교단체가 함께 연합하는 선교시스템

강하수 / 두달개선교회 총무



두달개선교회 총무이며 풍성한교회 선교부 목사인 강하수 목사는 카작스탄에서 오엠선교회 선교사로 사역하였고 후에 오엠선교회 부산지부 훈련부와 대구지부 총무를 담당하였다.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석사)를 나와 영남신학대학교에서 신학석사를 받았다.

두달개양육시스템은 부산 풍성한교회를 NCD에서 실시한 교회 건강지수 107점이라는 경이로운 점수를 만들어 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양육시스템이다. 현재 두달개양육시스템을 적용한 교회들이 4500교회가 넘는 정도로 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선교현장에서 현지인들을 탁월한 재생산 사역자로 세우며 교회의 담임목회자와 같은 비전으로 달려가며, 같은 열매를 맺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헌신된 전문인 선교사들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탁월한 시스템이다.

5. 타종교/타문화선교

㉔-1 오늘날 중국의 우선순위 - 도시선교

토마스 왕 / 백투에루살렘운동 총재



Thomas Wang: Great Commission Center, 중국 북경 3대 기독교 가정에서 출생, 11세때 전도자 존성을 통해 회심, 왕명도목사에게 양육받고 대만장로교신학교와 미조리 선취렬신학교를 수료하고 윌리엄캐리대학에서 문학박사, 고든컨웰신학교에서 신학박사를 수여하였다. 1961년 중국기독교교회를 1976년 중국세계선교협의회를 창설, 사무총장 역임, 1987년 로잔세계선교운동 국제총무로 선임되어 1989년 제2차 마닐라 로잔세계선교대회를 총괄하였다. 1989년 기독교21세기운동을 창설하여 미전도종족복음화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1989년 창립한 대서명신학교/선교센터를 통해 타문화권과 중국어권 선교를 위해 선교사역자를 훈련하며 수많은 선교대회 주강사로 활약하는 세계적 선교지도자다. 본 대회의 명예대회장으로 한어권 대회에서는 주제강연을, 영어권 대회에서는 성경강해를 통해 강력한 말씀을 선포할 것이다.

[Priority Ministry in China Today - Urban Mission]

- (1) City population annual increase: 18 Million People 도시인구 매년 1천8백만명씩 증가.
- (2) Estimated number of Christians in China: 7-9% of total population. 중국의 기독교인 예측수치 : 총인구의 7-9%
- (3) 50% of China's population will be living in the cities by 2015. 2015년에는 중국인구의 50%가 도시에 거주.
- (4) Intellectuals are overwhelmingly in the cities, 도시내에 지식층이 넘쳐남.
- (5) City churches will be the main force for global (cross-cultural) mission, 도시의 교회들이 타문화권 선교의 주력을 담당.
- (6) Urgent need for today is more workers well-equipped in both Biblical knowledge and spirituality. 성경지식과 영성을 겸비한 잘 훈련된 일꾼들이 다수 필요

㉔-2 타문화권 교회개척(Cross-Cultural Church Planting) 박기호 /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원장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원장이자 아시아 선교학부 교수인 박기호 목사는 충신대학교,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ACTS),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을 나왔으며 아시아 선교 연구소 소장, 아시아 선교학회 회장으로 있다.

[건강하고 재생산하는 토착교회 설립을 위하여]

교회개척은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 16:18)라고 말씀하시므로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를 친히 세우겠다고 말씀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에 세운 교회들은 건강하고 역동적이며 재생산하는 교회들이었다 (살전 1:4-10).

그러나 요즘 선교사들에 의하여 세워지는 교회들은 일반적으로 약하고 의존적이며 재생산 하지 못하는 교회들로 남고 있다. 이것은 선교사들의 교회개척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외국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현지인들을 채용하여 그들에게 봉급을 주며, 땅을 사주고, 건물을 지어주며 현지인 교인들과 사역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현지인들의 자발적인 사역과 책임 있는 봉사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선교사들은 사도들이 세운 교회들처럼 건강하고, 역동적이며, 재생산하는 교회들을 세우기 위하여 처음부터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훈련하여 현지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들의 교회들을 운영하고, 필요들을 채우며, 자민족을 복음화 하기 위하여 일하도록 토착교회들을 설립하여야 한다. 타문화권 교회개척 (혹은 토착교회 개척) 강의는 타문화권에서 교회개척 사역에 종사하는 선교사들에게 타문화권 교회개척 (토착교회 개척)의 원리와 실제들을 알게 하는 강의이다.

㉔-3 북한 고구마와 통일조국의 전망

김영철 / 해외한민족복음화대회 본부장



26년간 일본 조총련 선교와 북한선교에 힘써온 김영철 목사는 해외한민족복음화대회 본부장으로, 통일기원 평화복음화대회 총 추진위원장, 21C 세계복음화대행진 진행본부장으로 사역하면서 가디나 한인교회 원로목사로 있다.

1. 북의 체제와 북한교회 현황 (종교를 없애버린 지구상 유일한 나라) - 1) 북의 체제 - 수령, 당의 10대원칙, 주체사상 2) 북한교회현황 - 공산기구인 조그런(조선그리스도교도련맹) 산하의 두 교회와 가정교회, 하나의 신학원이 있으며 아직 선교는 허용이 안되므로 구제사역으로 대치해야 한다. 이 구제사역은 민간에게 직접 전달이 안된다.

2. 북한선교를 위한 구체적 대안과 전략 - 북한 제대로 알기 교육진행과 훈련원 양성이 시급하며 풍선으로 북에 라디오, 전도지, 성경보내는 일을 지원하고 남북간 년차통일기원대성회와 북한교회재건운동 추진을 본격화한다.

3. 지구촌 마지막 추수작업에 돌진 통일은 눈앞에 다가온 현실임을 직시하고 마지막 추수작업의 주역이 되자. 우리의 가나안 땅은 통일조국임을 자각(네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대로 - 겔 37:15-22)하고 남북화해와 통일을 위한 미스바 대성회를 개최해야 한다.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했듯이 평양과 서울 대광장에서 통일기원대각성성회와 민족대화합을 위한 통회자복이 먼저 있어야 하겠다(삼상 7:5-17)

㉔-4 북한선교의 여러가지 방편들

한덕수 / 두만강기술전문학교 교장

조선족 청소년들을 위한 두만강 직업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TRADI,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Initiatives 설립자 및 회장인 한덕수 교장은 California State Polytechnic University, University of California,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을 졸업하였으며 전문 사회복지사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인들을 고용하여 간장을 제조, 한국에 수출 하는 사역과 연변과기대 (Yanb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교수로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영어등을 교수하기도 하였다.

㉔-5 중국의 조선족 학교사역

박양성 / 두만강기술전문학교 교감

㉔-6 공산권 (중국, 북한) 선교 공동체

최화목 / GMS 본부총무

총회세계선교회(GMS) 본부총무인 최병국 목사는 중국선교사로 10년간 사역하였고 인천화목교회에서 10년째 시무하고 있다.

혼자 하는 일은 세계제일의 능력 있는 민족인데, 같이 하는 일은 세계 꼴찌라는 말을 들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건디며 베고 뜯은 것 참고 성공하는 데는 세계제일의 민족인데, 남이 잘 되는 것을 배 아파하며 참지 못하는 것도 세계제일의 민족이라는 말을 들었다. 세계선교 제2의 나라 대한민국을 세계 제1의 선교나라로 만들어 세계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방법은 같이,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선교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세례요한의 고백과 삶을 실천하여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받은 것 같이 작은 나라 반쪽의 우리나라가 칭찬을 받도록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책임을 느낀다. 이제 선배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영육의 축복을 물려받은 나라가 되었다. 영적으로 세계 선교 제 2의 대한민국을 세계선교 제1의 나라를 만들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천대까지 복을 받는 민족의 길은 선교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 최우선 선교사역은 북한 선교와 복음통일을 이루는 일이다. 천하만민의 축복의 축복이 되는 한 민족이 한 공동체가 되며, 한국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교단이 선교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한다.

6-7 북한선교정책

김진환 / 산호세한인침례교회



산호세한인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진환 목사는 알라바마 주립대학교 컴퓨터사이언스 석사학위를 받고 <북한선교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논문으로 남침례 신학교 목회학 석사, 선교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 크리스찬저널컬럼니스트이기도 하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속에서 어쩌면 우리 민족의 땅끝이라 볼수 있는 북녘땅,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성의 북음화야말로 우리 세대의 가장 큰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한 열정과 물질도 중요하지 만 이에 못지않게 효과적인 선교정책 또한 매우 중요함을 저는 경험으로 통감합니다. 또한 탈북자들은 선교학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들을 위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가 왔음을 다시한번 새벽을 깨우는 마음으로 통찰해야 할 것입니다.

6-8 디아스포라를 통한 중국선교

최이사 / 중국 선교사

최이사는 1992년 8월에 예장통합선교부에서 파송 받아, 바울선교회MTI훈련을 필리핀에서 마치고, 93년도에 북경으로 들어가, 북경학원로교회와 북경왕징한인교회를 개척하였으며, 지금은 북경왕징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다.

하나님은 중국을 사랑하신다. 중국은 무한한 잠재력의 나라이다. 중국이 앞으로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때 세계는 한국교회와 같이 중국교회가 세계를 선교하는 교회로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현재 미국은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제1의 세계선교 국가이다. 그리고 한국이 그다음이다. 한국이 두 번째로 세계선교 국가가 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다. 중국도 앞으로 세계선교 대국이 될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 중국은 교회부흥을 경험하고 있고, 국가경제도 성장하고 있다. 중국성도들은 고난을 아는 분들이다. 그들이 선교하러 가야할 나라들은 모두 중국에 친화적인 나라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 디아스포라 화교들을 먼저 보내어 도울 일꾼들을 예비하여 놓고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중국교회를 도울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6-9 중국선교의 이해와 전방개척선교

이필립 / 중국대학선교회

이필립 선교사는 중국대학선교회 대표이며 중국의 전방개척선교에 힘쓰고 있다.

역사와 지리적으로 한국과 밀접한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해외 한인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에 엄청난 선교의 기회와 역량을 키울 기회를 제공하였고, 그에 따라 한국교회의 중국선교는 이미 숫자면에서나 사역 형태에서도 발전과 다양성을 이루고 왔고 또한 많은 열매들을 맺어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교회는 중국과 중국선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또한 우리시대에 예수님 재림을 기대하며 전 세계적으로 전방개척선교의 중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그에 따른 전략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한국교회의 중국선교에 있어서 전방개척선교는 많이 미흡한 상황이다. 여기에는 중국을 하나의 선교 국가로 이해하는데 따른 면도 없지 않다. 유럽의 넓이와 비슷한 중국 땅을 하나의 국가 단위 선교대상으로 본다면 이해나 전략적인 면에서 소홀해지거나 간과되는 지역이 많아 질뿐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지역별 종족별 불균형의 선교사역으로 되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국은 실제로 전역이 기독교 박해지역에 해당되고 지역에 따라서는 복음주의자비율이 거의 0~1%에 이르는 지역이 아주 넓고 수많은 미전도종족들이 있는 국가인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지역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본 '지역개념의 선교와 종족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본 '종족개념의 선교'에 관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다. 이번 강좌는 이러한 중국적 상황들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전방개척선교(Frontier Mission)"를 중국선교적 입장에서 보다 넓게 적용하자는 데 있다. 그리고 중국 북음화 상황을 분석 평가한 자료들과 데이터들을 통해 지금의 중국의 상황을 이해하고 중국 전방개척선교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바탕으로 중국선교의 방향성과 연합 등을 통한 새로운 선교전략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6-10 중국변경지역의 교회당 건축 의미와 축복

최민 / 중국동포크리스찬연합회 회장



미주 장로교 중국 동포로서 목사 안수 1호인이며 중국 길림성 연변에서 출생하고 중국에서 연변대학 졸업한 최민목사는 중국에서 다년간 특파 기자로 활동하였다. 미주 LA 월드미션 신학교 대학원 석사 졸업하고 북방 선교 사역으로 13차 출국하고 KPCA 장로회대학원 박사졸업하였다. 워싱턴 제1차 국제인권대회 서부지역 대표, 중국 동북부와 남부로 3차 선교 사역, 현재 중국 동포 크리스찬연합회 회장, '동북아 뉴스' 사이트신문 대표, '크리스천뉴스워크' 편집국장/남가주크리스찬기자협회 회장, 중국 '흑룡강신문' 미주 LA지사장, 세계한인선교협의회 부의장 겸 강사. 지은 책으로는 <두만강변의 십자가>, <믿는 자의 고백> <변화하는 중국대륙...> 외 다수가 있다.

변화하는 중국대륙(변경소수민족지역)에 우리는 최근 3년간에 30여개의 교회당을 건축하였다. 이미 완공되어 현지인들에게 사용에 교부된 것만도 20개소에 달한다. 이런 교회당은 모두 벽돌 기와 구조로서 300명-500명 좌석을 가진, 지역에서 으뜸가는 건물들이다. 이로 하여 앞으로 중국대륙의 북음화를 추진하고 중국과 소수민족 미전도 종족의 북음화를 추진하며 더 나아가 중국변경을 넘어 동남아세아 각국으로 북음을 확장하는데 전초기지로서의 발판을 마련하는 면에서 자못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용의 나라 무신론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이와 같은 이변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좀처럼 실현 될 수 없는 기적 들이다. 이것도 미국 LA 소재한 자그마한 보통 선교단체에서(GMCC선교회, 대표 현병훈 장로)성령의 훈풍을 타고 헌신과 희생으로 이루어 낸 땅끝 선교의 한 열매이다. 어떻게 이처럼 짧은 3년간에 대량 교회당 건축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산에가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을 받들고 기도와 순종으로 따랐을 뿐이다.

6-11 중국선교의 과제와 한국교회의 역할

김학관 / 중국기독교사 연구소 소장

중국 기독교 연구소 소장이며 전 PMS 이사인 김학관 박사는 연세대학교, 중국 중앙민족대학교 박사과정을 거쳤으며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활동하다. 저서로는 중국교회사, 중국선교의 전망, 중국어 성경사건 등 10여권이 있다.

21세기 급변하는 현대중국과 중국교회의 현상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로부터 출발하여, 오늘날 중국교회가 당면한 과제들을 분석하고, 향후 중국선교의 방향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또한 지난 1992년 한중수교이후 15년 동안 중국선교의 사명을 수행해 온 한국교회가 이제는 보다 성숙한 안목으로 중국선교에 총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중국과 세계선교의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효과적으로 세계 북음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6-12 북방선교와 민족선교

이에스더 / 중국 선교사

6-13 미전도 공산권 지역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고주몽 / 전략지역 선교사

2000년부터 공산권에서 학원사역과 지도자 재교육, 재파송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⑥-14 무슬림 지역에서의 교회개척 전략

이준교 / 이집트 선교사



1979년부터 이집트에서 사역해온 이준교 선교사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홍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을 나와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애급 복음주의신학교 교회성장학 교수로 17년째 사역하며 카이로 오순절 신학교 및 신앙신학교 초빙교수, 중동지역 한인선교사협의회 고문을 역임하고 있다. 저서로 「나의 백성 애급이여」 등이 있다.

1. 기도운동 전략(Prayer Movement Strategy)

1) 새벽기도 운동 2) 철야기도/심야기도 운동 3) 연속기도(Continual Prayer) 4) 금식기도 5) 기도운동 전략의 실제

2. 가정교회 운동전략 (House Church Movement Strategy)

1) 신약성경에 나타난 가정교회 (마리아의 가정(행12:12), 루디아의 가정(행16:14-15), 가이오의 가정(롬16:23), 아굴라의 가정(고전16:19)) 2) 가정교회의 기능 3) 가정교회 운동의 실제 4) 가정교회 운동 전략 5) 사역자 선발/훈련/지원

3. 토착화 교회 운동전략(Indigenous Church Movement Strategy)

1) 토착화 교회의 정의 2) 사도바울의 선교전략 3) 존 네비우스의 3자 원리 4) 자립교회로 성장 시키는 비결

4. 제자화 운동전략(Discipleship Movement Strategy)

1) 제자개념의 성경적 정의 2) 제자화 운동의 목적 3) 교회성장과 제자화 운동 4) 제자화 운동전략

⑥-15 모슬렘 선교의 과거 모델과 앞으로의 모슬렘 선교

김덕래 / 순복음뉴욕교회 선교담당 선교사



1986년 서울 사랑의 교회 / 안양 일심 교회파송으로 OM과 WEC선교 단체와 함께 파키스탄에서 사역을 하다 9.11 사태로 인하여 사역의 대 전환기를 맞아 LA에서 WEC 지부를 섬기다가 지금은 순복음 뉴욕 교회에서 선교 담당 선교사로 또 이슬람 퍼스펙티브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가족으로 초 미성 선교사와 두 딸 예인, 세진이 있다.

모슬렘이 누구인지 알 때 진정한 이슬람선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9.11 사태 이후, 전쟁, 자살폭탄, 테러, 거리시위, 폭동, TV나 신문에서 보고 듣는 모슬렘들에 대한 소식들은 늘 어떤 모양으로나 위협적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이슬람 또 이슬람교를 따르는 모슬렘들은 우리에게 두려운, 위협적인, 어쩌면 피하고도 싶은 미스터리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부름받은

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듣지 못한 14억의 모슬렘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이 과업에 대해 절대 부족함을 인정한다. 또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는 이슬람과 모슬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오해들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슬렘 각 영혼을, 그들의 믿음을, 그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지난 10여 년간의 파키스탄에서의 사역과 9.11 사태를 맞아 전쟁의 위협속에서 싱가포르 탈출할 때까지의 상황속에서 모슬렘은 늘 위협적인 존재였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더욱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없었던 우리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4억의 모슬렘, 미국에만도 6백만, 그 중 삼분의 일은 이슬람으로 개종한 미국인이라는 사실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모슬렘들은 누구인가, 과연 그들은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의 답은 먼저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을 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⑥-16 최근 이슬람 선교 동향

유해석 / FIM선교회

1961년 생 서울출생으로 홍신대학교 종교교육과와 보수총회신학교를 졸업하였으며, 대한예수교(합동) 파송선교사와 OM (Operation Mobilization) 선교회 소속선교사로 이슬람권에서 사역하였다. 한국어린이교육신학교에서 선교학 강사를 하였으며 CTS기독교TV에서 강의하였다. 지금은 유럽 코스테(KOSTE) 선교분과장과 FIM (Fellowship for Internation Mission) 국제선교회 대표로서 영국 웨일즈에서 사역하고 있다. 저서로는 이슬람권으로 들어가는 사역자들과 기독교인들의 이슬람 이해를 위해 자신의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이슬람이 다가오고 있다> (2003년, 쿤란출판사) 와 영국 웨일즈출신으로 한국최초의 기독교순교자인 토마스선교사를 파송했던 하노버 Hanover 교회의 설교자로 오가면서 자료를 수집하여 <토마스목사전> (2006년, 생명의말씀사) 을 펴냈다.

이슬람이 다가왔습니다. 이미 9.11 테러 이전에 이슬람은 왕성하게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느끼지 못했을 따름입니다. 이슬람지하드는 현대분명과 기독교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2080년까지 전 세계를 이슬람화 한다는 목표로 치밀하고 무섭게 세계를 공략해 가고 있다. 과거 중동이 비잔틴 영향 아래에 있었으나 지금은 이슬람이 되었다. "유럽은 50년 안에 유라비아(유럽+아라비아)가 될 것"이라고 헤브론 대학의 이스마일 리교수는 쓴 "제3의 이슬람유럽침략"이라는 책에서 갈파하고 있다. 유럽에 이슬람이 증가하는 이유는 첫째, 다산으로 인한 증가 - 무슬림여인은 평균 6명의 아이를 낳는다. 둘째, 이슬람국가에서의 과다한 이민 - 급년의 전 세계의 난민은 6700만 명인데 대부분 이슬람권에서의 분쟁으로 난민이 된 사람들이다. 이들이 보트 피플로 유럽에 상륙하고 있다. 셋째, 유럽인들의 탈교회화와 새로운 신앙의 추구 - 유럽교회는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 넷째, 무슬림들의 이슬람에 대한 열성과 실천적 신앙은 유럽인들에게 새로운 종교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⑥-17 하나님의 선교와 현장선교사-이슬람의 억압적 상황에서의 복음전파 정여호수아/카자흐스탄선교사



중앙아시아 침례교 전략조정과 (SC)와 중앙아시아의 미전도 무슬림종족을 위해 사역중인 정여호수아 카자흐스탄 선교사는 1991년 침례교회외선교회 소속으로 중앙아 카자흐스탄으로 파송되었다. 대표적인 사역은 카자흐스탄의 남부에서 다민족 공동체 개척, 침례교회외선교회 중앙아시아 지회장과 침례교 중앙아시아 행정 디렉터를 역임하고,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방교회 개척과 중앙아시아 침례교 신학교를 창립하였다. 가족으로는 장사라선교사와 성민과 경민이 있다.

선교의 주체는 지역교회나 선교단체나 선교사도 아니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다만 이 세가지의 중요한 선교의 요소들은 선교를 주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쓰임을 받을 뿐이다. 이 세가지 요소 중에서 특히 선교사가 선교현장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 세미나의 핵심 주제이다.

나는 이 주제로 내가 사역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K국에서 선교적 접근이 가장 제한되어 있는 민족으로 알려진 무슬림 민족인 D민족의 경우에 제한하여 다룸으로써 다른 무슬림 민족들속에서의 적용점들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대부분의 무슬림 미전도 종족들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으로 억압적인 상황들이 존재한다. 선교사는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임무를 띠고 그들 공동체를 가운데로 들어간 자들이다. 억압적인 상황속에서 선교사는 위축되지 말아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몇 단계로 나누어진 진리들을 간단히 소개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은 무슬림 미전도 종족들 속에서는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임무가 있기에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며 연구해야 한다. 그러나 전략은 보냄을 받은 자가 의지할 만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분을 의지해야 한다. 미전도 무슬림 종족들 속에서 주님보다 전략을 의지하는 한 선교사는 곧 메말라버릴 가능성이 크다. 선교사가 억압적인 현장에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소명의 확신과 파송받은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현장사역자는 어떻게 할까? 선교사역을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일까?

⑥-18 이슬람교와 기독교 선교전략

윤사무엘 / 감람산교회 담임



윤사무엘 목사는 연세대 및 동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장로회신학대학원에서 교역학 석사 과정을 이수하고, 미국 Dubuque신학교 하버드신학부, 보스턴대신학부, 코헨신학대, 페이스신학대에서 성서학과 고고학을 전공한 윤사무엘 목사는 현재 뉴저지 감람산 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Geneva College와 Yeshua University 및 남미(볼리비아, 콜롬비아, 브라질, 파라과이, 멕시코, 베네수엘라), 아시아 지역(몽골, 일본, 중국, 태국) 선교지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

본 강의의 목적은 이슬람교를 바르게 이해하여 이슬람 지역에 기독교 선교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데 있다. 이슬람교(Islam)는 유대교처럼 아랍인들에게 삶의 전체이며 생활방식이다. 종교와 생활이 분리되지 않는다. 이슬람의 가장 강력한 힘은 알라를 따르는 무슬림(Muslim)들이 자발적으로 알라의 뜻에 순종하는데 있다. 알라에 대한 이해는 기독교의 하나님의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비슷하지만 무슬림들이 이해하는 알라는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주종관계로 오직 절대적인 복종만 필요한 대상으로 믿는다. 무슬림은 사막의 검은 원유는 이 세계를 이슬람화 시키기 위한 알라신이 허락한 도구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이를 수단으로 이미 미국과 유럽지역에서 엄청난 속도로 무슬림화 하고 있다. 1976년 세계에서 최초로 열린 이슬람교 축제가 200만 달러를 들여 영국에서 개최, 여왕이 개회선언을 했고 지난 15년 동안 6000개 이상 영국 성공회교회가 문을 닫고 이 중 3500개 이상이 무슬림 사원이 되었다. 영국 무슬림 인구가 2천만을 넘어서고 있다. 1970년대에 미국 내에서 이슬람 세력이 400% 성장하였다. 대개 흑인들이지만 많은 미국인들이 위선적인 백인 기독교 사회의 부산물로 여겨지는 세속의 가치관과 이념들을 떨쳐 버리려고 이슬람교로 개종하고 있다. 이제 21세기는 기독교와 이슬람의 새로운 대결이 불가피한 때를 맞이하여 기독교인들은 이슬람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⑥-19 Sharing your faith with a Muslim

로버트 놀드스트롬 / OMF international



Robert Nordstrom : OMF International: Reaching East Asia's Peoples since 1865

It's a daunting task: Islam is the second largest religion in the world and its adherents are often strongly opposed to the Christian message. How do we get our message across? The speaker will share lessons learned from his 6 years experience in pioneer evangelism with Muslims in Asia. Through this session, you should

- Learn some of the barriers that keep Muslims from understanding the gospel
- Learn pitfalls to avoid
- Gain several positive approaches to sharing the gospel with Muslims.

⑥-20 아랍어 찬양사역

이바나바 / 아랍권 선교사

현재 아랍 기독교인들을 위한 찬양 문서 사역, 아랍권 사역자들을 위한 문서 사역 (아랍어 학습 교재 등), 아랍 찬양 홈페이지 운영(www.tarani-marabia.org), 아랍 찬양 음반 제작 및 음악 교육, 이집트 폐음지역 교회 순회 등의 사역을 하고 있는 이바나바 선교사는 오엠 선교회 이집트 단기 선교사로 사역하였고 고신 총회 파송 이집트 선교사로 2000년에서 현재까지 사역해 오고 있다. 이집트 한인선교사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고신대, 고려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였다. 공저로 <이집트 구어체 아랍어 회화 사전>, <이집트 구어체 아랍어 사전>, <실용 기독교 아랍어 핸드북>, <Study Arabic through Bible Stories>, <아랍권 선교사들을 위한 아랍어 학습서>가 있으며 아랍 현지 기독교인들을 위한 아랍어 찬양집 <Make your Revival>, 아랍권 선교사들을 위한 아랍어 찬양집인 <Revival>이 있으며 아랍어 찬양음반인 <Revive Your People>도 나와있다.

1. 필자의 아랍 찬양 관련 사역 소개 2. 선교지에서의 문화 사역에 대해 3. 아랍 찬양에 대해(아랍 찬양 특징, 아랍 찬양 현황 등)

⑥-21 소망의 땅 아프리카

이희성 / FIM선교회

교회지도자 교육, 신학교수, 제자훈련, 목회자 신학 신학훈련 및 교회 개척, 2005년 8월 안식년 후 현재 캄팔라 근교의 ANTC 신학교에 거주. 2002년 6월부터 우간다 동부의 '음발레(Mbale)'에서 교회 지도자 교육 및 목회자 신학 연장 교육을 진행. 17.5에이커의 땅을 현재 우간다 동부지역의 선교 센터로 만들기 위해 교회 건물 건축 진행 중. 앞으로 우간다 동부뿐 아니라 케냐의 키타레(Kitale) 지역까지 커버하는 신학, 목회자 교육의 센터로 발전 되도록 계획, 진행하고 있다. 초교파 우간다 선교사 사역 모임인 The Harvest Mission Africa의 대표로서 현재 르완다(Rewanda), 콩고(Congo), 부룬디(Brundi) 지역의 53개 교단 연합 단체인 Salt and Light와 파트너쉽을 맺고 르완다의 키갈리(Kigali), 르헨게리(Rhengeri), 지역의 목회자 신학 교육을 진행 중에 있음. 우간다 국내 사역도 캄팔라의 콩고 교회 지도자 훈련, 음발레 및 그밖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 목회자 및 교회 지도자 훈련 과정들이 진행될 것임. 앞으로 목회자 신학 교육을 콩고 동부, 부룬디, 탄자니아 북부, 수단 남부, 케냐 서부 까지 확장시켜 진행 할 예정으로 기도 중에 있다.

아프리카는 흔히 세계인들에게 '검은 대륙' 혹은 '죽음의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서구인들에게 미지에 쌓인 아프리카를 나타내는 표현에서부터 근세와 현재에 이르는 기간 동안 아프리카의 질병과 가난 그리고 아프리카를 낮추어 보는 모든 시각에서 발생한 표현들입니다. 현재도 아프리카를 표현하는 모든 수식어를 통해 보면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표현들 보다는 부정적이고 어두운 모습들이 대부분임을 알수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세계인의 뇌리에 인식되어 있는 것처럼 아프리카는 죽음의 땅이요 검은 대륙이요 질병과 가난의 땅이라고 단정 할 수 있을까요? 아프리카의 식민지적 역사의 어두운 그늘과 현재 아프리카인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과 피해 의식을 종합하면 일부 그러한 표현들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체 아프리카를 나타내는 것에는 충분치 않습니다. 선교사의 시각으로 현재 아프리카 대륙(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의 대부분의 나라 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약점들(질병, 기근, 가난, 부족 갈등, 부패 등)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는 소망의 땅이 분명합니다.

⑥-22 보츠와나 선교의 개괄

김해영 / 보츠와나 선교사



평신도 기능인 선교사로 그루터기 선교회에 의해 보츠와나에 파송 되어 14년간 사역한 김해영 선교사는 보츠와나의 Good Hope 지역에서 사회개발과 직업훈련 사업을 진행하였다. 안식년을 맞아 미국의 나약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졸업하였다. Community Development를 대학원에서 공부한 후 학업을 마치는 대로 보츠와나로 돌아가 지속적인 교육과 개발 사역을 통한 선교를 하고자 한다.

1. 보츠와나의 일반적 이해
2. 보츠와나에서 진행되는 한인 선교사에 의한 선교 사역들
3. 러산 페르난도(Rukshan Fernando)의 지역 공동체 개발과 선교사역의 모델과 보츠와나 사역의 비교
4. 성경에서 찾은 평신도 선교 사역의 예

⑤-23 실크로드 선교전략

조용성 / 터키 선교사



중앙아시아 침례교 전략조정가(SC)와 중앙아시아의 미전도 무슬림종족을 위해 사역중인 정여호수아 카자흐스탄 선교사는 1991년 침례교해외선교회 소속으로 중앙아 카자흐스탄으로 파송되었다. 대표적인 사역은 카자흐스탄의 남부에서 다민족 공동체 개척, 침례교해외선교회 중앙아시아 지회장과 침례교 중앙아시아 행정디렉터를 역임하고,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방교회 개척과 중앙아시아 침례교 신학교를 창립하였다. 가족으로는 장사라선교사와 성민과 경민이 있다.

과거 10여 년간 2천 년대를 눈앞에 두고 선교에 대한 많은 예측들이 쏟아져 나왔다. 한 예는 스티브 혹(Stephen Hoke) 예측이다. 스티브 혹(Stephen Hoke) 예측들이 다 적중하지는 않으나 21세기 선교를 논함에 있어서 변화하는(Transformations) 선교를 이해하는 유익하다. 스티브 혹(Stephen Hoke)의 예측을 분야별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상황(contextualization)화에 관한 추세

- (1) 급속도로 진전될 도시화 현상 (2) 종교다원주의의 가속화 추세 (3) 서구선교가 2/3세계선교로 구심점 전환
- (4) 미국선교사들의 역할 변화 (5) 선교학의 변화 (6) 선교 전략의 변화

- 1. 치우침이 없는 걸음으로 사역하라 2. 선교의 기초로 돌아가라 3. 연합하라
- 4. 다름(in the right)과 틀림(in the wrong)의 차이를 알라 5. 프로젝트 선교를 지양하라 6. 선교 재정정책이 바로 서라
- 7. 선교, 신용평가(信用評價, Credit)제도를 도입하라 8. 언어를 다시 시작하라 9. 싱크탱크 연구소 설치하라
- 10. 끝까지 잘 달려라 11. 인생은 아침보다 석양이 아름답다.

⑤-24 서북서남실크로드(sinox-road)

김부식 / 감람산교회 담임



윤사무엘 목사는 연세대 및 동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장로회신학대학원에서 교역학 석사 과정을 이수하고, 미국 Dubuque신학교 하버드신학부, 보스턴대신학부, 코헨신학대, 페이스신학대에서 성서학과 고고학을 전공한 윤사무엘 목사는 현재 뉴저지 감람산 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Geneva College와 Yeshua University 및 남미(볼리비아, 콜롬비아, 브라질, 파라과이, 멕시코, 베네수엘라), 아시아 지역(몽골, 일본, 중국, 태국) 선교지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

본 강의의 목적은 이슬람교를 바르게 이해하여 이슬람 지역에 기독교 선교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데 있다. 이슬람교(Islam)는 유대교처럼 아랍인들에게 삶의 전체이며 생활방식이다. 종교와 생활이 분리되지 않는다. 이슬람의 가장 강력한 힘은 알라를 따르는 무슬림(Muslim)들이 자발적으로 알라의 뜻에 순종하는데 있다. 알라에 대한 이해는 기독교의 하나님의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비슷하지만 무슬림들이 이해하는 알라는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주종관계로 오직 절대적인 복종만 필요한 대상으로 믿는다. 무슬림은 사막의 검은 원유는 이 세계를 이슬람화 시키기 위한 알라신이 허락한 도구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이를 수단으로 이미 미국과 유럽지역에서 엄청난 속도로 무슬림화 하고 있다. 1976년 세계에서 최초로 열린 이슬람교 축제가 200만 달러를 들여 영국에서 개최, 여왕이 개회선언을 했고 지난 15년 동안 6000개 이상 영국 성공회교회가 문을 닫고 이 중 3500개 이상이 무슬림 사원이 되었다. 영국 무슬림 인구가 2천만을 넘어서고 있다. 1970년대에 미국 내에서 이슬람 세력이 400% 성장하였다. 대개 흑인들이지만 많은 미국인들이 위선적인 백인 기독교 사회의 부산물로 여겨지는 세속의 가치관과 이념들을 떨쳐 버리려고 이슬람교로 개종하고 있다. 이제 21세기는 기독교와 이슬람의 새로운 대결이 불가피한 때를 맞이하여 기독교인들은 이슬람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⑤-25 일본선교현황과 과제

백종윤 / 일본복음선교회(JEM) 대표

재단법인 호산나 설립자이며 한기총 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며 길갈교회 담임인 백종윤 목사는 서울신학대학교, 장로회총신대학원, 미국 Fuller 신학대학원 목회학박사, 연세대 교육대학원 (상담교육),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AMP), 경희대 NGO 대학원(지도자 과정)을 거쳤다. 네팔왕국 선교사로 11년을 사역하였으며 국제 기아대책기구 이사, 서울신학대학교 겸임교수 일본복음선교회(JEM) 대표로 활약하다.

일본에는 2007년 11월 현재 7,832개 교회가 있다. 등록신자의 수가 568,832명으로 전 인구 127,053,471명의 0.44%, 주일 예배 출석수가 281,211명으로 전 인구의 0.22%, 한 교회당 평균 73명(예배출석신자는 36명), 784개 도시 가운데 23개의 시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고 그나마 한 교회 밖에 없는 시가 80개나 된다. 인구 2만 명 이상 사는 지역 가운데 50곳에는 교회가 없다. 정촌부(町村部) 1,043곳 가운데 616곳에는 교회가 없다. 1교회가 전도해야 할 대상은 16,222명이다. 최근 5년간의 경향으로서 교회전도소는 전국적으로 증가 경향에 있지만, 교회 원수, 예배자수는 제자리걸음이며, 건물만이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관동지방에서는, 교회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도수 증가는 미소하다. 또, 문을 닫거나 쉬는 교회도 적지 않아 거기에서도 일본에서의 선교의 짐의 무게가 엿보인다.

⑤-26 일본선교진단과 그 두가지 처방

이철우 / 일본 선교사



현재 안식년중 미국 시카고에 체재중이며, 위튼대학원에서 M.A.전도학/리더쉽 과정을 수강하고 있으며 그 외 비유설교학, 교회성장학, 미국문화, 미국교회등을 연구하고 있는 이철우 일본 선교사는 대구 영남대학교, 총신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동경신학교 기독교 공립연구소에서 선교학을 수료 하였다. 대구지구 대학생선교회 총수장, 코스모스 노방전도단 단장을 지냈고, 서울 건양교회, 해림교회, 부산 초량 교회등에 재직하였다. 1986년에 합동교단 GMS 선교사로 일본 동경에 파송되어 월 1회의 일본 전국 순회 전도를 시작하였고 일본교회를 훈련하고 일본목사들에게 비유설교학 및 전도학등 강의를 다. 순회전도사역을 통해 많은 것을 체험하였으며 동경 평화교회 일본인 개척교회 목회(일본어예배)를 1987부터 2005년까지 재직하였다.

일본기독교의 개신교 인구가 왜 수십년 동안 0.5%의 정체상태에 묶여서 전진을 옹기 못하고 있는가? 세계에서 선교가 제일 어려운 나라가 일본이라고 다들 말한다. 본인은 일본선교사역의 지나간 20년중 십여년 이상의 오랜 기간 중 조그만 일본인교회를 개척목회하며, 자신을 포함하여, 일본 기독교와 일본교회의 영적상태를 제대로 진단을 못하며, 긴 터널의 고통속에서 많은 세월을 시행착오하며 헤메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지나간 20년간의 응결된 선교의 경험을 통해 일본선교와 일본기독교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 대해 크게 3가지를 발견하고 깨달은 것이 있다. 일본전국에는 개신교의 교회가 약 8,000개 있으며, 동경에는 약 800개 있고, 한 교회의 평균 장년 출석신자수는 약 25명이라고 한다. 문제의 첫째는, 강단설교사역(설교학)에 문제를 발견했고, 둘째는, 복음(:기쁜 소식/ 십자가의 도/ 예수)이해에 대한 부족이 있고, 셋째는, 전도의 방법(전략)에 문제점을 발견하며, 깨달았다. 첫째문제의 처방은 예수의 비유설교로 부터 설교의 원형(Prototype)을 찾고, 둘째의 처방은 십자가의 도(기쁜소식)에 대한 정확하며, 필수적이며, 충만한 이해를 성경으로 부터 찾고, 셋째의 처방은 예수의 전도의 방법에서 조망하고자 한다.

㉔-27 일본 복음화의 중요한 선교전략지인 영국

황순자 / 영국 선교사



황순자 선교사는 총회세계선교회 소속 선교사로 1997년부터 영국주재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영국 런던 북쪽 지역에서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상명대학교, 상명대학위 대학원, 중앙총신 목회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기독교 방송문화센터 일본어 강사를 역임하였다. 영국선교단체인 JCL (Japan Christian Link) 에 소속되어 활약하고 있으며, 한인 런던 선교대회에서 선택특강강사로 섬겼고, 또한 한인런던 선교대회 운영위원으로도 섬기고 있다.

일본인 선교는 아직도 일본인 전체 인구 중 2퍼센트미만이 기독교인인 불모지로 중요한 선교지이다. 하나님은 이들을 변화시키어 하나님나라를 넓혀가시기 위하여 일본인들을 전세계로 흩으시었고 흩어진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자기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고 계신다. 일본선교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나에게 영국으로 가서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이 명령에 순종하였고 역선교에 대해 이해하지못해서 왜 일본이 아닌 영국에서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가 많은 반대도 있었지만 저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시고 함께 기도와 후원을 해주시는 교회의 협력이 오늘 10년이 지난 지금 이곳에서의 일본인 사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일본사회의 지식인층의 사람들로서 의사, 교사그리고 은행원과 주재원들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이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일본인 사회에서 주는 영향은 대단히 큼니다. 지난 10여년간의 사역가운데 2명의 일본인 자매가 제가 속한 JCL선교단체의 선교사로 헌신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또 의사로 복음을 받아 변화된 사이토는 일본에서 병원장으로 그의 삶속에 동료의사들에게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영국에서 복음을 받아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본과 독일, 미국, 벨기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고 있는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일본인 사역을 위한 많은 이들이 도전을 받아 선교에 헌신하기를 기도하며 저의 사역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㉔-28 힌두교와 선교의 장애들 그리고 인도선교의 전망

조은호 / 인도 선교사



총회세계선교회소속 조은호 인도 선교사는 영남대학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인도의 인도 국립네로대학교 에서 언어학과 아시아학을 전공으로 졸업하였다. 현재, 인도국립네루대학교(Ph.D.Candidate, 남 아시아학전공, 논문작성 중에 있다. 대표적 사역으로는 4개 교회개척(셀 그룹 16개 처소), 학교사역(유치원-5학년), 직업 훈련 학교 사역(미용기술), 클리닉사역, 컴퓨터 교육훈련원 등을 하고 있다.

인도는 남아시아 7개국 중의 중주국(big brother) 이다. 인도의 영토 크기는 남한의 32배이며, 영토 크기 상으로 세계 7대 국가이다.인도의 인구는 약 11억이며 2010년이 되면 중국의 인구를 능가하게 된다고 한다. 인도의 national language(국가어)는 힌디어이다. 순수하게 힌디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3억 7천만이며 힌디어를 학습을 통해 습득해서 적어도 힌디어를 구사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인도 전체인구의(11억) 80%에 이른다. 그러므로 인도에서는 lingua phonic language(상용어, 의사소통 매개)혹은 official language(공식언어)인 영어와 힌디어(national language)를 구사할 수 있다면 어디서나 의사소통이 거의 가능하다. 전체인구의 2.24%가 복음화 된 상황이다.(로마 카톨릭 및 안식교(화이트 여사 측 제외) 복인도는 1%미만의 복음화 율을 가지고 있다.(단 복음적기독교인은 0.1% 가량 됨) Ralph Winter(Director of U. S center for world mission)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Unreached People Groups 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인 10/40창 국가 중 가장 인구밀도가 높고 복음화 율이 낮은 지역이 복인도 지역이라고 한다, 이것은 복인도 선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인도는 종교 시장이다. 힌두교, 불교(태동지), 이슬람교, 시크교, 자이나교(무 살생, 비폭력(아 힌사)기독교 등이 공존하고 있다.

㉔-29 Mission in India and Challenges to the Missionaries 데바푸트라 브히마파 / Professor



Devaputra Bheemappa, Professor-Department of Christian Ministry, Mission and ministry in India is such a diverse involvement. Therefore, no one single book, no one single article, or no one single write up on the above topic can exhaust all the implication that are involved.

Mission and ministry in India mainly was the vision and the missiological perspective of the western missionary mind. The K.W.M.C. of 2008, is called upon to examine and evaluate the ministry and the own hearts in the areas where we have failed to carry out an effective Christian Ministry in the 21ST century. Today, whoever wants to be a missionary in India, one needs to understand the Indian context properly in its political, cultural, social, economical and religious background. India being the pluralistic country, such as the multi dimensional, multi lingual, multi ethnic, multi cultural, multi ideological diversities. Therefore, it is the need of the hour for all men and women who are called and commissioned by our Lord Jesus Christ must and should realize that, the church is the result of God's mission to the World. One should also bear in mind that, we are called by our Lord Jesus Christ to be colleagues and co-workers in carrying out the great commission as instruments. We as the missionaries of the present world must acknowledge the fact that, the Church is the agent of this mission as she proclaims and expounds this gospel of Jesus Christ and penetrates into World on partnership with God's mission to the World. The Church, as missionary people of God, connects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to mission and mission to gospel

㉔-30 Vision Vietnam

정원 / 베트남 선교사



총회세계선교회

㉔-31 필리핀 문화와 문화의 근간인 가족

최용희 / 필리핀 선교사



중앙아시아 침례교 전략조정가 (SC)와 중앙아시아의 미전도 무슬림종족을 위해 사역중인 정여호수아 카자흐스탄 선교사는 1991년 침례교해외선교회 소속으로 중앙아 카자흐스탄으로 파송되었다. 대표적인 사역은 카자흐스탄의 남부에서 다민족 공동체 개척, 침례교해외선교회 중앙아시아 지회장과 침례교 중앙아시아 행정디렉터를 역임하고,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방교회 개척과 중앙아시아 침례교 신학교를 창립하였다. 가족으로는 장사라선교사와 성민과 경민이 있다.

선교지역 중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우면서도 열매를 맺기 어려운(많은 해외 선교 단체들이 두 손을 들고 철수한)지역이라고 말하는 필리핀군도. 이 선교지에 접촉하여 선교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그들의 삶의 모습과 기본적인 문화에 대해서 숙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다음은 이들 필리핀인들의 모습이다.

1. 필리핀 문화와 문화의 근원인 가족 - a. 필리핀 문화의 특징(Understanding Filipino Culture)
 - (1) 필리핀 문화는 혼합문화이다, (2) 필리핀 문화의 두드러진 일곱 가지의 요소들, (3) 필리핀 사람들의 특징,
 - b. 필리핀인들의 전통적인 혈족(kinship)관계와 가족 구조(family organization) - (1) 필리핀 가족(Filipino Family),
 - c. 필리핀인들의 사랑, 성, 결혼 - (1) 사랑과 성문화, (2) 필리핀인들의 결혼식(Kasal) d. 죽음과 장례(dead and funeral)

㉔-32 남방불교권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최재영 / 스리랑카 선교사



1991.9.1 GMS 파송 스리랑카 선교사

㉔-33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 속에서의 서남아시아 선교 이성상 / 아시안미선교연구원(스리랑카)



현재 아시아 미선교회 연구소 치앙마이 센터 원장이며 1990년 12월 기독교 대한 감리회 스리랑카로 선교사 파송을 받은 이성상 스리랑카 선교사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선교대학원, 선교학 박사(D. Miss) 과정을 거쳤고, 기독교 대한 감리회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서남아시아 감리교 선교사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14억의 인구를 가진 서남아시아는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안에서 세계 4대 종교들이 왕성한 각축전을 벌이며 성장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받은 일이 없는 진리"로 선교하는 우리 기독교 선교사들은 복된 소식을 전하여 사람들을 구원해야 한다. 그리고 성도들을 진정한 거듭남의 체험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사역해야 한다. 나아가 구원 얻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체험을 형제애로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던 초대교회처럼, 서남아시아의 교회도 형제애를 가지고 체험을 나누어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 사회 속에서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혼합주의를 극복하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타종교로부터의 핍박을 이겨 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종족 분쟁으로 인한 증오심과 불안 그리고 경제적으로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살아가는 서남아시아인들에게 역동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강력한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하겠다.

㉔-34 중앙아시아 다민족교회 개척사역과 비즈니스선교의 중요성 I 김경일 / 카자흐스탄



총회세계선교회 소속으로 1992년에 중앙아시아로 파송된 김경일 선교사는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캘리포니아 유니온 대학 박사원 과정을 마쳤다. 현재 카자흐스탄 크리스천 센터 대표이며 세계한인세계선교사회 부회장, 중앙아시아 지역 회장을 맡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세계의 변방이 아니라 <실크로드> 시대와 같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그리고 종교의 이해관계가 얽힌 21세기 세계문제의 중심 루트가 되고 있다.

1. 실크로드 중앙아시아의 중요성 - 중앙아시아 지역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 첫째가 이슬람교의 동진을 막는 의미가 있고, 둘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왕성한 복음의 완결로서 서진(예루살렘을 비롯한 땅 끝으로 확산)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위치, 즉 복음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중심 지역으로서 참으로 큰 의미가 있다.
2. 다민족 교회 개척 사역의 중요성 - 중앙아시아 각국은 대부분 대외적으로는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표방하고 있으나 대내적으로는 자국민의 개종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며 모든 수단 방법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자국민 단속과 교묘한 종교법을 적용하고 있다.
3. 전방개척선교로서 비즈니스 사역의 중요성 - 1)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NGO 사역의 사양화, 2) 비즈니스 선교를 통한 중앙아시아 선교 사역의 필요성, 3) 전방 개척선교 영역으로의 비즈니스 선교하나님을 믿는 경제인과 사업가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스스로 정직한 상거래의 본이 되고 성경적인 원리들을 가르쳐 선교 현지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때 진정 전방개척 선교를 위한 총체적 비즈니스 선교의 풍성한 열매가 될 것이다.

㉔-35 신마게도니아 '영광' (성시화, 성국화운동)프로젝트

김경일 / 카자흐스탄 선교사



총회세계선교회 소속으로 1992년에 중앙아시아로 파송된 김경일 선교사는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캘리포니아 유니온 대학 박사원 과정을 마쳤다. 현재 카자흐스탄 크리스천 센터 대표이며 세계한인세계선교사회 부회장, 중앙아시아 지역 회장을 맡고 있다.

성시화, 성국화 운동이라 정의 할 수 있다. 피터와그너(C. Peter Wagner) 교수의 말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역할만이 아닌 하나님의 군대로서 아담이 사단에게 빼앗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다시 취하기 위하여 영적 전투를 해야 한다.' 척 피어스(Chuck Pierce)와 존 디슨(John Dickson)은 '찬양하는 전사들'에서 이 개념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보좌를 향해 올라가야 하지만,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좌로부터 내려 와야 한다"라고 했다. 즉 마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 한 도시와 한 도시가 신 마게도니아 영광 프로젝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임재를 선교 현지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는 운동이다. 신 마게도니아 영광 프로젝트에 있어 중요한 축은 크게 세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심의 첫째는 선교사가 개척한 교회의 역할과 인력 공급의 역할로서 문화센터 사역, 그리고 실천적 장으로서 크리스천 기업 설립을 말 할 수 있다.

㉔-36 야생화 기르기 (짚시선교)

김수길 / 그리스 선교사



총회세계선교회(GMS)에서 파송한 김수길선교사는 1997년부터 그리스 데살로니카에서 짚시족 선교를 담당하고 있으며,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목회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선교사로 나가기 전인 1984년부터 1997년까지 두량 삼오교회, 부산 푸른들교회 등을 개척 설립하고 담임하기도 하였다. 아내 조숙희 선교사는 대구 출생으로 영남 대학 국어 국문과 졸업하고 자녀들로는 주은, 주경, 주현, 그리고, 주신이 있다.

1. 그들은 누구인가? 2. 그들은 어디서 왔는가? 3. 어떻게 이해하고 사역해야 하는가?
4. 짚시종족의 미래적 전망 5. 결론.

㉔-37 러시아 개신교 선교세력의 발전과정과 그 전망

안순철 / 러시아 선교사

왕성교회에서 파송된 총회세계선교회(GMS) 소속인 안순철 선교사는 송실대, 총신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평양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으며 1992년부터 러시아에서 선교사역을 펼치고 있다.

- 1) 러시아선교에 대한 개요
 - 러시아 정교회: 러시아인의 정체성의 근거 · 공산주의: 혁명 그리고 무신론적 세계관
 - 맘모니즘: 혁명적 변화속의 새로운 러시아와 러시아인
- 2) 러시아선교의 발전과정
 - 개신교와의 만남 · 페레스트로이카 전후의 러시아 개신교의 상황 · 외부 선교세력의 러시아선교에의 참여
- 3) 러시아개신교와 선교의 방향
 - 파트너쉽 · 네트워크 · 개신교적 사역의 개발 · 러시아인 디아스포라

㉞-38 21세기 러시아 선교

전호중 / 러시아 선교사



기독교 한국 침례회 해외 선교부에서 1996년 파송된 전호중 러시아 선교사는 모스크바에서 현재까지 사역하고 있으며 러시아 KOSTA 지역대표, CIS 한인선교사회 상임총무, 그리고 KWMMF 러시아지역 부회장을 맡고 있다.

21세기가 시작되기 10년 전 1991년 공산권의 붕괴된 사건은 전 세계가 깜짝 놀라게 된 사건이다. 하나님은 21세기를 여는 서곡으로 공산권은 개혁의 기치아래 개방을 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21세기를 계획하신 일들 가운데 하나는 공산권에 복음의 꽃을 피우 시기를 원하신 것이다. 구소련은 와해되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CIS 국가들은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다. 러시아는 140여종족의 1억5천만의 사람들이 1,708만km²의 넓은 지역에 펼쳐살고 있다. 실제로 동서의 길이는 9,200km로서 11시간의 시간차를 갖고 있는 거대한 영토의 국가이다. 그러나 이 넓은 곳에서 흩어져 사는 러시아의 미개척지가 너무나 많다. 아직도 선교사가 발을 디디지 못한 지역이 대부분이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요청에 바울사도는 아시아 복음전도에서 유럽으로 발길을 돌렸다면 21세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 러시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러시아에를 향한 복음의 발길을 돌려야 할 때인 것이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

㉞-39 러시아 선교의 현황과 전망 및 전략

장영호 / 러시아 선교사



러시아 선교사

1. 러시아 개관 - A. 지형 및 역사, B. 정치 및 경제, C. 문화 및 언어, D. 사회 및 종교
2. 러시아의 영적 상황 - A. 무신론 시기, B. 영적 공황 시기, C. 황금만능주의 시기
3. 러시아 선교의 현황 및 분석 - A. 선교사 현황, B. 주요 사역 현황, C. 사역의 장애 요소, D. 사역의 평가
4. 러시아 선교의 전략 및 전망 - A. 교회 개척 전략, B. 사역자 양성 전략, C. 파트너 사역 전략, D. 4P

㉞-40 개신교선교에 도전하는 카톨릭 세계관

윤춘식 / 아르헨티나 선교사



아르헨티나 원주민을 위해 18년 사역하면서 교회개척과 신학교육사역을 해온 윤춘식 선교사는 고신대 및 신대원(M.Div.), 부산대학교 대학원(Ed.M.),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Th.M/Ph.D.), Fuller Theological Seminary(D.Min.)을 나왔으며 라틴크리스천타임스 발행인, ACTS 라틴아메리카 선교연구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선교지역학 교수이다.

가톨릭교는 성경 외적인 요인과 결과를 갖고서 인간 구원에 관한 수많은 묘사와 언어유희를 일삼아 왔다. 그 종교적이고도 지성적인 체계 진술이 곧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이다. 아무리 현대적인 공론과 술어로써 현대인들에게 감동을 주며 접근해 간다 해도 그 본래의 세계관엔 변함이 없다. 바티칸은 선교 전략으로써 <새 복음화>와 <오순절 성령쇄신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해 바티칸은 "개신교는 한낱 신앙의 공동체일 뿐 진정한 교회가 아니다"라고 선언하여 교계의 물의를 빚은바 크다. 어찌하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㉞-41 라스 까사스를 통해 조명하는 남미선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의 선교전략 최남용 / 달라스뉴송교회



텍사스주 달라스 뉴송교회의 선교목사로 시무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미션 달라스 주관의 달라스 지역 MP(Mission Perspective) 선교훈련 강사로 섬기고 있는 최남용목사는 New College of Florida;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사우스웨스턴 신학대학원, 사우스웨스턴 신학대학원 등에서 수학하였으며 수년간 미 남침례교단 국제선교부 파송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각종 신학교에서 교수로서 활동하였으며 현재 과테말라 침례신학교(Seminario Bautista Nacional de Guatemala)의 교환교수로도 사역하고 있다.

16세기 신대륙 아메리카의 노예제도 폐지와 원주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삶을 바친 선교사, 라스 까사스. 개신교 선교의 대헌장으로 알려진 윌리엄 케리의 "Inquiry" 보다 250년이나 먼저 세계최초의 선교책자 "The Only Way"를 저술한 라스 까사스, 50년이 넘는 그의 긴 사역 뒤에는 초대교회의 교부들인 아타나시우스, 존 크리소스톰, 어거스틴의 성경관에 깊게 영향을 받은 영성이 자리잡고 있었고, 말씀에 근거한 선교관이 뿌리내려 있었다. 아울러 그의 선교에는 말씀선포와 사회정의의 균형이 있었고, '인디오'들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존중해 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Imago Dei가 녹아져 있었다. 본 세미나는 "라틴 아메리카의 사도" 라스 까사스를 통해 중남미선교의 어제와 오늘을 돌아보고 조명코자 한다. 카톨릭 선교는 어떤 동기와 형태로 시작되어 발전하였으며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또 그들이 당면했던 선교의 이슈와 오늘날의 그것과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본다. 나아가 교부들의 깊은 영성에 근거한 라스 까사스의 선교론을 통해 바른 복음선포와 선교전략들은 무엇인지 제시코자 한다. 그가 강조한 이상적인 선교사의 5가지 특성들은 초대교회와 로마시대를 지나, 16세기 신대륙을 넘어, 21세기 모든 선교지와 모든 선교사에게도 적용되는 강력한 성경적 지침임을 깨닫게 한다. 아울러 그의 인간론은 미주 한인교회들이 이웃 히스패닉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자세로 선교를 해야할지 바른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다.

㉞-42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을 때

김동승 / 북미원주민선교연합회 대표



캐나다 오순절 교단 소속이며 사랑의 군병들 국제본부와 원주민선교연합회의 대표인 김동승 선교사는 경희대 법대, 서울장신(예장통합)을 거쳐 Canada Christian College, Ontario Theological Seminary (Tyndale), 그리고 National Native Bible College에서 수학하였다. 1982년부터 토론토 한인 침례교회, 토론토 벨렐 장로교회, 킹스톤 한인장로교회에서 시무하였으며 1997년에 토론토 벨렐 교회를 통해 북미주 원주민 선교사로 파송 되었으며 대표적인 선교사역은 원주민 선교연합회(FNMF) 창립, 사랑의 군병들 창설 등 원주민선교를 위한 다양한 전략적 기독교운동을 제창하고 실행하고 있다. 기독교 이민 100주년 선교대회와 제5차 한인세계선교대회에서 북미원주민선교보고를 하였다.

북미주 원주민 선교는 아주 오래 된 선교지 이면서도 아주 생소(?)한 선교지이다. 유럽인들은 아메리카라는 신(?) 대륙을 발견(?) 하고서는, 그 무진장한 보물들과 끝이 없이 펼쳐진 드넓은 평원과 산맥들을 접하고는 그들 내면에 잠재한 그 크기와 깊이를 억제할 수 없는 탐욕의 제단 앞에 그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내어 맡겨 버렸다. 그들의 500년 세월은 흘러흘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북미 원주민 선교(제 4세계 선교 또는 오전도 종족 선교)는 제3세계 선교보다 더 철저한 장기적인 전략과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다. 선교사도 철저히 준비되고, 훈련되고 교육 된 선교사, 교회도 진정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내할 영적 준비가 되어야 하고, 선교지 사정과 상황을 철저히 이해하고, 직접 파악하여 철저한 전략을 가지고 꾸준히 인내하며 내 사정, 내 교회 입장을 포기하고 사랑으로 끝까지 그들을 섬기는 것이 요구된다. 교회 사정 때문에 하다가 중단하면 아니 함만도 못하다.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 버린다. 북미 원주민들을 장악하고 있는 악령의 세력은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북미 원주민 가운데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으려면 철저한 선교훈련으로 무장하고, 강력하게 연합된 선교 팀들을 확보하며, 함께 원주민 신학교를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6. 선교사/선교현신자

㉔-1 바른 선교사를 만들기 위한 선교사 훈련에 관한 연구

조동진 / 조동진선교학연구소 소장



한국교회 세계선교운동의 위대한 선도자이다. 1963년 『국제선교신학원』(ISM)을 설립, 1973년 『동서선교연구개발원』(EWC)으로 확장, 동년에 『아시아선교협의회』(AMA)창립을 주도, 1974년 제1회로잔대회 강사로 선교구조쇄신을 역설, 1980년 『바울의집』을 세워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였고 1989년 이래 20회 이상 북한을 방문, 김일성 주석과 세차레 단독 회담 후 김일성종합대학과 평양신학교의 교수로 위촉되고 빌리 그래함과 지미 카터의 평양방문을 주선하였다. 80세가 된 2004년 후학동문들의 후원으로 『조동진선교학연구소』를 설립하고 『세계선교박물관』 설립을 추진중이다.

효과적인 선교활동은 올바른 선교사를 만듦으로써만 가능하다. 선교는 세계를 위한 것이며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자원(resources)을 동원하여 세계에 필요한 선교의 수요(needs)와 가용자원(availability)에 관한 정보(information)의 분석(analysis)과 연구(research)를 통하여 선교의 자원(resources)과 필요(needs)가 만나게 하고 선교사의 훈련(training)을 통하여 새로운 선교세력(new forces of mission)을 형성(projection)하는 모든 활동이다.

이 강의에서는 이러한 선교의 개념을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하여 바른 선교사를 만들기 위한

- ①선교사 훈련에 관한 성서적 원리와
- ②선교훈련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먼저 설명하고,
- ③선교훈련의 범위와 ④한국 교회의 선교사 훈련의 현황을 점검하고
- ⑤효과적인 선교훈련을 위한 시안(試案)을 제시하려 한다.

㉔-2 선교사역 28년(1980~2008)이 하는 말!

정운진 / 아르헨티나 선교사



1980년 총회/GMS에서 인도로 파송받은 정운진 선교사는 한국기독교선교대상 수상(1997), 언더우드 선교상을 수상(2002)하였고 인도에 바울유초등학교를 설립하고 이사장으로 있으며 아시아신학대학 및 대학원 총장, 인도복음주의교회 교단 대표, 인도신학대학교 공인연맹(NATA) 회장으로 있으며 저서로 <What Kind of People Ought You to Be?>, <인생최대의 종합예술> 등이 있다.

파송교회, 선교기관, 선교사, 선교지 모두모두가 선교사역 수행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실상!

1. 성경 말씀 많이 읽고, 각 책별로 정독하고, 조직적으로 체계를 세우면서 성경연구! 200구절 정도는 한글/영어로 외울 것! 2. 믿음과 기도! 3. 전인적(全人的) 실력을 날마다 배양 하는자! 4. 선교지의 현지 신실한 크리스천을 일군/사역자/복음증거와/목회자로 양육, 양성하는 일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으로 양육하여 주의 일을 맡겨야! (답후 2:2) 5. 선교지의 언어 / 문화 / 종족 / 사역분야를 선택하여야! 6. 팀 사역을 잘 하여야 한다. 7. 점진적으로 자립하는 선교사역이 되고, 현지의 신실한 일꾼들에게 맡기는

㉔-3 선교사역 28을 (1980~2008) 을 말한다!

정운진 / 아르헨티나 선교사

1. 영원에 이르는 변하지 않는 원리 (Never changing principles) 2. 늘 변하고 있는 지구 위의 인생살이 (Ever changing context / life situation) 3. 외교, 무역, 사업 등은 이 한 분야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 그러나 복음증거는 그 사람 全人을 주님께로 가지고 가는 것! 영생(영혼), 삶(땅위의 80평생), 지식과 지혜, 경제와 한 인생 全部를 얻게 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일이다.
4. 영력, 체력, 실력(전인적이고 총체적인 실력)을 날마다 더욱 배양한다. 5. 선교지에서 선교가 되는 선교사역을 실천한다.
6. 선교사역은 총력전이다. 영력, 지식, 모든 경험, 지혜, 직관, information, 판단력(Sober judgment), 인간관계, 체력, 끈기, 성품... 모든 全人的 총체가 합하여서 싸워 이겨야 하는 총력전이다.

㉔-4 전인적 제자훈련

박기호 /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원장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원장이자 아시아 선교학부 교수인 박기호 목사는 홍신대학교, 홍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아시아 연합신학연구원(ACTS),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을 나왔으며 아시아 선교 연구소 소장, 아시아 선교학회 회장으로 있다.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현장에서 실수를 하고 시행착오를 범하는 것은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스테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였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는 저희가 알지 못함이니이다"라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몰라서 잘못을 저지른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의 선교가 잘 되기 위하여 선교사들에 대한 교육 뿐 아니라 선교사 파송기관과 후원기관 지도자들에 대한 바른 선교 교육이 필요하다.

선교사가 실수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제자도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줄을 알면서도 자신의 야망, 욕심, 명예 때문에 원칙을 무시하고 잘못을 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주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한 아브라함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한다. 대접을 받기 보다 대접하고, 봉사하고 희생하여야 한다. 그리스도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 더 이상 받고 누리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주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제자도를 가질 때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될 것이다.

㉔-5 The Reentry Team: 안식년 선교사 돌봄 사역

장세균 / SEED선교회 국내사역 부대표



SEED 선교회 국내사역 부대표이며 온두라스 선교사인 장세균 선교사는 경북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McCormick Theological Seminary(M. Div)을 마쳤다. C&MA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한인세계선교협의회 간사 사역으로 섬겼고 시카고한인기독교방송국 전무 및 실무국장을 역임하였다.

선교 사역 가운데 중요하면서도 간과된 분야가 바로 선교사 케어 (돌봄) 사역이다. "선교사들은 국제 고아이다"라는 말을 한다. 본국이나 선교지 어느 곳에서도 "주변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사역을 위하여서는 세심한 돌봄 사역이 필요하다. 물질적인 재정의 필요 뿐 아니라 영적 필요와 정신적인 상담, 선교지에서 당하는 핍박, 질병, 부부문제, 자녀문제, 탈진과 고독감, 정신적 질환 등 극

한 상황에 처한 선교사와 그들의 가족을 어떻게 돌보고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본 강의는 선교사 돌봄 사역을 다루고자 한다. 특별히 선교지의 어려운 환경속에서 사역을 마치고 안식년으로 돌아오는 선교사 돌봄 사역에 집중하여 1) 돌봄 사역의 성경적인 기초와, 2) 선교사들이 언제 얼마간의 기간의 안식년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3) 재입국시에 겪게 되는 심리적인 과정과 여러 가지 양상들, 4) 선교사들에게 나타나는 10대 심리적인 스트레스 등을 살펴본 후에, 5) 이들을 돌보는 6분야의 선교사 케어 즉 돌봄 사역을 알아본 후 새로운 돌봄 사역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제 한국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뿐 아니라 파송 이후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그리고 본국 사역(안식년 사역)을 하는 동안, 그리고 안식년 후 재 파송을 받는 모든 선교의 과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파송 교회와 후원 교회 그리고 선교회에서는 이들을 돌보는 사역자들을 준비하여야 한다. "안식년이 안월년"이 아니라 다음 사역을 준비하는 소중한 사역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식년도 귀중한 사역이기 때문이다.

㉞-6 한인선교사 토탈 케어 시스템과 실제

서정호 /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사무국장



1999년부터 현재까지 KWMA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있는 서정호 선교사는 홍신대학교, 홍신대신학대학원 졸업하였으며 제30기 정규선교훈련원(GMTI) 수료하였다.

선교사 한 분 한 분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영적, 인적 자산이다. 오랜 시간 선교사로 준비했고 많은 재정과 기도후원자들을 통해 후원을 받아서 사역 현장에 파송되어 최상의 컨디션으로 사역해야 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선교사들이 최전방에서 선교에만 집중하여 가장 효과적인 사역이 되도록 돕는 역할이 바로 선교사 토탈 케어 시스템이다.

또한 KWMA에서는 남은 과업 완성을 위하여 TARGET 2030 운동 (2030년까지 10만명 정병 한인선교사 파송운동)을 선포하고 매진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도 선교사 선발부터 은퇴까지 행정적으로 뒷받침 해주는 선교사 토탈 케어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선교사 토탈케어 시스템은 크게 9개 부분으로 되어 있다 - ① 육체적 케어, ② 정서심리적 케어, ③ 영적케어, ④ 재충전과 계속교육케어, ⑤ 자녀(MK)케어, ⑥ 본국사역(안식년)케어, ⑦ 사역지 현지 케어, ⑧ 위기관리 케어, ⑨ 은퇴 및 복지 케어. 각 항목마다 선교사 개인, 파송교회 및 단체, 사역현장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어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한다면 가장 좋은 열매를 거두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㉞-7 선교지에서 과정 보내기 (중국 CONTEXT)

양아평 / 중국 선교사

1. 부르심에 대한 지속적인 질문.
2. 지속적인 현지 적응능력 개발.
3. 영적 전쟁에서 칠전팔기,
4. 사역방향 설정의 지속적인 도전.
5. 열매를 위한 지속적인 수고와 투쟁.
6. 동역자와의 관계 설정 및 사역 나눔
7. 휴가와 자녀교육위기 돌파구.
8. 제한적인 나라에서 선교정의.

㉞-8 홈스쿨링(자녀교육문제) 실제 해결방안 제시

이강산

어떤 지역, 어떤 사역의 위치에 있든지, 자녀 교육의 문제임. 세계에서 1-2위의 커리큘럼 ABEKA, ACE, 홈스쿨링을 실제 사용가능토록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 할 것임. 현장에서 등록도 가능. (미국의 SAT300점 이상, 아이비리그 대학생 중 절반이 탐 10%의 성적)(Home School Materials Display)

㉞-9 아버지학교와 선교사, 가정, 그리고 선교지

현덕인 / 두란노 아버지학교 미주본부장



아버지학교 미주본부장인 현덕인 본부장은 한국외대 서어과를 나왔으며 ROTC 9기로 금성사 수출부, 현대종합상사 과장, 청지기 여행사대표 등을 역임하였다. 생명오아시스교회 집사이다.

1. 아버지학교의 기원과 비전 - 이 세상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이고, 가정의 문제는 바로 아버지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주제로 아버지는 가정의 목자(리더이며 CEO 임)를 가르쳐서 경건한 남성으로, 가정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회복되게 합니다. 아버지가 회복되면, 가정과 교회가 건강해 지며, 이 세상이 회복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나라가이 땅에 이루어 지는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2. 아버지학교 행전의 역사와 현황 - 두란노 아버지학교는 95년 10월, 두란노 서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에 중국과 미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여, 지금은 전세계 37개국에서 2천회를 넘기며 15만 여명의 수료자를 배출하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3. 선교사를 위한 아버지학교 - 2004년 부에노스 아이레스, 2007년 두바이, 2008년 터키에서 주변의 선교사 가정을 위한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자녀학교를 동시에 개설했습니다. 우르무치, 카작스탄, 인니 등의 선교사대회에서 아버지학교/어머니학교를 동시에 개최했습니다. 필리핀과 대만에서는 선교사들이 앞장 서서 한인 교포들을 위한 아버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인디아, 스리랑카 등에서는 선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현지인을 위한 아버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정의 회복을 통해 선교지가 회복되는 꿈을 꿈꿉니다.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는 아버지학교를 그려봅니다.

㉞-10 Home Ministry Needs of Missionaries

필 포글 / President of D&D Missionary Ho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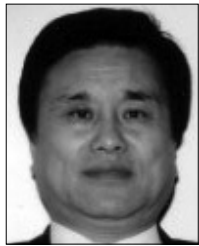


아프리카의 심장부에서 40년간 사역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난 필 포글은 지역교회 선교부와 선교단체 이사로 사역하였고 현재 플로리다에 있는 D&D Missionary Homes의 대표로 12년간 사역하고 있다. 많은 선교사들을 상담하였고 사역변경의 기간에 잘 적응하도록 도우며 "가정사역에도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자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

When a missionary returns to their "home" from their place of missionary service, their needs in this transitional period are often either not considered or they are completely misunderstood. Churches and friends often tend to focus on the ministry of the missionary rather than the person involved in the ministry. What are the needs of this missionary? Who is studying these needs to find some answers? How can efforts to meet these needs aid in the retention in career missionary service of those called by God to go to the Jerusalems, Judeas, Samarias, and the uttermost parts of the world? During the workshop, we'll explore together how to motivate individuals and churches to help meet the home ministry needs of missionaries.

㉞-11 뉴욕선교사의 집

최문섭 / 뉴욕 선교사의 집



2002년에 뉴욕에서 선의 복지재단 미주 법인을 설립하고 선교사의 후방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최문섭장로는 연세대와 미국 뉴욕 LIU MBA을 졸업하였다. 2007년 7월 뉴욕 최초의 선교사들의쉼터를 마련하여 초교파 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은퇴 선교사들의 쉼터를 마련 하고자 기도하고 있다. 미주 선의 복지재단은 산하 선의은행 을 통해 선의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단기선교 약품지원, 새벽 일용 노무자 아침 사역등을 진행하고 있다.

뉴욕 선교사의 집은 2007년 7월 1일 개소하게 되었다. 주최 단체는 뉴욕 선의선교회로서 선의복지재단 산하의 선교사 후원 및 지원을 주 목적으로 하며 선의은행을 통해 들어오는 각종 선의들을 모아 실행하는 단체이다. 뉴욕 한인타운의 중심지인 후러싱 지역에 두채의 아파트(TWO two-bed Apts.)를 숨은 독지가가 제공하여 주고, 브니엘선교회(할렘사역; 대표:김명희 선교사)의 여러 숨은 손들이 실내장식 및 침대/ 침구등을 새것으로 제공하여 주어 도합 방 4개로 일일 총 8명을 수용 할 수있는 시설을 마련 하여 뉴욕 최초의 선교사님들을 위한 쉼터와 잠자리를 제공케 되었다. 2008년 6월 30일(예정)까지 연 수백명의 선교사님들이 하루 또는 길게는 14일 까지 숙소로서 사용 하였고, 6대주 5대양에 파송되어 생명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뉴욕을 지나게 되면 꼭 오시게 되는 명소가 되었다. 내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씀대로 뉴욕에 교계를 초월한 뉴욕 선교사의 집이 마련 되자 너무나 협소한 장소를 넓히려는 다수의 의견에 의하여 2009년 7월을 목표로 방 8개, 총 16명/일을 목표로 기도하고 있다.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원 봉사자들이 대기 하며 더 나은 섬김을 위해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해주시는 숨은 중보기도자도 더 많이 필요하다.

뉴욕 선교사의 집 ; 주소; 150-11 northern blvd, #4th Fl.Fushing , NY 11354 / 전화; 347-732-9459

㉞-12 한국 선교사자녀 학교교육 현실 및 대안

차훈 / 마닐라한국아카데미(필리핀) 교장



선교사 자녀 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는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필리핀) 교장인 차훈 선교사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미국 Long Island, Golden Gate Baptist Seminary 를 마쳤다. 영도교회, 경민교회, 홍콩 온광교회에서 시무하기도 하였다.

근래 들어 한국선교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선교사 지원체계와 돌봄에 관한 문제이다. 매년 1,000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더불어 벌써 전세계 선교사 숫자의 15% 이상이 한국 선교사인 것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선교의 질적인 문제, 전문성과 효율성 결여의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불과 30년 만에 이루어낸 선교사 수, 선교대상국, 참여 선교단체의 증가만큼 동반되어야 하는 제도적인 후원이나 선교 기반구조(Infra Structure)의 증가는 따르지 못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선교사 자녀 교육과 학교에 관한 문제는 가장 예민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실적으로는 선교사의 사역 안정성 및 자녀의 복지 문제와 직결되어 있거나 선교사 수의 증가만큼 함께 증가되고 있는 그 자녀들의 가능성,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인력'으로서 잠재성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MK에 대한 인식이 많이 확대되고, 한국의 주요 교단과 선교단체의 선교교육에서 빠지지 않는 이슈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지원은 미흡하기만 하고, 많은 투자가 필요한 '학교교육'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나마 걸음마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㉞-13 한인 1.5세 2,3세들의 국제선교선교단체와의 동역

임한곤 / 파라과이 선교사



현재 파라과이 SIM 선임 선교사이며 개척교회 자문위원장을 역임한 임한곤 선교사는 1989년 GMS와 SIM 의 공동 파송으로 파라과이 원주민 선교사로서 14개 마을을 순회하며 사역한 후 다수의 교회를 개척하고 당회장으로 목회사역을 하였다. 원주민 장로교신학교 구약개론 교수 및 이사로서 광주신학교와 총회신학 연구원을 나와 미국 콜롬비아 신학교에서 수학하였다.

1. 공신력있는 국제 선교사들과 공동협력사역(현장중심) 현지 사역자들과 원활한 공동협력사역
2. 전문적인 인력관리 : 언어훈련, 문화훈련, 인간관계, 출장, 안식년(SIM 매뉴얼)
3. 영성관리 : 기도회, 월례회, 선교정보, 비전트립 등
4. 의료케어 : 선교현지 및 본부 의사를 통한 건강관리
5. 선교사 자녀교육(MK) : 국제미션스쿨 시스템 안의 교육 혹은 홈스쿨 운영
6. 재정관리 : 재정 전문가에 의한 철저한 관리 시스템
7. 공동선교자료개발 및 공동관리 : 선교장비, 종교부지 설정 등
8. 선교사 안전관리 및 비상시 상호협력 조치

㉞-14 부르심 분별 회복

이진중 / 순복음 켈거리쉼터교회 담임



캐나다 로키산맥 가까이 있는 켈거리쉼터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미션알버타 발행인, 켈거리문협회원으로 있다. 가족으로는 부인 윤복희사모와 연주, 슬기, 사무엘이 있다.

서론: 과거 어떠한 삶을 살아 왔는가? - 1) 방향점은? 복극성 2) 나의 세계관(Worldview)은? 정결, 기록
본론: 현재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영적 전쟁 - 1) 하나님의 뜻은? (살전 5:16-18, 롬 12:2),
2) 하나님의 성품 = 인격, 인품. 섬기는 삶 (빌2:5) 예) 민들레 Cf. 영향력있는 삶= 파워 크리스천, Cf. Children see, children do! (모델) 3) 하나님과 관계(relationship) · 하나님관계(J, 기도 큐티 전도) : "예배"(능력의 근원) · 이웃관계(O, 화평) : peacemaker or troublemaker? 오픈, 나눔. 부딪힘과 용납 · 나와외의 관계(Y, 부부 가정) : "독서와 여행", "친밀감"(skinship)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회복, 열매(=성령) >= 은사, Cf. 복음=축복, 축복의 통로, 행복한 삶, 풍성한 삶
결론: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 부르심과 선택 =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 (80:20) Cf. 프란시스 웨퍼(헌신된 자), Cf. That's u (인디언 추장과 목사)

㉞-15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과 도전

임승환 / 아시아복음선교회(Gospel for Asia) 한인사무국



아시아복음선교회(Gospel for Asia)의 국제본부에서 한인사무국 사역을 맡고 있는 임승환 목사는 달라스 신학교를 졸업하였으며, 한국기독교문서선교회(CLC)의 번역위원으로 다수의 역서가 있으며, 특별히 지난 4차대회에서 소명을 받아 선교회에 동참하여 북미주 한인교회를 향한 선교동원과 도전에 헌신하여 사역하고 있다.

1.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과 도전.
2. 자국민 선교의 전략과 모델 1) 오늘날의 선교 현실: 10/40장의 전략적 중요성 2) 자국민 선교의 필요와 효율성 3) 자국민 선교의 모델: GFA의 사역 4) 성도를 향한 도전과 적용

⑥-16 선교사의 Leadership이란 Followership이다

장인석 / 해민교회 담임



리더십 세미나 강사이며 한국 해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장인석목사는 아시아 연합신학대학교, 장신대학교를 졸업하고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에서 목회상담학을 공부하였다.

1. 선교사에게 Leadership이란?
 - (1) 리더십의 단어적 의미, (2) 선교사에게 리더십이란? (3) 리더십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
2. 선교사에게 Followership이란?
 - (1) 성경적 의미에서의 리더십이란? (2) Follower의 세계관은?
 - (3) 선교지에서의 팔로우십의 의미는? (4) 선교지에서 더욱 필요한 팔로우십

3. 신뢰받는 Follower는 어떤 사람인가?

(1) 나는 이런 Follower를 보고 싶다, (2) "본"이 필요한 이유는? (3) Follower가 갖추어야 할 성품, (4) Follower가 갖추어야 할 역량

4. 선교사의 Follower에 대한 5가지 묵상

5. 선교사의 Followership에 대한 10가지 묵상

⑥-17 선교사의 영성

황요한 / 중국 선교사

황요한 통합측 중국선교사로서 중국선교사회 상임 총무를 맡고 있다. 현재 중국 모 대학에서 중국근대사 박사연구생 신분으로 있으면서 사역과 중국선교사 점검 그리고 선교지연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한국 교회의 선교에 대한 수많은 논의와 연구가 선교계와 신학교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지식적으로나 선교 경력에 있어 강사로 서기에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송구스럽고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주어진 제목 '선교사의 영성과 삶'에 대해 생각해 본 바를 나누고자 한다. 논의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글은 어디까지나 현장에 있는 선교사에 의해 쓰여진 글이며 여기에 참석하여 논찬과 질의하는 분들 모두가 바로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조건은 이글의 성격과 토의 방향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영역을 규정한다. 즉 선교사 영성의 본질과 이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및 성찰도 중요하지만 선교사인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구체적 실천으로 연결되는 논의'라는 점이다. 지금과 같이 우리의 선교와 목회 현장에서 지도자의 영성이 크고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시기도 없는 듯하다. 종교개혁가와 청교도 영성, 사막교부의 영성에 대한 탐구 등 교회사에 있어 영성의 대가를 찾으려는 시도에서 한국 교회의 영성에 대한 신학적 비판에 이르기까지 개인적이고도 공동체적인 영성에 대한 관심은 이 시대의 주된 흐름이다. 이는 절대적 진리와 과학을 거부하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상적 조류와도 연관이 없지 않다고 본다. 오늘날 영성, spirituality란 말은 기독교 고유의 신학적 용어가 아닌 일반 용어로 보편화되어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선교사의 영성'인 만큼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첫째, 선교사의 영성과 분리된 독립적이고 비인격적인 선교사역이 존재하는가? 둘째, 올바른 영성의 소유자의 사역에 열매가 없을 수 있는가? 셋째, 선교사의 영성에 소위 '경지'의 개념이 가능한가?

⑥-18 선교사의 Burn Out

이에스터 / 중국 선교사

7. 선교사역/전략

⑦-1 선교지의 학교설립

김남수 / 순복음뉴욕교회 담임



서독 베를린에서 목회하다 1977년 순복음뉴욕교회에 담임으로 부임, 말씀과 성령운동의 건강한 조화를 추구하며 숨가쁘게 달려온 김남수 목사는 순복음뉴욕교회를 지나친 경쟁으로 피에 물든 레드오션을 떠나 새로운 블루오션을 개척하자는 필요성을 느끼고 2000년부터 에콰도르, 도미니카, 온두라스, 볼리비아 등 중남미 등지에 크리스천 초등학교 10개를 건립 1만여의 어린이가 재학하고 있으며 어린이 뿐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주민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전초기지가 되는 등 좋은 반응이 곳곳에서 나타나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어 이러한 크리스천 학교 건립은 다른 교회에도 영향을 끼쳐 뉴욕지역 한인교회에 기독교 학교 설립 붐을 일으키고 있다.

- 학교 설립의 필요성 · 학교 설립의 방법 · 학교 설립에 따른 문화와 법적 문제

⑦-2 선교지의 학교설립과 재원

김남수 / 순복음뉴욕교회 담임

- 학교 설립에 따른 기금 모금 · 학교 설립에 따른 은행 용자 · 학교 설립에 따른 재정 관리

⑦-3 선교지의 학교설립과 운영

김남수 / 순복음뉴욕교회 담임

- 현지 교사의 모집과 훈련 · 학생 관리와 커리큘럼 · 학부모와 지역 사회

⑦-4 구전성경이야기

에이브 리 윌리스 / 증경 남침례교 선교총재



Avery Willis, 증경남침례교 선교총재로 International Orality Network의 실행총무이며 오클라호마 침례대학내에 있는 Avery T. Willis Center for Global Outreach의 대사로 사역하고 있는 윌리스 박사는 인도네시아에서 14년간 선교사로 섬겼으며 헨리 블랙카비와 공저한 On Mission with God 등을 비롯하여 다수의 책을 저술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침례신학교에서 총장으로 시무할 때 MasterLife 라는 탁월한 제자훈련교재를 제작하였다.

최초로 금속활자를 이용해 인쇄된 Gutenberg 성서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부터 기독교 신앙은 학문의 길을 걸어왔다. 그리고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글을 쓰고 읽는 이들을 필요로 했다. 하지만 세계 인구중 3분의2는 구전으로 서로의 뜻을 전달한다 그들은 학문적 의미로 배울수 없거나, 배우지 않든지 아니면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현재 방식의 전도, 제자훈련, 지도자훈련 및 교회 세우는 일을 바꾸지 않고선 세계 인구중 40억의 숫자가 예수님을 모른체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구전으로 가르치는 제자훈련 이라 함은 그들과 친근한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 라든지, 속담, 연극, 노래, 찬송 혹은 시를 사용한 전달을 말한다. 학문적 접근이라 함은 목록, 초안, 낱말공부, 변증 혹은 신학적인 전문용어에 의지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식의 학문적 방식은 세계인구 3분의2에게 거의 쓸모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문화적 배경대로 적절한 방식으로 전할수 있는 제자를 키우는 일은 꼭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복음이 지구 끝까지 전해 질수 있을 것이다.

7-5 현지인선교사 파송전략

한도수 / 브라질 선교사



바울선교회 파송 선교사로 필리핀, 브라질에서 사역해온 한도수 선교사는 바울선교회 국제본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바울선교회 국제이사이며 브라질 새생명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한신대학, 아세아신학대학원, 풀러신학대학원, 미드웨스트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20세기까지의 선교는 대체로 서구교회들만의 사역으로 국한시켜 왔었다. 그 이유는 선교를 할려면 경제적인 수준이 높아야 하고 지적수준도 높아야하며 교회도 부흥해야 선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구교회의 독점물이 되다시피 해왔다. 그러므로 서구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가서 성경은 가르쳤으나 선교는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선교는 경제적 수준이 높아야 한다거나 지적수준이 높아야 선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며 교회가 부흥해야 만이 선교할 수 있다고도 말씀하고 있지 않다. 성경은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선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교회는 인간의 생각으로 선교를 제안 시켰으며 하나님의 능력도 제한시켜 버렸다. 이러한 잘못은 비단 서구 선교사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선교사들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선교지에 가서 복음은 전하고 제자훈련은 하되 선교는 가르치지 않고 있다. 왜냐면 그들은 가난하고 지적수준도 낮고 복음화 속도도 낮기에 선교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서구교회가 일찍부터 복음과 함께 선교를 현지인들에게 가르쳐 왔다면 지금쯤 지구촌은 복음화 되었을 것이다. 현지인 선교사 파송전략은 성경적이고 선교의 효율성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금번 포럼에서 현지선교사 파송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세우고 파송전략을 세워 200여 나라에 파송되어 사역하고 있는 한인선교사들이 현지인들을 그 나라의 리더로 세울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로 훈련하여 파송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7-6 물과 함께 복음을 - 미전도종족선교와 물사역

권중승 / 물한그릇선교회 대표



물한그릇선교회대표인 권중승 선교사는 성균관대학교 토목공학과와 고려대학교 환경공학과, 그리고 Biblical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학을 하고,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마가복음 9 장 41절)

1. 미전도 종족 - 대부분의 깨끗한 마실 물이 없는 지역에는 복음도 없습니다.
2. 심각한 물 문제 - "나쁜 수질과 적당한 화장실 시설의 미비로 인한 질병으로 매주 약 42,000명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것은 용납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3. 선교 보고 - 케냐, 탄자니아, 파라과이, 과테말라, 미얀마, 캄보디아, 아르헨티나, 페루, 도미니카 공화국, 하이티, 멕시코....
4. 해결책 - 물 한 그릇 선교회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www.givetodrink.org)

7-7 미전도종족선교를 위한 오하나 영어교육자료 활용법

배상호 / 오하나선교회(우간다)



오하나선교회 소속으로 리빙워드 한인교회 담임목회를 하고 있는 배상호 선교사는 충신대학교, 충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호주 AMOS(Asian Missionary Orientation School) 수료하고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원 Th. M (선교신학) 과정 중에 있다. 대표적 사역으로는 우간다 개혁신학교 설립, MEN 선교회 설립, TMEN 선교회 설립등이 있다.

하나님의 선교가 계속 힘있게 확장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선교사님의 사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여러 선교사님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998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교육을 통해 저개발 국가들이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세계 각국에 교육 구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오하나 비영리 교육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이 오하나 재단에서 개발한 영어 교육 자료를 선교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들을 훈련하고, 러닝 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돕는 사역을 오하나 미전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하나 교재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들과 아이들이 영어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DVD와 교재,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통하여 영어교사가 없어도 영어를 배우거나 영어 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는 DVD 자료입니다. 이미 한국의 선교단체 중의 하나인 GMTC 선교사들에게 저희 선교부에서 만든 툴을 사용하여 선교지에서 영어학원을 세워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 기관에서 몇몇 나라에서 영어 캠프와 영어 교육을 실시하여 선교에 좋은 결실들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선에서 복음 사역에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재를 사용하여 사역하시는 지역에서 영어 교육을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 계획을 세우신다면 오하나에서 개발한 자료를 가지고 사역을 해나가신다면 선교의 좋은 전략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하나 웹사이트 www.ohanalearning.org 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7-8 미디어선교의 이해와 미전도종족을 향한 전략적인 방

조바나바스 / 복음미디어선교회



1995년 ARM 설립 후 15년 동안 녹음선교사 훈련 파송을 하고 있다. 미전도종족들의 방언으로 300여개 복음을 녹취하여 오고 있으며 본인도 사역현장인 오지로 다니며 지난 10여년동안 녹취 사역을 해오고 있다. 합동정통교단 장로이며 /신대원 2년차 재학중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전 세계에 10,000개 이상의 언어와 방언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 하고 있다. 1939년 한 연약한 여성을 통하여 시작된 복음미디어사역은 68년이 흐른 지금은 전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10,000여 개의 언어 종족 군에서 그 반이 넘는 5,700여 개의 복음메시지가 그들 각각의 언어와 방언으로 녹취되었고 1300만개 이상의 음반과 오디오카세트 테이프가 그들에게 전달 되었고 들려졌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인구의 1/3 가까운 20억 이상의 인구가 글이 없거나 또 있어도 읽지 못하고, 읽을 수는 있으나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전 세계 언어와 방언의 반 이상이 난 곳 방언으로 복음 메시지가 녹취 되었다. 지금은 바벨탑 사건 이후 흩어진 수많은 언어와 방언이라는 장애물뿐 아니라 지상명령을 주신 당시의 수백 배나 되는 20억 이상의 문맹장벽이 있다. 복음미디어선교는 이러한 장벽을 뛰어 넘는 사명을 위해 전문화된 선교단체이다. GRN은 "모든 종족들은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들을 권리가 있다"는 믿음으로 성경이 없는 종족들을 위해 전도용 오디오 복음 메시지 테이프/CD와 성경애니메이션DVD를 제작 보급하고 있다. 아직도 거의 또는 복음 증거자가 없는 4000여 개 이상의 미 녹음 언어 종족들이 주님이 오시기전 가능한 한 빨리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세계선교단체와 교회들의 참여와 자원을 동원하려는 것이다.

7-9 How Do We Reach Our Oral Learners?

더그 암스트롱 / GRN



The Vision of GRN (Global Recordings Network) is that people might hear and understand God's word in their heart language - especially those who are oral communicators and those who do not have Scriptures in a form they can access. We do this by producing culturally appropriate audio and audio-visual materials.

GRN trains missionary recordists from many countries, and deploys them all around the world. Equipped with high quality digital recording equipment, and with faith in God to lead each step of the way, our mobile recording teams travel the globe to search out minority language groups. From the Amazon to the Himalayas to the ends of the earth, we go to deliver the good news. No tribe is too small. No language is too obscure. No village is too remote. These missionary specialists use native bilingual interpreters, and record the message with the voices of mother tongue speakers. We have developed a technique that allows the message to be accurately communicated even into languages that are still unwritten. We record Bible stories using a storytelling format. Our programs include explanations, applications, invitations to accept Christ, and basic teachings on the Christian life. Once recordings are made and edited, cassettes (and CDs) are copied in readiness for distribution among each people group. While GRN organizes many of its own cassette outreaches, our primary aim is to mobilize and partner with other groups so that an ever-increasing number of Christian workers can use our materials to expand their own ministries and that together we can take the gospel further.

7-10 Reaching the Unreached People through Native Missionaries

타운 코르타도 / Gospel For Asia



Rev. Taun Cortado는 22년간 Navy에서 군생활을 하고 Calvary Chapel Bible College를 졸업한 후에 아시아복음선교회(Gospel for Asia)에서 라디오 홍보사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미 전역을 순회하며 선교도전 및 동원에 헌신하고 있다.

1. 오늘날 10/40창의 선교 현황
2. 인도 내륙 선교의 필요성에 대한 대답: 현지인 선교사
3. 현지 선교사 훈련과 헌신
4. 현지 사역의 열매
5. 서구 교회의 사명과 역할

7-11 분쟁국가에서의 사역

양국주 / 열방을 섬기는 사람들 대표



열방을 섬기는 사람들 대표인 양국주 선교사는 1970년대 한국 기독교학생회 총연맹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스라엘 문화원장을 거쳐 한인세계 선교협의회 회장 겸 재난 사역본부장을 맡고 있다.

리치몬드 버지니아에 위치한 남침례교단의 순교자 명패는 결코 외부에 유출되는 법이 없다. 지난 2008년 1월말에 시드자매가 칸다하르에서 납치된 이후 현재까지 극비리에 구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선교사인 그녀의 신분이 노출되는 법 또한 없다. 반면 샘물교회 사건은 납치된 인원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지나치게 언론에 노출된 경우가 많아서 문제 해결의 장애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당사자의 신분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탓이다. 김선일사건 때 한국 언론은 그의 죽음을 방조한 책임마저 있다. 김선일의 선교사 지원, 심지어는 그의 간증과 신학교 졸업과 관련된 정보가 공공연하게 까발려졌다. 언론이 이러한 필터링을 하지 못하는 것은 언론의 순기능이 부족한 탓도 있다. 1950년대 미국 장로교 교단 남부 수단에서의 집단 강간사건으로 누에르족 지역에서 선교사 철수 사건은 분쟁 현장에서의 사역이 얼마나 많은 긴장과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케이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지역이나 재난지역에서의 사역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선교적 결실을 거두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또한 이러한 필요는 점차 증대되어가는 실정이다. 더욱이 무슬림 지역이나 사회주의 경향을 가진 국가일수록 대외적으로 문을 열지 않는 상황에서 분쟁과 재난 지역 사역은 보다 효과적인 접근법도 되고 강제적으로 나라를 오픈하게 하는 결과마저 유도한다. 결과적으로 분쟁지역에서의 긴급구호와 커뮤니티 개발 사역은 얼마나 많은 효과를 갖고 있을까? 그리고 이런 지역에 대한 선교적 요청이 필요한 것일까? 분쟁 지역에서의 사역을 위한 전략은 어떤 것일까?

7-12 후원금 모금도 사역입니다.

장세균 / SEED선교회 국내사역부 부대표



SEED 선교회 국내사역 부대표이며 온드라스 선교사인 장세균 선교사는 경북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McCormick Theological Seminary (M. Div)을 마쳤다. C&MA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한인세계선교협의회 간사 사역으로 섬겼고 시카고한인기독교방송국 전무 및 실무국장을 역임하였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데는 성령의 능력과 함께 부르심의 확신, 끊임없는 기도, 희생적인 재정 지원, 성경적인 선교 정책이 필요하다. OMF 선교회 Dannis Lane 선교사는 그의 책 Turning God's New Instruments 에서 "선교와 돈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Stan Guthrie 는 그의 책 "Missions in the Third Millennium"에서 현대선교의 21가지 경향을 소개하는 가운데 "많은 선교사들이 해외 선교사역 가운데 겪게 되는 가장 큰 불안요소는 건강이나 언어습득, 문화충격 혹은 고독함 또는 핍박이나 박해 같은 것이 아니라 재정에 관한 문제이다." 그리고 "대부분 선교사들을 건강과 자녀교육 그리고 노후대책과 안식년등의 문제로 불안해 한다"고 했다. 교단에서 선교비를 책임지는 교단 소속 선교사를 제외한 모든 선교사들은 후원금 모금 즉 "fund raising"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선교 사역은 정말 흥분되고 좋은데, 후원금 모금은 그렇지 않다 (Mission is excited, but fundraising is not.)" 본 강의는 청지기적 선교재정관리의 원칙을 제시하고 후원금 모금에 대한 효율적인 전략을 알아보려고 한다.

1. 후원금 모금의 성경적 원리와 당위성,
2. 후원금 모금의 세가지 모델 (a. George Mueller 모델, b. Hudson Taylor 모델, c. D.L. Moody 모델)
3. 후원금 모금의 열두가지 전략

7-13 내 이웃에 온 열방을 제자삼으라

지용주 / 시라큐스한인교회 담임



현재 시라큐스한인교회 담임목사인 지용주 목사는 University of Utah 기계공학 박사,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전공하였고, US Center for World Mission 동남부지역 Coordinator, 그리고 InterVarsity Staff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KWMC(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 부의장이다.

오늘날 미국은 열방의 각 족속과 민족이 와 있는 곳입니다. 대학 캠퍼스는 더욱 그러합니다. 청년의 때, 학생신분일 때만큼 집중적, 효과적인 제자양육훈련을 받기에 좋은 때가 없습니다. 제자삼기는 삶입니다. 따라서 삶과 말씀을 통해 캠퍼스 주변지역에 와 있는 열방을 제자삼는 것은 시대적 사명입니다. 시라큐스한인교회는 뉴욕 시라큐스지역 대학 캠퍼스에 있는 다민족 유학생들을 복음화, 제자화하여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유학생들 뿐 아니라 시라큐스 지역에 있는 세계 각국에서 온 난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초로 한 지식교육,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품성교육, 삶에 적용하는 선교실습을 통해 양육하고 훈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증인으로 만들어갑니다. 이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 건설하는 사역입니다. 이 시대에 각 지역에서 담당해야 할 전략적 선교입니다.

7-14 선교 패러다임의 변화 -Coming Mission에 대한 새로운 과업

김호성 / ICM 대표



국제도시선교회(ICM) 총력전도 집회를 통해 세계최대도시 뉴욕 복음화와 미국 내 타민족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오고 있는 국제도시선교회를 이끌고 있는 김호성 목사는 여행이 보편화된 이 시대에, 세계의 어느 도시보다 많은 교회들과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세계의 주요도시로 오고 있는 '미전도 종족'들을 향해 일생에 처음 '단 한번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자'는 모토아래 뉴욕뿐 아니라 엘에이, 산호세, 워싱턴 D.C. 등 현재 4개국 9개 도시에서 총력 전도를 통한 다민족 전도사역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세기 동안 미국 안에 온 우리 민족은 남의 나라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성장했다. 이제 그들의 2세대들은 이민 1세의 고생의 결과로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되었고, 영어를 구사하며, 다 문화권 속에서 자라나며 부모들의 기도하며 교회를 중심으로 한 생활을 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미국 안에서의 유일한 민족으로 자라났다. 바로 이 2세대들은 미국 안에 살고 있는 아직도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 보지 못한 채 다른 신들을 미국 안에서 까지 와서도 믿고 있는 수많은 다른 민족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자원들이며, 이들을 이 시대의 추수꾼으로 세우며 길로 나가 다른 민족을 위해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은 흑암에 있는 민족들을 구원해내는 리더로 세우는 일이다.

도시는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Coming Mission 현장이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으라며 굽실거리지 않는 방법으로 오히려 복음을 듣는 피 전도자가 관심을 보이며 다가오게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며, 교회로 바로 연결시킨다. 특히 1.5세대, 2세대들도 많이 참여해 그들이 전도하는 중 많은 감동과 기쁨을 얻는다.

7-15 도시빈민선교

김명희 / 브니엘선교회



이화여대 교육 심리학과, 동부개혁 장로회 신학교 선교학 석사. 브니엘 선교회를 설립해 12년간 뉴욕 할렘에서 Soup Kitchen(홈리스사역)과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감당해 오고있다.

세계는 점점 도시 이주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한편 도시에는 여러나라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 민족이 우리의 문턱까지 와 있는 것이다. 더구나 많은 도시 주민들은 가난한 이주민들로서 복음을 잘 받아드린다. 도시 빈민가의 선교는 항상 사랑의 음식대접을 전제로 한다. 음식을 먹기위해 오는 자들에게 배식 전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고, 말씀을 통해 변화가 일어난다. 브니엘 선교회가 주관하는 할렘의 Soup kitchen 사역은 매주 화요일 점심식사를 대접 하는데, 뉴욕 소재 한인교회들이 참여하여 점심을 마련해 오고 특송을 준비해 오며, 담임목사나 E.M.이나 교육부 사역자들이 설교를 하는 Out-Reach를 통해 여러 한인교회가 이웃에 있는 선교현장에 실질적으로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다. 또한 매주 토요일 할렘에서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감당한다. 선교의 앞날은 항상 어린이들을 교육시키는데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할렘이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방황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한인교회 EM부서가 한달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헌신하여 할렘의 어린이 청소년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상처가 많은 빈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이 큰효과가 있음을 12년동안의 사역에서 증명이 되고 있다.

7-16 HIV, AIDS 예방과 치료

최광남 / 미국 방사선 암학과 전문의



뉴욕 실버 미션 단기선교사로서 East Africa의 Light of Love, Africa (LOLA) 임원과 East Africa 교회 지도자 세미나 강사로서 활약하고 있는 최광남장로는 미국 방사선 암학과 전문의이며 뉴욕 다운스테이트 의과대학 임상교수이다. 최광남 장로는 뉴욕 퀸즈한인교회에서 장로로 시무하고 있으며 퀸즈 사랑의 불꽃국장을 10년간 역임하였다.

성은 사람들의 생각, 언어, 동기와 행동을 지배 할 수 있으므로 건전한 성 관념은 신앙 인격에 큰 영향을 끼친다. 성 문란은 범 세계적이며, 창세기로 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까지 인류와 공존하는 문제로써 1. 개인의 영성과 인격과 사업과 건강을 파괴 할 뿐만 아니라, 2. 가정과 교회를 파괴 하므로, 3.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파괴하고자 하는 사탄의 꾀계로 교묘히 이용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 모든 선교지의 성 문란과 가정 문제는 심각하다.

이 세미나는, 1. 우리는 성에 대해 올바른 관념을 갖고 있으며 과연 성경적으로 순결한가? 아니면, 어떻게 순결하게 될수 있는가? 2. 어떻게 선교지에서 성문제를 교육, 지도할 것인가? 3. 선교지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HIV/AIDS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어떻게 그들을 교육 지도할 것 인가? 를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성문제의 성경적 치유를 위해서는 마치 의사가 암환자를 수술하듯이 3 단계로 나눈다.-

1. 성문제의 현 주소를 진단한다, 2. 성적 순결과 물 순결을 해부한다, 3. 성적 불순결을 제거한다,

성 문란의 결과로 올 수있는 HIV/AIDS에 대해서는

1. 창조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2. 하나님이 주신 면역system의 신비, 3. 고태적인 HIV에 의한 면역system의 파괴 경위와 그 결과, 4. HIV의 감염 경로와 그 예방과 치료, 5. HIV에 대한 대책

7-17 교육선교를 통한 세계선교

송제임스 / Midwest University 총장



지성(IQ) 인성(HQ) 영성(SQ) 리더십(Leadership)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상호친선을 도모하고 협력하여 세계를 변화시켜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Midwest University 총장으로서 교육을 통한 세계선교에 힘쓰고 있는 송제임스 총장은 국제복음의협회 총재, 세계크리스찬스쿨 네트워크 대표, 그리고 MGE 대표를 맡고 있다.

Christian Leaders To Change The World! -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아야 될 정직, 신의, 사랑, 믿음, 책임감, 가족 등 불변적 가치에 충실하고 지성(IQ) 인성(HQ) 영성(SQ) 리더십(Leadership)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상호친선을 도모하고 협력하여 세계를 변화시켜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1. 요셉과 같이 꿈이 있고 정직하고 성실하여 모든 이에게 인정받는 리더.
2. 욥과 같이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이기는 리더 (신의와 영성을 키우는 교육과 훈련)
3. 바울처럼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리더 (범사에 감사하며 시대적 사명감과 책임감 있는 리더십)
4.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국가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리더

7-18 현지 교회들과의 선교협력

정태봉 / 묘동교회 담임



총회 파송으로 오스트리아 및 독일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였고 총회 세계선교부 간사, 총회 에큐메니칼 위원회 서기, 총회 세계선교부 교육지원부, 사회봉사부 실행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묘동교회 담임이며 한국교회 노인학교 연합회 회장이다. 한국 외국어대학 독어과와 장로회 신학대학 신대원을 졸업하고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을 수료하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M.Div.)를 졸업하였다.

총회 에큐메니칼 선교정책에 따른 현지 교회들과의 선교협력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사례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장단점과 대안들을 소개하고, 미래 선교 사역에 에큐메니칼 선교 협력 사역의 필요를 실제적인 사역 속에서 비전을 세우고 준비하도록 강의. 더불어 변화되는 국제 사회 속에서의 에큐메니칼 선교 협력의 요청과 이에 대한 대안들을 실제적으로 소개하는 강의.

7-19 자국민선교사와 함께 하는 Powerful Missionary Training 김석수 / 빛세계선교회 대표



빛세계선교회(LWM)의 설립자이며 국제대표와 백만자국민 선교사 운동본부장인 김석수 목사는 미국의 바이올라대 탈봇 신대원을 졸업하고 그레이스 신대원 선교학 박사과정(보)에 있다. 아울러, LWM 선교사 훈련원(8개국) 원장을 맡고 있으며 백만 구령 운동(S.O.S. Asia & Africa Movement)을 2004년부터 일으키고 있다. 저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사역(The Life Ministry of Jesus Christ)-영어 선교사 매뉴얼, The Church Renewal for The Remaining Task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믿음(Christian Faith) 등이 있다.

빛세계선교회(LWM)는 전세계의 남은 미전도 종족 선교에 가장 효과적인 선교전략 중 하나인 자국민선교사 훈련 및 파송을 소개합니다. LWM은 아시아, 아프리카 12개국의 헌신된 자국민 선교사를 모집, 미전도 종족으로 파송하는 백만 자국민선교사 운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1989년 미국 남가주에서 태동, 현재 한국의 대구, 동아프리카 3개국(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인도-첸나이, 필리핀-민다나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C국, 말레이시아에 선교 훈련 센터를 세워 현재까지 1200여명이 훈련을 받았고 그중 약 300명의 전임자국민선교사들을 파송하였습니다.

7-20 두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현지교회를 세우는 선교

강하수 / 두날개선교회 총무



두날개선교회 총무이며 풍성한교회 선교부 목사인 강하수 목사는 카작스탄에서 오엠선교회 선교사로 사역하였고 후에 오엠선교회 부산지부 훈련부와 대구지부 총무를 담당하였다.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석사)를 나와 영남신학대학교에서 신학석사를 받았다.

두날개양육시스템은 부산 풍성한교회를 NCD에서 실시한 교회 건강지수 107점이라는 경이로운 점수를 만들어 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양육시스템이다. 현재 두날개양육시스템을 적용한 교회들이 4500교회가 넘는 정도로 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선교현장에서 현지인들을 탁월한 재생산 사역자로 세우며 교회의 담임목회자와 같은 비전으로 달려가며, 같은 열매를 맺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헌신된 전문인 선교사들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탁월한 시스템이다.

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두날개양육시스템의 역사, 2) 두날개양육시스템의 내용, 3) 두날개양육시스템의 장점, 4) 두날개란 무엇인가? 5)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역의 한계점, 6)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역에 날개를 달자, 7) 파송교회와 파송선교사와 현지교회가 같은 양육시스템일때의 장점, 8) 현지인 재생산 사역자를 세워 현지교회를 개척하는 선교를 위한 전략

7-21 어린이 선교교육을 통한 미래선교사 세우기

강신오 / 인도네시아 선교사



ICM 총력전도 집회를 통해 세계최대도시 뉴욕 복음화와 미국 내 타민족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오고 있는 국제도시선교회를 이끌고 있는 김호성 목사는 여행이 보편화된 이 시대에, 세계의 어느 도시보다 많은 교회들과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세계의 주요도시로 오고 있는 '미전도 종족'들을 향해 일생에 처음 '단 한번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자'는 모토 아래 뉴욕뿐 아니라 엘에이, 산호세, 워싱턴 D.C. 등 현재 4개국 9개 도시에서 총력 전도를 통한 다민족 전도사역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선교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훈련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강한 훈련은 강한 지도자를 만들고 바른 교육은 바른 인생과 사역을 할 수 있는 지침이 되는 것이다. 어렸을 때 확실하고 구체적인 선교 교육과 훈련을 한다면 어려서부터 선교사의 삶을 삶의 현장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게 될 것이며 주님의 때에 타 문화권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선교사들이 겪어야 하는 시행착오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을 충성스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의 황혼에 구원을 받으면 겨우 그 영혼만 구원을 받게 되지만 어려서 구원을 받으면 그 영혼과 더불어 일생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다."

7-22 차세대 지도자 훈련을 통한 미래 지도자 세우기

강신오 / 인도네시아 선교사

지난 1세기 동안 미국 안에 온 우리 민족은 남의 나라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성장했다. 이제 그들의 2세대들은 이민 1세의 고생의 결과로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되었고, 영어를 구사하며, 다 문화권 속에서 자라나며 부모들의 기도하며 교회를 중심으로 한 생활을 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미국 안에서의 유일한 민족으로 자라났다. 바로 이 2세대들은 미국 안에 살고 있는 아직도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 보지 못한 채 다른 신들을 미국 안에서 까지 와서도 믿고 있는 수많은 다른 민족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이며, 이들이 이 시대의 추수꾼으로 세우며 길로 나가 다른 민족을 위해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은 흑암에 있는 민족들을 구원해내는 리더로 세우는 일이다. 도시는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Coming Mission 현장이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으라며 굶질거리지 않는 방법으로 오히려 복음을 듣는 피 전도자가 관심을 보이며 다가오게 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며, 교회로 바로 연결시킨다. 특히 1.5세대, 2세대들도 많이 참여해 그들이 전도하는 중 많은 감동과 기쁨을 얻는다.

7-23 어린이 신앙성장의 이론과 실제

여병현 / 미국어린이전도협회 한인지회 대표



157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국제적 어린이선교단체인 어린이전도협회에서 24년째 사역하고 있는 여병현 목사는 1990년 한국 CEF에서 미국선교사로 파송되어 현재 미국어린이전도협회 한인지회를 맡고 있다. 해마다 미 전지역과 전세계를 순회하며 교사교육과 학부모세미나, 어린이 부흥회 및 캠프를 인도하고 있는 어린이 전문사역자다. 본대회의 어린이선교대회를 담당하고 있다.

구원받은 어린이들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제자로 양육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것입니다.

7-24 효과적인 어린이전도는 이렇게

여병현 / 미국어린이전도협회 한인지회 대표

교회와 선교지에서 원색적인 복음을 다양하게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개인 전도방법, 찬송을 통해, 요절암송과 시청각설교를 통해, 창작, 특별활동들을 통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7-25 선교와 교회교육을 위한 창의적인 52시청각 아이디어 이옥희 / 미국어린이전도협회 한인지회



교회와 선교지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전도와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시청각 자료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마음이 가난한 심령들의 교회 교육담당과 KCEF Teacher & Leader's Seminar & Short term Mission 강사인 이옥희 전도사는 California State University of Hayward The World Mission University, 에서 수학했으며 Chiron Biotechnology 에서 미생물학자로 일하기도 했다.

선교와 기독교 교육에 필요한 효과적인 전도와 교육을 위한 다양하고 창조적인 시청각 자료와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립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설교, 기도, 재미있는 요절암송, 성경공부, 그리고 창작활동 등에 필요한 실제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7-26 정보화시대의 IT선교전략 모델

김기석 / FMnC 본부장



FMnC(Frontier Mission and Computer)의 선교회 본부장과 과 ITCN(IT Chritian Network)운동본부 본부장, 그리고 ITCMC(IT Chritian Mission Conference) 실행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기석 교수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사, 석사, 박사과정을 거쳐 삼성 SDS 책임연구원(1994~1999)을 지냈다. 국회 정보통신보좌관을 역임하고 현재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 교수로 섬기고 있다.

21세기는 정보화의 시대이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정보화의 물결은 남녀노소, 직업을 차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나 어느 곳에서든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이러한 정보화의 물결이 왜 그리고 어떻게 선교의 새로운 기회가 되는지를 살펴 본다. IT 교육센터 및 IT연구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역모델을 집중적으로 살펴 본다. 이 사역을 진행하는 FMnC(Frontier Mission and Computer) 단체의 연합과 동역 모델을 살펴보고 동역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 본다. IT인들의 지역교회/사회문화/열방을 섬기고 IT인들의 삶을 개혁하며 IT인들을 전도하는 운동인 IT Christian Network Movement를 살펴본다.

7-27 Ministry as an Army Chaplain

David Sifferd / NCCRT

7-28 구전문화 사회에서 효과적인 복음전달 및 교회 지도자훈련

이금주 / 빛세계선교회대표



말레이시아 침례신학대학에서 선교학 강의 및 동남아시아 몇 나라에서 강의 및 선교사 훈련 하고 있는 이금주 선교사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 해외 선교회 소속이 동남아시아 사역을 주로 하고 있다. 1989년 인도네시아로 파송되어 현지 신학교 및 교회에서 사역과 1997년 필리핀 마닐라 "CrossTrain"에서 아시아 선교사 훈련 사역을 하였으며 미국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에서 선교학 전공으로 Ph.D. 받았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구전문화가 강한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다. 구전 문화란 주로 구두로 사회의 정보나 지식을 습득하는 사람들로(Oral Communicator) 글을 모르거나 글을 알아도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하지만 대부분 대학 교육 이상 받은 선교사들이 oral communicator들에 대한 인식이 없으므로 이들이 습득할 수 없는 본인이 대학에서 배운 방법으로 구전문화에서도 복음을 전달하고, 현지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하여 수고에 대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므로 이 강의를 통해서 구전문화에 대한 인식을 돕고, 구전 문화에 맞는 교육 훈련 방법, 복음 전달을 개발하도록 돕는데 이 강의 목적이 있다.

7-29 항공선교의 비전

김영욱 / 한국항공선교회 대표



국제항공선교회 국제총무선교사로 10여 년간 사역했던 김영욱 목사는 기도하던 중 뜻있는 목사들과 한국항공선교회를 돕기 위해 1988년 12월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나성동양선교회에서 임동선목사, 김의환목사, 김계용목사, 정상우목사, 김충남목사, 강승제목사, 장익목사, 허경삼목사, 강부웅목사, 김영욱목사, 윤성원목사 등이 발기인이 되어 미주한인항공선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첫 사역으로 한국의 낙후된 도서지역의 복음 전도와 의료사역 지원을 하기로 결의하여 6인승 항공기를 구입하기 위해 모금을 시작하고 1991년 교포들의 후원으로 경비행기 세스나 206 수륙양용기(Cessna 206 Amphibious Float)를 구입하여 1992년 1월 미국항공선교회의 기술지원을 받아 도서 사역을 위해 한국에 도입했다. 1999년 12월 10 문화관광부의 사단법인 한국항공선교회 비영리법인 선교단체로 등록되었다. 2006년 독지가의 후원으로 CH801 4인승을 구입하여 조립 중에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몇몇 신실한 미국항공 크리스찬 조종사들이 성경공부와 기도를 하던 중 2차대전으로 폐허된 지역을 복구하고 전쟁을 통해 상처받은 자들에게 구호와 복음전파를 위해 비행기만이 유용한 도구임을 발견하고 비행기를 통해 복음을 전파한 결과 큰 효과를 보았다. 깊은 오지나 먼 섬에 도달하려면 통나무배나 노새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과 많은 장애가 있었는데 경비행기를 이용한 결과 시간단축과 현지의 병자들이 신선한 음식과 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선교사들이 자주 고립지역을 방문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었다. 이렇게 시작된 항공선교회는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귀한 사역을 감당 하였다. 남아메리카의 아마존 정글과 아프리카 난민들의 식량문제를 가장 먼저 세상에 알렸고, 파푸아뉴기니에서는 선교사들을 잡아먹던 식인종들에게 비행기로 날아가서 복음을 전한 결과 그들이 성경교사가 되는 놀라운 결과를 비롯해서 복음전도, 의료선교, 구제 등의 사역을 하고 있다.

7-30 방송선교를 통한 세계선교의 전략

최은종 / 뉴욕믿음선교교회 담임



최은종 목사는 전 시카고기독교방송국장(9년)과 뉴욕에 있는 미주기독교방송사장(4년)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Church-net 대표이며 뉴욕믿음선교교회 담임이다. KWMC 부의장, 방송선교운동본부장으로 사역하고 있다.

- 들어가는 말 - 하나님의 선민, 알이랑 민족, 한국어 속에 담긴 선교의 사명과 성공의 비밀
- A. 방송의 위력 -1. 공중권세 잡은자 vs 선교권세 잡은자, 2.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선거
- B. 방송환경의 변화 -1. 아나로그 시대 -> 디지털(Digital) 시대, 2. AM -> FM -> XM (위성방송)
- C. 방송선교를 통한 선교영역 확장 및 교회 부흥
- 결론 - 방송선교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7-31 효과적인 선교지 지도자 훈련과정

정태희 / David Chung Ministries International 대표



최근 Youth With A Mission (YWAM) 을 통해 훈련 받은 이후 현재 David Chung Ministries International (DCMi) 의 대표로 선교와 복음 전도의 최전방에서 사역하고 있는 정태희선교사는 미국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에서 구약학을 전공하여 Ph. D.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의 몇몇 한인교회와 미국인 교회에서 담임 목사와 staff로 섬겼고,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였으며 또 Billy Graham 전도대회의 준비위원과 Billy Graham 의 한국어 설교 통역으로 사역하기도 하였다.

선교사나 목회자가 동일하게 고민하는 분야가 있다면 아마도 "지도자 개발"일 것이다. 예수님이 12명의 지도자를 개발하는데 실패했다면 지상명령은 거창한 구호로 끝나버렸을지도 모른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지도자의 부재로 세상에 전해지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지도자 양성의 필요성을 절감한 우리는 선교지의 구석구석에 신학교를 세워 지도자를 훈련하고 있다. 선교지 신학교를 성서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의 커리큘럼으로 무장(?) 한 후 우리는 한국과 미국의 교회지도자와 신학교수를 현지로 초청하면서까지 양질의 신학교육을 제공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훈련받아 배출된 사역자들을 현지 교회 지도자들이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신학교의 커리큘럼과 예수님의 커리큘럼은 어떻게 다른가? "효과적인 선교지 지도자 훈련과정" 세미나는 어떻게 하면 선교지의 현실과 필요에 부합하는 통전적 지도자 (holistic leadership) 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론적으로 다룬다. 그 후 workshop 을 통해 선교지의 필요에 맞는 지도자 양성 커리큘럼을 선교사 각자로 하여금 디자인 하게 돕는 것이 이 세미나의 목표이다.

7-32 젊은이 사역과 선교지 교회자립

김문수 / 태국 선교사



충신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총회세계선교회에 속한 태국의 김문수 선교사는 1991년부터 목회자훈련, 교회 개척, 대학생전도를 통한 교회 개척사역을 하고 있으며, 아내 조영미 선교사와 자녀로 하영이와 하은이가 있다.

현대선교의 문제는 배타성이 강한 타종교 지역과 이념이 다른 공산권에서의 어려움은 오히려 피선교지의 사람들이 오히려 강한 관심과 기대를 갖기에 더 강한 열정을 갖고 있는데 반하여 장기화된 선교지, 즉 많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수고, 수많은 재정의 투자된 지역에 오래된 교회, 작은 교회, 시골교회, 산지족 교회들이 미 자립 상태로 장기화되어 자립이 점점 어려워지고, 사역자는 비전을 잃어 버리고 떠나버리고, 그저 건물만 남아 있거나 나이 든 노인분들만이 외로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안타까운 힘을 잃어버린 선교지교회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과연 새롭게 비전을 가지고 일어날 기회가 없는 것인가?

필자는 1991년에 태국에 입국하여 목회자 재훈련, 소수 부족 사역등을 하던 중 청년 사역을 통한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받고 흥분하고 있다. 이제 부족하지만 흥분이 가시기전에 젊은이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소개하고 부족한 필자의 경험을 나누기를 원한다.

7-33 성경확산의 역사와 실제적인 대책

김판규 / 성경번역선교사역



1992-97년까지 우즈베키스탄 선교사역을 하였으며 현재 성경번역선교사역 자원 봉사중인 김판규 선교사는 연세대학교,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개혁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안수를 받았다. 2001년 남침례 교신학교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in Louisville, Kentucky) 을 졸업하였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인류역사는 성경확산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14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여 주신 이후로 지금까지, 이 세상의 모든 언어와 민족에게로 전하여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약 7,000개의 언어와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즉, 7,000개의 언어민족이 이 세상에 존재하여 온 것입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이 이 7,000개의 모든 언어민족에게로 그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서 전파 되어지려면, 성경은 그 7,000개의 언어로 반드시 번역되어야만 해왔습니다. 이것이 성경번역이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세대의 세계 복음화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이 과제를 이루기 위하여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 세대의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연구한 대로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에 신약성경이 없는 2,200개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니, 복음주의 선교는 그들에게로 향하여 가야만 합니다. 세계선교를 이루려면 성경이, 특히 신약성경이 꼭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지구상의 7,000개 모든 언어로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빠르게 성경을 전달할 수가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됩니다.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7-34 21세기 선교현장에 적합한 선교사훈련과 선교전략 고찰 남양규 / 제자들선교회 국제대표



제자들선교회 국제대표이며 계산장로교회 선교목사로서 국내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남양규 선교사는 홍신대학교 신대원, 영국 London Theological Seminary를 졸업하였다. 총회세계선교회 소속 필리핀 선교사로서 활동하였으며, 한국 제자들선교회 대표를 역임하였다.

한국교회의 선교는 1990년대 초반 이후 급속한 변화를 거듭해 왔다. 특히 경제적 발전과 인식의 변화로 인한 국제 안목이 변하며 선교에 대한 접근도 변화를 지속하고 있다. 선교사 파송의 현실도 할 수 있는 한 많이 보내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이제는 파송한 선교사들의 자질과 선교 사역의 내용 또한 정직하게 평가해 보아야 한다는 비판적 시각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우리의 선교 사역들을 돌아보고,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 아직도 유효한 선교 전략은 무엇이며, 더 나아가 더욱 효과적 선교의 대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21세기는 어떤 변화가 예측되며, 특히 한반도의 상황은 어떠한지를 토의하는 가운데 선교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1. 전통적 접근 - 이 장에서는 아직도 유효한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방법들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
2. 한국의 국가 위상 변화에 따른 접근 - 이 장에서는 선교의 초창기를 지난 이제 선교사 파송 2위의 국가로서, 그리고 변화된 국제 관계 속에서의 국가 위상과 상황 속에서 새롭게 주어진 선교 대안들을 생각해 본다
3. 미래적 접근 - 이 장에서는 남은 21세기 앞으로의 변화들을 예상하며 한국선교의 나아갈 길과 선교 대안들에 대해 토의하며 생각해 본다.

7-35 현지교단과의 협력

맹갑균 / 미얀마 선교사



미얀마에서 사역 중인 맹갑균 선교사는 연세대학교, 홍신대학원을 졸업하고, 인천 대명교회 교육 전도사와 의정부 광명교회 부목사로 사역하였다. 1998년 GMS MTI 훈련을 수료하고 총회세계선교회 소속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1. 기숙사 사역 - 1) 기숙사 사역을 시작하게 된 배경, 2) 기숙사 사역이 미얀마에서 효과적인 이유, 3) 기숙사 사역을 통해서 기대하는 선교적인 효과, 4) 기숙사 사역의 실제적인 운영, 5) 기숙사 사역을 통한 비전
2. 현지 교단 협력 사역 - 1) 교회 개척 사역, 2) 방과 후 교실 사역, 3) 기숙사 사역, 4) 클리닉 사역, 5) 교회 건축 지원 사역, 6) 지도자 훈련원 사역, 7) 교단 산하 신학교 지원 사역

7-36 선교 현지 목회자에 대한 (정규 신학교 외) 훈련에 관한 경험과 방안 최승암 / 우간다 온나라선교부 대표



우간다 현지 선교부인 온나라 선교부 (MEN; Mission to Every Nation) 대표이며 우간다 한인 선교사 협의회 회장인 최승암 선교사는 총회세계선교회 소속으로 대구 내일1995년 우간다에 파송되었으며 파송이래 지금까지 우간다의 개혁 신학교 (RTC; Reformed Theological College)의 운영이사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1. 들어가기 - 선교사들이 복음 전파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현장에 도착합니다. 목사 선교사들은 자연스럽게 신학교 형태의 사역을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학교 밖에서 실제로 교육을 필요로 하는 현장의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물론 신학교에 이들을 불러 교육하면 되지만 여러 이유들에 의해 신학교에 올 형편이 안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회자 훈련이나 전임 목회자 개념이 없는 아프리카 목회 현장. 생활과 목회를 동시에 추구하는 현장 목회자들에게 대한 훈련과 교육이 절실합니다.

2. 헌신과 열정 - 1) 소명, 사명, 은사; 복음 전파와 신앙 교육에 대한 열정, 2) "A mile wide, an inch deep", 3) 건축 현장의 노동자가 되어...
3. 시련과 갈등 - 1) 성경 전문가가 아니라 행정전문가 요구, 2) 선교 이론 "자생적 배가 운동(spontaneous multiplication)"에서 선교사가 설 곳은?
4. 틈새 공략 - 1) 나가기 (out going) 전략과 건물 없는 신학교, 2) 잘 짜여진 현장 교재(text)와 교제(fellowship)
5. 나가기 참 소명, 사명, 은사 발견으로 나아가기.

7-37 제3지역에서의 효과적인 팀사역

박사론 / 창의적 접근지역 선교사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교국 파송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사론 선교사는 감신대학에서 수학하고 서울연회에서 안수를 받았다. 제 3지역에서의 효과적인 팀사역을 펼침으로서 전도예의 창의적인 접근을 다방면으로 추구하고 있다.

7-38 아시아 신학교육

장완익 / GMS 메콩개발기구선교연구소 대표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15년 사역하고 GMS 메콩개발기구 선교연구소 대표, ATEA 총무로 사역하는 장완익 선교사는 홍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선교대학원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D.Min/ICS)을 마쳤다.

아시아는 세계 4대 종교의 발상지이며 복음화 비율이 가장 낮고 선교가 가장 어려운 지역인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마지막 과업이 성취되는 지역이다. 그리고 신학교육은 모든 선교 사역의 최종 목표인 교회설립과 복음 전파의 가장 중요한 뼈대이다. 이에 본 강좌에서는 아래의 주제들을 다각도로 다루며, 아시아에서 바른 신학교육이 세워짐으로 세계선교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한국인 선교사의 강점은 불굴의 투지로 어려운 지역에서 교회개척과 목회를 하는 것이며, 약점은 사역에 대한 내용이 객관화되지 못함으로 평가 받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에 한국인 선교사들의 사역이 정당한 평가를 받는다면 세계선교의 역사는 상당 부분 달라질 것이다. 이는 한국 선교의 행정과 연구가 취약함을 증명하는 것인데, 한국인 선교사들이 어떻게 하면 열정적인 사역과 함께 선교행정과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지 나눈다.

8. 단기/평신도/전문인선교

㉓-1 평신도 역할과 선교

정인찬 / 백석목회대학원장, KWMC 공동의장



방대한『성서대백과사전』(15권)을 저술한 해박한 성서신학자요, 성령의 은혜가 깊은 영성의 목회자요, 덕망과 포용력을 갖춘 겸허한 인격자라는 인정을 받으며 휴스턴한인교회를 미남부 최대의 한인교회로 성장시켰고 전국적 부흥집회를 통해 이 민교회를 든든히 세웠던 충성된 중은 현재는 한국에서 기독교 명문인 백석대학 목회대학원 원장으로 그동안 쌓아온 목회학과 영성신학을 강의하며 목회자양육과 선교사훈련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송전대, 호서대 교수, 휴스턴신학대학 학장, 미주 통일선교대학 학장,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등을 역임했다.

㉓-2 평신도도 성직자다

류효명 / KWMC 공동의장 및 평신도선교운동본부장



류효명 장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정신과 의사이며 현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에서 장로로 시무하고 있다. 기독교 한인세계선교 협의회(KWMC) 공동의장이며, 평신도선교운동본부장으로 북미주 평신도 선교운동 동원에 활동적으로 헌신하고 있다. 본 대회 공동대회장이다.

1. Clergy vs. Laity 2. 종교개혁: 만인 제사장 주의
3. 제도적 교회를 뛰어넘어: 유기체적 교회로.
4. 평신도의 바른 정체성 5. "A.D. 2017 and Beyond" 운동을 전개하며

㉓-3 고효율 단기선교를 위한 현장 선교사들의 12년간의 의식구조의 변화와 분석 김정환 / SON Ministry 대표



2세들을 위한 단기선교전문단체 SON Ministry를 창설하였으며 전 케냐 마사이부족 선교사(1986-1991)로서 활동한 김정환 선교사는 미남침례회 목사로서 Hope International Univ. (B.A Cross-Cultural Missio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World Mission (M.A General Mission)에서 수학하였다. 세계단기선교연구소 사역을 통하여 미주한인교회의 선교동원과 2세들을 위한 단기선교 훈련, 사역전략개발, 단기선교 리서치, 단기선교전문지 발간, Mission Builders Forum 사역을 하고 있고 현재 23개국에 현장선교사들의 단기선교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다.

단기선교는 장기선교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교사역으로 한국선교의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올림픽이후와 경제성장, 여행자유화를 통하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단기선교를 통하여 선교지 현장을 방문하며 선교에 대한 현실감을 높혀오고 있다. 초기에 진행되었던 단기선교운동은 현장중심이라기 보다는 방문자중심의 단기선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방문자 중심의 단기선교는 여러 문제들을 가진 비효율적 저효율성의 단기선교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는 현장중심, 현장선교사들이 주도하는 고효율 단기선교를 생각하여야 할때이다. 본 발제는 지난 96년에 51개국, 200명의 선교사들에게 설문한 내용과 같은 질문으로 12년이 지난 2008년 4월에 49개국 111명의 현장선교사들에 다시 질문하여 단기선교에 대한 변화를 조사분석하여 동향을 분석한 강의로 단기선교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㉓-4 단기선교를 통한 선교현장 부흥 전략

양창근 / 파라과이 선교사



파라과이 "Centro de Vida" 현지인 장로교회를 개척하고 Colegio San Pablo 초중등교육학교 이사장인 양창근 선교사는 1991년 총회세계선교회 소속으로 파라과이 선교사로 파송되었으며 파라과이 침례교신학대학, 총신신대원을 졸업하고 풀러신학교에서 선교목회학 박사과정중에 있다. 대표적인 사역은 파라과이 현지인 개혁 장로회 독노회 초대 노회장을 역임하고, 인디언 지도자 훈련학교교장으로 어린이 대 전도집회 운동과 청년 대 전도 집회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세계 한인 선교사 협의회 부회장 및 남미지역 회장이기도 하다.

단기선교의 대체적인 유형은 파송교회가 준비한 프로그램을 선교현장에서 펼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단기선교에서의 '주인공'은 단기선교팀이었고, 현지교회와 선교지는 이들을 지원하는 '지원자'에 머물러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선교현장에서 주도적으로 준비한 프로그램에 단기선교팀들이 동참하여 함께 협력하는 효과적인 단기선교의 모델을 파라과이 아리바니노스(Rise-up Kids, 일어나라 어린이들아)와 아리바 호베네스(Rise-up Youth, 일어나라 청년들아)라는 대전도집회를 통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지교회와 청년들을 '주인공'으로 세우고, 우리는 겸손히 '중'으로서 스스로를 낮춤으로써 낮아지고 섬기는 '섬자가 정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방적 베풀어줌'을 넘어서는 '섬김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후방이 하나되는 선교' '현지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선교'를 새로운 단기선교의 모델로서 나누고자 한다.

㉓-5 단기선교를 통한 영성개발 리더십 훈련

이은경 / 시나피선교회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15년 사역하고 GMS 메콩개발기구 선교연구소 대표, ATEA 총무로 사역하는 장완익 선교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선교대학원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D.Min/ICS)을 마쳤다.

리더십이란 한 조직체에 끼치는 영향력으로서, 그 단체로 하여금 하나의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그 조직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것으로,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는 한 사람만의 독점물이 아니다. 즉 리더십은 힘을 가졌다고 해서 그에게 리더십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직위를 반드시 일컫지도 않는다. 또한 전문성이 곧 리더십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리더십이란 일정한 상황에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리더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리더십은 지도자의 목표나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목적지향적 행동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지도자와 조직원 상호간의 영향력 행사 과정과 관련된다. 하지만 오늘날의 물질만능주의는 리더십을 처세에 능하거나 성공철학, 혹은 정상에 오르는 방법을 마스터한 자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오늘날의 지도자는 다른 사람보다 일을 더 많이 하거나 희생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일을 덜하고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자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서적 지도자도 결코 태어나지 않고 철저한 훈련을 통하여 만들어 지는 것이다. 기독교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하나님께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일에 나타나는 영향력을 말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행사하는 영향력이다.

㉞-6 공산권 선교와 단기선교

정인서 / 중국 선교사

2005년 중국에서 예배드리는 이유로 공안당국으로부터 5년 간입국을 금지 당하여 현재는 한국에서 안식년을 가지면서 선교학 박사 과정 중에 있으며 선교학 논문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정인서 중국 선교사는 협성대학, 감리교 신학대학 선교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1982년부터 목회사역과 특수목회를 하였다. 1992년 강서교회소속으로 중국선교사로 파송되어 연길에서 장애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복지원을 운영하였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의 열정은 있으나 선교의 경험이 없기에 그동안 수많은 선교지에서의 실수와 부족함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만은 부정적인 면을 보기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옛 속담에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듯이 선교지마다 사정과 형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파송되어 활동하고 있는 선교지에서 한국식으로 선교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서는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송한 한국의 교회에서는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압력을 가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선교 비를 제대로 보내지 않으므로 선교지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㉞-7 미주기독교의료선교협의회를 통한 의료협력선교

전희근 / 미주기독교의료선교협의회(KAMHC) 회장



서울의대를 1960년 졸업하고 미국에서 방사선과 의사로 있으면서 다수의 의료선교로 헌신하였고 현재 은퇴하고 Fuller 신학대학원에 의료선교학 외래 조교수로 있으며 미국 내 기독교인들이 협력하여 더 효율적인 의료선교를 펼칠 수 있도록 미주기독교의료선교협의회(KAMHC)를 창설하고 회장으로 있다. Interserve USA 이사이며 KWMC의 부의장이다.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에서 은퇴 장로로 봉사하고 있다.

의료 선교는 복음 전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실제로 의료선교의 행적을 보면 너무나 미약하다. 전 세계적으로 의료 선교는 전체 선교의 약 4%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에는 2007년도 보고에 의하면 2%가 채 되지 못한다. 터무니 없이 미약하다. 의료선교는 얼마나 해야 되는가. 그 목표나 기준이 있는가. 의료 선교는 전체 선교의 25%는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복음전도에 약 75%를 쓰셨고 의료에 25% 정도를 쓰셨다.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의 발 자취를 쫓아 25%는 의료 선교를 해야 옳다.

25%의 목표를 위하여 다음의 몇 가지를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된다.

1. 의료사역 종류의 확대, 2. 비의료인의 의료선교 참여, 3. 은퇴 전문인들의 동원,
4. 한인 이민자들의 의료선교 참여, 5. 의료인제자 양성, 6. 의료선교사 발굴

㉞-8 의료선교의 효율성

이상천 / 산부인과 전문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군의관으로 수도권군통합병원에서 마취과 교육 후 3년간 수술실 복무 후 도미, 미시간에서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얻음. 1995년부터 단기의료선교를 시작하여 케냐, 방글라데시, 몽골 등지에서 사역을 함. 미한인연합감리교회연합회 몽골선교후원회 부회장으로 2003년 선교지 개척당시부터 역임하고 있으며, 평신도선교협의회 홍보담당, KAMHC(한미기독교의료선교회) Board member이다.

의료 단기선교는 장기복음선교의 유용한 수단이다. 의료사역을 통해 선교지 주민들과 깊은 접촉이 가능하고, 때에 따라 선교사의 안전에도 기여한다.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역일수록 의료 서비스를 환영하기 때문이다. 선교지에 따라 지역에 한정된 특수한 질환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적인 자원을 쓰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의 큰 고통을 덜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널리 보여질 것이다. 특히 미국의 Health Care system과 연결하면 많은 resource가 동원되어 선교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간혹 자연적인 환경이나 특수한 유전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으며, 국제기구와 연결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삼중적인 협조가 가능할 것이다.

㉞-9 21C 효과적인 의료선교전략

손영규 / 중국누가운동본부 대표

총회세계선교회(GMS) 의료위원회 실행총무이며 중국누가운동본부 대표인 손영규선교사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과 경희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의학박사(Ph.D.)/이비인후과 전문의/노인병인정의이다. 또한 미국, 삼라대학교 대학원에서 한의학석사를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에서 치유선교학을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연구과정을 거쳤다. 미국,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신학석사(M.Div.,Th.M)을 거쳐 목회학 박사(D.Min)과정 중에 있다. 주요활동으로서 경희의대 및 한림의대 이비인후과 외래교수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교수와 총신대학 학부 강사를, 한국누가회 이사장/WEC 한국본부 이사 역임하였다. 중국, 연변대학 복지병원 교육부장(의료선교사)로서 각종 의료선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제10차 의료선교대회(한미 국제대회) 대회총무를 역임하다. 주요저서에 공동저작 <음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생로병사, 그 신비를 벗긴다> 와 <한국의료선교의 어제와 오늘> 등이 있다.

주님의 주요 지상사역(마9:35)과 같이 한국 개신교의 전래와 발전도 교육사역, 교회개혁 및 신학교 사역 그리고 의료사역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특히 구한말, 기독교 탄압이 극심했던 시기에 의료를 통한 간접선교는 효과적인 전략이었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다. 의료선교에 있어서 오늘날에도 양의학의 통틀 의료선교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선교 현지에서의 운영과 효율성에 대해서는 고비용 저효율적인 면이 많다고 본다. 이에 비해서 한의학의 활용은 보다 저비용 고효율적 면이 많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21C 전략적 의료선교는 양/한방을 모두 활용하는 구조, 즉 병원을 통한 양의학적 의료선교 구조는 전략적 위치에 두고, 클리닉 같은 구조는 한방을 위주로 하여 많은 일선 지역에 전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문제는 한의학의 기독교적 조명과 많은 한의사 수급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보고는 '21C 효과적인 의료선교 전략'으로 "한국에서 중국을 통한 세계의료선교 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

㉔-10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 - 나를 통한 총체적 선교

최순자/M.O.M. 선교회 대표



MOM (Messengers of Mercy) 선교회는 주위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들과 평신도의 재능을 사용하여 해외 선교사들을 지원하고자 1996년에 설립되었으며 최순자 소아과 전문의가 대표로 있으며 최대표는 의료 단기선교 여행을 70여회 이상해 오고 있다.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다.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참여해야 하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이다.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선교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이제는 각자 다른 재능을 가진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총체적인 선교에 참여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의 모델은 예수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께서 하신것 처럼 몸 (body), 영혼 (soul), 영 (spirit)이 복음으로 회복되는 전인적 (Wholistic)이며 총체적인 사역(Holistic mission), 즉 인간의 정체성 회복, 관계 (사람, 하나님, 환경)회복, 사회와 교육, 경제, 문화, 의료, 복지, 자연환경등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경적 지역개발과 함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총체적 선교가 되도록 우리 모두 동역하며 network해야 될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겸손하게 세계선교에 참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본 세미나를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 각자의 달란트가 선교현장이나 후방에서 선교의 도구로 활용될수 있도록 도전 받고 각 개인에게 향하신 각기 다른 하나님의 선교비전을 발견할수 있기를 바란다.

㉔-11 새생명을 구하는 곳에 영혼도 구할 수 있다

이인숙/구생회(求生會) 회장



구생회를 1999년에 창설한 이인숙 회장은 '생명을 구하는 곳에 영혼도 구할 수 있다'라는 표어로 국내 저소득계층 및 독거 노인 대상으로 지속적인 의료봉사 및 위생교육과 구제봉사활동을 실현해 왔다. 세계 열악한 지역에 구제 약품 전달을 시작으로 9년여간 진행되어 왔으며 실천적 의료봉사활동 및 위생교육과 의약품 전달을 통해 예방의학을 발전시키고 사람들 모두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교단(이단은 제외) 상관없이 회충약을 무료로 드리는 미국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뉴욕, 버지니아, 오하이오, 버지니아, 샌디에이고, 호주 시드니 지부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NGO로 등록 인가 (2006.12)되었으며, 회원의 구성은 기독교인이 약 85%, 그 외 카톨릭, 불교, 무교인 들로 구성되어 활동하는 봉사단체입니다. 구생회에서는 구충약을 필요로 하는 모든 열악한 세계 여러지역에 봉사를 하시는 선교사님들께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국내와 해외의 어려운 곳을 방문하여 혈압 당뇨부터 시작하여 외/내과 진료, 한방진료(체침, 수지침, 부황, 지압)와 미용 봉사를 하고 있으며, 약 60여명 이상의 회원 분들과 함께 한 달에 1회 또는 2회 이상 참여하고 있습니다. 폭넓은 봉사활동을 위해 구생회에서는 교육센터를 운영중입니다. 영어, 일본어를 비롯하여 라이프코치, 유전자상담사, 심리상담사등의 교육사업을 회원분들께 지원 하고 있습니다. 봉사 받으시는 곳에 경제적인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봉사시에 이루어지는 모든 경비 및 식사비 일체는 구생회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구생회에서는 구제 사업으로 필요한 의류, 학용품, 가방 등을 회원들께 모아서 낙후지역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㉔-12 북미주 몬트리올 외항선원 의료선교 전략

김광오/몬트리올 외항선교센터



몬트리올 연합성서대학 학장이며 의료선교사인 김광오목사는 KPCA 캐나다노회 선교사이기도 하다. 1997년부터 몬트리올 외항선교센터에서 선원목회와 의료선교사로서 봉사하고 있다. 경희한의대, 구 엘프대학 인공수정 연수, 사스카추안 대학 재활의학인턴, 국제 한의대 한의학 박사, 맥길대 신학사 및 석사 과정을 거쳤다. 캐나다에 한의술 보급과 외항선원들을 무료 진료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과 캐나다 한인상을 수상했다.

우리 팀 사역자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사역하고 있다. 첫째로 선박방문의 활성화인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선원 목회 상담과 의료선교의 주된 임무이다. 의료인이자 목사인 저는 아픈 사람을 선박 또는 진료소에서 치료해준다. 때로는 기도하고 예배도 인도한다. 우리는 선원들을 센터로 데려와 피로를 풀게 해준다. 선원센터는 선원들에게는 변화된 환경에서 몇 시간만이라도 즐길 수 있는 "자기집과 같은 안식처"가 된다. 우리는 그들이 본가에 전화하고 당구, 탁구, 카드놀이하고 예배 드리고 다과도 들고 또 문제점도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뿐만 아니라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매년 약 15,000명의 선원들이 본 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그들은 80여 다른 국가에서 오고 있으며 50여개의 언어로 말하며 종교의 배경도 다양하다. 요컨대 몬트리올 외항선교는 "홈 그라운드에서 세계선교"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소이다.

㉔-13 이민교회와 실버선교

김재열/뉴욕중부교회 담임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이며 씨드, 킷넷 선교회 이사인 김재열 목사는 총신대학교 대학원 합동신학 대학원 졸업하였으며 뉴욕 실버 미션 회장으로 이민교회의 실버선교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시작하는 말 -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은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은 고령 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로 UN은 규정했다. 한국과 미국은 현재 추세로 볼 때 각각 2022년, 202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예상. 미국의 장수촌이 어디인지 아는가?

1. 이민교회와 실버선교의 필연성 - 미주 이민교회의 현실 ;
2. 이민교회와 실버선교의 가능성 - (1) 사회적인 여건 (다민족 다중언어와 다국적 문화에 익숙하다; 한평생 축적된 신앙과 전문직을 활용할 수 있다; 강인한 정신력과 개척자적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 최소한의 생활 보장이거나 연금이 보장돼 있다) (2) 신앙적인 여건 (직 간접 선교 사명과 훈련에 익숙하다;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모범적인 위치에 있다; 인생의 중반 이후를 보람있게 살기 원한다)

3. 실버선교의 현실 - 시카고의 경우 ; 1999년 설립, 뉴저지의 경우 ; 2002년 설립, 뉴욕의 경우 ; 2004년 설립
4. 실버선교의 축복 (시편71:18) - 하나님이며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㉔-14 실버선교사와의 협력방안

정운길/실버선교훈련원 원장



미국 실버선교훈련원 원장이며 헬로쉽교회에서 협력목회를 하고 있는 정운길 선교사는 춘천교대, 연세대 교육대학원, 오글라 호마 대학원, 달라스 신학대학, 리버티 신학 대학을 졸업하였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영어교사로 30년을 보냈으며 1992년 남서울 교회 파송 태국 선교사로 헌신하였으며 태국 복음신학교 교수, 방콕국제학교(GP 소속) 교장으로 활동하였다.

1. 실버선교회의 연혁
2. 실버선교회의 필요성
3. 실버선교회와 현지 선교사와의 협력 방안
4. 실버선교사의 필요지역 확인과 필요한 실버선교사의 요청지역 확인
5. 현지 선교사들의 실버선교회에 기대 및 요청 사항

㉔-15 전문인선교훈련

이현정 / 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UBF) 한국대표



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UBF) 한국대표이며, 한국복음주의 협의회 총무로,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실행이사회 부회장으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는 이현정 목사는 전북대학교, 개혁신학교, 연세대 연합신학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전문인 선교사는 자기의 직업에 종사하면서 선교하는 형태이므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열매를 맺는 전문인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선교훈련이 매우 중요하다. 전문인 선교의 성패는 선교훈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훈련과정을 통하여 어떤 전문인 선교사로 준비되는가 하는 것이 선교활동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 한국에서 전문인 선교사를 양성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관 중 대표적인 기관은 한국전문인선교훈련원(GPTI : Global Professional's Training Institute), 한국전문인선교원(GPI : Global Professional's Institute), 사랑의 교회 전문인 선교학교, 그리고 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 선교훈련원(UBFMTC : Unisersity Bible Fellowship Missionary Training Center) 등을 꼽을 수 있다. 각 기관의 훈련내용(과목), 훈련기간, 훈련목적, 목표, 방법 등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㉔-16 전문인 선교준비

양승봉 / 네팔 선교사



부산삼일교회 파송으로 1995년에 네팔의료 선교사로서 선교병원에서 십 수년간 활동하고 있는 외과전문의인사인 양승봉 선교사는 부산대학교 졸업, 뉴질랜드 성서대학 수료, NZ Carey Baptist College 에서 수학하였다. KBS 특파원 현장보고서 [네팔 가난한 자들의 희망], KBS 한민족 리포트 [네팔의 생명전선 지키는 한국인의사양 승봉], CTS [내가 매일 기쁘게] 등 한국의 대표적인 방송프로그램을 통해서 그의 활동이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코스타를 비롯한 각 선교대회에서 선교의 도전을 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네팔 이야기>와 <나마스떼 닥터양>이 있다

전문인 선교사는 자기의 직업에 종사하면서 선교하는 형태이므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열매를 맺는 전문인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선교훈련이 매우 중요하다. 전문인 선교의 성패는 선교훈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훈련과정을 통하여 어떤 전문인 선교사로 준비되는가 하는 것이 선교활동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 한국에서 전문인 선교사를 양성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관 중 대표적인 기관은 한국전문인선교훈련원(GPTI : Global Professional's Training Institute), 한국전문인선교원(GPI : Global Professional's Institute), 사랑의 교회 전문인 선교학교, 그리고 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 선교훈련원(UBFMTC : Unisersity Bible Fellowship Missionary Training Center) 등을 꼽을 수 있다. 각 기관의 훈련내용(과목), 훈련기간, 훈련목적, 목표, 방법 등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㉔-17 선교의 제4물결

황규만 / 세계전문인선교회 실행총무



세계전문인선교회 실행총무로 사역하고 있는 황규만 선교사는 홍신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WEC 선교회 소속 미얀마에서 4년 사역간 사역 하였으며 전 사랑의 교회 파송 OM선교회, WEC 선교회 소속 선교사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1. 선교역사를 통하여 본 선교의 물결들(Mission Perspective 랄프 윈터)
2. 3 시대의 선교역사를 통하여본 간추린 소고
3. 선교의 제 4물결: 21세기의 선교대안이 전문인 선교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4. 선교의 제 4물결이 선교의 이전 3시대를 보완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점들
5. 선교의 제 4물결: 전문인 선교사의 가장 약한 취약점 및 보완 대책

㉔-18 NGO 사역과 선교

이모세 / 굿네이버스 베트남 지부장



베트남의 굿네이버스 지부장과 메콩개발기구 연구소 소장으로 사역하고 있는 이모용 선교사는 홍신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영국 에딘버러 Faith Mission Bible College를 수료하였으며 베트남 인문사회 과학원 석사과정(MA)을 취득하였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세상은 날이 갈수록 선교하기가 더 힘든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선교비자를 중지하고 있으며 선교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이 점점 더 살기 힘든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구 환경의 문제, 인구 폭발과 식량위기의 문제(기아의 문제), 민족 간의 분규와 지역갈등의 문제,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제격차의 문제, 문명의 충돌의 문제-종교 간의 갈등과 극단주의자들의 테러의 위협, 에너지 고갈의 문제 등 이제는 한 국가나 지역에서 해결할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많은 문제들이 국가와 민족을 넘어서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 역시 전 지구적으로 해결하려는데 초점을 맞춰야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객관적 상황 속에서 우리의 선교사역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 하고 있다. 선교역시 전통적 선교방식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다변화된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그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선교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 오늘날의 현실은 선교사역을 수행하면서 선교사역이 선교 현지에서 단지 복음 전도에 그치지 않고 앞에서 이야기 한 많은 문제들에 대한 대담도 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이 글은 'NGO 사역과 선교' 라는 주제를 가지고 현대 선교의 한 패러다임으로서 선교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는 동시에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은 선교전략인 NGO를 통한 선교 또는 지역개발을 통한 선교 전략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㉔-19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영양프로그램

비공개

㉔-20 전문인선교로서의 IT선교

켄 안 / FMnC(Frontier Mission and Computer USA) 대표



FMnC, Frontier Mission and Computer USA 대표인 켄 안 선교사는 IT Christian Mission Conference 총괄총무, IO-PEN Film Festival 총괄총무, Mongol Global Leadership Center 미주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Computer Science MS를 수료하였다.

21세기의 선교는 전문인 선교다. 또 그 많은 전문인 선교중에서도 21세기에 새롭게 각광을 받는 분야는 IT 선교이다. 예수 탄생후 2,000년여동안 한번도 시도해 본적이 없는 이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이 태동된 지 불과 6-7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선교지에서 가장 효과적인 새로운 선교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새롭게 시도되는 선교 패러다임이므로 계속 여러모양으로 실험되는 단계이고 사실 정착된 것은 많지 않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6-7년이란 짧은 기간동안에 벌써 시도되어가고 있는 형태를 보면 선교를 위한 정보 수집, 정보 제공, 기술 개발 등을 들 수 있겠다. 이것은 IT 를 선교에 유익하게 이용하는 간접 선교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지 대학 및 컴퓨터 센터등에 컴퓨터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현지인들에게 직접적인 복음 전파를 시도하는 형태는 직접 선교 형태로 볼 수 있다. 또한 선교의 또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인 현지인 선교사 양성 훈련속에는 반드시 컴퓨터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IT가 거의 모든 분야에 지배하고 있고 특히 대부분의 선교지에서는 국가적 과제가 IT 인 나라도 많고 현지인들이 IT 를 배우려는 욕망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영성 교육과 전문인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새시대의 새로운 무기를 갖추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인 선교로서의 IT 선교는 이제 정립되어 가야 한다. 여러가지의 실질적 사례를 두고 복음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논하고자 한다.

㉔-21 전쟁의 폐허 속에 피어난 무지개 시각장애학교

조성덕 / 아프리카 선교사



1988년 한국 기독교 장로교 전복 노회 파송으로 아프리카의 분쟁지역에서 여성 홀몸으로 수차례 추방과 목숨의 위협에 시달리면서 사역해 온 조성덕 선교사는 곳곳하게 함께 살아주는 것이 선교라는 믿음으로 현재 무지개 시각장애학교를 세워 이제 지역으로부터 인정받는 사역을 펼쳐가고 있다. 국제 희산 소속 Handicap Initiative Support and Network이다.

㉔-22 제3세계 장애선교를 통해 본 장애선교의 본질과 비밀

김흥덕 / 조이장애선교회 대표



조이장애선교회 설립 및 대표이며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파송선교사인 김흥덕목사는 Westminster 신학교(Philadelphia) MAR/M.Div 와 Reformed 신학교(Mississippi) Th.M/Ph.D 을 마쳤다. 남가주사랑의교회 협동목사로서도 활동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애덤킹 희망을 던져라/세상에 눈멀고 사랑엔 눈뜨고 가 있다.

장애선교가 선교의 한 장르로 인정을 받지 못한 채 그저 간접선교의 한 방편으로만 취급받아오고 있는 실정이 못내 안타깝기만 하다. 과연 장애선교는 직접선교를 위한 간접선교의 한 아류인가? 이 질문 역시 성경을 통해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내놓으려고 애쓴 흔적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 다행히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장애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 사역이다"

라는 관점으로 장애선교를 성경적으로 규명한 바 있어 이제 막 장애선교의 선교학적 위치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본다. 필자의 논문의 요지를 잠깐 소개한다. 성경은 장애에 대하여 분명하게 다루고 있다. 성경은 근본적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은 어떻게 이 문제를 조명하고 있는지를 다루어야 한다.

㉔-23 한국 기독교 스포츠선교

이광훈 / 할렐루야선교교회 담임



할렐루야선교교회, 세계 스포츠 선교회, 할렐루야 축구단, 할렐루야 태권도단등을 설립하고 한국의 기독교 스포츠의 선교화를 위해 힘써 온 이광훈 목사는 피어선 신학교, 수도 침례신학교, 그리고 충신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2002년에는 월드컵 선교단 대표 단장을 역임하였으며 한인 세계선교 협의회 스포츠선교 본부장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개념의 스포츠가 자리 잡은 것은 1884년 갑신정변 이후 서구 문명을 받아 드릴 때 부터이다. 1884년 갑신정변 이후 선교사들의 입국과 더불어 설립된 각종 기독교계 학교들은 복음전파와 새로운 서구 체육문화를 수용하는 계기를 가져왔다. 이들 기독교계 학교 가운데 최초로 배재학당은 선교사들의 지도 아래 근대 스포츠를 과외 활동이나 특별활동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1891년에는 교과목이 개편되고 체조가 교육과정의 한 부분으로 설정됐으며 매일 1교시 30분을 체조시간으로 할당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립된 여학교인 이화학당에서는 초창기엔 체육관련 과목이 없었으나 1982년 페인이 교장으로 부임한 후 체조 과목이 개설됐다. 그러나 당시 이화학당의 체조교육과 관련해서는 완고한 보수층의 반발이 아주 심했고 사회적 윤리문제 로까지 비약돼 큰 말썽이 생기기도 했다.

㉔-24 중앙아시아 이슬람권에서의 비즈니스 선교

방대식 / 우즈베키스탄 선교사



우즈베키스탄 사역자 연합회 회장과 에버그린 국제 학교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방대식 선교사는 1997.8.3 GMS/SEED International 우즈베키스탄으로 파송되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충신대학교 졸업하였으며 RTS D. Min in ICS 과정 중에 있다. 대표적인 사역으로 S 지역 교회 및 컴퓨터, 언어훈련센터 운영을 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현재 약 22만 명의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1991년 우즈베키스탄의 독립을 전후로 많은 선교사들이 우즈베키스탄에 들어와 사역을 하기 시작했다. 선교사들의 대부분은 '한국인 선교사'였다. 선교의 붐이 강하게 일던 90년도 초 중반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은 '고려인'이라고 하는 같은 얼굴, 같은 피를 가진 동포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고려인들을 중심으로 한 사역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십 수 년이 지난 2008년 현재 그 사역의 열매들이 우즈베키스탄 여러 지역에 남아 있다.

2002년 11월 1일 기준 발표된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의 우즈베키스탄 종교기관 등록 현황에 따르면, '고려인 개신교회'의 국가 등록 숫자는 60개로 보고하고 있다. 최근 3-4년 동안 우즈베키스탄에서 100명 이상의 선교사 추방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선교 계획은 계속되고 있다.

㉔-25 첨단기술을 통한 선교전략

박영희 / World Vision Seminary



조이장애선교회 설립 및 대표이며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파송선교사인 김흥덕목사는 Westminster 신학교(Philadelphia) MAR/M.Div 와 Reformed 신학교(Mississippi) Th.M/Ph.D 을 마쳤다. 남가주사랑의교회 협동목사로서도 활동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애덤킹 희망을 던져라/세상에 눈멀고 사랑엔 눈뜨고 가 있다.

The Starting Point - 1907년 한국의 평양대부흥 운동의 100주년을 맞이하는 2007년5월 신앙의 열정과 열심은 있으나 정작 필요한 말씀 교육이 빈약한 중미의 원주민 목회자들의 계속 교육과 신학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중미 여러국가의 한인목회자들과 현지 한인선교사님들의 요청과 북미 CGN-TV의 협력으로 위성방송을 통한 신학 교육의 실현을 보게되었다. 2008년 1월부터 마춤교육의 일환으로 매주 3 시간씩 한국 선교사님들과 원주민 목회자들의 지도하에 Spanish 로된 신학교육 프로 그램이 현재 8개국에서 위성으로 방영되고 있다. 선교사역에도 첨단기술을 통한 위성선교의 방법을 활용하는방안을 모색하여 현재 실험중에 있다.

㉔-26 자비사업을 통해 선교확장

김정택 / 중국 선교사

경력 14년의 건강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과 특별히 해야 할 일등에 장애를 받지 않고 잘하고 있는 김정택 선교사는 자비량하는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일해 가고 있다.

미래의 활동의 영역을 넓히는 데는 지원과 후원만으로는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일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벌어서 해결하는 대안도 하나의 방법 일 수 있음.

㉔-27 자립선교의 방향 모색

손철/에콰도르 선교사



에콰도르 선교 사역 21년째인 손철 선교사는 에콰도르 하나님의 성회신학 졸업하였으며 에콰도르 퀴토 순복음교회 담임하고 있다.

1. 에콰도르 선교 20 년
2. 선교사의 본질과 역할
3. 지역 특성 조사
4. 자립 자전 자치
5. 교체 혹은 이양

㉔-28 전문인선교 (미용선교를 중심으로)

이정순/미용 선교사



아름다운 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미용선교대학 학장인 이정순 대한 감리회 목사는 웨슬리 신학분교장, 칼로스 원어연구원 석사학위, 21C부흥사 연구원 과정을 졸업하고 일본 야마노 아이고 미용대학을 수료하였다. 성신여자대학원 피부, 비만학과 석사과정에 있으며 탈모전문클리닉, 메이크업, 건강 관리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세계 기독교 미용선교회 지도목사로서 미용을 접목점으로 한 선교의 강점을 외치고 있다.

미용인으로 30여년 이상 실무에서 종사해 오고 또한 목사로서 12년 신학원을 4년 정도 운영해 왔습니다. 일반 평신도로서 18년을, 목회자로서 가르치면 전도하기를 12년 봉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 했을 때 전도의 효율성과 반복적인 만남이 결실 하는데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저 외에 다른 미용인들이 성령 충만 하여 일하면서 사역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1년에 800명을 교회로 인도 하였고 어느 지역 미용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빛 진자라 하여 1달간 미용실에 오는 모든 손님에게 무료 파마를 해주면서 교회 가기로 약속을 받고 전도를 했는데 주마다 45인 승 대형버스를 대절해서 교회로 모시고 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선교를 하기에 좋은 직업이 아마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미용을 전혀 모르는 선교사님들도 미용을 사람 만나기가 너무나 좋은 직업이라고 말씀 하십니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와서 복음을 거부하는 나라가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전문적인 훈련이 된 사람들이 있다면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전 가운데 전문훈련기관인 미용과 신학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㉔-29 한꿈학교

정인숙/한꿈학교 교목실장

스 7에서 한꿈 학교에서 교목실장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여러 탈북청소년들을 기독교 정신으로 교육하는 삶을 살고 있다.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 도피한 자를 열방 곧 다시스와 빨과 활을 당기는 룯과 및 두발과 아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포하리라"(이사야 66장 19절)

여러 경로를 거쳐 한국에 들어온 미래 통일 한국의 소망인 탈북 청소년들을 기독교 정신을 기초로 온전한 인성을 겸비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동체 생활을 기반으로 다양한 취미활동과 봉사활동을 경험하며, 검정고시 중심의 기초 소양 학문을 배양 시켜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영어와 제 2외국어와 컴퓨터를 교육하여 국제화 시대의 조류에 발맞추게 하며, 더 나아가 한국 사회의 올바른 정착은 물론 분단을 회복 시키며 통일을 이루는데 기여할 인재를 양성해 나아갑니다.

㉔-30 Mission to US Army

고흥석/U.S. Army Chaplain



Graduated Fordham University (NY), B. A., Philosophy,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PA), M. Div., Clinical Pastoral Education (CPE), Erskine Theological Seminary (SC), D. Min Candidate, Experience: U.S. Army Chaplain for 14 years, Served in Korea, Germany, Ft Lewis(WA), Ft. Meade (MD), Water Reed Army Medical Center (DC)

As a chaplain I truly feel that I am following Christ's incarnated ministry. I go where my soldiers go, I sleep where they sleep, eat what they eat; experience with them all tht they experience. God has given me an opportunity to make the great impact on people's lives. Slodiers assigned over 100 countries. Chaplains will get the opportunity to not only go and but to reach out, connect and servre in all those places. God used the chaplaincy to challenge me and overcome a narrow minded way of thinking, to experience a broader world and ministries to meet all kinds of spiritual needs. It has been a golden and divinely given opportunity for me to become more than I thought I could ever be and see the greatness of God's power and presence through it. This mionistry absolutely reminds me about Christ's incarnated ministry. It is such a blessing to feel like I am literally following my Lord's footsteps.

㉔-31 Spiritual Warfare in US Army Mission in the midst of WAR 고흥석/U.S. Army Chaplain

"As a chaplain our ministry is more than phisical warfare. It is the Spiritual Warfare in the midst of our Global War against Terrorists." - US Army Chief of Chaplains (Major General) Douglas Carver "The Christian life, in the first place, is a warfare, it is struggle 'We struggle'. ...we are strangers in an alien land, that we are in the enemy's territory. The teaching of the Bible throughout is that this world in which we live is a battle-ground, is a place in which we literally have to fight for our souls, to fight for our eternal welfare. The business of the Christian Church is to get down to the root cause of the trouble." - D. Martyn Lloyd-Jones from The Christian Warfare, An Exposition of Ephesians 6:10-13 "The formular for healing the war-wounded soul is simple; surround trauma with soul. Its application may be the most difficult and important work we ever undertake. War stamps the soul with an indelible imprint and makes it its own. The soul that once went to war is forever transformed." - Edward Tick, Ph.D. , War and the Soul.

㉔-32 영양공급을 통한 섬김

권순영/영양 선교사

제6차 한인세계선교대회 참가선교사

● 아시아

대만

김디모테	2002/06/27	기감
윤재경	2003/03/04	대신총회
이상란	1988/08/27	기감
이진희	1984/09/20	GMS
임춘식 임연희	1991/06/01	
채희석	2002/08/31	기침
최은찬 신재희	2003/12	PCK

마카오

권종덕 박귀자	1993/11/03	예장통합
---------	------------	------

말레이시아

김병선	1984/02/21	GP선교회
백기현 김영란	2000/05/04	기감
이금주	1989/11/02	기침

몽골

김세순		
김수영		
김기복 오미경	2002/07/25	대전영락교회
문현분	2004/04/08	기감
안광표	2000/02/20	예장통합

방글라데시

이득수 조은숙	1994/12/24	GMS
이영숙	1997/06/22	GMS
장순호 민은주	1984/04/19	기감/KDAB
류수해	2002	UMC/KDAB

스리랑카

김제용	2000/04/29	GMS
민홍기 심혜진	1999/02/22	
이수규 김옥자	1992/12/17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전병권 박소희	2003/04/13	기감
최도식	1989/06/01	예장통합
최재영 김경희	1991/09/01	GMS

싱가폴

김종석 정춘덕	1995/07/04	외향선교회
노효정 김희정	1998/08/16	예장통합
이은무 박대련	1976/06 GP	
황창선	1992/10/25	예장통합

싸이판

김정남 서정남	1988/12/21	GMS
이명택 김신애	1990/09/07	기감

요르단

공일주	1998/01/31	명성교회
정형남	1989/09/07	GMS

이스라엘

김용식 서경희		기감
---------	--	----

인도

김대균	1992/04/01	기감
김미경	2008/09/03	국제전문인선교회
김봉식	1995/11/07	GMS
김성자	1986	한신교회
김종엽 김혜정	2005	부산동부삼일교회
김종진	2000/12/28	GMS
김태엽 오현주	2003/10/03	GMS
박광수 최성자	1988/01/19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배정희		
안봉기	1994/12	WBM선교회
우도선	2006/03/26	GMS
이명준 문성희	2003/08/31	기침
이병구 김수정	2002/12/15	GMS
이병성 김미선	2004/04/27	기성
이상기 박정숙	1997/03/15	서울은현교회
이용범 노은경	1985/11/01	예장통합

이우영	2006/03/19	GMS
임은영		
정윤진	1980/12/02	GMS
조은호 오경희	1996/03/24	GMS
조준희 송지영	2002/11/29	예수전도단
조효석 송정숙	1999/08/19	기감
최성애	2000/07/20	
한경식	2008/03/26	GMS

인도네시아

김길환 이은하	2008/01/03	두란노해외선교회
강신호	1991/01/26	Borneo for Christ
김덕수 진미숙	2003/06/25	기감
김동찬	1991/05/22	예장통합
김상현 이은경	2003/04/27	예장통합
김종련 김미영	1992/11/13	예장통합
김종성 명윤영	1994/10/09	인사이드스/ GMS
김충환	1992/12/16	예장통합
박보애	1991/05/01	예장통합
박성오 고맹례		
서성민 김희수	1992/11/13	예장통합
송광옥	1990/01/07	예장통합
안성원 조은숙	1984/02/27	GP선교회
양춘석 박정렬	1994/12/04	GMS
어성호		기감
정동일		

일본

박영기 김미영		
신복규 김양근	1992/02/23	GMS
아마노 에스더 리에		
전형구 이인숙	1992/11/15	예장통합/바울선교회

태국

강송춘	2000/08/06	GMS
김성희 함옥자	1990/05/07	GMS
김정우 이순교	1976/09/10	GP선교회
김주만	1998/03/02	예장고신
김홍광	2000/04/29	국제기아대책

배종원 이은순	1992/05/07	GMS
신영선	2002/08/02	WMP & SEED
신홍식	1971/06/14	
심미연	1998/01/04	여의도순복음교회
오세관	1990/12/21	기감
장병조	1988/10/10	바울선교회
장성천	1997/05/04	GMS
장순호 정광숙	1996/04/26	신반포중앙교회
최승근 이소민	1999/02/10	예장통합
최찬영	1956	예장총회
최철만 신영자	1989/04/05	늘푸른순복음교회
홍경환 이미라	2002/07/06	예장통합

필리핀

고수영 최희진	1999/02/19	예장합동
김남수	2008/02/08	예장통합
김복지	1998/05/13	기아선교단
김선옥	1991/11/10	대구문화교회
김옥경		
김용우 김정옥	1998/07/18	예장통합
김은숙	2007/01/11	예장통합
김종태 오향문	2003/05/18	기침
노순자 임을재	2000/10/01	도마선교회
마서진 마승원	1998/06/01	
박경미	2008/01/08	국제필그림선교회
박기호	1981/03/22	GMS
박명희	2007/12/20	제자들선교회
박정화	2008/02/06	예장통합
박헌남		
배순영	2001/01/09	기성
상영규	1996/01/09	GMS
손은주	2004/05/10	예수제자운동
송성룡	1989/07/01	기하
신기대 임은희	1998/10/20	GMS
신승철	1998/02/28	예장대신
안옥희	1998/04/01	합동정통
양남규	1992/11/10	제자들선교회
양정용 김신자	1997/03/02	지구촌선교공동체
유철주 김은영	2004/06/26	예장합동정통
이광수 전귀순	1988/08/16	기침

이교성	김경자	1989/05/20	예장통합
이병설	김혜진	1999/04/01	기감
이성덕	윤은경	1994/07/15	기감
이영관	이규슬	2003/01	위클리프
이영석		1986/12/19	대전중앙침례교회
이의호		2007/08/11	할렐루야교회
이중언		2008/20/01	성복교회(서울)
임을재	노순자	2000/10/01	도마선교회
임향숙		1992	나사렛선교회
장상운	이명순	1991/01/08	바울선교회
장순현	신선희	2002/02/25	예장통합/장신선교
전봉주		1988/11/27	GMS
정대섭	김정	2001/03/26	기침
정동섭	김순남	2001/01/10	한밭제일교회
정봉심		1993/01/01	
정순성	손은경	1990/03/11	예장고신
정용기		1995/12/15	기침
정장환	이혜경	2001/03/01	완도성광교회
차훈		2005/02/01	예장통합
최근호		2000/11/27	GMS
최용희	김명희	1996/12/13	기감
최희진	고수영	2007/09/02	예장합동
한기역		1993/06/30	기감
한도수	서인숙	1986/09/14	바울선교회
황성태	전형심	2002/10/04	기감
한국			
강대홍	황정신	1987/11/25	
강승삼			KWMA
강영철	강희영		GMI
김경환		2004/11/06	GMS
김민영		1998/10/01	세계등대교회
서기원		1998/02/20	
서정호			KWMA본부
신방현	김은희	1987/10/15	예장통합
신중수		2001	우광선교회
윤춘식		1990/04/01	고신총회선교부
이규동		1992/10/21	GMS
이영철		1996/07/01	예장통합
이요한		2001/01/02	CTS선교회

이용웅		1996/05/29	GP선교회
장순영		1994/10/03	예장통합
전철영		1997/05/11	GMS
정성진			
정용구		2008/01	예장통합
장향일			기감
장희성		2006/02	예장통합
조용중		1987/05/14	
최병국		1993/10/17	GMS
최을선		1980/06	GMS
최한우			
한정국		2001/01/01	MVP선교회
홍완지			
황태연	이춘선		
아시아 창의적 접근지역			
강 0수		2002	GMS
강 0석			합신세계교회
강 0수 정 0숙		1995	
고주몽		1990/04	기감
곽 0식		2002	현지선교사
구 0희 민 0순		1997/12/23	
권 0운 윤 0순		1995/02/18	여의도순복음교회
권 0주 권 0경		200/01/10	남침례교국제선교부
권 0봉		1995/06/20	GMS
김 0옥		2005/04	GMI
김 0일 박 0숙		1993/12/01	GMS
김 0일 이 0희		1992/09/17	GMS
김 0중 이 0의		2002/10/25	뉴욕컨츠장로교회
김 0호 주 0순		1999/01/29	기성
김 0배		1993/04	GMS
김 0린		2007/07	파이디온
김 0수		2008/02/05	WBM선교회
김 0호 강 0문		1996/09/12	기침
김 0숙 김 0규		2000/06/20	예장통합
김 0규 장 0숙		1992/11/13	예장통합
김 0순		2003/03/11	인터콥
김 0식			
김 0호		1991/07/17	은광교회
김 0수		1991/12/01	GMS

김 0교 한 0복		1987/10/27	예장통합
김 0식		1993/06/06	GMS
김 0호		1999/03/01	목양교회
김 0길			예장통합
김 0홍		1999	복음미디어선교회
김 0복		2003/02/01	두란노해외선교회
김 0광 장 0란		1993/10/15	주안장로교회
김 0동		1999/07/13	예장대신
김 0정 김 0래		199/06/28	예장대신
김 0관		1990/10/20	기감
김 0규 김 0숙		2000/06/20	예장통합
김 0화		2005/11/27	
김 0한 김 0희		1992/11/01	SEED
김 0문 문 0례			북방선교회
김 0영		1997/08/01	바나바선교회
김 0주		2000/12/10	GMS
김 0금		2008/09/01	WBM선교회
김 0룡 성 0숙		2001/04/29	GMS
김 0숙		2003/11/10	기성
김 0영		1991/05/01	오엠
김 0택 유 0희		1994/08/28	GMS
김 0한 박 0영		2001/04/30	GMS
김 0한 김 0실			
김 0자		2008/03/15	상도교회
김 0구		1995/11/21	빌리온선교회
김 0영		2003/03/17	GMS
김 0훈 정 0순		1999/03/28	GMS
김 0주		1993/06/01	
김 0관		2001/04/08	합신선교교회
김 0범			
김 0주 라 0주		1993/11/24	
김 0철 홍 0미		1997/09/28	GMS
김 0범 정 0옥		2001/04/29	기감
김 0도		1996/02/11	GMS
김 0희			
김 0정		2004/02/24	예수제자운동
남 0정		2002/03/18	GMS
남 0수 변 0자		1991/09/15	GMS
도 0환 전 0순		2000/05/12	예장통합
류 0수 배 0숙		1994/08/12	예장통합
마 0영 송 0순		2000/11/23	바나바선교회

맹 0균		1999/04/07	GMS
문 0식 김 0숙		1997/07/28	예장통합
박 0하		1995/08/08	기침
박 0화		2004/06/01	기감
박 0애		2008/04/01	영암교회
박 0진 마 0숙		2003/02/11	예장대신
박 0영		2008/02/08	
박 0환		1993/04	
박 0성		2008/12/05	헤브론교회
박 0수		1993/03/07	합신세계선교회
박 0길		2001/06/18	예장통합
박 0망			
박 0범			
박 0옥			예수전도단
박 0홍 서 0희		2003/02/04	총회세계선교회
반 0크 이 0심		2005/01/01	
방 0식		1997/08/01	SEED국제선교회
배 0홍 김 0혜			WEC
백 0종		2004/08/14	SEED국제선교회
백 0성 변 0정		1998/02/08	GMS
변 0선 장 0익		1994/08/08	GMS
변 0례 이 0희		1993/09/01	인터서브
서 0도 유 0신		1991/05/03	예장통합
성 0호 김 0숙			
손 0호 김 0자		1998/04/02	기감
송 0용 노 0숙		1989	기감
송 0섭 노 0현		2002/05/14	기침
송 0광 김 0숙		2002/01	예장통합
송 0호		2003/02/20	
신 0규			
신 0일		2002	현지선교사
심 0형		1997/02/23	GMS
안 0희 유 0국		1994/01/05	두란노해외선교회
양 0이		1998/07/01	WBM선교회
양 0환		1997/06	TWI
양 0민		1991/10/04	바울선교회
양 0봉 신 0희		1995/08/17	인터서브
오 0자		2000/04/01	합신세계선교회
오 0용		2002	현지선교사
오 0근 이 0금		2000/06/10	GMS
용 0망			

유 0국 안 0회	1994/01/05	두란노해외선교회	정 0영	2007/12/19	동안교회,세계기독교간호재단
유 0신 서 0도	1991/05/30	예장통합	정 0희		GMI
윤 0회	1997/08/27	합신세계선교회	정 0섭 김 0임	1995/02/10	예수전도단
윤 0한	1992	하나님성회한국지방총회	조 0원	2004	기하성
이 0호	2003/03/01	한국연안교회	조 0기 조 0흠	2005	신우세계선교회
이 0더	1995/04	기장총회	조 0문 진 0자	2002	기감
이 0동			조 0선 한 0섭	2000/0215	GMS
이 0종	2000/04/01	합신세계선교회	조바나바		
이 0순	2001/04/01	WBM선교회	조 0한	1995/01/06	예장통합
이 0순	2003/05/04	성석교회	주 0환		
이 0용 배 0회	1996/02/25	GMS	주 0영	2002/05/16	기감
이 0준	1995/03/02	아름다운선교회,한가족교회	차 0순		큰빛교회
이 0주	2001		채 0을 강 0희	1991/01/21	한국감리교회
이 0영			최 0봉 황 0순	1993/08/24	GMS
이 0회	2001/04/01	WBM선교회	최 0민 김 0자		
이 0신	1996/07	WBM선교회	최 0호	2000/07/01	히말라야종족선교회
이 0수	2004/04/01	호산나교회	최 0환	2001/09/01	합신세계선교회
이 0철		GMS	최 0국	1997/04/01	
이 0환 황 0심	1996/05/01	기감	최 0길 정 0영	1992/08/02	예장통합
이 0현	1997/10/20	GMS	최 0영 김 0희	1996/09/08	GMS
이 0훈	2006/03/20	MVP선교회	최 0자		
이 0회 변 0례	1993/09/01	인터서브	하 0강	2007/05	
이 0립 이 0건	2002/03/01	중국대학생선교회	한 0웅 안 0미	1995/02/04	예장호헌
이 0나	1998/03/01	GFC	한 0수	1998/02/01	사랑의빛선교회
인 0일		GMI	한 0향	1998/02/0	사랑의빛선교회
임 0락	2006/05/01	DFC 갈보리교회	한 0수 정 0연	2003/04/27	GMS
임 0혁	1997		한 0원	2001/02/01	소망교회
장 0익 변 0선	1994/08/08	GMS	홍 0구		GMI
장 0호	2005/04	하나선교회,일산영광교회	황 0현 김 0덕	1998/06/01	예장합동
장 0호 장 0경	2006/05/0	샘의로복지재단	동북 아시아		
정 0선		GMS	박 0일 박 0영	2005	미남침례교회
정 0용		동북아재단	이 0산 이 0희		
정 0호 윤 0신	1994/03/03	예장고신	이태홍 김수경	1995/02/25	PCK
정 0성	2003/01/09	LA온누리교회	최 0종 박 0수	2004/08/23	예장
정 0택	1991/10/09	기침	최 0호	1999/06/20	예장통합
정 0삼 정 0숙	2002	세계등대교회	황 0연 오 0영	1995/08/27	예장통합
정 0수	2001/01/08	기침			
정 0서 이 0란		기감			
정 0숙		기감			
정 0옥	1995/07/30	GMS			

전략지역

김 0를 김 0숙	GMI
노 0수	2006/07/07 동아시아선교회
문 0한	2006/07/16 동아시아선교회
손 0란	1989/06/06 GMS
안 0숙	1990/01/19 동아시아선교회
이 0란	1998/01/30 GP선교회
이 0위 이 0나	

● 아프리카

가나

김경술 김혜원	1992/05/10	총회세계선교회
이명석 최미애	2002/12/15	예장통합
정종근 김용희	1997/07/20	총회세계선교회

가봉

강경수 한보령	2006/06/11	대한기독교나사렛 성결회
---------	------------	--------------

감비아

박래수	2000/11/12	총회세계선교회
-----	------------	---------

기니

김여호수아	2002	
김진봉	1994/02/20	GMS/WEC

나미비아

임선희	1987/10/25	GMS
-----	------------	-----

나이지리아

강진숙	1994/12/15	GMS/SIM
이광윤	1988/10/14	바울선교회
전학진	1983/03/29	GMS/SIM

남아프리카공화국

김영무	1999/02/24	예장
김종우		
김주립	1999/04/01	기하성
김형규 김영애	1987/10/01	예장고신
김형주	2000/10/01	기성
배성호	2002/03/27	
이광제 박은숙	2005/06/08	아시아태평양복음선교회
이승환	1995/04/02	기감
최경선	1994/08/10	GMS

리비아

김희운	1989/03/07	에바다해외선교회
-----	------------	----------

말라위

손창덕 이분화	1992/10/16	합신세계선교회
---------	------------	---------

말리

안창호	1994/06/05	GMS
-----	------------	-----

모로코

허영희	1991/05/25	기감
-----	------------	----

모리타니아

권경숙	1994	예장총회
김희선	2008/10/06	목민교회

보츠와나

김해영	1990/02/01	그루터기선교회
브룬디		
안종렬	1992/06/21	예장통합
세네갈		
김형원 김희진	2004/04/18	기감
소말리아		
조성덕		

에티오피아		
염경섭 차남준	2004/02/01	GMS
우간다		
안병근 엄연섭	1989/11/10	예장통합
유건중 김향순		
이희성	2000/01/23	
최승암	1995/03/19	
이집트		
박용은	1999/11/14	기감
이병학	2000/02	예장고신
이석환	2002/04/15	기성
이준교 김수련	1979/10/31	GMS
탁수연 김미애		
하성일	2008/01/03	GMS
케냐		
강영애	2004/01/28	GMS
강인중 전선환	1987/09/02	GMS
김석수 목미향	1993/02	예장총회
김옥실	2005/05/30	예장통합
김찬경 이양자	1993/10/10	기성
라호균	2001/03/28	나성한인교회
목미향 김석수	1993/02	예장총회
박성기 영혜숙	1994/07/01	GMS
박세연		
박찬섭	2002/04/10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숙자	1992/11/01	예장통합
송충석 이형란	1989/02/14	기감
윤기철 윤춘자	2001/09/05	시카고연합장로교회
이경자		기감
이상석	1995/12/03	GMS
이순예	2001/09/01	행복한교회
이용범	1996/09/18	예장개혁
이은용	1991/09/15	예장통합
임연심	1982	기하성
임재찬		기감

정운교	1987/07/01	기하성
정제호 박미자	2001/11/07	
최명은	1987/07/15	GMS
탄자니아		
김선옥	1987/06/10	GMS
김영미	2005/12/28	인천제이교회
김용주 최경숙	1996/04/23	GMS
김정립		기감
백남일	1992/08/01	예장통합
이경희	2008/11/05	예수전도단
이미경	1998/04/08	예수전도단
이영권	1993/07/18	GMS
이은영	2007/02/28	창신교회
이재명 박성립	2008/04/03	기감
이진섭	1991/07/28	GMS/WEC
차영미	2001	기감연합
최철	1992/07/01	바울선교회
홍철 유진숙	1993/08/08	GMS

● 북미 / 중미

과테말라		
김상돈 신연월	1989/08/15	예장대신교단
나만식	2008/03	기아대책
민병문		예장통합
하덕신	2007/02/15	세계등대교회
홍근식	2001/07/28	기하성
도미니카공화국		
김성자 호세보바디자	1989/05/30	기감
김종성	1995/11/19	예장통합
서준석 채래진	2003/07/23	기감
송귀섭 심미희	1994/05/25	기감
최광규	1988/08/25	

멕시코		
강일영 고영주	2001/02/21	두란노해외선교회
김건용 조은영	1996/05/09	WEC
박영완	1993/08/15	GP선교회
성낙서 왕희성	2007/07	ICDF
이성균	1984/08/26	예장통합
이세련 정득수	1991/05/01	예장통합
정일균	2005/02/01	세계등대교회
최남용	1997/01	남침례교국제선교부
황성은 황귀순	2005/11/22	기성
미국		
Chan Annie		
고봉신		
고홍석	1994/12/16	한미장로교회
권종승 최미경	1996/09/01	물한그릇선교회
김미라		
김선근		월드비전신학교
김재익	2004/04/01	독립선교사
김판규		
김호성		
노대영	2005	MJD
민경훈		
배상호 배숙경	2008/03/01	오하나
백운영 박영은	1990/09/16	GP선교회
변손석		
송태승 성혜정	1995/02/26	
신종철	2007/04/26	
안강희 박성자	1984	CCC
에이브리엘		
오인숙		
이매경		
이명희		
이병범	2002/01/01	코이노니아월드선교회
이은주	2008/05/18	
이혜정		
장태전 윤인숙		
전미경		
정광수	2002/12/01	WEC

정바울 정수차		
정진권		
정화미	2002/12/01	
조종화 조혜선		
차귀선		해모선교회
최명자	2007/11/01	두란노해외선교회
최문섭 김명희	1996	브니엘선교회
최소영	2007	
최영은 김승희		
최지혜	2008/02/04	왕십리교회
켄안		
표세홍		
한영옥		
한옥희		
홍경희		
홍성집	1991/11/11	IMB
에콰도르		
손철		
엘살바도르		
박기창	2000/05/17	예장통합
온두라스		
박명하	1992/01/10	예장통합
캐나다		
김광오 김명자		미주한인장로회
김동승	1997/01/01	
김은희 신방현	1987/10/15	예장통합
김태형	2008/04/03	
윤기태 윤희숙	2007/07/01	위클리프성경번역
이정옥		
주희숙		
코스타리카		
강성필 이은경	1995/12/05	바울선교회
최용식 김윤자	2001/12/16	예장통합

베네수엘라

김재한 1989/03/25 GMI
정경석 1987

볼리비아

김이삭 정성화 1989/02/25 안산제일교회
남계영 이수미 1995/11/12 예장통합
문익배 조명숙 예장통합
이건화 김성재 1994/07/01 GMS
장형식 황정숙 2008/02/02 예장대신
최종례 1990/04/01 GMS

브라질

김운석 1997/03
이성전 이신숙 1990 기감
장길선 2006/05/20 총회선교회
최양숙 1991/12/12 GMS
홍성애 1985/06/11 GMS

아르헨티나

이광보
정현식 1987/05/20 GMS

칠레

이길소 기감

파라과이

곽성건 구생회
김기석 이명화 1993/11/03 예장고신
김영석 김옥주 1988/10/01 기침
김정진 1991 외향선교회
김진호 1992/12 고신
신현광 이미경 1998/07/11 예장통합
양창근 1991/01/20 GMS
이정건 박은주 1989/03/30 예장고신
임성익 1988/03/27 예장통합
임한곤 임길선 1989/08/19 GMS

정금태 이복래 1992 GP선교회/GMS
최도진 2005/04/05 기감

페루

김명수 오주엽 1990/06/10 예장통합
김태원 김성녀 2008/06/01 GMI
김현곤 2000/06/14 예장통합
박맹충 김선옥 1992/01/15 예장통합
박운수 박병순 1993/06/24 Adulam선교부
최락천 윤희정 2004/06/24 기감
황윤일 이구장 1985/03/31 예장통합

● 유럽

그리스

김수길 GMS
손영삼 이희경 1988/09/21 AFC

독일

김현배 서광자 2006/08/24 GMS
노광석 예장통합
육호기 1976 GMS
이성춘 1993 바울선교회

루마니아

이동성 조진영 1999/03/18 KMC/APGM

러시아

강성규 김덕희 1998/08/01 해외소련선교회
고준기 1996/09/01 방파선교회
김진은 김영자 2000/01/01 한국기독교선교원
박선자 1992/09/06 GMS
박정수 한숙자 1993/03/21 GMS

박형서 박안나 1991/12/15
손승원 정금자
송상천 1991/12/07
안순철 김윤희 1991/12/22
엘레나
윤미경 1992/11/01
이상길 박옥자 1992/12/20
이재영 황순향 2000/05/20
이정원 류영희 1993/06/13
이정근 이순자 2003/05/30
이희재 1994/11/27
임덕희 2007/02/01
장영호 1993/05/07
장인관 유연희 1993/05/01
전은수 길옥경 1996/04/07
전재천 안준상 1992/10/30
전호중 성애향 1996/03 기침
전희천 김정희 1993/07/07
정리안
정호상 정복연 1992/06/07
주경자
채규철 2002/08/01
최광순 1995/12/31
최진선 차춘순 1995/03/25

불가리아

김호동 배점선 1992 GMS

알바니아

김인철 2004 가나안선교회
김재정 2004 가나안선교회
이향모 윤경숙 1985/09/25 예장통합

영국

권정원 이춘자 로템나무
김문석
김성래 2003/03/01
박영은 1996/05/27 예장통합
이정아 2008/08/25 오웬

캐나다성결선교회
예장통합
예장통합정통
GMS
예장통합
필그림국제선교회
예장
예장총회
예장통합
WBM선교회
GP선교회/GMS

합동
예장순장

예장총회

예장통합
GMI

예장합동개혁
예장통합
예장총회

임장백 손은정
임춘자
황순자 1995/03/05 로템나무
GMS

우크라이나

강희영 2004/01/11 예장통합
윤상수 신재경 1991/12 GMS
임현영 오현주 2000/10/01 예장통합
장종일 강정애 1990/12/10 기감
홍윤주 2004/08/16 예장합동(미주)

이탈리아

이철준 박선희 2008/01/20

체코

유정남 1991/09/30
이종실 1993/11/24 예장통합

터키

권철 박혜자
김이내 1992/07/17 바울선교회
김진영 김은경 1994 SEED선교회
김홍일 김줄리 2004/08/11
박경한 2000/07/23 GMS
박정하 1991/01/08 바울선교회
배혜수 1996/02 중동선교회
윤태권 송정애 1990/05/01 합신세계선교회
이미숙 1992/02/10 기감
임금희
조영성 최인경 1987/04/02 GMS

폴란드

김헌종 임진 1991/09/01 예장대신

프랑스

고금자 예장통합
이극범 김숙희 1989 예장통합

헝가리

신성학 최성욱

● 유럽

뉴질랜드

김인태	2003/05/01	WBM선교회
팔라우 정상진	2000/03/16	예장통합

호주

하태식 정선	1993/10	YWAM
--------	---------	------